

(논문 V)

실체어로 존재 물음의 환원

[소피스트 편(플라톤), 형이상학 제타 편(아리스토텔레스)을 중심으로]

과정: 석사
학번: 95113-554
이름: 김 익성

(개요) 목차

1) 들어가기 ... 7

2) 존재(Τὸ ὄν)물음 ... 9

- 1-1) 파르메니데스 ... 9
- 1-2) 플라톤 ... 11
- 1-3) 아리스토텔레스(범주론과 형이상학) ... 15

3) 정의 ... 18

- 3-1) 플라톤 ... 18
 - 3-1-1) 무엇이나 ... 19
 - 3-1-1-1) 정의의 기준들 ... 19
 - 3-1-2) 정의 방법 ... 32
 - 3-1-2-1) 직관과 모음 ... 33
 - 3-1-2-2) 나눔 ... 36
 - 3-1-2-3) 결합(로고스) ... 45
- 3-2) 아리스토텔레스 ... 48
 - 3-2-1) 정의 ... 49
 - 3-2-2) 방법 ... 53
 - 3-2-2-1) 차이에 따라 나눔 ... 52
 - 3-2-2-2) 나눔의 조건들 ... 55
 - 3-2-2-3) 나눔에 관한 비판 ... 57
 - 3-2-2-4) 중간 항 ... 59
 - 3-2-3) 정의와 논증 ... 62

4) 존재와 실체(ἡ οὐσία) ... 68

- 4-1) 플라톤의 존재물음 ... 68
 - 4-1-1) 아포리아 ... 68
 - 4-1-1-1) 하나와 여럿 ... 71
 - 4-1-1-2) 기간토마키아(유물론과 이데아 론) ... 74
 - 4-1-2) 아포리아의 해결 ... 87
 - 4-1-3) 존재정의 방법들 ... 106
- 4-2)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 물음 ... 108
 - 4-2-1) 아포리아 ... 108
 - 4-2-2) 우시아 ... 124
 - 4-2-2-1) 정의 ... 127
 - 4-2-2-2-3) 우시아 ... 136
 - 4-2-2-2-4) 존재? ... 142
 - 4-2-2-2-4-1) 존재는 류가 아니다(정의 불가능) ... 142
 - 4-2-2-2-4-2) πρὸς ἓν ... 146

개요 목차

5)우시아로의 존재환원 ... 154

(세부)목차

1) 들어가기 ... 7

2) 존재(Τὸ ὄν)물음 ... 9

2-1) 파르메니데스 ... 9

2-2) 플라톤 ... 11

2-2-1) 존재물음(소피스트 편) ... 13

2-3) 아리스토텔레스(범주론과 형이상학) ... 15

3) 정의 ... 18

3-1) 플라톤 ... 18

3-1-1) 무엇이나 ... 19

3-1-1-1) 정의의 기준들 ... 19

3-1-1-1-1) 대상으로서의 이데아 ... 20

3-1-1-1-2) 모순율 ... 23

3-1-1-1-3) 우시아 ... 25

3-1-1-1-4) '중'의 구분들 ... 29

3-1-1-1-5) 반복논증 ... 31

3-1-2) 정의 방법 ... 32

3-1-2-1) 직관과 모음 ... 33

3-1-2-2) 나눔 ... 36

3-1-2-2-1) 잘못된 나눔 ... 38

3-1-2-2-2) 가운데로 나눔 ... 40

3-1-2-2-2-1) 척도 ... 40

3-1-2-2-3) 분절에 따라 나눔 ... 43

3-1-2-2-4) 소피스트 편 나눔 ... 43

3-1-2-3) 결합(로고스) ... 45

3-2) 아리스토텔레스 ... 48

3-2-1) 정의 ... 49

3-2-1-1) 정의될 수 없는 것 ... 50

3-2-2) 방법 ... 53

3-2-2-1) 차이에 따라 나눔 ... 53

3-2-2-1-1) 차이들 ... 54

3-2-2-2) 나눔의 조건들 ... 55

세부 목차

- 3-2-2-3)나뉘에 관한 비판 ... 57
- 3-2-2-3-1)증명되지않는 중간항을 요청했다 ... 58
- 3-2-2-4)중간 항 ... 59
- 3-2-3)정의와 논증 ... 62
- 3-2-3-1)논증적인 정의와 비 논증적인 정의 ... 66

4)존재와 실체(ἡ οὐσία) ... 68

4-1)플라톤의 존재물음 ... 68

4-1-1)아포리아 ... 68

4-1-1-1)하나와 여럿 ... 71

4-1-1-1-1)여럿 ... 71

4-1-1-1-2)하나 ... 74

4-1-1-2)기간토마키아(유물론과 이데아 론) ... 74

4-1-1-2-1)유물론 ... 75

4-1-1-2-1-1)하고 겪는 힘으로서의 정의₀ ...77

4-1-1-2-2)에이도스 론 ... 79

4-1-1-2-2-1)'정의₀₁'과 '정의₀₂'의 아포리아 ... 79

4-1-1-2-2-2)'정의₀₁'과 '정의₀₂'의 연역 ... 81

4-1-2)아포리아의 해결 ... 87

4-1-2-1)나뉘의 방법[(비)존재의 변증법] ... 88

4-1-2-1-1)비존재 ... 89

4-1-2-1-1-1)비존재의 연역 ... 93

4-1-2-1-1-1-1)다섯 류로 나뉘 ... 94

4-1-2-1-1-1-2)비존재의 정의 ... 96

4-1-2-2)음절의 비유와 관여(메테케인) ... 101

4-1-2-2-1)음절의 비유 ... 101

4-1-2-2-2)밖에서 주어지는 우시아? ... 102

4-1-2-2-2-1)우시아를 나누어 지님 ... 104

4-1-3)존재정의 방법들 ... 106

4-2)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 물음 ... 108

4-2-1)아포리아 ... 108

4-2-1-1)형이상학 개요 ... 109

4-2-1-1-1)제타 편 개요 ... 112

4-2-1-2)지혜 ... 117

세부 목차

4-2-1-2-1)베타 편 ... 117
4-2-1-2-2)값과 편 1-2 장 ... 118
4-2-1-2-3)베타 편이 두 번째 아포리아 ... 121
4-2-2)우시아 ... 124
4-2-2-1)정의 ... 127
4-2-2-2-1)부분과 전체 ... 131
4-2-2-2-2)하나 ... 134
4-2-2-2-3)우시아 ... 136
4-2-2-2-4)존재 ... 142
4-2-2-2-4-1)존재는 류가 아니다(정의에서 빠짐) ... 142
4-2-2-2-4-2)πρὸς ἑν ... 146

5)우시아로의 존재 환원 ... 154

5-1)환원 과정 ... 154
5-2)환원 이유 ... 158

1) 들어가기

“1) Ἐπειδὴ τοίνυν ἡμεῖς ἠπορήκαμεν, ὑμεῖς αὐτὰ ἡμῖν ἐμφανίζετε ἱκανῶς, τί ποτε βούλεσθε σημαίνειν ὅποταν ὄν φθέγγησθε. δῆλον γὰρ ὡς ὑμεῖς μὲν ταῦτα πάλαι γινώσκετε, ἡμεῖς δὲ πρὸ τοῦ μὲν ᾧόμεθα, νῦν δ' ἠπορήκαμεν. διδάσκετε οὖν πρῶτον τοῦτ' αὐτὸ ἡμᾶς, (소피스트 편, 244a4-8)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으므로, 있는 것이 발설 될 때마다 가리켜지는 그 무엇을 당신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오래 전에 인식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전에 알았다 싶었는데 지금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이 발설될 때 가리켜지는 무엇)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

“2) 그리고 실로 오래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탐구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려움에 빠지는,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것은 우시아(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보다 많다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수적으로] 한정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단지 그리고 주로 그리고 첫 번째로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지고 있는 것에 관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론화해야 합니다(형이상학, Z(1), 1028b2-7). καὶ δὴ καὶ τὸ πάλαι τε καὶ νῦν καὶ ἀεὶ ζητούμενον καὶ ἀεὶ ἀπορούμενον, τί τὸ ὄν, τοῦτό ἐστι τίς ἡ οὐσία. τοῦτο γὰρ οἱ μὲν ἓν εἶναι φασιν, οἱ δὲ πλείω ἢ ἓν, καὶ οἱ μὲν πεπερασμένα, οἱ δὲ ἄπειρα. διὸ καὶ ἡμῖν καὶ μάλιστα καὶ πρῶτον καὶ μόνον ὡς εἰπεῖν περὶ τοῦ οὕτως ὄντος θεωρητέον τί ἐστίν. ”

존재와 실체물음

위 인용글월은 형이상학 제타 편이 소피스트 편의 물음을 이어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텍스트는 '무엇이냐'는 물음과 이에 관한 어려움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타 편은 소피스트 편의 존재 물음을 실체 물음으로 바꾸어 버린다. 왜 그러는 것일까? 존재 물음이 소피스트 편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제타 편 이외의 형이상학에서 여러 가지로 말해지는 존재는 제타 편의 우시아(실체)와 어떤 관련을 맺을까?

더구나, '무엇(τι)이냐'고 묻는 것은 정의(定義)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어떤 일정한 방법에 따라서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성공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나름대로 답하는 과정에서 나는 먼저, 1)존재(τὸ ὄν)물음, 2)정의 방법, 3)존재(플라톤)와 실체(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와 로고스들, 마지막으로 4)실체로의 존재 환원 과정과 그 이유를 주로 '2)'과 '3)'를 중심으로, 기술(記述)하려 한다.

2) 존재(Tò ὄν)물음

‘존재가 무엇이냐’는 물음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는 물음과 구분되어야 한다(12쪽).

이 구분은 무엇(What)에 해당하는 고대 헬레네스인들의 언어 ‘τί’(남성과 중성 단수 1 격)와 ‘τίς’를 통해 애매하지만 보여질 수 있다. ‘τι,’에 그라브 악센트(`)가 붙은 ‘τὶ’ 또는 ‘τίς’는 무엇이 아니라 개별적인 어떤 것(Something, Entity, Item)을 나타내는데(21 쪽), 고대 기록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엑센트도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후에 덧붙여진 구두법(punctuation, 句讀法)을 무시한다면, ‘τι’를 ‘무엇’와 ‘어떤 것’ 양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τί τὸ ὄν’은 ‘존재가 무엇이냐’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래서 양자의 구분의 선명해지질 않는다—애매해진다(20쪽).

이런 애매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로부터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떼어 낸 뒤, 후자에 한정된 논의를 전개시킬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은 있는 것의 무엇(임) 곧 있는 것의 있음(존재자의 존재1))을 다룰 것이다.

2-1) 파르메니데스

고대 헬레네스인들 중에서 존재자의 존재(있음)를 문제 삼은 첫 번째

1) 그러나 존재자(있는 것)와 존재(있음)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사람은 파르메니데스²⁾이다. 그러나 그는 ‘존재는 무엇이나’고 직접 묻는 대신³⁾, 그러한 물음에 대한 답일 수 있을 존재의 표지(σημα, 단편 8.2, 56)들을 시(詩) 안에서 전달되는 신화를 통해(τοῖς μύθοις, 소., 242d6) 인간에게 알려 준다. (여)신으로부터 배운(μαθήσῃσι, 단편 서문 29)것들을 인간에게 말(μῦθον, 단편 2.1)해 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표지들을 통해 인식되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만, 멸 할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에! 연역적인 진행을 통해 주어지는 존재의 표지들은 다음과 같다.

- ㄱ) 생성소멸하지 않음(ὡς ἀγένητον ἓόν και ἀγνώθηρόν ἐστιν, 단편 8.1).
 - ㄱ-1) 있는 것은 **전체**이며(ούλομελές, 단편 8.4)이며,
 - ㄱ-2)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ἀτρεμές, 위의 곳; ἀκίνητον, 단편 8.26),
 - ㄱ-3) 있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으(ἀτέλεστον, 위의 곳; ἀναρχον ἄπανσιτον, 단편 8.27)며,
 - ㄱ-4) 있는 것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ταυτόν, 단편 8.29)**하게 머물면서 그 자체 **정지**해 있기때문이다(단편 8.29).
- ㄴ) 언제 있어 왔던 것도 있을 것이지도 않음.(οὐδέ περ’ ἦν οὐδε ἔσται, 단편 8.5)
 - ㄴ-1) 모든 것은⁴⁾**지금**(νῦν, 위의 곳)있으며,

2)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등은 있는 것들 만을 문제 삼지,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들은 ‘어떤 것들 있는가?’ 라는 존재자 물음에 답하고 있다.

3) ‘**τί**’가 한 번(단편 8.9)나타나기는 하나, ‘있는 것(τὸ ἓόν)은 무엇이나?’가 아니라,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 될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τι**’는 네 번(단편 8.13, 23, 24, 45)나타난다. 물론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묻는 맥락도 아니다.

4)이데아 론 자들의 편에 서서 존재(ἓον)를 정의하러 할 때, 엘레아 낫선이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물음>파르메니데스

- ㄴ-2) 모든 것은 **같고**(ὁμοῦ, 위의 곳),
- ㄴ-3) 모든 것은 **하나**(ἓν, 단편 8.6)이며,
- ㄴ-4) 모든 것은 **연속**(συνεχῆς, 위의 곳)해 있으므로.

ㄷ) 나뉘지않음(διαίρητόν, 단편 8.22)

- ㄷ-1) **같으므로**(ὁμοίον, 위의 곳).

ㄹ) 연이어짐(ξυνεχῆς, 단편 8.25)

- ㄹ-1) 더 덜 연속적이지 않게,
- ㄹ-2) 모든 것은 꼭 차 있고(πάν δ' ἐμπελεόν ἐστιν ἕντος, 단편 8.24), 그리고,
- ㄹ-3) 있는 것은 있는 것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ἕόν γάρ ἕοντι πελάζει, 단편 8.25).
- ㄹ-4) 필연('Ανάκη, 단편 8.30)[적으로].

ㅁ) 둥근 공과 같다.

- ㅁ-1) 한계(πέρας, 단편 8.42)들이 있다.

존재의 이러한 표지(σημα, 세마)들은 플라톤의 존재 '정의'5) (ὄρος, 호로스, 소., 247e3)와 세마이온(σημείον)(47, 123쪽)를 생각나게 한다. 존재의 인식 과정에서 나오는 언표(言表)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마(표식)들

는 '있는 모든 것'(τὸ ὄν τε καὶ τὸ πᾶν, 소피스트 편, 249d3-4)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여기 'ἕόν'(있는 것, 파르메니데스 단편, 8.3과 'πᾶν'(모든 것, 앞의 책, 8.5)의 연결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 날 것이다(80쪽).

5) 물론 그것이 존재의 '정의'인지, 정의라면 플라톤 자신의 것인지, 자신의 것이라면 궁극적인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의'이든 아니든, 자신의 것이든 아니든, 잠정적이든 궁극적이든, 그것은 존재에 관한 하나의 표지(호로스)로 기능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호로스들(정의)이 펼쳐지는 일정한 방법(길)이 두 사람에게에는 있다. 그리고 이것들 중 플라톤의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심각하게 숙고한다.

2-2)플라톤

존재가 무엇이냐고 직접 질문한 사람은 아마 플라톤 이전까지는 없었으리라. '무엇이냐'는 물음은, 페르시아의 침략을 패퇴시킨 범 헬라 동맹의 한 주축 도시 아테네의 융성으로 인하여, 그리로 모여든 많은 자칭 타칭 현명한 자들과 대중 사이의 활발한 논쟁과 교육에 의해 시작됐을 것인데, 특히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독특한 화술(산파술)을 통해 '무엇이냐'는 물음을 아테네에서 주도했을 것이고, 바로 그의 제자 플라톤이 스승의 독특한 화술을 자신의 대화 편의 주된 방법으로 삼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이미 언급된 것처럼(9쪽), '어떤 것이냐'가 함축된다고 봐야한다. '있는 것은 무엇이냐'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서처럼 말이다. 그리고 전자(前者)는 **있는 것의 있음**을 문제 삼는다는 것도 이미 언급됐다(9쪽). 플라톤의 대화 편(7)들 가운데서 이렇게 묻고 거기에 답

6) “ 그(소크라테스) 자신의 대화는 [자연철학자들과는 달리] 항상 인간에 관한 것이었다. 경건은 무엇이냐(τί εὐσεβές, 非 신성은 무엇이냐,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추함은 무엇이냐, 정의는 무엇이냐, 부정의는 무엇이냐, 신중함은 무엇이냐, 미침은 무엇이냐, 용기는 무엇이냐, 비겁은 무엇이냐, 국가는 무엇이냐, 정치가는 무엇이냐, 정부가 무엇이냐, 행정인은 무엇이냐고 그는 토론했다(크세노파네스, Memorabilia, I, 16) ”.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물음>플라톤

하는 곳은 오직 소피스트 편 뿐이다. 물론 존재에 관한 논의가 다른 화제와 결부되어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곳⁸⁾도 있고, 단편적으로 행해지는 곳⁹⁾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런 곳은 ‘무엇이나’고 묻지 않는다¹⁰⁾.

2-2-1) 존재 물음

‘존재란 무엇인가’(소피스트 편) 라는 물음이 속하는 맥락을 살펴보자. 그 대화 편의 탐구 대상인 소피스트는 ‘있는 것(존재)를 모방하여 그것의 판타스마를 생산하는’ 자로 정의되는 데, 판타스마(환상 또는 심상)는 비 존

7)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 편들에서 존재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여러 이데아들이 ‘무엇이나’고 묻는다. **경건**(Euthyphron, ὅσιον 5d7, ὁσιότης 13b4; 거룩 εὐσέβεια 13b4), **용기**(Laches, 190e3), **신중함**(Charmides, 159a10, 10164-5), **정의**(Polideia, I, 336c6, 349c4), **덕**(Protagoras, 360e8; Menon, 71d5), **우정**(Lysis, φίλια, 222e7), **아름다움**(Hippias I, 292c9), **앎**(Theaetetus, 146c3), **소피스트**(Sophist, 128c1), **(비) 존재**(Sophist, 243a4, 244a5, b7), **정치가**(Politicus), **수사학**(Gorgias, 468c5), 등 등.

8) **하나**와 결부된 파르메니데스 편 전체, **쾌락**과 **앎**(측정술)에 결부된 필레보스 편(22e4-22d8)(34쪽), 모든 것(우주)의 **생성**과 결부된 티마이오스편(27d5-28 a4, 46c7-53c3)(154쪽).

9) **앎**과 결부된 테아이테토스 편(184b-186e)과 **파이돈** 편(72e-77b)과 **국가** 편(476b-480a)(154쪽) 등 등.

10) 그래서 나는 이런 대화 편들을 논문의 주 텍스트로 사용하지 않았다..

재 또는 거짓이므로, 그 정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비존재, 그래서 존재가 정의되어야만 하고, 더우기 ‘말로 논쟁 논박 논의하므로서 돈을 끌어들이는 자’라는 소피스테스의 나아간 정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말(로고스) 역시 정의되어야만 했을 것이다—이것은 로고스(말)과 비존재의 존재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¹¹⁾. 이런 관점에서의 소피스테스 편 전체(216a1-269d5)는 다음처럼 다섯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

첫째, ‘소피스테아스는 무엇(τί, 218c1)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됨(216a1-218b4). 둘째, 공통의 한 이름을 두 가지 에이도스(219a8)로 계속 나누어 가는 방법(Μέθοδος, 219a1, 22)을 통해서 소피스트를 여섯 가지로 규정 함(218 b5-232a7). 셋째, ‘있는 것을 모방하는 자가 소피스테아스이다’라는 일곱 번째 규정에 이어, 대화가 비존재와 존재로 옮겨 감(232b1-260b9). 넷째, 비존재가 거기에 결부되는 로고스(와 의견)가 다루어짐(260b10-264d2). 다섯째, 다시 나눔의 방법을 통해 ‘지혜를 모방하는(μιμητής ὡν τοῦ σοφοῦ, 268c1, 22)대중 선동가’로 정의된 소피스트로부터 정치인¹²⁾과 철학자가 구분됨(264d3-268d5). 이것들 중 세 번째, 존재 논의(232b1-260b9)는 아래처럼 다시 갈라질 수 있다.

ㄱ)있지않는 것을 말하는 자(소피스트)들이 겪는 아포리아(236d1-240c6, 65쪽). ㄴ)있는 것들을 량(πόσα, 242c6, 245d9, 67쪽)적으로 규정하려는 자들

11)이 때문에 소피스트 편은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에 관한 논증(ἀπεδείξαμεν, 258d5-6)이라고도 할 수 있다.

12) 정치인에 대한 정의는 대화 편 정치가에서 이루어진다(37쪽).

이 겪는 아포리아(242c4-246a3). ㄷ)있는 것들을 질(ποιᾶ, 242c6)적으로 규정 하려는 자들이 겪는 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245e6-252e, 70쪽): 여기에서 존재가 정의₀, ‘하고 겪는 힘’과 정의₁, ‘움직여졌으나 (지금은) 정지한 것’과 정지₂, ‘정지됐지도(지금)움직여지지도 않는 것’ 등으로 규정된다. ㄹ)모음으로 비유되는 존재와 그리고 변증법(253a1-254d6). ㄴ)아포리아의 해결—다섯 최고 류들의 교통(254d4-260b4)¹³⁾: 여기에서 비존재의 ‘비’가 존재의 ‘다름’으로 정의된다.

2-3)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 편의 ‘존재가 무엇이나’ 라는 플라톤의 물음은 그대로 형이상학 제타 편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언급됐다(8쪽). 그러나 ‘무엇이나’는 물음의 직접적인(16쪽) 대상이 ‘존재’가 아니라, ‘우시아’(οὐσία)로 바뀌면서 존재 물음은 실체 물음에 포함된다(48쪽). 왜냐하면 우시아¹⁴⁾(실체)는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ἦν εἶναι ἐκάστῳ¹⁵⁾, essence of everything(각기 것의 본질), 형., Z(4), 1029b1)으로

13) 대 부분의 학자들과는 달리 자신은 이 부분을 계사 또는 술어 이론이 아니라 실재성의 이론으로 간주한다고 Robinson(변증법, 72쪽)은 말한다.

14) 물론 이것은 형이상학 제타 편의 첫 번째 우시아이지, 범주들 5 장의 첫 번째 우시아는 아니다. 굳이 후자를 전자에서 찾자면,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의 ‘각기 것’일 것이다.

15) 그러나 ‘τὸ τί ἦν εἶναι ἐκάστῳ’를 ‘essence’(본질)로 번역하면, ‘있는 것

규정(ὁρίζομεν, 1029b1)되는데, 바로 이 규정 형식이 ‘존재가 무엇이나’(τί τὸ ὄν)의 변형(62쪽 각주 60번, 68쪽)이기 때문이다—‘ὄν’대신에 ‘ἦν εἶναι’가 들어서면서 ‘τί’와 ‘τὸ’의 위치만 바꿨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나’는 물음의 대상이 ‘있는 것’(τὸ ὄν)에서 ‘우시아’(οὐσία)로 환원¹⁶⁾된다.

나아가서, 우시아 이외의 다른 범주에도 ‘무엇이나’는 존재 물음이 함축

은 무엇이나는 존재물음이, 그래서 실체어로의 존재 환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용한 라틴 번역 본과 주석에서는 ‘quod quid erat esse’(1950, 320, 326쪽)라는 표현이 ‘οὐσία’의 번역어 ‘substantia’와 더불어 나타난다—

16) 여기서의 ‘환원’은 ἡ ἀπαγωγή[분석론 후서 베타 편(25), 69a20] 보다는 ἡ ἀναγωγή[형이상학 겐파(3), 1061a11]를 가리킨다. 물론 둘 다 ‘reduction’ (환원)으로 번역 될 수 있는 용어들이지만(ἀπ-άγω, to lead away; ἀν-άγω, to lead up), ‘아과고개’는 새로운 추리가 결국 앞 선 추리의 불가능한 결론으로 환원된다는 것(reduction ad impossibile)을 뜻하는 반면, ‘아나고개’는 다른 격의 추리(삼단논법)으로 구성 됨(환원 됨)에 의해서 1 격 이외의 삼단논법의 완전한 타당성(validation, W.Kneale and M.Kneale, 1978(1962), 77쪽)이 확인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며, 더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에서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인 것으로 환원된다’(παντὸς τοῦ ὄντος πρὸς ἓν τι καὶ κοινὸν ἡ ἀναγωγή γίνεται, 형이상학 겐파, 3장, 1061a9-10)고 직접 말하는데(160쪽), 여기서의 ‘ἓν’가 ‘우시아’를 뜻하기 때문이다.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

된다. “순수하게는 아니지만, 있어 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실제 이외의 범주에 관해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은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한 가지로 우시아에 속하며, 그 다음으로 다른 것(범주)들에 속한다.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ἔστιν, 형 Z(4), 1030a31)은 순수하게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든 말이다(형., Z(4), 1030a30-a32)”

다시 말하면, 실제만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 등의 범주도, 비록 순수하게는 아니지만,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 물음 형식에서 존재는 ‘무엇이냐’는 물음의 **간접적인**(15쪽) 대상으로 된다. **관계, 어디, 언제, 상태, 지님, 행함, 겪음** 등의 범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순수하게는 아니지만 있는 그 무엇이든? **관계! 어디! 언제! 상태! 지님! 행함! 겪음!** 등의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제타 편 이외의 형이상학과 범주론에서는 실제(우시아)로의 존재(은)물음 환원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¹⁷⁾. ‘범주론’의 우시아 논의에서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고 (첫 번째로) **있는 것**으로서의 우시아가, 그리고 제타 편 이외의 형이상학에서는 ‘여러가지로 말해지는’ 존재가, 기술(記述)의 대상으로 될 뿐, ‘무엇이냐’고 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존재론에서 실제론에로의 전이(轉移)를 보여준다.

어쩌든 형이상학과 범주론에서는 존재가, 소피스트 편에서와는 달리, 더

17) 그러나 분석론 후서 베타 편에서는 실제 이외의 범주물음에 나타난 존재물음 형식 ‘τί ἔστι’가 핵심 낱말 중의 하나로 나타난다.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

이상 탐구의 주된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물음>아리스토텔레스

3)정의

3-1)플라톤

‘무엇이나’의 답, 정의(ὄρος¹⁸)를 얻어내려 하나, 관련 대화 편들에서는 대부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¹⁹). 그러나 오히려 실패 과정을 통해 그 문

18) 정의에 대한 정의는 ‘정의론’(ὄροι)에 나온다—“**정의**는 차이들과 류들로 합쳐진 로고스이다.”(“Ὄρος λόγος ἐκ διαφορᾶς καὶ γένους συγκείμενος, 414d10)(154쪽 각주 146번). 플라톤의 저서로 인정되지 않는 위서(僞書)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론의 정의를 인용한 것은 소피스트 편에서 예시되는 소피스트의 정의에 관한 정의로서 손색없기 때문이다. 류들과 그 차이들을 모아 놓은 로고스들이 소피스트에 관한 정의들이므로 그렇다. 이것을 ‘최근 류(genus proximum)더하기 차이’ 라는 포르피리오스의 정의와 비교 해 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근 류’가 아니라 ‘첫 번째 류’라고 한다.

19) 유티프론(경건과 거룩함, 5d7), 라케스(용기, 190e3), 메논(덕, 71d5), 프로타고라스(덕, 360e8), 카르미네스(신중함, 159a10)이, 국가 1 권(정의, 336c6, 349c4)가, 리시스(우정, φιλία, 222e7), 대 히피아스(아름다움, 292c9), 테아이테투스(앎, 146c3), 소피스트(소피스트, 128c1; 존재, 243d4, 244a5; 비존재), 정치가(정치가), 고르기아스(수사학, 468c5). 그러나 꼭 실패하는 것만은 아니다. 소피스트, 정치가 편 등에서는 관련 최종적인 가장 짧은 로고스(정의)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많지만 소피스트 편에 주어진 존재 정의_{0,1,2}(77-78쪽)와 소피스트 정의들(48쪽), 정치가 편에 주어지는 정치가(39쪽)와 직조술(42쪽)에 관한 정의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답의 성격들이 밝혀지므로, 존재정의로 들어서기 전에, 정의(定義) 문답의 성격과 그 방법²⁰⁾들을 먼저 살펴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티프론 편이 적절하다.

3-1-1)무엇이나?

3-1-1-1)정의의 기준

내리 뺀은 긴 머리에 턱 수염은 별로 자라지 않은, 아테네 시(市)의 피토스 구(區)에 사는 메부리 코(ἐπίγυρον, 2b11)젊은 전도(前途) 유망한 정치인 멜레투스에 의해, 전통적인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이끌어 들어(πεικνην, 3b2)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명목으로 고소(告訴)된 소크라테스는, 하인을 목졸라 죽인 다른 하인을 감금하여 도랑에 처박아 놓아 시차(時差) 때문에 죽게 한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 죄로 고소한 그리고 신들에 대해 박식한 유티프론으로 하여금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하도록 유도하므로써, ‘늙은 이’(소크라테스 자신)를 부패하게 한 젊은이 멜레토스가 오히려

20)존재 정의 맥락에서의 방법(μέθοδος)이라는 말은 소피스트 편에서 처음 나타나, 이미 그 단초는 파르메니데스 단편의 존재어로 ‘길’(ὁδός)[길(ὁδός)에 + 따른(μετα) = 방법(μέθοδος)]에서 보여진다. 그리고 맥락은 다르지만, ‘길’의 이러한 쓰임새는 왕을 정의(ὄρον, 266e1)하는 보다 짧은 길(ὁδόν 266e1)을 따라 그가 무엇(누구)인지를 묻는, 정치가 편에서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존재 물음 맥락에서의 정의(ὄρος)라는 낱말도 소피스트 편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소피스트 편은 존재물음과 그 정의에 있어 둘 보인다.

고소 당하는 것이 옳다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고소는 취하 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의도 하에, 유티프론 편을 열어 재긴다. 결국 경건과 불경(不敬)이 무엇인지를 몰랐기에 멜레토스와 동 시대 헬레네스 인들은 소크라테스를 불경 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3-1-1-1-1)물음의 대상으로서의 이데아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이냐'의 물음의 이중성(애매함)이 드러난다. 9 쪽에서 나는 'τι'에 어떠한 억양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무엇'과 '어떤 것'(개별자)이 구분되므로, 'τι'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하다고 썼다. 바로 이런 애매함이 '경건은 무엇이냐'이라는 물음을 설정하여 묻고 답하는 유티프론 편에서 확인된다.

“4) 살인과 다른 모든 경우에 관련하여 당신은 거룩과 비(非)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야 하네? ποῖόν τι τὸ εὐσεβὲ φῆς εἶναι καὶ τὸ ἀσεβές καὶ περὶ φόνον καὶ περὶ τῶν ἄλλων;(5c9-d1). 경건(τὸ ὄσιον, 5d2)은 모든 실천에 있어 항상 동일하지 않은가? 그리고 다시 불경(τὸ ἀνόσιον, d2, 不敬)은 항상 경건에는 반대(ἐναντίον, d3)되는 반면 자신과는 같지(ὅμοιον, d3)않은가? 그리고 불경함의 측면에서(κατὰ τὴν ἀνοσιότητα, d8)그것은 불경스러운 모든 것에서 발견될 어떤 이데아 하나(μία τινα ἰδέαν, d3-4)를 지니지 않는가? -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여! -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이라 규정하고 불경은 무엇이라 규정하는지, 자네 내게 말해주게나(λέγε δὴ, τί φῆς εἶναι τὸ ὄσιόν καὶ τί τὸ ἀνόσιον; d7)(5c9-d7) ”.

경건과 불경이 어떤 것(τι)이고 무엇(τί)인지를 자신에게 규정(φῆς, 5d7)하여, 말해 달라는 것이다. 'τι'와 'τί'는 예리한 예큐트(acute) ' ´ '와 약간 높은 그라브(grave) ' ` '로 억양이 구분²¹⁾되는 사소한 차이를 지닌 듯 싶

으나(19쪽),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범주론 제 1 실체 사람인 것(ὁ τίς ἄνθρωπος, 범주론 2a13)과 그리고 형이상학 제타 편 제 1 실체 사람(에이도스) 곧 사람인 것(소크라테스)의 무엇(τί, 1028a13, 36)의 차이 만큼, 그래서 플라톤의 경우, 이데아를 지닌 것들과 이데아의 차이 만큼 구분된다. 예를들어 경건 이라는 이데아와 경건한 것들에서 처럼 말이다.

따라서 ‘경건이 무엇이냐’는 물음과 ‘어떤 것들이 경건한 것들이냐’는 물음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후자가 전자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경건한 사례(事例)은 경건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자(ἀδικοῦντι, 5d9)를 고발하는 것이 경건이다’ 라는 유티프론의 첫 번째 답은 ‘무엇이냐’의 물음에 적절치 않다. 이 물음은 경건한 것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동일한 에이도스(αὐτὸ τὸ εἶδος, 6d10-11) 또는 이데아 하나²²⁾(μία τινα ἰδέαν, 5d3-4)가 ‘무엇이냐’는 물음이지, ‘어떤 것들

21) 중국어의 사성(四聲) 억양이 일정한 패턴으로 변하듯, 고대 헬라어 억양도 일정한 패턴으로 변한다. 뒷 낱말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그 앞 낱말에 억양(엑센트)가 있을 경우, 앞 낱말의 억양 예큐트 ‘ ’ ’는 그라브 ‘ ` ’ 바뀌어 자신의 맨 끝 음절로 옮겨가는 것이 그 패턴 중의 하나이다. ‘ τίνος ’ (무엇의)에서 ‘ τινός’(어떤 것의)로 되듯 말이다.

22) ‘이데아 하나’ 라는 표현 대신에 ‘동일한 에이도스 하나(ἐν τῷ εἶδος αὐτῶν, 72c7)’라는 표현이 메논 편에서는 자주 쓰인다. 정의와 용기와 절제와 경건 등의 여럿 안에 동일한 하나로 있으면서, 이것들을 덕들이라고 불

이 경건하냐'는 물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냐'는 물음의 대상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 곧 에이도스(이데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은 이데아의 정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럿을 경건하게 만드는 하나, 여럿이 공통으로 지니는 하나, 여럿 안에 있지만 자신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하나인 이데아 그것의 정의 **하나!**

“5) 자, 경건한 많은 것들 중의 어떤 한 둘이 아니라, 모든 경건한 것들이 그것에 의해서 경건한 저 **에이도스 자체**(ἐκεῖνο αὐτὸ τὸ εἶδος, 6d10-11)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것, 그것을 자네가 나에게 권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나? 불경²³⁾한 모든 것들이 그것에 의해 불경스럽고, 그리고 경건한 모든

리워지게 하는 그 하나가 정의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말이다.

23)맥락은 다르지만, 내가 주 텍스트로 삼는 소피스트 편의 존재 물음과의 연관성을 위해 여러 불경들을 거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한 유티프론과 제우스의 불경(티타노마키아, *τιτανμαχία*)과 소크라테스의 '불경(거짓 신)과 그리고 거기 엘레아 낫선이의 '불경(아버지 살해, *πατραλοίαν*, 소., 241d3)과 형들에 대한 제우스의 불경(기간토마키아, *γίγαντομαχία*, 소., 246a4, 72쪽)들은 서로에 관련된 존재론적인 함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쟁(티타노마키아)을 통해 제우스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난 크로노스는 어머니와 공모하여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잘라 버리는 쾌락을 저질렀다. 이것은 여기 유티프론의 아버지 고소(告訴)처럼 불경스러운 것이며, 생식기가 잘릴 때 가이아(땅)에 스며든 피를 통해 땅에서 태어난 차이언트(기간, 거인)형들을 제우스가 죽이는[이 전쟁은 몸만을 우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몸은 생성일 뿐 진짜 존재(우시아)는 이데아라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

(김익성)

(비) 모순율

것들이 그것에 의해 경건한 **이데아 하나**(μὴ ἰδέα, 6d11)가 어디에서든 말해
져야 한다는 것을 자네 기억해야 하지 않은가?-물론 저야 기억합니다
(6d9-6e2). ”

‘무엇이냐’는 물음의 대상은 이데아라는 것 그래서 이데아에 의해 ‘있는’
것들의 열거(列擧)나 예시(例示)가 아니라, 그 이데아를 정의 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한다. 정의의 대상은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라
는 것이다.

3-1-1-1-2)모순율(A is p and -p)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반박(ἐλέγχος)에서 ‘A is both p and -p’ 이라는 형
식의모순율(矛盾律)을 사용한다. ‘A’이면서 ‘not A’라는 모순을 함축하기 때
문에, 유티프론의 경건에 관한 로고스, ‘경건이란 신들을 즐겁게(προσφιλές,
6e10)함’은 실로(ἀληθώς, 7a3)정의를 아니라는 맥락에서 말이다. 그래서 만약
정의라면 그것으로부터 모순(τὰ ἐναντία, 7e7)지니는 로고스가 잇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모순을 안 된다는 **非 矛盾律**, [-(A is both p and
-p)]은 어떠한 로고스가 정의인지 아닌지를 판 가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일 종의 정의 기준일 수 있겠다(74쪽). 관련 대화는 다음처럼 정리 될 수

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의 전쟁으로 비유된다]불경과 ‘있는 것만 있고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오해를 유발하는
(68쪽 각주 65번, 93쪽 각주 88 번)주장 ‘있지않는 것도 있다’을 내 세우는
엘레아 낫선의의 ‘불경은 아버지를 고소한 유티프론의 행위처럼 불경스러
우므로 그렇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냐>기준들

있다.

- ㄱ-1)경건은 '신들에게 기쁨을 줌'이며 '신들을 기뻐함'이고,
- ㄱ-2)불경은 '신들에게 증오심을 일으킴'이며 '신들을 증오함'이다. 이제,
- ㄴ)경건과 불경은 동일한 것(ταῦτόν, 7a8)이 아니다-서로에 가장 반대(τὸ ἐναντιώτατον, 7a8)된다. 그런데,
- ㄷ)정의로운 것에 반대되는 것을 신들은 증오한다. 그런데,
- ㄹ)정의로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에 대한 신들의 의견일치가 불가능하며. 그래서,
- ㅁ)동일한 것을 어떤 신들은 사랑하는 반면 어떤 신들은 증오한다. 따라서,
- ㅂ)동일한 것들이 경건하며 경건않다(ταῦτόν ὃν ὁσίον τε καὶ ἀνόσιον, 8a11-12). 그러나,
- ㅅ)이것은 소크라테스가 바라는 답이 아니다. (항상 경건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정의를 사랑한다는 점에는 모든 신들이 일치하나, 유티프론의 아버지 고소 행위와 같은 어떤 것(사례, 事例)이 '정의로우냐'에 대해서는 신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다[ㄹ].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요구하는 것은 항상 그래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어떤 것이 그러하며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함축하는 'ㄱ'은 정의가 아니다. 나는 반박하는 로고스들 중, 이런 일련의 반박 'ㄹ'을 이끌어 내는 아래 과정에서 쓰인 **측정**(τὸ μετρεῖν, 7c4)과 **차이**(διαφορά, 7b9)라는 용어에 주목한다. 이것들은 필레보스 편과 정치가 편에 나오는 나눔에 의한 정의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41쪽).

- a)수들에 관한(περὶ ἀριθμοῦ, 7b8)의견의 **차이**들(διαφορά, 7b9)이 있다'둘 중의 어느 것 이 더 크냐에 관한
- a-1)이런 **차이**들은 계산(ἐπι λογιζομένων, 7b10)에 의해서 해소된다.
- b)길이들에 관한 **차이**들이 있다'둘 중 어느 길이가 더 기냐에 관한.
- b-1)이런 **차이**들은 **측정**(τὸ μετρεῖν, 7c4)에 의해서 해소된다.
- c)무게들에 관한 **차이**들이 있다'둘 중 어느 것이 더 무겁냐에 관한.
- c-1)이런 **차이**들은 저울에 의해서(ἐπὶ τὸ ἰσπάζειν, 7a7)해소된다. 그러나,

우시아

e) **옳고 그름**에 관한 **차이**들이 있다. ‘둘 중 어느 것이 옳바른가’에 관한. 이런 차이들이 분노를 유발시켜 신들 또는 인간들을 적으로 만든다.

측정은 길이에 관련해서만 쓰인 반면 **차이**는 수와 길이와 무게와 옳고 그름 모두에 관련해서 쓰이는 데, 옳음과 그름에 관한 의견의 차이가 신들과 인간들더러 어느 하나를 증오하거나 사랑하게 한다.

3-1-1-3)우시아(οὐσία)

나아가서, 정의는 대상의 어떤 속성(παθός τι, 11a8)이 아니라, 우시아(οὐσίαν, 11a7, 본질)를 말해야 한다(125쪽). 그래서 유티프론에 의해 세 번째 제시된 로고스, ‘경건은 모든 신들을 사랑함’(είναι τὸ ὄσιον ὃ ἄν πάντες οἱ θεοὶ φιλῶσιν, 9e1-2)(31쪽)은 경건(한 것)의 속성을 말한 것이지 경건(한 것)의 우시아(본질, 존재)를 말한 것이 아니므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우시아를 ‘**존재 원인**’(ὅτι ὄν, 11b1; ὅτι ἐστίν²⁴), 11a7)이라고도 표현한다. 경건(한 것)의 ‘우시아’는 ‘경건한 것의 존재 원

24) ‘ὅτι ἐστίν’이라는 표현은 메논 편에서도 자주 쓰인다. ‘덕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메논의 물음에 소크라테스가 그 물음은 먼저 ‘덕이 무엇인가’(ὅτι ποτ’ ἐστὶ τὸ παράπαν ἀρετή, 70a6-7)는 물음이 알려져야 해결 될 수 있다고 대꾸하는 맥락들에서 말이다. 물론 ‘τί ἐστίν’(무엇이나? 71b4)는 표현도 쓰인다. 그러나 여기 유티프론의 쓰임새와 결부되는 표현은 앞 옛 것이다. 왜냐하면 ‘ὅτι ἐστίν’은 **우시아**와 직접 관련되는 표현(περὶ οὐσίαι, ὅτι ποτ’ ἐστίν, 72b1-2)인 반면 ‘τί ἐστίν’는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와 직접 관련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기준들

인'(ὅτι ὁσιόν ἐστιν, 10a11)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은 경건(한 것)의 **우시아**가 아니라 속성(겪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논증²⁵⁾하는가? 그는 우선 **함(능동)**과 **겪음(수동)**을 구분한다(79 쪽) 그리고 이로부터 신들에 의해 사랑 받고 **있**어야 신들을 사랑 **한다**는 것을 이끌어 낸다. 왜냐하면 겪고 '**있**'기 때문에 겪는 것이지, 겪기 때문에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존재(우시아)**와 속성의 구분이 놓인다. 그리고 이런 구분에 근거하여 신들을 사랑 **함**은 신들에 의해 사랑 받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랑 받고 '**있**'어야 신들을 사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들이 인간을 사랑 하고 '**있**'어야 인간은 신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신들의 사랑을 **받**아야 인간은 신들을 사랑 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을 사랑 **함**이라고 경건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우시아**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속성(겪음)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가 요구하는 것은 속성이 아니라 우시아(본질, 존재)이다.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져옴과 가져와짐, 이끔과 이끌림, 봄과 보여짐, 그리고 사랑함과 사랑 받음은 각 각 다르다고 한 다음, 가져와지고 '**있**'으니까(διότι²⁶⁾ φέρεται,

25) 소크라테스는 유티프론에게 자신의 주장을 논증(ἐνδείξι, 9b2)함에 의해 가르쳐 달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자신은 유티프론의 관련 정의들을 논증을 통해 반박한다.

26) 'δι-ότι'는 'ὅτι τοῦτο ὅτι'의 축약형이므로, 문제의 본문 'ὅτι τοῦτο ὅτι

10b1)가져와지고, 이끌러지고 **있**으니까 이끌리며, 보여지고 **있**으니까 보여 지고, 거꾸로 보여지니까 보여지고 **있**고 이끌리니까 이끌리고 **있**으며 가져와지니까 가져와지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φέρεται'(10b7, 9)의 'διότι φέρεται'는 '가져와지는 원인'으로, 그런데 우시아를 나타내는 까닭에 'δι-ότι'는 'ότι όν' 또는 'ότι έστιν'을 뜻하므로, '가져와지고 **있**기 때문에'로 다시 옮겨질 수 있으리라. 우시아(있음, 실체)은 'ότι όν' 또는 'ότι έστιν'를 뜻한다는 것! 물론 'φέρεται'는 'όν'이 아니므로, '가져와지는 원인'을 '가져와지고 **있는**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생성을 **있는** 것 동일시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는(ούδέν άκριβές, 티마이오스, 38b3)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ότι'라는 낱말이 '우시아'를 나타내므로, 나는 '가져와지고 있기 때문에'로 옮겼다. 그러나 '가져와지는 원인'이 의역(意譯)이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없다.

그래서 Lane Cooper처럼 '어떤 것이 그것을 가져오니까 가져와진 것이 가져와진다'(what is carried 'carried' because something carries it. 10a5-6)로 옮길 수 있으리라(10c6-7참조)-'something'(어떤 것)은 'it'(가져와지는 것)의 원인이므로. 그러나 이것은 생성과 **있음**의 구분을 확인 해 주지 못하는 번역이다.

나아가서, 'διότι' 라는 표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론 후서 베타 편(99a18)에서 어떤 사태의 이유(원인)를 나타낸다는 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태의 이유를 그 사태의 무엇임(본질)과 동일시 하는 맥락에서 말이다(59쪽).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기준들

우시아가 이끌림과 이끔 등의 존재 원인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것($\tau\iota$, 10c1)이 되어지고 겪는다면, 그것은 되어지거나 또는 겪으니까 되어지고 **있** ($\delta\tau\iota$, 10c1)거나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거나 겪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어지거나 겪는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것은 그 무엇($\tau\iota$, 10c6)에 의해 어떤 것($\tau\iota$, 10b7)을 겪거나 또는 어떤 것으로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자들($\delta\omega\nu$, 10c10)에 의해 사랑 받으니까 사랑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받고 **‘있’**으니까 사랑 받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경건의 정의가 ‘모든 신들을 사랑 함’이라면, 경건은 ‘모든 신들에 의해 사랑 받음’이기도 해야 할 것이다²⁷⁾. 신들에 의해서 사랑 받고 **있으니까** 신들을 사랑하기($\theta\epsilon\omicron\phi\iota\lambda\acute{\epsilon}\varsigma$, 10d10)때문이다. 나아가서, 경건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지, 사랑받기 때문에 경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을 사랑 함은 경건도 아니요, 경건이 신을 사랑 함도 아니므로, 사랑 함과 경건은 다르다($\acute{\epsilon}\tau\epsilon\rho\omicron\nu$, 10d13)다. 신에 대한 사랑은 경건의 속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존재를 정의하는 소피스트 편의 핵심 용어들 가운데 함과 겪음(82, 84, 121쪽) 그리고 우시아(75쪽 각주 72 번) 등을 읽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논의 전개 방법도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 뿐만 아니

27)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이 신들을 사랑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신들에 의해서 사랑 받으며, 그리고 사랑 받는 인간 만이 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 이후로 이어지는 유티프론 편 논의에서 확인 하게 될 것이다.

3-1-1-4) 더 넓은 '종'과 좁은 '종'의 구분(나눔의 방법)

외연에 있어 더 넓은(ἐπὶ πλεόν, 12c5)것과 이것의 부분(μέρος, 12e1)을 구분함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지친(τροφᾶν, 11e2)유티프론을 격려하면서 그로 하여금 경건의 최종일 듯 여겨지는 정의, '신들과 인간들의 어떤 상호 교제 기교'(Ἐμπορική τις ἂν εἴη τέχνη ἢ οὐσιότης θεοῖς καὶ ἀνθρώποις παρ' ἀλλήλων, 15e7)에 동의 하도록 유도한다. 신들 쪽에서는 자신들의 뜻(αἰτήσεως, 14d1, 요구²⁸)을 알리는 것이요 인간들 쪽에서는 그러한 신들에게 번제(燔祭)를 드리는 상호 교제는 얕'(Ἐπιστήμη, 14d1)을 통해서 매개다. 그래서 '신들의 뜻(요구)에 관한 그리고 신들에게 드리는 것에 관한 얕'(Ἐπιστήμη αἰτήσεως καὶ δόσεως θεοῖς οὐσιότης, 14d1)그리고 '번제와 기도에 관한 어떤얕'(ἐπιστήμη τινὰ τοῦ θύειν τε καὶ εὐχεσθαι, 14c5-6)일 것이라는 관련 정의들이 그 최종적인 정의에 앞서 말해진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번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더 넓은 것과 좁은 것(부분)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구분들에 각 각에 고유한 기교(13a12, 13b2, 13d7)가 부여 하면서 말이다. 그 출발점은 두려움과 존경이다²⁹(다음 쪽 도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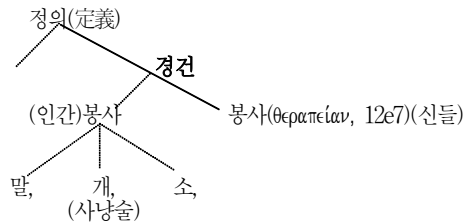
28) 이런 요구는 인간들을 향한 신들의 요구이다. 그래서 정의들에 관한 소크라테스 자신의 요구들은 '신성한' 것임이 넘치지 드러난다.

29) 두려운 존재이기에 멸할 것들은 제우스를 존경한다는 시(Stasinus, 단편 20)가 인용된다(12a9-b1). 물론 소크라테스는 이것에 반대한다.

나뉘는 에이도스

①보다 넓은 것	②보다 좁은 것(부분)
두려움	존경
수(數)	홀
	짝
정의	경건

‘②’는 ‘①’의 부분(μόρος, 12e5)이므로, 모든(πάν, 12a1)정의는 경건이나 모든 경건이 정의는 아니다. 다른 것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존경은 있어도 존경이 있다고 반드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정의의 부분인 **경건**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나뉜 것 각 각에 독특한 기교를 부여한다.



정의의 부분으로서의 경건은 신들에 관계되는(περὶ, 12e6)봉사와 인간들에 관계되는 봉사로 나뉘는데, 모든 봉사(奉仕)의 목적은 선(善, ἐπὶ ἀγαθῷ, 13b8)해지는 것과 도움 받는 것(ἐπὶ ὠφελίᾳ, 13b8)이다. 그리고 이런 봉사들을 통해 신들에 의해 의사에게는 건강이, 배만드는 사람에게는 배가, 건축가에게는 집이, 농사꾼에게는 곡식이, 그리고 신들에게 봉사 하는(πράττειν, 14b2)자 곧 **경건**한 자들에게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주어진다. 이것으로부터 ‘번제와 기도에 관한 읽’, 그래서 ‘신들의 뜻에 관한 그리고 신들에게 드리

실체으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

(김익성)

반복 논증

는 것에 관한 얍, 그래서 ‘신들과 인간들의 어떤 상호 교제 기교’일(ἄν εἶη, 14c6)것이라는 경건에 관한 ‘정의’가 주어진다.

3-1-1-5)반복 논증

그러나 신과 인간들의 상호 교제 기교 라는 이 ‘최종’ 정의는 결국 모든 신들이 사랑 함 이라는 이전 것과 동일하게(εἰς αὐτὸν, 15b11)된다는 것은, 정의 할 때, 동일한 것-그것이 문장이든 낱말이든-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되풀이는 분명 매끈한 동의가 아니거나(οὐ καλῶς, 15c8)아니면 올바른 짜임새가 아닐(οὐκ ὀρθῶς, 15c9)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함을 보여 주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

- ㄱ)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신과 교제한다.
ㄱ-1)경건은 인간과 신의 상호 교제 기교(얍)이므로,
(ㄴ)인간이 드린 제사로부터 신들이 무슨 도움(ἡ ὀφελία, 14e10)을 얻을까?
(ㄴ-1)인간의 선(善)은 단지 신들로부터 받은 것들 뿐이다.)
- ㄷ)경건은 신들이 기뻐함이다.
ㄷ-1)인간이 드리는 것은 경배와 명예와 기쁨(χαρίς, 15a10)이므로. 그런데,
ㄷ)기쁨은 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ㄷ)경건은 신들을 사랑함이다.

인간의 제사 드림을 통해서 신들이 받으시는 것이 기쁨이라면, 경건은 ‘신들을 기뻐함’일 것이다. 그런데 기쁨은 신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들을 기뻐함’은 ‘신들을 사랑함’과 동일하다. 따라서 신과 인간의 상호 교제 기교로서의 경건은 신들을 사랑함으로서의 경건과 결국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핵심은 사랑과 기쁨의 동일화이다.

어쩌든 잘못된 동일화로 빠져드는 이유는 논의가 매끄럽지 못했거나 아

니면 올바로 짜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로고스들의 연결이 매끄러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짜임새가 올 바라야 한다. 그렇다면 ‘연결의 매끄러움’과 ‘올바른 짜임새’는 ‘이데아가 정의될 것’와 ‘비 모순율’과 ‘속성이 아니라 우시아의 진술이어야 함’과 ‘동어반복의 회피’와 더불어 정의의 기준으로 들어 선다.

3-1-2)정의 방법

이러한 기준들을 따르는 정의는 후기 대화 편이라고도 말해지는 소피스트 편에서도 그대로 행해진다. 소피스트의 정의를 얻기 위해, 엘레아 낯선 이는 소피스트와 같은 류(221d9)의 인간 본 보기인 낚시꾼의 로고스(221b1)를 찾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낚시꾼은 소피스트보다 더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친숙하면서도 덜 복잡하기 때문이며(219a5, 221c9), 같은 부류의 이 두 사람은 모두 기교를 지니므로 그렇다—기교는, 이 맥락에서 끌어들이 수 있 파이드로스 편에 따르면, ‘직관’(συνόραν, 265d3)되는 공통의 종(에이도스)이다. 이것을 하위 종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어 간다(디아이레시스, 나눔). 나눌 수 없는 종에 다다르면, 이제는, 거꾸로, 나뉜 것들을 하나의 이름(여기서는 낚시꾼) 아래로 ‘모아’ 결합시켜 로고스(정의)를 성립시킨다. 그 결과 낚시꾼에 대한 정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 과정은 첫째, 출발 지점인 공통의 류 아래 하위 종들을 끌어 모으는 과정에서 그것들 모두를 함께 직관하는 것, 둘째, 공통의 그 종을 하위 것들로 끝까지 나누어 가는 것, 셋째, 나누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

온 차이들의 자연에 따라, 그것들을 맨 끝에서 다시 ‘모아’ 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3-1-1-1) 직관(συνόρα)과 모음(συναγωγή)

그러나 이 세 과정 중, 나누는 것(둘째)의 예시(例示)와 그리고 로고스를 통한 재 결합(세째)의 설명은 주어지나, 직관(모음, 첫째)과 나누는 것에 관한 논의는 소피스트 편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으는 직관’을 위해서는 관련 파이드로스 편과 필레보스 편에 닥아서야만 한다.

“4)정의를 통해(ὀριζόμενος, 265d4) 무엇이든 설명해야 될 것으로 선택된 것을 분명케 하기 위해, 흠어진 여럿을 한꺼번에 보아(συνορώμενα, 265d3)하나의 이데아로 끌어 오는(ἄγειν, d4)것이 첫 번째고, ... 두 번째 과정은 ... 객관적인 분절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다시 종들로 나누는 것이다(파이드로스, 265d3-e2) ”.

수사학적인 연설에 선택된 것(사랑, 에로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의 돼야 되는데, 그럴려면, 더 넓은 공통의 에이도스(κοινή εἶδος, 266e4)(광기, ἄφρον τῆς διανοίας, 266e4)하나를 직관하여, 그 하나에로 선택된 것들 끌어 모아야만 한다. 이러지 않는 한, 그 다음 과정인 나눔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연이 넓은 공통의 에이도스 안에 내포되는 것들을 관련 범위 안에서 모두 함께 동시에 봐야 한다(συνοράν, 직관해야 한다). 이 경우 내포되는 것들은 여럿인 반면 그것들을 함유하는 공통의 종은 하나다. 이 지점에서 나는 관련 필레보스 편을 인용한다. 왜냐하면 이 곳에서 여러 사물들

에 내재하는 하나에로 여럿³⁰⁾을 함께 끌어 모아 오는 것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5) 네 가지 중 세 가지를 취해 보기로 하세. 그리고 이것들 중 두 가지³¹⁾는 여럿에 흠어지므로, 그것들을 다시 하나로 끌어 모아(συναγαγόντες, 23e4)보세나. 이것들 각 각이 사실 어떻게 하나와 여럿인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말일세(23e3-6) ”

여럿 각 각에로 그 두 가지 무한정자와 한정자가 ‘하나’ 씩 흠어지는데 (ἐσχιμμένον, 23e5), 무한자에는 끝이 없으므로(ἀτέλη, 24b8), 그 고유한 특성이 ‘더 많고 더 적음³²⁾’에 있어서도 끝 없다. 그래서,

30) 파이드로스 편의 여럿은 에이도스들을 가리키지만, 필레보스 편의 여럿은 사물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하나가 ‘에이도스’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두 대화 편이 일치한다.

31) 네 가지란, 무한자(τὸ ἄπειρον, 24a4, 無限者; 쾌락)와 한정자(τὸ πέρασ, 25b1, 限定者; 삶-측정술)과 이 둘이 합쳐진 것 하나(ἐν τι συμμεισγόμενον, 23c3, 25e4; 삶)와 합쳐지게하는 원인 곧 데미우르고스(δημιουργοῦν, 27a4)를 말한다. 그리고 세가지란 데미우르고스를, 두 가지란 데미우르고스와 합쳐진 것을 제외한 것들을 말한다.

32) 량에 있어 측정(τὸ μέτριον, 24c7)되지 않는 무한자의 자연(특성)인 ‘더 많고 더 적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뜨거움과 차가움’, ‘더 마름과 축축함’, ‘더 크고 작음’, ‘더 빠름과 느림’, ‘더 길고 짧음’ 등 등의 모든 반대 쌍을 받아 들일 수 있다.

“6) 더 많고 더 적은 것처럼, 그리고 강함과 부드러움과 그리고 그 극단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한자** 라는 류 **하나**(εις ἓν, 24e9)에 함유된다고 봐야 하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에 따르는 것일세. 만약 자네가 기억한다면, [여럿에] 흩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함께 끌어 모아서**(συναγαγόντας, 25a2) **하나**의 어떤 자연을 그것들에 찍어줘야 한다는 것(24e7-25a4) ”

“7) 지금 방금 우리가 **무한자 하나**에 **함께 끌어 모아** 왔던 것처럼 그렇게 한정자 에이도스 (하나에로) 끌어 왔어야 했지만 우리가 그러하지 아니했던 바로 그 **하나**. 그러나 똑 같이 지금, 만약 이 양자가 **함께 끌어 모아** 짐을 통해 우리가 말했던 것이 도드라진다면, 동일할 것이네(25d5-d9) ”

량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더 많으면서도 적은 것들, 더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것들, 더 마르면서도 축축한 것들, 더 크면서도 적은 것들, 더 빠르면서도 느린 것들, 더 길면서도 짧은 것들 등 등의 **여럿을 함께 끌어 모아서**, 에이도스 **하나**에 **가져 오는 필레보스** 편의 여기는 **파이드로스** 편의 공통 에이도스 **하나**인 광기에로 사랑 등의 하위 것들을 함께 모아 끌어 가져오는 그리고 **소피스트** 편의 ‘기교’에로 생산과 획득 등의 차이들을 가져 오는 것을 다른 맥락에서 보완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매한 점은 관련된 모든 하위 에이도스들을 상위 것 하나에로 함께 끌어 모아 오려면, 이것들 모두를 **하나의 시선 안에 놓아 두어야 할** 텐데, 즉 직접 그것들 모두를 한꺼번에 **봐야(직관)** 할 텐데, 이러한 직관이 어떻게 가능하며, 가능하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파이돈** 편 ‘72a-77ab³³⁾’을 끌어 들인다. 상기(ἀνάμνησις, 파이돈

33) 물론 여기 파이돈은 영혼이 사람에 들어오기 전에 있어 왔다는 것의 증거(ἀποδειξις, 파이돈 73a5)로 사람 안의 영혼이 지금 지니는 이데아에 관

나눔

76a7, 想起)는 일 종의 직관이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되기 전에 보았던 같은 음의 이데아(에이도스)를 영혼이 같은 것들을 통해 연상(ἐννοήσαμεν, 파이돈, 75b6)³⁴할 때, 연상되는 그것 하나에 포섭되는 여럿을 함께 직접 봐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같은 여럿을 통해 같음 하나를 기억 해 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같음 하나에로 같은 여럿을 함께 끌어 모아 오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영혼의 기억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렇다.

3-1-1-2)나눔.

정의를 획득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은 직관에 의해 인식된 공통의 에이도스를 하위 것들로 나누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나눔은 나누는 자 몇 대로가 아니라, 해당 류에 있어서의(κατὰ γέννη, 소피스트, 235d1)하위 에이도스들의 자연적인 연결(분절)에 따라(κατ' ἄρθρα ἣ πέφυκεν, 파이드로스 265b1-2)종적인 차이들이 모두 보여질 때까지(τὰς διαφοφὰς ... ἐν εἶδει, 정치가 285b2-3, 286d9)행해져야 한다.

“8) 이렇게 해야만 하네. 한편으로 (같은) 여럿에게 공통인 것을 먼저 감각(지각)할 때마다, 어떤 자든 (공통인) 그것 안에 있는 모든 차이들을 선명하게 보게 될 때까지 멈추어서는 안되며, 다른 한편으로 다시 많은 것들에게서 부류의 같지 아니함을 볼 때 마다, 동족(τὰ οἰκεία, 285b5)인 모든 것을 같은 단일 것 안으로 이끌어 오기를(ἔρξας, 285b6), 그것들 모두가 어떤 류 안에 가두어질 때까지, 싫어 얼굴 찡그려하며 포기해서는 안된다네³⁵(정치가, 285a7-b6) ”

한 앎을 내세우기는 맥락이기는 해도 말이다.

34)달리 말하면 산과술(ἡ μαιευτικὴ τέχνη, 테아이테토스, 150b6, 210b8).

실체에도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방법들

(김익성)

나눔

같은 여럿과 그리고 이것들에 공통되는 것 하나를 직관하여, 그 하나 안에 여럿을 함께 끌어 모아 오는 것이 나눔에 선행(先行)한다면, 나눔은 관련된 같은 여럿의 차이들이 선명하게 확인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그리고 선명해지는 이런 차이들을 끝까지 갈라 놓아야(περιβάλληται, 정치가, 285b6)한다는 것이다. 정치가 편이 이런 언급은 관련 소피스트 편에서의 ‘나눔’을 보완 설명한다. 여러 종들을 혼동하지 않고 종·류에 따라 잘 나누려면(소피스트 편), 같은 것과 같지 않는 것의 구분을 근거지우는 차이들을 끈기 있게 모두 직접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정치가 편).

“9) 동일한 종이 다른 것으로, 다른 종이 동일한 것으로 이끌리지 않게 하면서, 류에 따라 나누는 것이 변증법적인 앎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았소? - 예 그랬습니다. - 각자 분리된 여럿에 두루 통해 퍼져 있는 이데아 하나,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더 큰 하나의 이데아에 포괄되어 있는 여럿, 그리고 여럿 전체를 두루 함께 묶고 있는 하나, 그리고 모두 분리되 따로 따로인 여럿, 이것을 두루 보는 것은 각 각이 서로와 공통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류에 따라 분간하는 앎과 능력일세(소피스트, 253d1-e2) ”

그러나 소피스트 편에서는 나누는 사례(事例)가 비교적 선명하게 주어 지기는 해도, 그것이 종·류에 따른다는 것 이외의 나눔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다. 반면 정치가 편에서는 올바르게 못한 잘못된 나눔과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준’ 그리고 적절한 길이의 나눔 등에 관한 논의가 주

35) 이것은 측정술을 두 가지 구분하는 맥락에 포함되는 글월이다. 서로만을 살펴 보아 각 각의 ‘더 많고 적음’을 측정하는 (상대적인) 기교로서의 측정술과 ‘척도’(τὸ μέτρον, 284c1)에 근거하여 각 각의 ‘더 많고 적음’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교로서의 측정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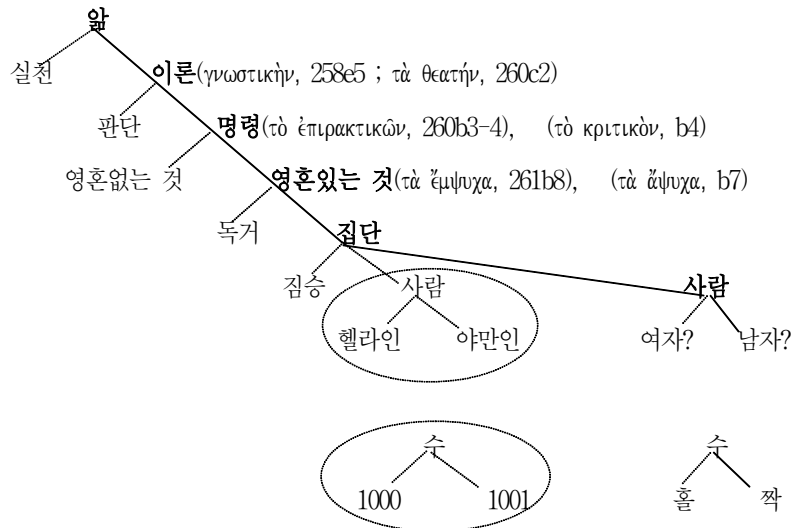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방법들

어 진다.

3-1-2-2-1)잘못된 나눔

잘못된 사례 중의 하나는 왕의 지배술(βασιλέως βασιτική, 259b1, 支配術)에 관련되는 에이도스들을 하위 것들로 나누는 과정에서 젊은 소크라테스는 다음 쪽 지점 ‘○’에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반면 그 우측은 올바른 나눔이며, 양 쪽 실선은 올바른 연결(분절)이다.



‘군중(群衆)에게 명령하여 그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생산(γενέσως, 261b1)토록 함을 통해, 관련 군중(群衆)을 양육(養育)하는 기교에 관한 앎을 지닌 자’로 정치가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14쪽 각주 11 번), 양육 대상인 사람을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누는 것처럼, 그 하위 종들로 잘못(ἡμαρτάνετο, 263e6)나눈다면 올바른 정의가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올바르지 못한

실체에도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방법들 (김익성)

중간으로 나눔

가?

하위 종(에이도스)들로 나누려면 먼저 그것들의 **차이**를 분별해야 만 한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곧 바로 상위 것을 쪼개는 경우, 쪼개진 부분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데아, *ιδέα*, 258c5)하나를 지닐 수 없을 것이므로, 에이도스(종)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뉜 부분(*τὸ μέρος*, 262b1)도 동시에 에이도스여야 하므로 그렇다. 그러나 부분이 종이지 못하고 위 ‘’에서처럼 ‘헬레네스’와 ‘야만’으로 사람(인, 人)을 나눌 경우, 비록 ‘야만’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긴 해도 야만이라는 그것은, 헬레네스 인이건 야만 인이건 모두 정치적일 수 있기에, 정치술이 적용되는 사람들을 차이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나누어야, 정치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차이나는가? 아마 성(性)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면(그 당시 여자는 정치에 참여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될 것이다. 수(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000으로부터 1001로 나누는 것은 수를 그 하위 에이도스(종)로 쪼개는 것이 아니다. 홀과 짝으로 나눌 때에만, 나뉜 부분들이 각각 하나의 에이도스(이데아)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2-2)가운데로 나눔

바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엘레아 낫선이는 ‘**정(正) 가운데로**’(διὰ μέσων, 262b6, 중간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라고 말한다.

“10) 그러나, 오 소크라테스여, 안전하지 못한 짓거리는 하지 말고, 더 많은 이데아(특징)들인 것에 부딪힐 수 있도록 **정(正) 가운데로(중간을 통해서)** 쪼개는 나아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네(... , διὰ μέσων δε ἀσφλέστερον ἵεναί τέμνοντας, καὶ μᾶλλον ἰδέαις ἢ τις προστυγχάνοι, b6-7). 이것은 조사 대상인 모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방법들

(중간)척도

든 것들의 차이를 따라가는 것이네(τούτο τὸ διαφέρει τὸ πᾶν πρὸς τὰς ζητήσεις, 262b5-c1) ”

3-1-2-2-1)척도(중간)

그렇다면, ‘정(正) 가운데로 나눈다’ 또는 ‘중간을 통해 나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뿐만 아니라, 차이들을 따라 나누다 보면 나뉜 만큼 구별된 하위 종들의 같지않음이 인식 될 것인데, 그것들은 어떻게 인식되며 왜 서로 다른가(ἕτερον, 263b5)? 상·하위 종들이 서로 다르게 인식되는 이유(45쪽)는, 논점에서 이탈(逸脫)하지 않기 위해, 다른 곳에서(91쪽) 밝히겠다고 선언 했으므로, 우리가 건너 뛸 수 밖에 없다면, 앞 물음 ‘중간을 통해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도 그래야 하는가? 건너 뛰지 말고, 단지 ‘차이들에 적중(適中)한다’는 뜻으로만 ‘중간을 통해 나눈다’를 이해하면 되는가? 안 된다. ‘중간’(μέσον, 262b6, 284e7)이 가리키는 차이 또는 에이도스는 초과와 부족(ὑπερβολογήν καὶ τὴν ἔλλειψιν, 283c3-4)이 양 극단을 해소하는 (ἀπωκίσθη, 284e7)그런 것(τὸ μέσον, 284e7)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간이 하나의 ‘척도’(τὸ μέτρον, 284c136)의 기능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24쪽).

“11) 언급됐건 것처럼, 우리가 측정술을 둘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네. 하나는 수와 길이와 깊이와 폭과 속도를 그 반대들과 관련하여(πρὸς τοῖναντίον, 284d5)측정하는 부분 기교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와 때와 마땅함(τὸ πρέπον καὶ τὸν καιρὸν καὶ τὸ δέον, d6-7)과 그리고 극단들을 중간으로 해소하는 모든 것(πάνθ’ ὅποσα εἰς τὸ μείσον ἀπωκίσθη τῶν

36)또 이것은 그대로 파이드로스 편(24c7)에 관련된다.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방법들

(김익성)

웃 감 짜는 기교 나눔

ἐσχάτων. d7-8)과 관련되는 것이다(284e1-8) ”

따라서 ‘중간으로 나누다’는 것은 ‘정확히 종(種)대로 나누다’는 것 보다
는 상대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양 극단 ‘초과’와 ‘부족’을 해소 해 주는,
‘척도에 따라 나누다’ 것을 뜻한다³⁷⁾. 바로 이러한 중간(척도)에 따라 나누
는 길이 가장 적절(τὸ πρέπον, 286d2)하다-빠르고 쉽다. 그 길은 정치인의
정의에 있어서 직조술을 그 본 보기로 하는 것처럼 우회하는(ἐν κύκλῳ,
283b3)것도 아니요, 신화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길고 장황한 것도 아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아래 ‘ㄱ’)과 같이 중간(척도)에 따라 나누는 길은 그 길이
에 있어서도 중간이다(μεσοτομείν, 265a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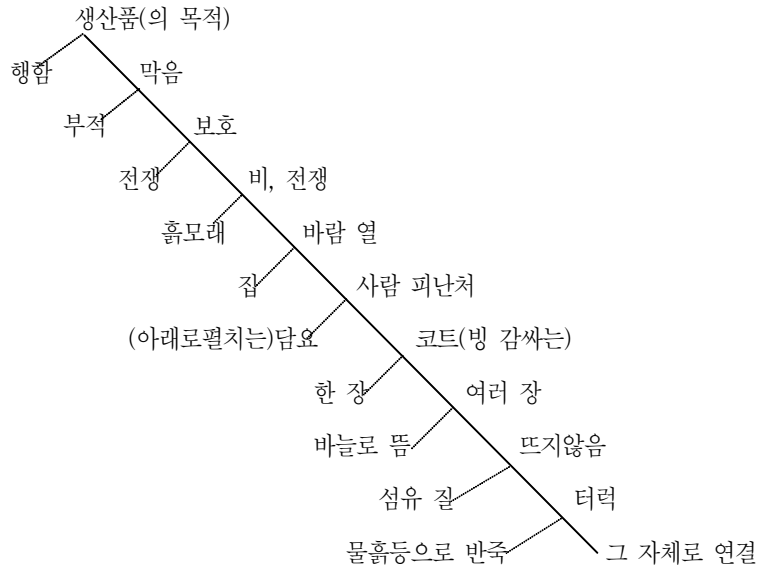
37) 정치가가 지니는 기교는 바로 이런 두 번째 측정술이다. 물론 첫 번째
측정술, 곧 반대되는 짝에 대하여 그 크기나 길이나 폭이나 속도 등이 더
 많거나 더 적다고 측정하는 기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두 번째 측정술이 더 정확하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방법들

자연적인 분절에 따라 나눔

ㄱ) 옷 감 만드는 기교(직조술)



그런데, 옷 생산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옷 감 짜는 직조술 이외에도 옷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들 만드는 기교들이 있다. ³⁸⁾가 원인들(τό συναίτιας, 281c4)로서의 이런 기교들은 다음 쪽의 ‘L’의 ‘ ’처럼 자연적인 분절에 따라(κατὰ μέλη, 287c3)나뉜다(96쪽).

3-1-2-2-3)자연적인 분절에 따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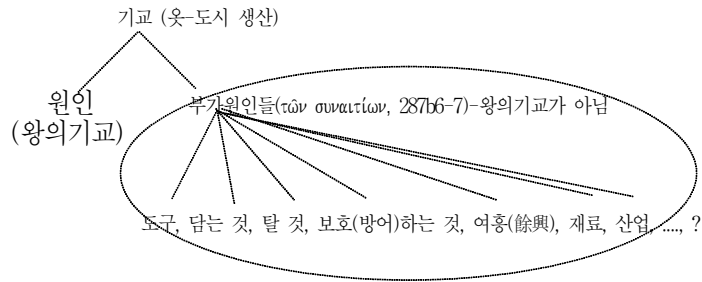
이런 부가원인³⁸⁾들은 두 가지가 아니라, 제의(祭儀)에 쓰이는 몸이 팔 다리들로 자연스레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적

38) 이런 원인들은 왕 또는 정치가가 아니라, 그의 명령에 따르는 자들이 직접 생산하는 종·류들이다.

자연적인 분절에 따라 나눔

계 나누어야 한다³⁹⁾.

ㄴ) 옷(도시)의 부가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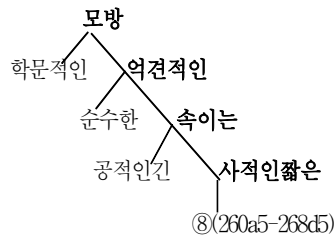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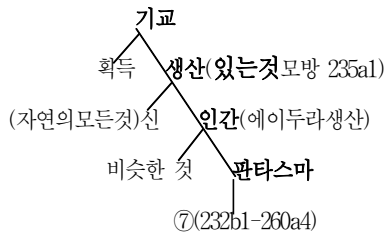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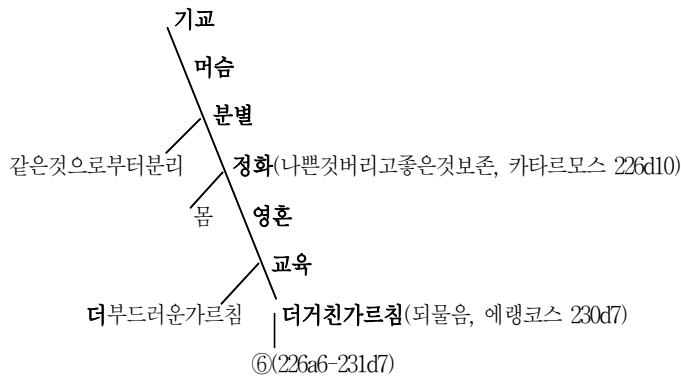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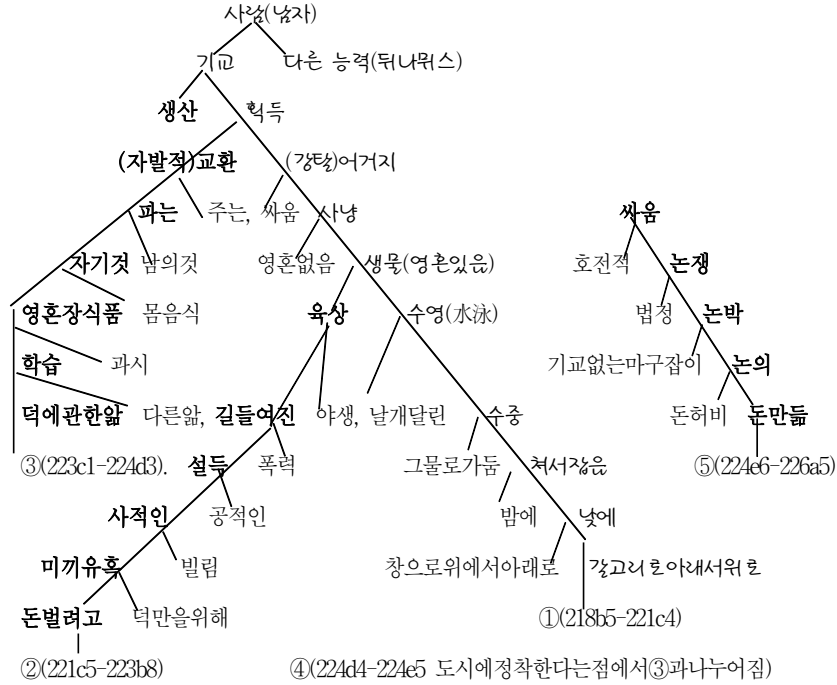
3-1-2-2-4)소피스트 편의 나눔(다음 쪽)

39) 가운데로 나누는 것과 '본 보기'를 들어 나누는 것과 자연의 분절대로 나누는 것 이외에도 '신화'를 빌려 와 그 안에서 나누는 방법도 사용한다. 그런데 자연적인 분절에 따라 나누는 것 이외의 것들은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점에서 같다.

(김익성)

실체으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방법들

낚시꾼과 소피스트 기교 나눔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방법들

(김익성)

결합(로고스)

이제까지 논의로부터, 1)종(차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2)나눔은 중간(척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 나아가서 '1)'보다 '2)'가 더 정확하고 길이에 있어 적절하지만(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변증법), 3)본 보기⁴⁰⁾와 신화에 따른 논의들도 정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부가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둘 이상의 자연적인 분절에 따라 나뉠 수도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래서 5)나눔은 에이도스들의 위계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잇따른다.

여기에 하나 더 첨언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나눔이 '발견'의 성격을 띠는 점이다. 나눔에 '선행'하거나 또는 '동시적'일 '직관'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감각은 아닌 이것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그리고 상·하위 종들의 같지 않음(헤테론, 차이)의 근거가 무엇인지(41, 93쪽)는 정치편에서는 애매하다.

3-1-2-3)결합—로고스(정의)

더 이상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나누었다면, 이제 정의하기 위해, 나뉜 것(에이도스)들에 붙여진 이름들을 결합(συνπλοκη⁴¹⁾, 소피스트 편

40) 각 각 유비적인 항들로서, 정치술의 경우에는 직조술이, 소피스트의 경우에는 낚시꾼이 그 본보기가 된다.

41)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들을 연결하여 문장(로고스)을 만들 때도, 'συνπλοκη'(범주론, 1a16)이라는 동일한 말로 그 연결을 나타낸다. 형이상학 Z(10)에서는 'συνειλημένου'(1035a28, 묶여지다)라는 낱말이 쓰인다.

259e6)시켜야 한다(156쪽).

“12)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각기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말할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에이도스들 서로의 **결합**을 통해 로고스가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일세(259e4-6) ”

그러나 그러한 **결합**은 이름(오노마)과 이름 사이에서가 아니라, 이름과 레이마(동사) 사이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이름에 동사(레이마)가 붙으므로서 말이다.

“13) (배우는 사람)은 단지 이름짓는 것이 아니라 **레이마**들을 **오노마**(이름)들에 **결합**한(σμπλέκων, 262d4)것에 다다른다는 것이 ... 분명하네. 이것이, ‘단지 이름 붙이는(ὀνομάζειν, d5)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말한다’(λεγειν, d5)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일세. 그리고 실로 우리들은 결합된 이것에(τῷ πλέγματι τουτω, d9?) 로고스라는 오노마(τὸ ὄνομα, 262d6?)를 주네(소., 262d2-6) ”

이름에 이름(명사)이 아니라, 이름에 동사(레이마)가 먼저 결합된 결과가 가장 단순한 로고스⁴²⁾(말)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레이마’는 어떠한 것이기에 이름에 붙는가?

“14) 분명해지는 **우시아**에 관한 소리의(τῆ φωνῆ περὶ τὴν οὐσίαν, 261e5)두 가지 류가 우리에게 어떻게든 있다네 - 어떻게? - 하나는 오노마들이라고, 다른 하나는 레이마들이라고 불리워지네 - 각 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42) 일 종의 이름(τὸ ὄνομα, 형., Γ, 1012a24)으로 다루어지는 로고스(153쪽)는 부호(σημεῖον, 1012a24) 하나이다. 그래서 로고스(문장) 하나를 대신하는 변항(變項)이 가능하다.

행위와 연관되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τὸ ἐπὶ τὰς πράξεις ὃν δήλωμα, 262a3) 우리는 **레에마**라고 부르네 - 예 - 그리고 문제의 그 행위들을 실천하는 (πράττουσι, a6) 것들에게 적용되는 소리의 기호(σημείον τῆς φωνῆς, a6-7)를 **오노마**(이름)라고 부르네 - 정확하십니다(261e4-262a7)".

우시아에 관한 말을 이루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행위를 가리키는 레에마(동사. 예를들어, '날아 간다')요 다른 하나는 그 행위 담지자를 가리키는 오노마(이름. 예를들어, '테아이테토스')이며, 이 둘은 소리의 기호(σημείον, 262a6)들이라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역사적인 파르메니데스의 **존재**(έόν)를 되 짚어 본다.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 존재의 길을 넓혀가는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파르메니데스 자신은 (여)신으로부터 배운(μαθήσει, 단편 서문, 29) 열 네 가지(11, 123쪽) '말'의 '표지'(σημα)들을 통해 **존재**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자였다. 이제 플라톤은 그러한 파르메니데스의 'σημα' 대신에 'σημείον'이라는 표현⁴³⁾을 (비)존재에 관해 말하는 여기에서 사용한다. 비록 '에온'(έόν, 파르메니데스)과 '온'(ὄν, 아리스토텔레스, 70a50)과 '우시아'(ουσία) 등의 말들이 쓰였긴 해도 이것들은 '존재'로 옮겨질 수 있는 동일한 예이나

43) 'σημείον'은 'Ionide σημήϊον / Doric σαμηϊον'을 거쳐 'σημα / Doric σᾶμα'로 발전된다[Regenstorf, 'σημείον, σημαίνω, σημειώω, ἄσημος, ἐπίσημος, εὐσημος, σύσημον'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Ed., G.Friedrich, Trans., G.W.Bromiley and D.Litt, VI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Michigan, 1971, p.201).

소피스트의 정의

이(εἶναι)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며, 이러한 존재에 관한 ‘말’(소리)의 ‘기호’(세
에마-파르메니데스, 세메이온-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⁴⁴)에 여기의 세 사람
들은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세메이온(기호) 또는 세마를 통해
존재에 다다른 방법이 선명해진다(160쪽).

어쩌든, 이름과 그리고 거기에 결합된 동사(레에마)로부터 성립한 가장
단순한(154쪽) 로고스들의 예는 ‘테아이테토스는 앓는다’이며, 이 로고스가
정의인 것의 예는 ‘소피스테스는 모방하는 자’⁴⁵이다. 가장 단순한 이러 정
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고정된 여러 로고스들은 아래처럼 취합(聚合)될 수
있으리라.

- 1) 젊은 이와 부(富)를 쫓아 다니는 돈 받는 사냥꾼(218b5-221c4, 221c5-223b8)
- 2) 영혼을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을 팔고 다니는 상인(223c5-223b8)
- 3) 배워야 할 품목들을 파는 정작 소매 상인(224d4-224e5)
- 4) 자신이 생산 해 낸 학습 품목들을 파는 상인(223c1-224d4)
- 5) 논박 기교⁴⁶ 부리는 말 싸움 선수(224e6-226a5)
- 5) 배움 방해하는 의견들을 제거하는 영혼 정화자(226a6-231c7)
- 6) 있는 것들을 모방하는 사기꾼 거짓말쟁이(234e7-235a1, 241b6-7)

44) 논증의 전제로서의 세메이온을 일상 의견들의 전제로서의 에이코스(분
석론 전서 B(27), 70a3)와 구분하긴 해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전제들
을 하나의 정의(로고스)로 간주한다(형이상학, Γ(7), 1012a23-a24)(123쪽).

45) ‘소피스트는 모방하는 자이다’라고 ‘이다’를 붙이는 것은 우리 언어 습
관이다. 영어의 ‘X is R’의 ‘is’를 따라서 말이다.

46) 둔한 젊은이들을 말로 호리는, 에이두라 만드는, 기교.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플라톤>무엇이나>방법들

(김익성)

정의

7)신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정의된 말로 에이두라를 생산하는 놀라운 기교의 부분으로 부터 환상을 만드는 류들에 (속하는), 역견술 중에서도 [그리한] 기만적인 부분들인 반대(모순)되는 말을 만드는 기교를 지닌, 모방하는 자(τὸ ... μιμητικόν, 268c8-9)(268c1-d2).

3-2)아리스토텔레스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실체(우시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답인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표현에 함축 될 뿐, 더 이상 독자적인 물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언급됐다(15쪽). 그렇다면, 형이상학 제타 편이 문제 삼는 우시아(실체)는 어떤 방법으로 정의되는가? 그 방법⁴⁷⁾은 플라톤과 같은가? 정의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두루 말을 많이 하는데⁴⁸⁾, 그 만큼 발전했다는 뜻인가? 여기에서 나는 나눔에 관련된 것들에 논의 초점을 주로 맞춘다.

3-2-1)정의

플라톤에 따르면, 존재가 말해지는 그 경계(ὄρον , 소., 247e3, 248a4’가 정의(로고스)⁴⁹⁾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존재가 아니라 제 1

47) 이것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의 방법으로서의 논증적인 추리(삼단논법)를 이끌어 낸다.

48) 형이상학(제타 4-6 장)과 분석론 후서(알파 31 장, 베타 1-13 장)과 토피카(알파 5-7 장, 베타 1 장, 에에타 1-3 장).

49) 정의는 차이들과 류들로부터 합쳐진 로고스(Ὅρος λόγος ἐκ διαφορᾶς καὶ γένους συγκείμενος, 정의론 414d10)이다.

정의

실체(형이상학 제타 편)가 거기에서 말해지는 로고스가 바로 정의⁵⁰⁾이다 (123, 128쪽). 이 경우, 비록 말해지지만 정의되는 대상은 그 로고스(말)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⁵¹⁾. 정의 자체는 단지 말 뿐이라는 것이다.

“15) 그리고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은 각 각 자체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처음으로 그것에 관해 논리적(λογικῶς, 1029b13)으로 말한다. ... 말하고 있을 때, 그것 자체는 로고스(말)에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각기 것의 본질)이다. καὶ πρῶτον εἴπωμεν ἕνα περὶ αὐτοῦ λογικῶς, ὅτι ἔστι τὸ τί ἦν εἶναι ἕκαστον ὃ λέγεται καθ’ αὐτό.(1029b12-b14) ... ἐν ᾧ ἄρα μὴ ἐνέσται λόγῳ αὐτό, λέγοντι αὐτό, οὗτος ὁ λόγος τοῦ τί ἦν εἶναι ἕκάστῳ.(1029b19-b21) ”

우선 순수하게 정의되는 것은 각기 것의 첫 번째 우시아들(τῶν οὐσιῶν, 형., 1030b5-6) 곧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들이다. 그래서 설령 실체 이외의 범주들이 같이(ὁμοίως, 1030b6)정의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실체의 정의 때문에만 가능한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의 되는 것은 ‘각기 것(범주론의 제 1 실체)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 에이도스)’일 뿐이다. 그러나, 느슨하게 말하자면, 실체 이외의 범주들도 실체에 덧 붙여지므로서(ἐκ προσθέσεως, 형., 1031a2), 정의 될 수

50) ὁρισμός(형., Z(4), 1030a7) 또는 ὅρος(형., Θ(1), 1048a36).

51) 있지만, 정의(말) 안에는 에이도스가(τὸ εἶδος, 자연학, 193a30-31)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정의와 정의 대상인 에이도스로서의 우시아는 정의와 ‘분리(χωριστὸν, 193b4-5)해 있다. 그러나 플라톤은 좀 다르다. 로고스(정의)도 엄연히 ‘존재’(소., 260b5)하기 때문이다.

정의

있다.

3-2-1-1) 정의될 수 없는 것

그러나 감각적인 실체(αι αισθηται, H(1), 1042a25-26)는 정의될 수 없다. 이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⁵²⁾ 그러한 자연 상태의 질료

52)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 실체(범주론의 첫번째 실체)들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닌 소멸하는 것들로서, 이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개별자(ἡ καθ' ἑκάστα, Λ(3), 1070a12)다. 물론 그것들에 붙는 범주들 보다 '먼저 **있기**'는 해도 말이다. '첫 번째' **있기**에 우시아(실체)라고 말해질 뿐이다(138쪽). 이에 일관(一貫)되게 형이상학 제타 편의 실체 역시 '첫 번째로' **있는** 것이라고 말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첫 번째로' 감각되고 **있는** 것이 문제 삼아지는 범주론과는 달리 형이상학에서는 '첫 번째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문제 삼아진다. '첫 번째'도, 인식에 있어서와 시간에 있어서 등, 여러 가지로 말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의 선후에 있어 실체들이 구분되다는 이것이 **있음**(τὸ εἶναι) 또는 실체(οὐσί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변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범주론에서는 **있는 것의 있음**이 범주들의 개수만큼 여럿으로 말해지는 반면 형이상학에서는 범주들과 그리고 잠재태와 현실태과 그리고 필연과 우연과 그리고 진실과 거짓 등의 여럿으로 말해지는데, 이것은 **있는 것의 '의미'**들 중의 한 차원 곧 범주적인 '의미'(151쪽, 129쪽 125번)의 **있음**만이 범주론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아리스토텔레스

정의될 수 없는 것

를 지닌 까닭에, 만약 그것들의 정의가 가능하다면, 그 정의들 역시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정의가 얇이라면, 얇은 때론 얇이었다가 때론 얇이 아닐 수는 없으므로, 항상 그것에 관한 정의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설령 영혼 안에 감각 실체에 관한 로고스에 상응하는 것이 있다고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영혼 밖의 감각실체가 있지 않다면, 정의나 얇은 더 이상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감각실체에 관한 정의는 불가능하다. 나아가서, 감각적인 실체가 정의될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이 그것으로 이루어진 질료 때문이라면, 역시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질료 관한 정의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질료의 자연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한 그런 것인 데다, 본디 무 규정적인(ἀόριστον, 1037a27)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료, 감각적인 실체(개별자) 등에 관한 정의는 있지 않다. 그러나 정의될 수 없다고

이도스가 첫 번째 것(범주론)과 두 번째 것이라고 달리 구분되어 말해지는 이유는 감각에 있어서는 감각실체가 먼저(첫 번째, 범주론), 얇에 있어서는 에이도스가 먼저(형이상학 제타 편), ‘인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라는 말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을 맥락에 따라 바꿈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될 때 ‘먼저’ 가리켜지는 것과 알려질 때 ‘먼저’ 가리켜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해당 용어들의 여러 ‘focal’ 의미(하나를 가리키는 그러나 하나와 동일하지 않는 여러 의미)들을 형이상학과 범주들 전체에서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반복하여 구분하는 것이다.

실체으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아리스토텔레스

(김익성)

정의될 수 없는 것

해서 그것에 관한 말(로고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말이 정의는 아니라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서, 플라톤적인 이デア의 정의도 있지 않다. 이른 바 이デア론자들이 말하는 ‘이デア’는 각기 것(개별자)과 분리해 있기 때문이다. 정의란 ‘개별자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의 정의인데, 이デア가 개별자와 분리된다면, 어떻게 그것들 안에 있어 올 수 있을 것인가? 없다. 따라서 분리된 것은 정의 될 수 없다. 그러기에, 어떤 이デア론 자도 ‘이デア’를 정의할 수(οὐδείς ὄρον, 형., Z(5), 1040b2)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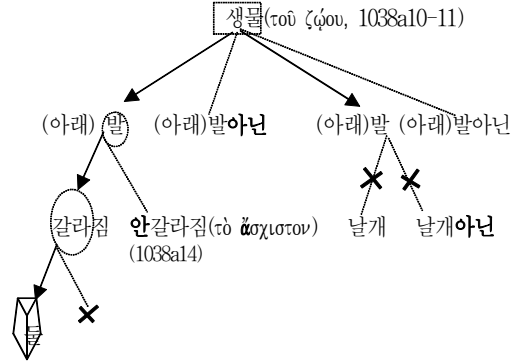
3-2-2)방법.

3-2-2-1)차이에 따라 나눔

그렇다면, 감각적인 실체 안에만 있는 첫 번째 우시아들⁵³⁾을 정의하는 방법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플라톤의 경우, 정의 방법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종별(種別)로 나뉜 것들의 이름들을 말로 결합하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나눔에 의한 정의는 인정한다. 정의란 류의 맨 끝 차이로 이루어진 로고스(ἡ τελευταία διαφορὰ ἢ οὐσία τοῦ πράγματος ἔσται καὶ ὁ ὀρισμός, 1038a19-20)(137쪽)이기 때문이다. 나뉘는 과정을 그리면 다음 쪽과 같다.

53) 만약 감각적인 실체와 분리됐다면, 첫 번째 실체들은 정의 또는 논증 이외의 방식으로 말해져야 할 것이다.

차이에 따라 나뉘



그러나 차이에서 차이로 나눌 때(διακρίσθαι τὴν τῆς διαφορᾶς διαφορᾶν, 1038a9-10), 매끈하고(καλῶς, 1038a13)올바르며(κατὰ τὸ ὀρθόν, 1038a31) 고유한 방식으로(τῆ οἰκείᾳ, 1038a24) 프라그마(사태)에 맞게 나뉘어야 한다. 위 'X'는 불 가능한 나뉘음을, 네모는 류를, 등금은 그 류의 종적인차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차이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다시 말해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맨 끝 차이(윗 삼각 기둥)⁵⁴가 나타날 때까지, 나누어져야 한다(137쪽). 이러한 맨 끝 차이와 첫 번째 류로 정의는 이루어진다. 나아가서 이러한 정의는 그 자체 하나라고 말하여진다. 정의되는 것, 곧 첫 번째 우시아는 그 자체로 '하나'인 '이 것'이기 때문이다⁵⁵). 바로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우시아가 인식된다(67쪽).

54)그래서 차이들이 있는 그 만큼 종(에이도스)들이 있다.

55)다른 기체에 속하므로서 비로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3-2-2-1-1) 차이들

류에 속하는 것들 중 어떤 것은 동일한 류 밖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 류 안 다른 것으로까지 보다 넓어(ἐπεκτείνει, 96a24)진다. 이러한 보다 넓어 짐을 그는 (류에) ‘속함’이라고 말한다. 예를들어 홀(περιττόν, a32)은 세 배 에도 속하지만 다섯 배에도 속한다. 그러나 수 아닌 것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다 많이 ‘넓어지는’ 것이 그 류 안의 첫 번째 것(범주, 차이) 이라고 불리운다. 다시, 세 배는 홀에, 모든 수에, 측정될 수 없는 수적인 것에, 속한다. 물론 홀 보다 넓지는 않다(보다 많이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있는 그 무엇이며, 동시에 세 배는 자신 이외의 어떤 다른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그 류 안의 원자적인 마지막 차이(범주)로서의 **우시아**이다.

이제, **정의**는 그 류 안의 종적인(원자적인) 첫 번째 것(범주)의 정의이다. 예를들어, 세 배와 두 배의 정의와 그리고이며, 직선과 곡선과 직각의 정의처럼 말이다.

그러나 **차이들**에 따른 **나눔**은 이러한 정의에 쓸모(χρήσιμαί, 96b25)있긴 하나, 추리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만 쓸모있다. 각기 모든 추리는 정의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나누는 길에 의해서만 있는 그 무엇 안의 모든 것 각 각이 남김없이 밝혀진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 그 다음 것 등으로 나누어 간다면 맨 마지막에는 더 이상 다른 것과 차이나지 않는 것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 번째 그것에는 그 류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ἐμπίπτει, 97a2). 예를들어 새의 첫 번째 것에는 모든 새 각 각이 포함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포함되는 다른 것 각 각은 이러한 **차이들**

나눔의 조건들

덕분이 아니다. 많은 차이들이 종적으로 동일한 것들에 속한다는 것은, 차이 덕분에 그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 차이들은 자신들 사이(μεταξύ, 97a21)에 아무 것도 지니지 않는 모순적인 대답들 또한 아니다.

3-2-2-2)나눔에 있어서의 조건들

그런데 나누는 동안에는 1)있는 그 무엇 안의 범주(차이)들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2)첫 번째와 두 번째 것 등 등이 무엇이라는 것과 이것들에 순서가 정해져야 하고, 3)순서 매겨진 이것들은 남김없이 말하여진 모든 것이라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2'는 다음처럼 완성된다. 범주(차이)들 중 첫 번째 것은, (류에) 속한다는 사실이 우연적인 것과 관련하여 삼단논법화되는 것처럼, 류를 통해 얻어진다. 그리고 이것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잇따르나 그 거꾸로는 아니므로, 두 번째 것은 다른 것들의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어 세 번째 것은 그 다음 것의 첫 번째 것일 것이다. 상위(上位) 것은 추상된 것이고(ἀφαιρέθεις, 97a33), 그 다음 것은 알려진 것의 첫 번째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그대로의 순서를 따라 가면 있는 그 무엇 안의 범주(차이)들의 순서는 정해진다.

나아가서 3)순서 매겨진 이것(차이)들이 있는 그 무엇 안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음으로부터 선명해진다. 첫 번째 것이 정해지면, 이러 저러한 각기 다른 모든 것(차이)는 이것 또는 저것에 속할 것이나 마지막 차이에는 그 아무 것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류건 차이이건 어떤

나눔의 조건들

것도 빠트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차이들이 확인되고, 중국에는 확인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없게 된다.

이제, 나눔이 완성되면, 차이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것들 각각이 동일한 것으로서의 무엇을 지니는지를 조사한 후, 다시 동일한 류 안의 **다른** 것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조사된 동일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지니는 **동일한** 것 하나를 파악(ἀναφοῖς, 97b10-11)하여, **로고스 하나**에 이르러야 한다. 이 동일한 것 하나와 마지막 차이로부터 이루어진 로고스 하나가 해당 프라그마의 **정의**이다. 그래서 만약 로고스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에 이른다면,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고⁵⁶⁾, 그래서 그것은 유비적으로(by an ambiguity, W.D.Ross, 1923, 53쪽)만 정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모든 **정의**는 보편적인 것이다. 의사는 어떤 눈(ὀφθαλμοῦ, 97b26, 目)에게가 아니라 모든 또는 종적인 눈에게 해당되는 건강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적인 그것이 **정의**에 선명하게 속해야 한다.

56) 예를들어 자존심의 무엇임(자존심의 정의)을 조사한다고 해 보자. 알키비아데스와 아길케우스와 아이아스 그리고 휘산드로와 소크라테스 모두 자존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지니는 동일한 무엇(τὸ αὐτὸ, 97b23)하나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앞 세 사람의 경우 모욕을 참지못함인 반면 뒤 두 사람의 경우 행(幸)에 무관심인가? 그렇다면 행(幸)에 무관심과 모욕을 참지 못함 이 두 가지 것이 지니는 동일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만약 없다면 두 가지 자존심이 있을 것이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아리스토텔레스>방법

나눔에 관한 비판

류 안의 각기 종으로 분리되어 말해진다면-예를들어 모든 것에 있어서의 같음과 날카로움이 아니라, 색과 모양에 있어서의 같음과 소리에 있어서의 날카로움처럼 분리되어 말해진다면-, 그리고 이런 길에서 종적인 그것들에 공통인 것으로 진행된다면, 종적인 것은 정의 안에서 선명 해 질 것이다. 다음으로, 정의 할 때 비유하지 말아야 한다. 비유에 의해 말하는 것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50쪽, 100쪽 각주 93번).

3-2-2-3)나눔에 관한 비판

그러나 나눔에 의한 정의은 논증된 것이 아니다. 논증 안에 일시적으로 전체(ὑποτιθέμεναι καὶ λαμβάνουσαι, 90b31-32)되는, 그래서 논증에 의해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이 나눔에 의해 탄생한 정의이기 때문이다.

3-2-2-3-1)증명되지 않는 중간 항을 요청했다

그래서 나누는 자들은 자신들이 보편자로 간주한 **중간**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요청(αἰτεῖται, 46a33-34)했다. 그러나 논증적인 추리가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간**은 첫 번째 것 보다 항상 더 적어야 하고,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나눔은 이와는 반대다(τοῦναντίον, 46b2). ‘보편자’를 중간으로 취하기 때문이다. 사람(Δ)의 로고스를 얻어 내기 위해서 생물(A)와 멸함(B)와 불멸(Γ)를 이들은 추측한다. 이 경우 각기 모든 A는 B 또는 Γ 이다. 그런데 나누는 과정에서 이들은 사람을 A로 항상 정립한다. 따라서 A는 Δ 에 속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추리(삼단논법, 연역)은 각기 모든 Δ 는 B 또는 Γ 라는 형식을 띠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멸 또는 불멸이라는 것

은 필연이지만, 멸이라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오히려 요청된다(αἰτεῖται, 46b12). 그러나 요청되는 바로 이것이 연역(삼단논법화)되어야 한다. 나누는 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멸하는 생물 A와 발달림 B와 발달리지 않음 Γ와 사람 Δ를 정립하면서(θέμενος, b12, 받아 들이면서), 'A는 B 안에 또는 Γ 안에 있지만, Δ의 측면에서 A이다'라고 추측(λαμβάνει, b14)한다. 각기 모든 멸하는 생물은 발 달리거나 또는 발 달리지 않으며, 사람은 멸하는 생물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측면에서 생물은 발 달리거나 또는 발 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필연이지만, 발 달린다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발 달림' 이것이 증명(δείξιαι, 46b19)되어야 한다(142쪽).

이런 식으로 항상 나누어 가면서 그들은 **보편자를 중간**으로서, 그리고 **차이들**로서의 극단들로서 추측할 뿐, 이것들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명되어야 할 것들은 바로 그 중간이다. 그래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중간(멸함과 발 달림)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류를 통해서 나누는 자들은 증명하지도 않았고, 선명하게 하지도 않았다. 다른 길(ἄλλος, 46b23, 33)로 빠졌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들은 분명히 쓸모 없는 일을 했다(οὐτ'.....χρήσιμος, 46b36-37).

그러나 비록 논증이 아니기는 해도 나뉘는 것에 의한 정의는 어떤 것을, 귀납처럼, 분명하게(δηλωῖ, 분석론 후서 베타 편 5장 91b35)하기는(증명하기는)한다. 그것이 **중간**을 논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서 '약한'(ἄσθενής, 분석론 전서 알파 편 31 장 46a33)삼단논법(연역)이라는 것이다.

3-2-2)중간 (항)이란?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아리스토텔레스>방법

논증적인 추리 과정에서 증명되는 **중간**(μέσσω, 90a35)은 예를들어 아래의 **이지러짐**이다.

- ⓐ 사실(τὸ ὅτι) → (해 또는) 달이 **이지러진다**(일식(日蝕)과 월식(月蝕)).
- ⓑ 이 사실의 이유(τὸ διότι) → 땅의 가림에 의한 빛의 소멸(ἀπολείπειν, 99a18).
- ⓒ 그것이 있는가(εἰ ἔστι)? → (해 또는) 달의 **이지러짐**이 있는가?
- ⓓ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τί ἐστὶ)? → 땅의 가림에 의한 달빛의 결여(ζέρησις, a16)

‘ⓐ’에서는 이지러짐 이라는 사태가, ‘ⓑ’에서는 이지러지는 이유(αἴτιον, 90a7)가, ‘ⓒ’에서는 이지러지는 것의 존재가, ‘ⓓ’에서는 이지러져 있는 것의 무엇(임, 본질)이 문제 삼아지는데, 이지러지는 사태(ⓐ)가 발견되면, 이지러지는 것의 존재 여부(ⓒ)가 조사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있다-존재한다면, ‘있는 그것의 무엇’(임, ⓓ)이 조사될 것이기 때문이다(145쪽). 있는 그 무엇(본질)과 있는 그 이유(원인, ⓑ)는 동일하므로 그렇다⁵⁷⁾. ‘이지러짐은 땅의

57) 아리스토텔레스의 격식(분석론 전서, 29b8-9)에 따른 중간 항을 ‘지구의 가림에 의한 빛 소멸(이지러짐)’(B)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논증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빛 잃음(이지러짐)(A)은 지구에 의해 가려짐(B)에 모두에 속하고, 그리고 지구에 의해 가려짐(B)이 달(Γ)에 속한다면, 빛 잃음(이지러짐)(A)은 달에 속한다는 것(ὅτι)”

이것이 월식(月蝕)을 그대로 설명하지 않는가? 월식(달의 이지러짐)이라는 사실의 이유(원인)은 ‘지구의 가림에 의한 빛 소멸’이고, 달에 존재하는 이지러짐의 무엇임(τὸ τί ἐστίν, 본질)도 ‘지구의 가림에 의한 빛 결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러나 달에 존재하는 이지러짐의 그 무엇임(τὸ τί

실체으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아리스토텔레스>방법

(김익성)

가림에 의한 달 빛의 결여'(\ominus)이며 달이 이지러지는 이유는 '땅의 가림에 의한 빛의 떠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조사 모두에서 **중간**(이지러짐)이 문제시된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조사하는 길은 다르며, 그 순서도 정해진다. 우선, 사실이 발견되는 것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사실의 이유가 조사된다. 이 순서는 뒤집어질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중간을 통해서($\delta\iota\alpha\ \mu\acute{\epsilon}\sigma\omega\nu$, 93a36) 사실을 발견한다면 동시에($\acute{\alpha}\mu\alpha$, 93a35) 사실과 사실의 이유를 우리는 보아 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 있다면, 있는 그 사실의 무엇(임, 우시아, 본질)이 조사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중간을 통하지 않고 그 사실을 발견한다면, 사실은 보아도 사실의 이유($\tau\acute{o}\ \delta\iota\acute{o}\tau\iota$, 93a36)을, 그래서 있는 사실의 그 무엇(임)을 알지 못 할 것이다⁵⁸). 사실의 이유(원인)와 **있는** 사실의 무엇(임)은 동일($\tau\acute{o}\ \alpha\upsilon\tau\acute{o}$, 90a15; $\tau\alpha\upsilon\tau\acute{o}\nu$, 94a34)하기 때문이다⁵⁹). 바로 이러한 중간 원인

$\acute{\epsilon}\sigma\tau\iota\nu$)을 그 이지러짐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tau\acute{o}\ \tau\acute{\iota}\ \eta\nu\ \acute{\epsilon}\iota\nu\alpha\iota$)와 동일시하면 앎된다.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 곧 첫 번째 우시아와 각기 것에 '있는 그 무엇'(우시아 이외의 범주들)은 구분되기 때문이다.

58) 예를들어 A(이지러짐) B(사이에 아무 것도 없다면 둥근달에 그림자를 생산할 수 없다) Γ (달) 이라고 해 보자. 그런데 중간(지구의 가림에 의한 빛의 소멸과 결여)을 통하지 않고, 바로 달의 이지러짐(Γ 에 A속함)을 발견한다면, 비록 달의 이지러지는 사실은 불지라도 그 사실의 이유(원인), 나아가서 일그러지는 달에 **있는** 그 무엇(본질)을 보아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59) 바로 여기에서 사실의 **이유**와 존재하는 사실의 무엇임(본질)이 동일시

을 보는 것이 바로 앞이다. 중간 것을 통한 논증을 통해 그 네 가지를 보아 알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됐던 것과 되는 것과 있는 것과 있을 것은 모두 각 각 같은 질의 것(ὁμόγονον, 95a39)들이 아니어서, 점들처럼 서로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⁶⁰⁾, 됐음과 됨과 있음과 ‘있을’(ἐπὶ τοῦ ἔχει, 95b26)각 각은 한계들(πέρατα, 95b4-5)이고 원자들(ἄτομα, 95b5)이다. 그래서 만약 논증이 이루어 지려면 이것들은 연속적인 것(τὸ συνεχόν, 95b2)을 통해 이어져야(ἐφεξῆ, 95b13)한다. 바로 이 연속적인 것이 중간이다. 따라서 중간은 같은(질의) 것(τὸ ὁμόγονον, 95a37)이어야 한다.

3-2-3)정의와 논증

논증(ἀπόδειξις, 90b33)은 어떤 것이(εἰ ἔστι)있다는 것을 어떤 것에 따라(τὶ κατὰ τινος, 90b34)증명하므로, 있는 무엇(임, τί ἐστὶ)⁶¹⁾‘증명’하는

된다. 이지러짐은 무엇인가? 지구의 가림에 의한 달로부터의 빛의 결여이다. 무엇 때문에(διὰ τί, 90a16-17)이지러짐이 있는가(이유)? 또는 무엇 때문에 달이 이지러지는가? 지구의 가림에 의한 빛의 떠남이다.

60)따라서 됨(생성)과 있음의 구분은 여기에서도 드러난다(논문1, 16, 203쪽)

61) 여기서는 분석론 후서 베타 편 3 장에서는 실체(우시아)가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물음의 변형(15쪽, 68쪽)

(δείκνυσιν, 90b34) 정의는 논증과 다르다. 왜 그러한가?

첫째, 논증의 대상(어떤 것의 있음)과 정의의 대상(그것의 무엇(임))은 서로의 부분(μέρος, 91a6)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들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 전체의 부분이라면, 모든 삼각형이 증명 될 경우 이등변삼각형은 2 직각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처럼, 어떤 것이 있다는 것과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 역시 그런 식으로 밝혀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의 대상인 사실(어떤 것)의 본질과 논증의 대상인 사실(어떤 것)의 존재는 서로의 부분이 아니므로⁶²⁾, 본질(무엇임)에 대한 정의가 존재함에 대한 논증일 수는 없다. 따라서 논증의 대상 중의 하나가 정의의 대상일 수는 없다.

둘째, 정의의 전체(ἅπαντος, 90b18)가 논증 전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논의에 따르면, 정의와 논증을 동시에(ἅμα, b13)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하므로(논증 대상 중의 하나가 정의의 어떠한 대상과 다르기에), 논증 없는 정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안다는 것은 논증을 지니는 것⁶³⁾

이긴 해도, 여기의 ‘τί ἐστὶ’는 존재가 아니라 **우시아(본질)**의 정의에 관련된 물음이기 때문이다.

62) 사람이 있다는 것(사람의 있음, τὸ εἶναι, 92b10)과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사람의 무엇임, 본질)은 다르다. 있음은 어떤 측면에서도 실체(29b14)가 아니기 때문이다. 있는 것은 류가 아니므로.

63) 추리(ἐνσυλλογισμῷ, 테아이테토스, 186d3)에 얹어 있다는 것은 플라톤에게도 공통된다.

이므로 만약 정의가 논증이라면 단지 정의만으로도 얕이 성립한다는 불가능한(ἀδύνατον, 90b22-23)일이 생겨날 것이다. 더구나 본질(있는 그 무엇)에 관한 로고스, 곧 순수한 정의는 단지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단지 정의만으로도 얕이 가능하다면, 얕이므로 논증은 단지 하나만의 로고스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나아가서, **정의**는 모두 보편적이면서 긍정적인 로고스인 반면, **연역**(삼단논법)에는 부정적인 것(2격)과 보편적이지 않는 로고스(3격)가 가능하며⁶⁴⁾, 그리고 예를들어 ‘모든

64) “εί τὸ A παντί τῷ B, τὸ δὲ B τινὶ τῷ Γ, ὅτι τὸ A τινὶ τῷ Γ(29b8-9)”은 1격(σκήμα, 분석론 전서 28a11), “οὐδενὶ τῷ M ὑπάρξει τὸ N· τὸ δὲ γὰρ M παντί τῷ E ὑπέκλειτο· ὥστε τὸ N οὐδενὶ τῷ E·(27a7-8)”은 2격, “εί γὰρ παντί τὸ Π τῷ Σ ὑπάρχει, τὸ δὲ P τινὶ τῷ Σ, καὶ τὸ Π τινὶ τῷ P ὑπάρχει·(28b26-27)는 3격인데, 3격 속하는 모든 식(moods: Darapti, Felapston, Disamis, Datisi, Bocardo, Ferison)에서 보편적이지 않는 로고스가, 그리고 1격의 Celarent 식과 2격의 Cerare와 Camestres 식에서 부정(否定)적인 로고스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논증의 대상은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α*: 보편긍정, *e*: 보편부정, *i*:특칭긍정, *o*: 특칭부정). 반면, Barbara(1격)와 Celarent(1격)과 Cesare(2격)와 Camestres(2격)은 결론이 보편적이거나 Darii(1격)와 Ferio(1격)과 Festino(2격)와 Baroco(2격)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그리고 Barbara(1격)와 Darii(1격)와 Ferio(1격)과 Festino(2격)와 Baroco(2격)은 긍정이다(W.Kneale and M.Kneale, 1962(1978), 72-72쪽 참조).

량화사(量化辭)와 대당(對當)의 방형(方形)에 있어 아래 두 가지 것에 유념해야 한다. 위 논증에서 보여지듯, ㄱ)량화사는 주어가 아니라 모두 술어에 붙는다는 것. 알파가 모든 베타에 속하고 베타가 어떤 감마에 속하면 알파는 어떤 감마에 속한다는 것(1격)과, 어떤 뮈에 뉘가 속하지 않고 뉘가 모든 크시에 속한다면 뉘는 어떤 크시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2격)과, 모든 시그마에 피가 속하고 로오가 어떤 시그마에 속한다면 피는 어떤 로오에 속한다는 것(3격).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보다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속하며 어떤 사람에게 소크라테스가 속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어떤 죽음에 속한다’이다. 그래서,

ㄴ)전칭(보편)과 특칭판단의 주어에는 어떤 량화사도 붙지 않는다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πάν) 또는 ‘어떤’(τι)에 모순(ἀντιφατικῶς)되는 량화사로 ‘어떤 것도 아님’(μηδενί 혹은 ουδενί) 또는 ‘어떤 것이 아님’(τινί ... μὴ)을, 그리고 ‘모든’ 또는 ‘어떤’에 반대(ἐναντιῶς)되는 량화사로 ‘어떤 그것도 아님’ 또는 ‘어떤 것도 아님’을 설정하므로, 량화사가 주어가 아니라 술어에 붙는 다음과 같은 판단의 대당(對當) 관계가 성립된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보편긍정판단)의 모순은 ‘죽음은 어떤 사람에도 속하지 않는다’(보편부정판단)인 반면 그 보편긍정판단의 반대는 ‘죽음은 어떤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특징긍정판단)이며 그리고 ‘힘은 어떤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특징부정판단)의 모순은 ‘힘은 어떤 그 사람에게 속한다’(특징긍정판단)이고 그 특징부정판단의 반대는 ‘힘은 어떤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보편부정판단)이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정의>아리스토텔레스>방법

정의의 종류들

삼각형은 2직각과 똑같다'와 같은, 정의가 아닌 긍정(κατηγορικῶν, 90b8)각각이 논증(1격)에 허용된다. 따라서 그 전체에 있어서 논증의 대상은 정의의 대상일 수 없다. 정의되는 모든 것의 논증도, 논증되는 모든 것의 정의도, 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와 논증 이 양자는 어떤 동일한 대상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정의와 논증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다른 어느 하나에 다른 어느 하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기체가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논증은 정의의 대상인 본질을 가정하고 추측하므로(ὑποτιθέμεναι καὶ λαμβάνουσαι, 90b31-32), 정의들(ὀρισμοί, b24)은 이러한 논증의 아르케에들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눔에 의한 정의 방법을 과학(학문)의 방법으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분석론 전서 알파 편, 31장과 분석론 후서 베타 편 5 장과 13장). 뿐만 아니라, 논증적인 추리 '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눔에 의한 정의는 앞으로 불리울 수 없다고 한다. 논증 안에서 증명될 때만 정의는 비로소 앞서라 불리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그는 논증적인 정의라고 한다.

3-2-3-1) 논증적인 정의와 비 논증적인 정의

논증 '안'의 정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의가 있으며, 논증에 '의한' 정의가 있다. 따라서 정의도 구분된다. 논증 안의 정의는 증명되는 중간 항을 통해 논증되는 그 무엇의 자체로 하나인 로고스인 반면, 논증 안의 것이 아닌 정의는 증명되는 중간항을 통하지 않는 그래서 논증되지 않는 그 무엇의 로고스이며, 논증에 '의한' 정의는 논증 결과 '확인 된' 로고스이다. 따라

정의의 종류들

서 두 번째 정의는 비 논증적인 로고스인 반면 세 번째 정의는 논증의 결론으로서의 로고스이며 첫 번째 정의는 논증 중인 로고스이므로, 이 셋 중에서도 첫 번째와 세 번째 정의가 연역(συλλογισμός, 94a12)에 관련된 본질의 로고스이다. 이렇게 동일한 로고스(정의)가 세 가지 다른 길에서 말해진다.

나아가서, 소위 나눔에 의한 정의 즉 비 논증적인 정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인 반면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정의 즉 논증적인 정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것이 있는 이유를 증명해 낸다. 전자는 천둥의 무엇(임)만을 말해주지만 후자(논증적인 정의)는 천둥의 무엇임과 더불어 천둥치는 이유를 함께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불이 구름 안에서 소멸(B)되기 때문에 치는 천둥(A)은 그러한 구름(Γ) 안에서 소멸하는 불의 소리이므로, 천둥치는 이유와 천둥의 무엇(임)이 함께 증명해 주므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정의는 다른 길(τρόπον, 94a6)로 말해진다-차이 난다(διαφέρων, a12)⁶⁵. 첫째, 논증에 따르

65) 그러나 이것이 정의를 소위 실질적인 것과 이름 뿐인 것으로 구분해 주지는 못할 것처럼 보인다. 실질 정의의 '실질'이 정의 대상의 존재를 의미한다면 말이다. 나눔에 의한 정의 역시 대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논증적인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의 안에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는 해도 말이다(50쪽). 물론 나눔에 의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증명되지 않는 중간항을 전제하는 까닭에 앞의 수준에서의 인식은 아니다.

나아가서 논증적인 정의는 비 논증적인 정의와 구분될 뿐만 아니라, 여

정의의 종류들

는 정립(τῆ θέσει.....τῆς ἀποδείξεως, 94a2)인 논증 안의 정의, 둘째, 非 논증적(ἀναπόδεικτος, 94a10)정립인 소위 나눔에 의한 정의, 셋째, 논증 결과 ‘확인’되는 정의등. 따라서 나눔에 의한 정의는 있는 그 무엇(임)을 논증하지 못하는 로고스인 반면, 논증적인 정의는 있는 그 무엇을 연역(삼단논법) 해 내는 로고스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만 정의는 얇이다(54쪽).

러 가지로 말해지는 ‘focal’(하나를 간접적으로 가리키면서, 그 하나에로 환원될 수 있는-수렴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가리키는) ‘정의’(τὸν ὀρισμὸν, 형이상학, 제타(5), 1031a9)와도 구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정의를 실제적인 것과 단지 이름 뿐인 것으로 나누는 것에 상응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 Whitaker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름 뿐인 정의로부터 실제적인 정의로 나아가는 또는 어떤 낱말이 지시한다고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실제로 지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탐구를 위한 방법[a method of enquiry, Whitaker(1966, 212쪽)]이 없다’(Rijk, 2002(I), 705-706쪽도 참조).

실체으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실체(οὐ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

(김익성)

4) 존재와 실체(οὐσία)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정의 대상은 존재가 아니라 실체(우시아)이며, 존재물음은 우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인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으로 변형됐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했다(15쪽, 62쪽 각주 60번). 그렇다면 왜 그는 플라톤의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우시아는 무엇이냐’에로 환원시켰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소피스트 편에서 제기되는 존재물음을 살펴보기 위해 나는 관련 번역(1쪽)을 다시 반복 하므로써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4-1) 플라톤의 존재물음

“1)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으므로, 있는 것이 발설 될 때마다 가리켜지는 그 무엇을 당신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오래 전에 인식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전에 알았다 싶었는데 지금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이 발설될 때 가리켜지는 무엇)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소., 244a4-8) ”

어려움에 빠졌다면 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려움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가 선명 해 져야 한다.

4-1-1) 아포리아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어려움(ἀπορία, 236e3)들은 있지 않는 것을 (εἶδουλα, 234c6)을 **말** 하려는⁶⁶⁾데서부터 시작된다. 있지 않는 것을 말하기

66) ‘있지 않는 것은 있지 않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있지않는 것의 엄청난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것이 있다고 해야 하는 데, 이 때 빠져드는 불합리한 (ἄτοπον, 소., 240c2) 모순(έναντία, 소., 241e5)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소피스트 편이 보여 주는 첫 번째 어려움이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 ‘전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입조차 병긋할 수 없다’⁶⁷⁾(τὸ μὴ ὄν αὐτο καθ’ αὐτό ... φθέρῃσθαι δυνατόν, 소., 238c8)는 두 번째 어려움이 더 해진다(157쪽).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있지 않는 것은** 어느 하나가 밝혀지면 다른 하나도 덩달아서 밝혀지는 **있는 것**의 짝이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어려움은 있는 것에 호소 함으로서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솟을

어두움(τὴν σκοτεινότητα, 소., 254a4-5)에 숨어드는 자가 소피스트로 규정된다는 것, 그래서 소피스트를 반박(에렝코스)하기 위해서는 ‘있지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있지않는 것도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도 마라’고 훈계하는 아버지 파르메니데스를 나 엘레아 낫선이가 죽이는 불경(22쪽 각주 21번)으로 오해하지는 말라는 것(μή με οἶον πατραλοῖαν ὑπολάβῃς γίνεσθαι τινα. 241d3 행여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드는 어떤 짓을 하려 한다고 여겨서는 안 되네)(93쪽 각주 88번), 왜냐하면 있지 않음의 ‘없음’(τὸ μὴ καὶ τὸ οὐ, 257c1)은 ‘다름’(έτερον, 257a4)을 뜻하기 때문에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소피스트의 거짓은 폭로된다는 것-거짓 말도 존재한다는 것-이 관련 전체 맥락이다.

67) 전혀 있지 않는 것은 생각 불 가능한 비 언어적이며 비 로고스적인 것이다(소., 238c8-10).

있지 않는 것

수도 있으리라.

“ 16)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있는** 것과 관련해서 확실히 [있지 않는 것의 어려움] 보다 더 작은 어려움에 있는가 - 오 오! 낯선이여 더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저에게는 나타납니다라고, 가능한 한, 말하렵니다 - 그렇다면 여기 이것을 우리 그 어려움으로 놓세나. **있는** 것 과 **있지 않는** 것은 똑 같이(ἐξ ἴσου, 250e6)어려우므로, 이것들 가운데 다른 것이 불 분명하게든 선명하게든 나타나는 그 만큼 그렇게 다른 것도 나타낼 거라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동시에 양자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한 어떻게든 규정되는 로고스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다시 지금 [생기네]-아름답습니다(250e1-251a4) ”

하나가 어느 하나는 ‘아니’(μή, 250e6)라는 점에서 존재와 ‘비’존재는 서로에 관련되므로, 하나가 밝혀지면 다른 하나도 **그렇게**(οὕτως, 250e8)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긴다. 우리는 영혼 안에서 존재와 비존재에 관련된 똑 같은 속성(πάθος, 243c3)을 겪으므로, 존재물음의 아포리아는 비존재의 그것들과 상호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쪽 어려움이 해소 안 될 경우 다른 한 쪽으로 닦아 서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17) 지금 우리를 어렵게하는 **있지 않는 것**을 누군가 썼을 적 마다 나는 정확하게(ἀκριβῶς, 243b9)이해했다고 젊었을 적에 여겼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네는 보기 때문일세 - 보지요 -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어떤 자가 그(있는)것을 발설할 때 마다 비록 아주 쉽게 말하고 이해한다고 하지(μανθάνειν, 234c4)만 **있는** 그것에 관련해서도 아마 영혼 안에 그와 동일한 속성(πάθος, 243c3)을 더 적지 않게 똑 같이 겪을 걸세.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 양자에 대해 똑 같은 상태일 걸세 - 똑같습니다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상정하는 것이 **무엇(τί)**인지를 철저히 음미하면서(διερευνησασθαι, 243d4) 이(있는) 것을 먼저 말해야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243b7 - 243d5) ”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실체(οὐ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

여럿

그러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존재물음⁶⁸⁾의 답, ‘여럿⁶⁹⁾, ‘하나’, ‘몸’.
(친구들의) ‘이デア’ 모두 어려움만 더욱 가중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4-1-1-1)하나와 여럿

4-1-1-1-1)여럿

먼저, ‘여럿’이라는 답이 가져오는 어려움(67쪽)은 다음과 같다. ‘존재는 모두 음(陰)과 양(陽) 또는 이러한 어떤 두 가지다’ 라고 말할 때 마다, 어느 때이든 양자(兩者)와 관련되어 발설되면서 그 양자와 각각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인가? 그렇다면 걸리는 그 무엇이 저 둘과 나란한 세 번째(77쪽)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인 것은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인가? 모든 것이라면 양자는 같이(ὁμοίως, 243e5)존재하지 못 할 것이다. 같다면, 아마 양자 어느 것도 진실로 둘이 아니라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똑 같아질(ἴσος, 243e9)것이므로 그렇다.

4-1-1-1-2)하나

그러나 있는 모든 것을 하나(... ἓν ... τὸ πᾶν ... τὸ ὅν, 244b6-7)라고 해

68) 엘레아 낫선이는 ‘있는 것은 무엇이냐’에 ‘있는 것들은 몇 가지며 어떠한 것(πόσα τε καὶ ποῖα, 246c6)이냐’는 물음을 포함시킨다.

69) 엘레아 사람들은 하나라고, 다른 사람들은 양과 음(마름과 축축 등) 두 가지라고, 어떤 사람들은 세 가지(싸움과 사랑과 결혼?)라고 신화에 의해(τοῖς μύθοις, 소., 242d6)말해준다(1쪽).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실체(οὐ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하나와 여럿 (김익성)

도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다. 먼저, 동일한 *하나*가 두 *이름*으로 불리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이름*으로 불리운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본디 ‘*것*’은 ‘*있는*’과 늘 붙는데, 그러한 ‘*것*’을 ‘*이름*’ *다르다*고 할 경우, 이미 둘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 *동일하다*고 할 경우 *이름*은 필연적으로 *하나*도 아닌 *것*의 *이름*이 되며, 설령 어떤 *것*의 *이름*이라고 해도 *있는* 다른 어떤 *것*의 *이름*이 아니라 단지 *이름*뿐인 *것*의 *이름*이 될 것이다. *있는* *것*을 *하나*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름*을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⁷⁰⁾.

다음으로, *있는* ‘*하나*’를 그 *전체*와 동일시하기도 어렵고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일하다*면 가운데와 극단들을 지니는 공과 같다고 말해지는 그 *하나*의 부분들 모두가(πάν, 245a3) 바로 *하나* 전체일 것이므로 부분들 각각은 전체 *하나*의 속성을 반드시 지닐 것이다. 따라서 *하나*가 자신의 부분들의 전체와 *동일시* 된다면, *하나*는 나누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하나* 보다 짧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나뉜 부분들로 *있는* *것*은 전체 자체가 아닐 것이므로 전체 자체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인데, 이 때 자기 자신은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있는* *것*과 분리되면 *있지* 않게 된다. 나아가서, *다르다*면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면, *있는* *것*은 어느 한 때도 *있지* 않을 것이다. 생성 되는 *것*은 전체로 되는데 전체가 아니므로, *됨*(γένεσις, 245d5)도 *실체*(우시아, οὐσία, 245d4)도 *있지* 않을

70)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적인 사물 각 각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단지 *이름*(ὄνομα, 단편 19.2)이라고 말한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실체(οὐ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하나와 여럿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만큼한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전체는
량적으로 그 만큼한 것인데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을 반대되는 둘로 볼 경우 존재는 **다른** 세 번째 것일
수 밖에 없어(두 가지 것과 존재가 **동일**하다면, 두 가지 것은 하나일 수 밖
에 없기 때문에), ㄱ)두 가지 것은 같이 존재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로 볼
경우 ㄴ-1)동일한 것이 다른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리운다면, 이미 여럿이기 때문에) ㄴ-2)이름을 프라그마(‘것’)와 동일하다
고도 다르다고 말 할 수 없게 된다(동일하다면 이름 뿐인 이름이되고, **다르**
다면 두 가지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가 부분들을 지
니는 공과 같을 경우, 부분들의 전체와 하나가 **동일하다면** ㄴ-3-1)하나
전체의 부분들로 나뉘 뿐만 아니라 그 각 각도 전체여야 할 것이므로 전체
이기 위해서 하나 자신으로부터 하나 자신이 빠져나가게 돼 결국 ㄴ-3-2)
있는 하나가 있지 않게 될 것이며, 자신의 부분들 전체와 하나가 **다르다면**
ㄴ-4)어느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다(생성되는 것은 전체로 이루어지는데,
있는 하나가 그 전체와 다르다면 생성도 우시아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
에). 이런 어려움(81, 86쪽)들을 다시 아래처럼 정리 해 보면,

ㄱ)두 가지 것은 같이 존재 할 수 없다.

ㄴ)동일한 것이 다른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없다

ㄷ)이름을 프라그마(‘것’)와 동일하다고도 다르다고도 말 할 수 없게 된다

ㄹ)하나를 전체의 부분들로 나뉜다

ㅁ)있는 하나가 있지 않다

ㅂ)어느 것도 생성되지 않는다

‘ㄱ)’은 여럿에 관한 어려움인 반면 ‘ㄴ)~ㅂ)’은 하나에 관한 어려움이

실체으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실체(ού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하나와 여럿 (김익성)

다. 그리고 이것들 중 ‘ㄱ’과 ‘ㄷ’과 ‘ㅁ’은 비 모순율을 근거로 한 반박이다. ‘존재한다’와 ‘존재하지않는다’, ‘나뉜다’와 ‘나뉘지 않다’는 서로 모순⁷¹⁾이기 때문이다(23쪽). 그러나 ‘ㄴ’과 ‘ㄷ’과 ‘ㅂ’은 비 모순율과 관련없다. 이름과 관련되는 어려움으로서의 ‘ㄴ’은 동일한 하나가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ㄷ’은 이름은 사태와 동일하거나 또는 다르다는 전제 하에, 성립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며, ‘ㅂ’은 생성과 우시아에 관한 어려움이기 때문이다(87쪽).

따라서 비록 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 모순율에 근거한 반박은 정의 여부를 판가름 해 주는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21쪽). 따라서 모순되는 로고스를 함축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 모순율’은 정의 법칙 중의 하나이다.

4-1-1-2)기간토마키아(유물론과 이데아론)

이미 보여진 것처럼, 존재를 수량적(數量的)으로 규정하는 로고스들은 존재의 **동일성**과 **타자성**(헤타론)의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수반한다⁷²⁾

71) 모순에 직면하는 어려움은 소피스트 편에서 비존재를 말하려는 가운데서 직면하게 된 어려움이었다. 그리고 비 모순율의 이러한 쓰임새는 이미 유티프론 편에서 확인됐다(23쪽).

72) 여럿일 경우에는 존재 자신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하나일 경우에는 존재 자신의 타자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타자(다른 것)들의 존재가 동일하다면 어떤 것도 여럿일 수 없는 반면 동일한 하나의 존재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 실체(οὐ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

(246c4-246a3). 그러나 존재를 질(ποιία, 246c6)적으로⁷³⁾규정하는 로고스들은 다른 측면에서 즉 운동과 정지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것(기간토마키아(245e6-252e8, 22쪽 각주 21번)이 보여진다.

4-1-1-2-1)유물론

기간토마키아(거인들과의 전쟁)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땅으로부터 생겨난 것(보이는 몸)만을 우시아(실체)라고 우기는(유물론) 자들이, 땅(가이아)으로부터 생겨난 것들을 무기로 삼아 싸우는 거인들처럼, ‘신들’의 친구(이데아론 자)들에게 선전포고도 없이 엄청난(ἄπλετος, 246c3)싸움을 걸어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리라. 그러나 이 전쟁에서 엘레아 낫선이가 거인들 쪽에 내민 것은 유물론의 단점(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존재에 관한 납득할 만한 더 나은 정의(호로스)였다. 이 정의에 동의하게 되면, 보이는 몸 아닌(ἄσώματον, 247c1)것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말이다. 간략히 서술 해 보자.

동의를 얻어내려면 유물론 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가 다르다면(타자들이라면) 어떤 것도 하나일 수 없기 때문이다.

73)여기서부터 엘레아 낫선이는 존재(은, ὄν)대신에 우시아(οὐσία, 246a5, 실체)(28쪽)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다 더 쉬운(εὐπορώτερον, 246a1)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헤타론)측면에서 다르(알론)게 있는 것에 관해 말하는 자들을 살펴보자는 맥락에서 말이다. 물론 ‘존재’라는 표현도 섞여 쓰인다.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 실체(οὐ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 (김익성)

야 할 것인데, ‘영혼은 있다’ 라는 로고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 로고스는 낫 선이가 몸이 아닌 아주 작은(αμικρόν, 247d1)것들도 있다는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먼저, 그는 죽은 것을 가리킨다. 죽어 ‘있는’ 것에는 영혼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받아 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은 몸(생물)은 영혼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된다. 물론 죽은 몸 또한 ‘있기’는 해도 말이다. 따라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 있다. 그러나 산 영혼을 죽은 몸은 지니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곧 영혼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서 확인된다.

이제, 분리(分離)된 영혼이 있다면 올바름과 신중함 등과 같은 영혼의 덕들(ἀρεταίς, 247b2)역시 있을 것이다. 올바른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영혼도 있으며, 신중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신중하지 못한 영혼도 있기 때문이다. 올바름 또는 신중함 등의 덕들이 임 해야(παρουσία, 247a5)만 영혼은 올바르거나 신중하므로 그렇다. 따라서 영혼과 나란히 그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있다(εἶναι, 247a9). 그러나 (영혼의) 덕들은 보이며 건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ἀόρατα, 247b4)것들이다⁷⁴).

4-1-1-2-1-1)하고 겪는 힘으로서의 정의₀

74) 죽은 몸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영혼은 몸과 분리된다는 것이, 영혼은 몸과 분리해 있다는 것으로부터 영혼의 덕도 몸과 분리해 있다는 것이, 몸과 분리해 있는 영혼과 영혼의 덕으로부터 덕들은 몸 아닌 것이라는 것이, 몸 아닌 것으로부터 영혼과 영혼의 덕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끌어 나온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 실체(οὐ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

따라서 몸 아닌 아주 작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몸도 있고 몸 아닌 것도 있다면, 몸으로 **있는** 것 그리고 몸 아닌 것으로 **있는** 것 이 양자에 걸리는 바로 그 **있음**은 어떠한 것일까⁷⁵⁾? 하고 겪는 **힘**이다.

“18)아주 쉽고 아주 작게 단지 한 번 만이라도 무엇이든 다른 것을 자연스레 **행하**(τὸ ποιεῖν, 247e1)거나 **겪는**(τὸ παθεῖν, e1) **힘**(δύναμις, 247d8)을 지니는 것은 무엇이든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고 나는 말 한다네. 있는 것들(τὰ ὄντα, e3)은 힘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정의**(ἔρον, e3, 표지)주어지기 때문이네-그들은 주어진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결코 말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것이 받아들여집니다(247d8-e6) ”

따라서, 몸인 것과 몸 아닌 아주 작은 것(신중함 올바름, 영혼)이 양자적으로 함께 지니는 것은 힘이다. 이러한 힘은 다른 것을 **하고 겪는 힘**이다.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겪거나 행 할 지라도, 겪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힘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⁷⁶⁾. 다음처럼 다시 정리해 보자

75) ‘있는 것을 음과 양 이 두 가지라고 전제하면 이 양자에 걸리는 있음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엘레아 낫선이의 로고스(243d6-243e7)를 다시 기억 해 보라. 양자에 걸리는 존재가 양자와 다른 세 번째 것일 터인데(동일하다면 양자가 아니라 하나만이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양자는 같이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 해 낸 엘레아 낫선이가 기억될 것이다. 여기서도 존재가 몸인 것 과 몸 아닌 것에 양자에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있는 것이 량적인 측면에서 고찰되는 반면, 여기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고찰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자에 걸려 있는 것은 어떠한 것(τὸ ποῖον, 247d7)인가?

실체으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 실체(ούσια)정의>플라톤>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 (김익성)

살아 있는 것이 영혼이라면
죽은 몸에는 영혼이 있지 않을 것이므로
영혼은 몸과 분리해 있다. 그리고,

영혼이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영혼이라면]
영혼으로부터 덕이 생성되는데,
영혼은 (죽은) 몸과 분리해 있으므로
덕도 몸과 분리될 것이다. 나아가서
그 덕은 아주 작다

몸은 크며
큰 것이 보인다면,
몸은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덕은 아주 작고
아주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면,
덕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면,
있는 것은 보이기도 하며 보이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면,

있는 이것은 어떠한 것(τὸ ποῖον 247d7)인가
그것은 **하고 겪는 힘**이다.
[몸은 겪는 반면
영혼은 (인식)하는 데.]
하거나 겪는 것은 반드시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76)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하는 데에는 힘이 ‘있어야’ 하지만, 어떤 것을 겪는 데에는 힘이 ‘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곤 하지만, 엘레아 낫선이에 따르면 무슨 일을 하거나 겪으려면 반드시 힘을 ‘지녀야’ 한다. 힘을 지니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겪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 실체(οἰ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엘레아 낯선이는 자신의 에이도스 친구들에게로 넘어 간다.

“19)매끈하네. 후에⁷⁷⁾ 우리와 그들에게 똑 같이 [이와는] 다른 [정의]가 나타날 수도 있을거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두루 (μενέτω, 248a1)함께 동의될 것이네. - 두루 - 이제 다른 자들 [곧] 에이도스들의 친구들에게로 우리 가보세. 자네는 우리에게 그들 대신에(παρά, 248d5)해석해 주게 - 예(247e7-248a9) ”

소피스트 정의에서 와는 달리, 관련 여기에서는 힘이라는 정의에 다다르게 위한 어떤 나눔도 행해지지 않는 단순한 주고 받는 대화가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 엘레아 낯선이가 피력(披瀝)하는 의견을 테아이테토스가 추인(追認)하는 형식을 띠기는 해도 말이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다른 정의가 후에⁸⁰⁾ 주어질 수 있다’는 낯선이의 말은 여기 존재 정의가 다음 정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최종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보여준다. 낯선이를 계속 따라 가 보자.

4-1-1-2-2)에이도스 론

4-1-1-2-2-1)‘정의₀₁’과 ‘정의₀₂’의 아포리아

량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 중, 땅에서 솟아 나온 거인들은 몸만을 실체라고 우기는 반면, ‘친구’들은 에이도

77) ‘보다 후에’(εις ὕστερον, 247e7)는 같은 대화 편 ‘249d2-d4’와 ‘250c6-c7’을 가리킨다고 나는 본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말이다.

실체(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 실체(ού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 (김익성)

스를 진짜 있는 것(우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양쪽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로고스를, 비록 어렵기는 해도, 찾아 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인’들은 하고 겪는 힘이라는 존재의 정의(호로스)에 동의 할 것이므로, 에이도스 친구들도 동의할 수 있을 이 정의와 관련된 그러나 나아간 더 나은 정의들, ‘정의₁’과 ‘정의₂’를 낫선이는 다음처럼 제시한다⁷⁸⁾ (99쪽).

“20) 어린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정의₀₁]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지않음과 움직여왔음에 양자적인 것(ἅσα ἀκίνητα καὶ κεκλιμένα, τὸ ὄν τε καὶ τὸ πᾶν⁷⁹⁾. συναμφοτέρα λέγειν, d3-4)이라고 말해야하는 것처럼 여겨지네 - 가장 진리입니다(249d2-d5) ”

“21) 움직임과 정지가 있다고 말 할 때마다 실로 우리는 있는 것을 세 번째 어떤 것이라고 선언하려 하지요 - 따라서 있는 것은 정지와 움직임에 양자적인(συναμφοτέρον, 250c3)것이 아니라 실로 다른 어떤 것일세 - 그럴 것처럼 보입니다 - 그래서 [정의₀₂] 있는 것은 자신의 자연에 따라 정지됐던 것도 [지금]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라네(Κατὰ τὴν αὐτοῦ φύσιν ἄρα τὸ ὄν οὔτε ἔστηκεν οὔτε κινεῖται, c5-6)(250c2-c7) ”

78)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존재의 여기 정의₁과 정의₂를 정의 또는 표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이와 관련하여 이데아에 부여됐을 것처럼 여겨지는 ‘정신적인’ 움직임 만을 문제 삼아, 소위 초·중기 대화 편과의 단절 내지는 발전 여부를 문제 삼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 정의들에서 표현되는 시간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는 것이다.

79) ‘있는 모든 것’ 이라는 표현은 파르메니데스 단편 83-5의 ‘있는 것’과 ‘모든 것’의 연결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나는 10 쪽 각주 4 번에서 이미 언급했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 실체(οἰ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

그러나 정의₀₁, ‘있는 것은(지금)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였던 것’으로, 즉 움직임이 없음과 움직였음에 양자적인 것으로 규정하면, ‘량’적으로 규정할 때와 같은 다음 어려움에 직면한다(73쪽). 음과 양 등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리고 있음이 양자적으로 그 두 가지 것에 걸린다면, 첫째, 있음이 그 두 가지 것과 **다**를 경우 양자(兩者)는 ‘같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둘째, 동일할 경우 그 두 가지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일 것 이라는 우시아의 량적인 규정의 어려움과 비슷하게, 우시아의 질적인 규정에 있어서도 가장 **반대**(모순, ἐναντιώτατα, 250a8)되는 움직임과 정지에 양자적인 있음이 이 양자와 동일할 경우, 움직임과 정지가 ‘같은(ὁμοίως, 250a11)’것이 되므로 움직임이 정지할 것이고 정지가 움직이게 된다는 어려움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는 것(의 있음)을 움직임과 정지에 양자적인(συναμφότερον, 250c3)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정지를 둘러 쌓는(περιεχομένην, 250b8), 이것들과 나란한(παρά, 250b7) 다른 세 번째 것(67쪽)으로 전제하여, 정의₀₂, ‘있는 것은 정지했던 것도 (지금)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τὸ ὄν οὔτε ἔστηκεν οὔτε κινεῖται, 250c6-7)라고 해 보자. 그러나 이것은 **다른 더 심각한(ἐν πλείονι, 250e3)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주옥 있어 왔던)정지와 (지금 겪는)움직임이 아니라면, 우시아는 이 양자 밖에서(ἐκτός, 250d2) 돌출해야 할 것이나, 이것은 가장 크게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의₀₁은 정지가 움직이고 움직임이 정지한다는 모순적인 로고스를 함축하는, 정의₀₂는 존재는 움직임도 정지도 아니라는 가장 불합리한 로고스를 함축하는 어려움에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먼저 정의₀₁과 정의₀₂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자.

실체으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 실체(ού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 (김익성)

4-1-1-2-2) '정의₀₁'과 '정의₀₂'의 연역

정의₀₁: 있는 것은 움직여져 왔으나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영혼이 감각을 통해서 생성된 몸과, 논리(로기스모스)를 통해서 우시아와 관계하는 교통은 마주치는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 겪고 행하는 영혼의 인식이라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 인식하는 것은 영혼인 반면 인식되는 것은 몸과 우시아이다. 영혼의 **인식 함과** 우시아의 **인식 됨**⁸⁰⁾ 바로 요것이 영혼과 우시아가 지니는 힘으로부터 유래하는 **겪음과 (행)함, 곧 움직임**이다. 움직여지는 한 인식되며, 움직이는 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별되는 움직임의 **하고 겪음**은 동시적이

80) 영혼에 의해 인식 될 때, 우시아(존재, 실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되는 것 즉 겪는 것은 하는 것과 선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겪는 것도 일종의 움직임이라면 우시아는 비록 움직이지는 않지만 움직여졌다는 것도 분명하다. 수동(受動)과 능동(能動)은 구분되는 '종'이지만 동(動, 움직'임)이라는 동일한 '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움직임을 겪음'은 어떠한 자연을 지니는가—이것은 테아이테토스의 **재인**(ἀναγνωρίζειν, 테아이테토스 편, 193c4, 박흥규 전집 2, 192와 199쪽 참조)과 결부되는 '움직여지는 겪는 우시아(τὴν φερομένην αὐτήν, 179d3, 177c7)의 자기 동일성은 유지되는가?' 라는 물음에 관련된다. 물론 여기서 문제되는 인식은 감각이 아니다. 감각은 겪어지는 몸에 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경건의 **우시아**가 아니라 **속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함(수동)과 겪음(능동)을 구분하는 유티프론 편(28쪽)을 참조하라.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 실체(οὐ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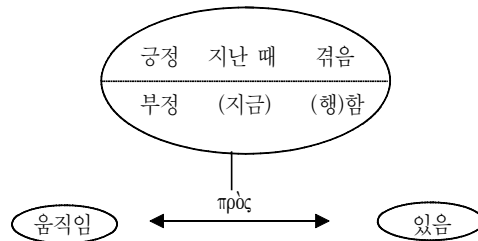
다—인식 할 때(ώς, 248d10)인식된다. 인식하기 전에 인식되는 것도 아니고, 인식한 후에 인식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렇다. 따라서 움직이고 움직여지는 한, 영혼은 실체를 인식하고 실체는 영혼에 의해서 인식된다. 하고 되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ㄱ)움직임이 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영혼에 생명이 있다. 생명을 지닌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 합리(ἄλογα, 249b1) 때문이다. 그런데 생명을 지닌 것이 만약 완전한 것이라면, 그것에 누스가 없을까? 없을 리가 없다. 따라서 영혼 안에는 생명과 누스가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만약 모든 것이 흐르고 움직여질 뿐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있는 것으로부터 빠질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은 정지로부터 분리되어 동일한 것에 관해 **동일한** 측면에서 어느 때든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95쪽). 움직임을 지닌 것은 같은 상태로 머무르려하지 않는 반면 정지한 것은 같은 상태에 머무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것들 없이는(ἄνευ, 249b1)결코 누우스는 있을 수 없다. 누우스는 동일한 것을 바라 보기 때문이다. 보자! 누우스는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영혼(누스) 밖에 **ㄴ)정지가 있다.** 그리고‘ㄴ’과 ‘ㄱ’으로부터 움직임과 정지에 양자적인 **있는** 모든 것은 움직였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정의₁’이 잇따른다.

그러나 양자적일 경우, 움직임은 정지이며 정지는 움직임일 것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존재를 양자적이지 않는 제삼자로 간주하는 **정의₂**, ‘**있는 것은 정지됐던 것도 아니며 움직여지는 것**

도 아니다'라고 하자⁸¹⁾!

그런데, 정의₁과 정의₂의 경우, 움직임의 때와 태(態)와 방식이 다르다는 데에 유념해야 한다. 움직여져 왔음과 움직이지 않음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움직임의 긍정인 반면 하나는 부정(否定)이며, 하나는 지나간 때에 일어난 움직임인 반면 하나는 그렇지 않고, 하나는 겪는 움직임인 반면 하나는 (행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28쪽). 이렇게 있는 것이 아래처럼 그려질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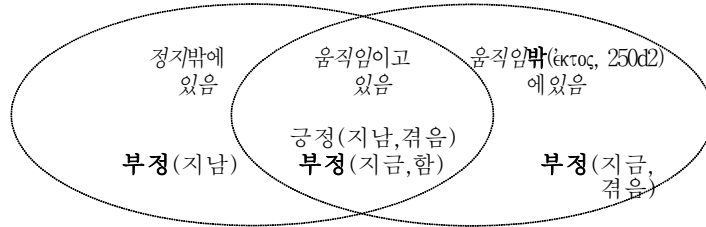
움직임에 대해(πρὸς)있는 것은 (지금) 움직이거나(행함-정의₀₁)움직여지지(겪음-정의₀₂) 않지만(부정-정의₀₂) 정지했던 적이 없이 움직였던(지난 때-정의₀₁과 정의₀₂, 겪음-정의₀₁, 부정-정의₀₂, 긍정-정의₀₁)것이라는 것을 위 그림에서 나는 나타내려 했다. 화살표는 움직임에 관계맺는 것은 존재라는

81) 그렇다면 결국, 있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근거는 인식(앎)이다. 인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인식하는 영혼과 인식되는 우시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완전하게 있는 것으로서의 영혼 안 누스로부터 동일한 상태에 머무르는 정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혼(과 누스)의 인식으로부터 움직임과 정지의 에이도스가 연역된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 실체(οἰ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

정의₂의 아포리아

것을 나타낸다. 다시 다음 쪽 그림을 살펴 보자.



이 그림을 앞의 것과 비교하여 보라. 거기에서는 움직임에 대해 있는 것이 잘 드러나는 반면 ‘안과 밖’의 움직임과 정지가 잘 드러 날 것이다. 그러나 태(態)와 때와 그리고 함과 겪음의 차이는 거기건 여기건 그 두 그림 모두에서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탐색(της αίτιας, 249d10)에서 주어진 존재에 관한 로고스 또한 어려움에 부딪힌다. 양자적이 아니라고 부정(否定)하면, 즉 (과거의)정지와 (지금 하거나 겪는)움직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존재는 그 양자 **밖에서** 돌출(ἀναπέφανται, 250d2, 突出)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장 크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기 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에 관련하여 지금까지 거론된 소피스트 편의 아포리아들(71, 81쪽)을 아래처럼 모아 볼 필요가 있다.

‘존재는 여럿이다’의 어려움
 ㄱ) 여럿이 같이 존재 할 수 없다,

실체으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 실체(ού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 (김익성)

‘존재는 하나이다’의 어려움

- ㄴ) 동일한 것이 다른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없다
- ㄷ) 이름을 프라그마(‘것’)와 동일하다고도 다르다고도 말 할 수 없게 된다
- ㄹ) 하나는 전체의 부분들로 나뉜다
- ㅁ) 있는 하나가 있지 않다
- ㅂ) 어느 것도 생성되지 않는다

‘존재₀는 하고 겪는 힘이다’

‘존재₀₁는 움직여져왔으면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 ㄱ) 움직임이 정지하고 정지가 움직임이다(81쪽)

‘존재₀₂는 정지됐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

- ㅇ) 움직임도 정지도 아니다(81쪽)

밀줄쳐진 것들 중 ‘ㅇ’만 빼고는 모두 비 모순율⁸²⁾(115쪽 각주 114번)

82) 플라톤에서는 하고 겪는 움직임의 측면에서의 모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가능한 영역에서는 모순이 허용된다는 것이 독특하다. 물론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다는 뜻에서의 ‘모순’은 양 쪽 모두에 공통되지만 말이다. 먼저 플라톤 것[ㄱ]을 제시 한 후, 아리스토텔레스 것[ㄴ]을 제시 하겠다.

ㄱ-1) “ Δήλον ὅτι ταῦτόν τάναντία ποιεῖν ἢ πάσχειν κατὰ ταῦτόν γε καὶ πρὸς ταῦτόν οὐκ ἐθέλησει ἅμα, -동일한 것이 동일한 측면에서 동일한 것에 대해 반대되는 것을 행하거나 겪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국가, 436b8-9).”

ㄱ-2) “동일한 것이 동시에 동일한 측면에서 쉬어지면서 움직여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ἐστάναι, εἶπον, καὶ κινεῖσθαι τὸ αὐτὸ ἅμα κατὰ τὸ αὐτὸ ἄρα ἀδύνατον.(국가, 436c5-7)”

ㄱ-3) “ὡς δὴ τοῦτο ἀδύνατόν ἐστιν τὸ αὐτὸ εἶναι τε καὶ μὴ,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는 없다(유티테모스, 2934-5).”

ㄴ-1)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에 동일한 것으로 동시에 속하면서 속하지 않을 수 없다 -τὸ αὐτὸ ἅμα ὑπάρχειν καὶ μὴ ὑπάρχειν ἀδύνατον τῷ αὐτῷ καὶ κατὰ τὸ αὐτό,(1005b19-20)”

ㄴ-2) “μὴ ἐνδεχεται ἅμα ὑπάρχειν τῷ αὐτῷ τάναντία, -반대는 동일한 것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b26-27)”

ㄴ-3) “22) 동일한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면서 있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것으로(κατὰ τὸ αὐτό, 1009a34)는 아니다. 동일한 것이 힘으로는(δυνάμει, a34-35)반대들(τὰ ἐναντία, a35)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ἐντελεχείᾳ, a36)아니기 때문이다(형., Γ(4), 1009a33-36)”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 실체(οὐσία)정의>플라톤>아포리아>기간토마키아

위반이다. 정지하면서 동시에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나머지 이유들에 대해서는 74쪽 참조). 그렇다면, 문제의 정의₂가 지니는 어려움에 대해 낮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려움 때문에 총체적인 무지(ἐν ἀγνοίᾳ, 249e2)에 빠져 헤메이면서 이제까지의 모든 정의들을, 심지어 존재 정의를 포기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린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존재와 움직임과 정지를 하나 씩 하나 씩 구분 해 가며 해결을 모색 해야 하는가? 그는 후자를 택한다.

4-1-2)아포리아의 해소

아포리아 해결의 핵심은 움직임과 정지 그리고 동일과 다름 각 각이 있지 않음을 통해서 ‘어떻게’ 양자적으로 교통(交通)하는지(διὰ τὴν κοινωνίαν⁸³), 256b1)를 인식하는 것인데, 이러한 인식이 소피스테스 정의를 통해 예시(例示)된 나눔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여러 하위 종들로 나누어 가는 과정의 끝에서 가능한 결합을 통해 소피스트를 정의했듯이, 움직임과 정지와 있는 것 등 가장 큰 류(또는 종)들을 분간(分揀) 해 나누어 가는 과정의 끝에서 행해지는 결합에 의해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정의⁸⁴)는 획득되며, 그리고 바로 정의에 의한 이런 **없이** 어떻게 반대 류들이 교통(交通)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게 해 주면서 동시에 존재 정의 과정에서 솟아

83) ‘교통’과 ‘나누어 지남’은 적절한 맥락에서 서로 교환 될 수 있다.

84) 정의의 대상이 존재에서 비존재로 옮겨가기는 해도, 존재가 화제의 중심에서 밀려 난 것이 아니다. 있지않는 것은 있는 것의 일종일 뿐만 아니라, 음절의 비유를 통해서 존재의 본성(자연)이 말해지기 때문이다(101쪽).

실체에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김익성)

나눔의 방법

올랐던 것처럼 여겨지는 아포리아들을 해소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한 아포리아들은 존재와 비존재의 자연(본성)에 관한 무지 또는 오해에서 생겨났던 것들이므로, 있(지 않)는 것에 관한 정의를 통해 존재의 본성을 알게 되면⁸⁵⁾ 자연스레 해소 될 것이므로 그렇다.

4-1-2-1) 나눔의 방법(변증법)

존재와 비존재가 그 근거인 나눔이 변증법이라면, 류·종으로의 나눔은 존재와 비존재의 변증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비존재가 그것의 자연에 의해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다름의 자연 역시 존재를 나누어 지니기 때문이다. 소피스트 편의 이러한 나눔의 존재 변증법⁸⁶⁾(과 결합)에 기

85) 그러나 있는 것에 관한 ‘최종’ 정의는 소피스트 편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단지, 서로 밀어내며 잡아 당기는 자음들을 묶는 기능을 모음이 하는 것처럼, 존재 역시 반대되는 류들을 묶는 기능을 한다는 유비적(類比的)인 설명에 그칠 뿐이다.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존재 물음에 끌어 들여진 유비적인 설명은 ‘우시아(실체)는 무엇이냐’고 묻는 형이상학 제타 편의 마지막 17 장에서도 쓰여진다. 그러나 자신의 묶는 본성 탓에 음절을 있게 하는 것은 모음(플라톤)도 자음도 아니라 그 음절의 ‘우시아’라는 점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가 아니라 우시아가 ‘무엇이냐’고 묻는 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음절이 사물로 비유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 사람 모두 같다.

86) 따라서 소피스테스를 정의하기 위한 나누는 방법(36, 44쪽)은 있지 않

(김익성) 실체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나눔의 방법

존의 관련 다른 정의들에 대한 반박과 그리고 유비적인 비유 등이 선행하거나 동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있는 것의 이데아(τῆς τοῦ ὄντος.....ιδέα, 254a8-9)에 관한 정의는 여러 이데아들을 잘 분간해서 나누어 가는 것과 그리고 이에 선행하는 반박과 비유를 통해 얻어질 것이다. 바로 이런 뜻에서 나눔은 존재와 비존재의 변증법이요, 정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선행과정이다.

“23) 동일한 종(εἶδος, 253d1)을 다른 (종)으로 이끌지 않고, 다른 종을 동일한 종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증적인** **않**(τῆς διαλεκτικῆς)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나?-예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그렇다면 분리해 놓인 그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 각 각, 그리고 하나 이데아에 의해 밖으로 둘러쌓인 서로에 다른 여럿, 그리고 다시 여럿의 전체들을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하나(96쪽), 그리고 전적으로 분리된 여러(이데아), 이것을 선명하게 인지하는 자는 각 각이 어떤 길로 교통 할 수 있는지를 류적으로 분간하여 하는 것이라네-전적으로-그러나 깨끗하고 올바른 철학자를 제외한 다른 어떤 자에게 이러한 **변증술**(τὸ διαλεκτικὸν, 253e4)을 당신이 허용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안될 것이오-어떻게 알론한 자에게 허용할 수 있으리오.(소., 253d1-e7) ”

4-1-2-1-1)비존재

다섯 가지 류가 크게 구분되는 것을 논증 한 후, 엘레아 낯선이는 그 것들 중 어느 하나의 부분을 **있지 않는** 것이라 이름⁸⁷⁾한다. 나머지 류의

는 것을 정의하는 여기 변증법에 존재론적으로 근거한 하위 변증법이라고도 말하여질 수 있으리라.

실체에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김익성)

부분과도 서로 섞이는 수적으로 무한한(ἄπειρον, 256e6)있는 것의 이 부분(μέρος, 257c11)은 ‘있음’과 ‘다름’을 즉 ‘달리 있음’을 자신의 자연(본성)으로 지니는 있는 것(류)의 일 종이다

이것은 자신이 그것의 부분인 있는 것에 반대될 것처럼 보이나, 실은 반대(모순)이 아니라 있는 것의 부정(ἀπόφασις, 257b9)이다. 물론 맞선다(ἐντίθεσις, 257c11, ἀντιτεθέν, 257e4)는 뜻이라면, ‘반대’라고 말해도 상관없지만 모순으로서의 ‘반대’는 아니다. 그래서 있지 않은 것은 있는 것에 ‘모순’(반대)으로서의 ‘없는 것⁸⁸⁾’은 아니다. 만약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의 모순이라면, 엘레아 낫선이는 ‘있지 않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움직임을 포함한 모든 류는 있으며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으리라. 이것은 플라톤이 비모순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84쪽 참조).

그렇다면, 있음의 일 종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있는 모든 것들이 나누어 지니는 다름(헤태론)의 자연(φύσις, 256e1, 본성) 때문이다. 그것의 자연이 하나의 류를 다르게 하면서 그것을 부분들로 나누어 분리하는 까닭에, 다름을 나누어 지니는 있음은 여러 부분 종(있지않는 것)들로 무한히(ἄπειρον, 256e6) 쪼개지면서 자신

87) 있지 않는 것 이라는 이름이 적용될 것이 확보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존재물음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88) ‘없음’이라고 옮겨질 수 있는 말이 소피스트 편에 있을까? ‘하나도 있지 않는 것’(τὸ μηδαμῶς ὄν, 237b7-8)은 τὸ μὴ ὄν(있지 않는 것)의 강조일까?

(김익성) 실체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과 분리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쪼개지는 부분들더러 있음 자신과 동일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부정**은 있음이 나누어 지니는 움직임 덕분에 무한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기 **부정**(ἀπόφασις, 257b9)은 자신을 ‘없’에는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 자신을 나누어, 이전의 동일한 것과 그리고 지금 자신에 다른 것들에 자신을 맞 세운다. 그래서 있지 않는 것들은 이전의 ‘자기’와 그리고 지금의 ‘자신’과 다른 것들과도 맞선다. 이러한 ‘맞 섬’의 뜻으로만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일 뿐, 자신 이외의 어떤 것도 없느 모순적인 반대는 아니다.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과 다른 것(달리 있는 것)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24) **있지 않는 것**(τὸ μὴ ὄν 257b3)(우리가) 말할 때 **마다 (우리는) 있는 것과 반대**(ἐναντίον, 89)b3)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

89) 바로 요 것이 결정적이다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엘레아 낫선이는 여지껏 반박과 비유와 논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소피스테에스 정체를 벗겨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피스테에스가 거기에 메달리는 ‘있지 않는 것’을 정의해야만 할 것인데,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있는 것과 다른 것이다’는 로고스-이 로고스는 파르메니데에스 편(160c5-6)에 그대로 나타난다-가 비존재의 정의이므로 그렇다. 그래야 ‘있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면서, 있지 않는 것의 어두움으로 숨어 드는 소피스트들을 거짓 말 하는 자라고 폭로 할 수 있으리라. 거짓 말은 있지않다고 다시말해서 있지않는 것에 관한 말은 없다고 교묘히 속이는 이들

실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김익성)

는 것과) 다는 것(ἕτερον, 257b4)(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네 - 어떻게? - 예를들어 (우리가) 크지 **않는**(μῆ, 257b6)어떤 것을 말할 때 마다 어느 때는 그 구(句)에 의해서 오히려 작은 무엇 또는 똑 같은 무엇이 자네에게 분명히 나타나지? - 그리고 어떻게? - 따라서 다시 **부정**(ἀπόφασις, 257b9, 否定)이 말하여질 때 마다 **반대**(ἐναντίον, b9, 反對)가 가리켜지는 만큼의 정도에서만 인정되지 않으면[안되네]. **있는** 것들의 이름들의(τῶν ὀπίοντων, 257c1)앞에 놓인 **아닐**과 **아닌**(τὸ μὴ καὶ τὸ οὐ, c1)은 (있는 것들과는) 다른(τῶν ἄλλων, b10) 어떤 것을, 그리고(δί, c2) 그 부정 뒤에 발설된 이름들이 설정하는 어떤 **프라그마**들과는 (다른 어떤 것)을 폭로(μηνύει, b10)한다는 (정도에서만) [말일세] - 물론(157b3-c4) ”

그러나 있지 않는 것으로 있다고 해서 저(ἐκεῖ, 258b3)있는 것 보다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있는 것도 아니며,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 있는 다른 있지 않는 부분들 역시 서로와 저 있는 것 보다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똑 같이 있다. 있지 않는 것들은 있는 것들과 동일한 우시아(οὐσία, 258b2, 존재)지닌다는 것이다⁹⁰).

에게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가면이 벗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존재(의 존재)를 증명한 후, 엘레아 낯선이는 말(로고스)의 존재에 관해 말하기 시작한다. 거짓 말이 있다는 것에 관해 말하기 전에 먼저 ‘말’의 존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짜는 있지않다’고 말하는 자, 다시 말해 거짓 말은 일 삼는 자-이 자가 바로 소피스테아스이다-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거짓 말(로고스)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로고스(말)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있지 않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있는 것을 말했 듯이 말이다.

(김익성) 실체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4-1-2-1-1)비존재의 연역

유물론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하고 꺾는 힘’이라는 존재 정의를 내놓은 낫선이는 그 정의에 직접 관련되지만 그 보다는 더 나은 정의인 ‘존재는 정지했던 것도 (지금)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에 자신의 친구들이 동의 하길 바란다. 비록 이 정의는 존재를 (움직임과) 정지를 떠난 것으로 간주 하게 하는 듯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듯하지만, **존재와 비 존재**의 자연에 대해 알면(변증적인 앎) 그 어려움은 해소 될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득의 핵심은 **비 존재** 정의이다. 존재, 움직임과 정지 그리고 동일과 다름 등의 다섯 류 각 각을 구분하여, 가장 크게 반대 되는 이들 짝들 사이의 교통을 인식 하는 과정이 **존재**에서 **비 존재**를 이끌어 내어(연역하여) 그 비 존재를 정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 존재에 관한 이러한

90) 엘레아에서 온 낫선이가 ‘있지않는 것도 어떻게든 있다’고 앞서 주장했을 때 엘레아 낫선이는 ‘있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구석구석 걸어다니면서 권고했던 엘레아 출신의 파르메니데에스의 금령(禁令)을 어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에스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 낫선이는 결코 아버지를 죽이지고 상처내지도 않았다. ‘아님’ 또는 ‘없음’에 관한 해석과 비존재의 정의와 존재의 자연에 관한 유비적인 설명을 통해, 단지 아버지를 오해했던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을 뿐이다. **반박 만은 아닌**(οὔτε τις ἔλεγχος, 259d5), **새로운**(νεωγενής, 259d7)**존재론**을 펼치면서 말이다(21쪽 각주 68 번, 65쪽 각주 68 번).

다섯 류로 나눔

정의는 이미 앞 절(3-2-1-1)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존재에서 비존재로의 연역(변증법)이 나뉘어(구분된) 다섯 류의 교통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분명하게 하면 된다.

사실, **존재**에 관한 이전의 양적인 규정들에 대한 반박의(74쪽) 핵심항으로 나타난 **동일**과 **다름**, 그리고 기간토마키아(83쪽)의 핵심항으로 나타난 **움직임**과 **정지**(91) 이제 여기 비존재의 변증법에서는 하나 씩 하나 씩 (καθ' ἑν, 255e8)나뉘어 구분된 후, 그것들의 교통이 어떻게 가능한지 밝혀진다.

4-2-1-1-1)다섯 가지 류로 나눔

존재는 '있는 것은 있다'(역사적인 파르메니데스)에서 확보된다.

움직임은 '하고 겪는 힘이다'라는 존재 정의로부터 확보된다. 하고 겪음이 그 자체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움직임은 영혼의 인식 활동이기도 하다. 움직여지는 우시아를 움직이는 영혼 자신이 인식하기 때문이다(79쪽). 그래서 움직여짐과 움직임(τὸ κινούμενον καὶ κίνησιν, 249b5)은 영혼과 그 대상의 존재로부터 확보된다(78쪽).

정지(στάσις, 249c1, 움직이지 않음)는 영혼을 지니는 완전한 것(παντελῶς ὄν, 248e7-249a1)에는 누스가 있다는 것에 의해 확보된다. 동일한 것을 인식하는 것은 누스인데, 정지없이 어느 것도 어느 측면에서도 어느

91) 존재, 동일과 다름, 움직임과 다름은 모든 것이 나누어 지니는, 아주 큰 다섯 가지 류 또는 종이다.

(김익성) 실체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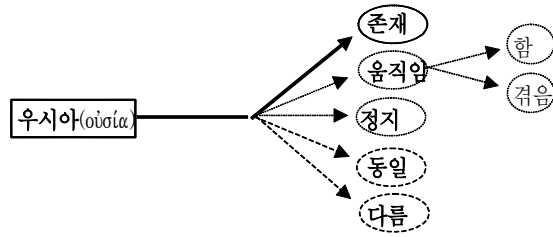
때든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83쪽)—이 정지는 움직임과 존재와 더불어 아주 큰(μέγιστα, 254d4)류이다.

동일은 다음에 의해 확보된다. 움직임과 정지 이 둘에 양자적으로 공통인 존재가 동일한 하나(ἓν, 255c3)라면, 움직임이 곧 정지일 것이며 정지가 곧 움직임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불 가능하다. 그래서 동일은 존재와 움직임과 정지에 대해 있는 네 번째(τέταρτον, 255c5)류이다.

다름도 동일과 비슷하게 확보된다. 움직임과 정지 이 둘에 양자적으로 공통인 다름이 그 둘이라면, 그리고 ‘**인**’존재가 다른 하나(ἓν, 255c3)라면, 그리고 다른 양자 중의 하나는 자신의 자연과 반대되는 다른 하나로 필연적으로 다시 화(化)하여 자신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있는 것들 중 어떤 것은 자체적으로 있는 반면 어떤 것은 항상 서로에 대해(πρός, 255c13)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항상 다른 것에 대해 있는 것이므로, 만약 **있는** 것과 다른 것이 많이 차이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은 항상 다른 것에 대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있음을 양자적으로 나누어 지닌다면, 다르게 있는 어떤 것도 다르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르게 있는 것은 단적으로 다르게 있는 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잇따른다**. 그래서 다름의 **이데아**는 다섯 번째(πέμπτον, 255d9)에이도스로 설정 해야 한다(254d7-255e10).

모든 것이 나누어 지니는 다섯 가지 류들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동일한 종을 다른 (종)으로 이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을 동일한 종으로 이끌지 않으면서 류적으로 나누는 **변증술**을 통해, 분리된 여럿 모두에 두루

퍼진 하나 이데아 각 각과 그리고 하나 이데아에 의해 밖으로 둘러싸인 서로에 다른 여럿(이데아들, 89쪽)들을⁹²⁾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눔은 아래 처럼 그려질 수 있으리라.



앞 쪽 나눔은 정치가 편에서 옷만드는 기교를 그 부가원인(τῶν ἀννατίων, 정치가 287b6-7, 43쪽)으로 자연적인 분절에 따라 최소한으로 나누는 것과 비슷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차이’에 따라 반대되는 두 에이도스로 나누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변증법은 소피스트와 정치가의 정의를 찾아가는 나눔의 상위 (비) 존재 변증법이라 말해질 수 있으리라.

4-2-1-1-1-2)비존재의 정의

그렇다면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다 보면 있

92) 그러나 여럿 전체를 하나로 두루 연결하는 이데아 하나와 그리고 전적으로 분리된 여럿 이것을 인식하는 변증술은 여기 소피스트 편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전자의 하나와 후자의 여럿은 소피스트 편의 주제가 아니라, 파르메니데스 편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김익성) 실체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지 않는 것에 다다른다.

존재를 나누어 지니는(διὰ τὸ μετέχειν, 256a1)움직임은 **동일**도 나누어 지니므로, 움직임은 자신과 동일하게 있다. 그런데 **다름**(ἕτερον)도 나누어 지니므로, 움직임은 동일과 다르게 있고 그래서 움직임은 다른 것과 동일하게 있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있지 않음**(τὸ μὴ ὄν, 256d11)'이 연역됐다. 다름(ἕτερον)과 존재를 나누어 지닌 **움직임**이 **다름**의 자연(본성)으로 인하여 **존재**와 달라지면서 움직이는 각기 것들이 무수하게(ἄπειρον, 256e6)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있지 않게 될 바로 이 때 다름의 **나뉘는** 본성(φύσις, 257c7)으로 인하여 존재로부터 **비존재**가 나누어 갈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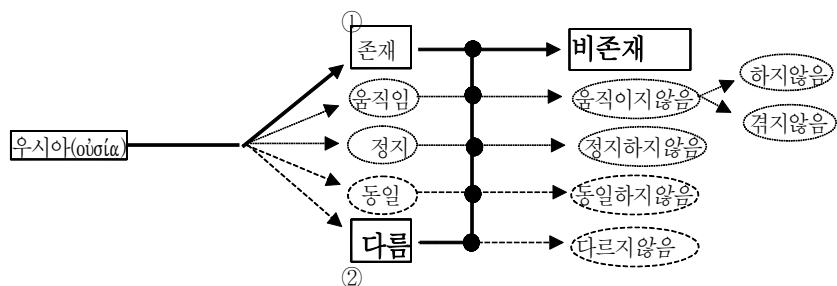
따라서 움직임과 정지 그리고 동일과 다름 각 각이 양자적으로 존재를 **나누어 지님**을 통해 이것들의 존재로부터 비 존재는 다름의 본성에 의해 갈라진다-이러한 비 존재의 자연에 관한 설명을 나는 앞 절(3-2-1-1, 88쪽)에서 미리 했다. 그래서 움직임은 자신과는 동일하게 있으나 다른 것들과는 동일하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류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나뉘는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⁹³⁾(의 자연)이다(41쪽). 이것은

93) 데미우르고스가 원형(παράδειγματι, 티마이오스, 28a7, 28c6)을 보고 우주를 만들 때, 몸보다 먼저 영혼을 만드는데, 세 우시아(티마이오스, 35a4)를 뒤섞어 영혼을 만든다. 부분이 없는(35a1) 항상 동일하게 머무르는 우시아와 몸에서 생성되는 부분을 지닌 우시아로부터 중간적인 종의 세 번째 우시아를 만드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부분이 없는 것들 자체를 몸에 따라 부분을 지닌 것들과(35a6)함께 섞어 중간적인 것을 만들면서, 이 세

실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김익성)

다시 아래처럼 그려질 수 있으리라.



바로 이러한 나뉘는 끝에서 도달하게 된 비존재는 ‘존재와 다름’(달리있음)이라는 것을 위 그림은 한 눈에 보여 줄 것이다. 이제 비존재의 로고스(정의)를 위해서는 나뉘는 정의 항들 ‘①’과 ‘②’을 재 결합시켜 주면 된다-재 결합에 대해서는 이미 43-45쪽에서 한 절(2-1-2-3)을 할당하여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엘레아 낯선이는 ‘있지 않는 것도 있다’의 ‘없음’을 ‘다름’으로 해석하므로써, 있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의 다름일 뿐 더 이상 있는 것의 모순(반대)은 아니라고 친구들을 설득한다. 따라서 정의₁, ‘존재는 (겪었던) 움직임이면서 (지금 하는)움직임이 아니다’ 라는 로고스가 지닌 것처럼 여겨졌던 모순은 ‘사라’진다⁹⁴. ㄱ-1)‘아니다’가 ‘다르다’로, 그래서 ‘X이며 X가

가지를 취해 이것들 모두를 하나의 이데아로 섞어 **다름**의 묶여지기 꺼려하는 자연을 지닌 **우시아**를 강제로(βία, 35a8) **동일** 안에 집어 넣는다. 그리고 다시 이것들을 중간적인 우시아와 섞어 셋으로부터 하나를 만들면서 그 각각이 **동일**과 **헤데론**과 **우시아**의 합성인 여러 부분들로, 가능한 한, 나눈다.

94)실은 시제(時制)만 고려 해도 모순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김익성) 실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아니다(모순)'가 \neg 'X이며 X와 다르다(비모순)'로 환원된 결과, 모순적인 문장 대신에 모순 '없는' 문장 \neg '존재는 움직임이면서 움직임과 다르다'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움직임과 다름으로서의 정지와 그리고 움직임은 그 자체 가장 큰 반대이므로, 움직임은 정지 할 수도 정지는 움직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neg -1)'움직임이다'와 \neg -2)'정지이다'가 묶인 ϵ '존재는 움직임이며 정지이다'도 성립하지 못 할 것이며, 따라서 ' \neg -1)'에서 ' \neg '과 ' ϵ '을 거쳐 ' ϵ '으로 설령 환원 가능해도 정의₁은 성립 할 수 없을 것이다. ' ϵ '이 불 가능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가능한 환원 과정은 다음처럼 다시 모아 진다.

- \neg)x는 y이며 y가 아니다(모순)-**정의₁** 그런데,
 - \neg -1)'아님'은 '다름'이다. 그래서,
- \neg)x는 y이며 y와 다르다.
 - \neg -1)'x'는 존재이며,
 - \neg -2)'y'는 움직임이고,
- ϵ)존재는 움직임이며 움직임과 **다르다**(비모순).
 - ϵ -2)움직임과 다른 것은 정지라면,

- ϵ)존재는 움직임과 정지이다.

그런데, ' ϵ '은 가능하다. 낯선이가 유비적인 비유⁹⁵⁾로 설명하는 존재

것이다(82쪽). 과거에는 움직였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₁과 정의₁ 그리고 그리고 이것들의 시제(時制)에 유념해야 한다.

95)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μεταφοραῖς, 분설론 후서 97b38)들을 정

실체에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김익성)

(입)의 자연 탓이다.

의와 구분하여(53쪽)를 정의 도중에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 한다.

“25)비유에 의해서도 비유에 의해서 말해지는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필연적으로 비유에 의해 논의 (*διαλέγεσθαι*, 97b39)될 것이기 때문이다(분석론 후서 97b37-b39) ”

‘비유로부터 연유하는 그 어떤 말도 정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설득력 있다면, ‘정의’를 찾아가는 논의 도중에 음절의 비유와 이로부터 유래한 존재의 자연에 관한 말들을 존재 정의에 관련시키면, 그 논의는 설득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형이상학 제타 편 마지막 장에서 음절의 비유를 우시아의 기능에 관한 설명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어쨌든 플라톤의 음절의 비유(252a9-253a7)는 존재물음의 아포리아를 해결하는 ‘변증법과 에이도스들의 교통’의 맥락(242e-254b)안에 속한다. 관련 맥락들은 다음과 같다.

- ㄷ-1)있지 않는 것과 에이두라(*εἶδωλα*, 246c6, 심상, 心像): 231b-242b.
- ㄷ-2)있는 것에 관하여: 242b-249d.
 - ㄷ-2-1)다윈론자와 일원론자: 242b-245e.
 - ㄷ-2-2)유물론자와 에이도스론자: 245e-249d.
- ㄷ-3)아포리아(*ἀπορία*, 250d8, ε6): 249d-252e.
- ㄷ-4)변증법과 에이도스들의 교통(*ἐπικοινωνεῖν*, 251d9, 交通): 242e-254b.
- ㄷ-5)가장 큰 다섯 가지 류들이 어떻게 서로 교통하는가?: 254b-256d.
- ㄷ-6)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256d-259d.

(김익성) 실체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4-1-2-2)음절의 비유와 관여(메텍시스)

4-1-2-2-1)음절의 비유

이 유비(類比)에서는 서로 섞여지려 하거나 떨어지려 하는 모든 류가 철자(τὰ γράμματα, 253a1)로, 그리고 이외의 모든 철자(자음)들을 두루 묶는 끈(δεσμός, 소., 253a5)으로서의 철자⁹⁶⁾(모음, 母音)들이 존재로 비유된다(τὸ ὄν ὡς ἕνια τῶν γραμματῶν). ‘존재’는 모든 류들을 끈처럼 두루 묶는다는 것이다.

그래서이미 여러 차례 되풀이된 핵심 아포리아, ‘모든 것의 반대되는 요소들이 어떻게 같이(ὁμίως, 243e5)있을 수 있느냐?’를 해결 할 것처럼 보이는 존재의 이런 자연은 존재 그 자신이 비 존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 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들어**, 양은 음이 아니고 음은 양이 아니며, 그리고 움직임은 정지가 아니며 정지는 움직임이 아니고, 그리고 동일은 다름이 아니며 다름은 동일이 아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존재 덕분에 공존 할 수 있다면, 그 존재 자신이 자신 덕분에 자신이 아닌 것(존재 아닐)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 되는 모든 짝이 공존하듯⁹⁷⁾ 그렇게 말이다. 이것들이 그것에 의해 묶이는 존재의 본성으로 인하여 존재

96) τὰ φωνήεντα(소피스테스, 253a4; 필레보스, 18b8; φωνὴν μόνον, 테아이테토스, 203b7)

97) 그러나 철자들이 분리되는 이유는 음절의 비유 맥락이 아니라,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맥락에서 있는 것이 나누어 지는 헤타론(다름)의 자연 탓으로 설명된다.

자신이 자신의 반대 짝 비존재와 묶일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낯선이가 음절의 비유에 의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반대 에이도스들을 묶는 자연(본성)을 존재가 지니므로, 정의₁ '존재는 (과거의) 움직임이며 그리고 (지금의) 정지이다'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존재가 반대 짝 정지와 움직임을 양자적으로 묶어 주기-이어 주기⁹⁸⁾-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존재 자신이 비존재와 이어진다. 따라서 존재는 움직임이며 그리고 정지이며 그리고 존재는 비존재 '이다'⁹⁹⁾. 이와 더불어 량적인 존재 물음의 아포리아도 해소된다. 반대 짝인 하나와 여럿 역시 존재에 의해 묶여지기 때문이다. 하나로 있으면서 여럿으로 있다(하나이면서 여럿이다). 바로 이것이 존재(있는 것) 라는 이데아(에이도스)의 '특성'이다.

4-1-2-2)움직임과 정지 밖의 무시야?

그렇다면, 이러한 비유와 존재와 비존재의 변증법에 의해, '정의₂', '(과거의)정지도 아니며 그리고 (지금의 겪는) 움직임도 아니다'가 함축하는 아포리아 즉 존재를 정지와 움직임 밖의 것이라는 것도 해소 되는가? 만약

98) 훗날의 문법 용어로 말하자면, 계사(繫辭)!

99)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적인 궤변(σοφιστική, 형., K(8), 1064b 27-28)이라고 무시한다. 있지 않는 것에 종사하는 자들을 소피스트들이라고 한 점에 있어서는 플라톤이 옳았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있지 않는 것을 우연적인 것(τὸ συμβεβηκός, 1064b28)과 흡사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것들에 관한 앎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익성) 실체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존재와 비존재가 **동일**하다면, ‘아님’은 ‘임’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정지이며 그리고 움직임이다’로 환원 가능한 위 문장의 아포리아는 해결 될 것이다. 그런데 존재와 비존재는 동일한가? 비록 존재보다 비존재가 덜 ‘있’거나 더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존재는 존재와 **다르다**고 엘레아 낫선이는 딱 부러지게 정의해 버렸으므로(91쪽). 따라서 비존재와 존재의 동일화는 여기에서 불 가능하다¹⁰⁰. 더구나 ‘있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다’가 성립하는 것은 ‘있지 않다’의 ‘없음’이 모순적인 대답이 아니라 단지 부정(否定)적인 대답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자기 부정된 것이 이어떻게 이전의 ‘자기’와 일치 할 수 있겠는가? 없다.

그렇다고 ‘정의₁’이 성립하므로 이제는 ‘정의₂’가 필요없다고 하면서, ‘정의₁’을 폐기 할 수도 없다. 만약 폐기한다면 과거에 정지하지 않은 존재가 지금 쥘는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의 증명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런 포기는 존재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⁰¹. 존재는 움직임이면서 움직임이 아니라는 정의₁의 아포리아 해결이 증명됐다고 해도 말이다. 정의₂의 증명은 정의₁ 부정(否定)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 정의₁의 증명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₂의 아포리아(107쪽 각주 104번), 존재가 정

100)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량적으로 ‘똑 같음’(ἰσότης)과 질적은 ‘같음’(ὁμοιότης)은 ‘동일’(τὸ αὐτόν, ταυτόν)과 구분되고, 동일은 ‘하나’(ἓν)와 구분된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101) 포기하면 단순히 소피스트 편은 말 장난에 불과 할 것이다. 아무 것도 해결 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와 움직임 외부에서 가져와질(ἀναπέφανται, 250d2, 돌출突出한다)수 없다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전의 모든 해결은 수포로 돌아 간다.

그렇다면 ‘정의₂’의 아포리아는 해결 불 가능한 것일까? 그러나 만약 외부 원인에 의해서 **우시아**가 주어진다(102), ‘밖’에서 정지와 움직임과 존재가 한꺼번에 주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정지와 움직임 ‘밖’에서 존재가 돌출 할 수 있지 않을까? 주어질 바로 그 순간 이것들은 서로를 **나누어 지** **닐** 것이기 때문이다.

4-1-2-2-1)우시아를 나누어 지님(메테케인)

‘나누어 지닌다’는 표현이 훨씬 여기 보다 자주 나타나는 파르메니데스 편과 관련시켜¹⁰³⁾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다음 쪽에서 처럼 소피스트 편에 나오는 ‘나누어 지님¹⁰⁴⁾’을 정리 해 보자.

102) 선의 이데아로부터 ‘있음’과 ‘우시아’가(τὸ εἶναι καὶ τὴν οὐσίαν, 국가(ς, VI), 509b7-8) 있는 것의 이데아에게 주어지고 있으며(προσεῖναι, 509b8), 우시아는 그 위엄과 힘(δύναμει, 509b9)에 있어 초월적인 선(善)의 이데아에 속해 있기(ὑπερέοντος, 509b10)있다고 말해지질 않는다. 그래서 존재에 관한 탐구가 소피스트 편에서 결코 마무리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필레보스, 테아이테토스, 파르메니데스 편 등의 다른 대화 편에서 마무리지어지는 것 같지도 않다.

103) 그래서 파르메니데스 편의 아포리아와 여기의 아포리아는 그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 서로 연결된다.

(김익성) 실체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메테케인 하는 순간

(소., 256a1, ἔστι)		(διὰ τὸ μετέχειν, 소., 256a1)
움직임이 있다	↔	움직임이 우시아를 나누어지니기 때문이다.
정지가 있다	↔	정지가 우시아를 나누어지니기 때문이다.
동일하다	↔	동일이 우시아를 나누어지니기 때문이다.
다르다	↔	다름이 우시아를 나누어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의 ‘ἔστι’ [(이)있다]를 ‘나누어 지닌다’와 동일한 표현으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않된다. ‘나누어 지님’(관여)과 ‘있음’은 각기 구분되는 영역임이기 때문이다(파르메니데스 편). 나누어 지니는 것은 순간(ἐξαιφνης, 파르메니데스 편, 156d3)에 일어나는 반면 있는 것은 지금(ἄν)인데, 있음의 영원함과 시간의 ‘접촉’이 그러한 순간에 발생하므로 그렇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움직임에서 정지로의 변화(μεταβάλλη, 파., 156c2)가 일어난다—이 때 우시아와 정지와 움직임이 서로에 주어진다면, 우시아를 정지와 움직임이 나누어 지니는 그 ‘곳’은 움직임과 정지의 ‘밖105’)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반대되는 모든 에이도스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밖’에서 정지와 움직임에 우시아(존재)가 주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주어진 후에는 비록 움직임과 정지와 더불어서만 그리고 그 ‘안’에서만 함께 존재하

104)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1037b18에서 ‘μετέχειν’(나누어 지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반대들을 메테케인 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사용한다—류가 반대되는 차이들을 나누어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우시아들만이 반대들을 받아 들일 수 있으므로.

105) 순간(엑사이프네에스)은 공간 안의 것(ἄτοπος, 파., 156d7)도 아니고 시간 안의 것도 아니라, 시 공간이 거기에서 영원과 만나는 ‘곳’이다.

실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김익성)

기는 해도 말이다.

4-1-3) 존재 정의에 쓰여진 방법들

이러한 **존재**를 정의하기 위해, 소피스트 편의 낯선이는 **나뉜** 종류들을 묶어 말(로고스)을 성립시키는 **결합**, 그리고 이전의 존재 규정들이 직면하게 되는 아포리아들을 보여 주는 **반박**과 그 해결, 그리고 유비(類比)적인 것(모범, 파라데이그마)의 자연에 빗 대므로써 존재의 자연을 설명하는 **유비적인 비유**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방법들 중의 핵심은 변증술에 의해 **나누는** 방법(소피스트, 정치가 편)이다. 이것을 통해 연역된 ‘비 존재’의 ‘비’(非)의 정의에 의해 존재와 비존재를 함께 밝히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누기 위해서는 나누어야 할 것들을, 모두이든 일부이든, 함께 끌어 모아 **직관**해야 하며(필레보스, 파이드로스 편), 그리고 나뉜 것들을 말로 **재 결합**(소피스트 편)해야 한다. 따라서 직관(33쪽)과 나눔(36쪽)과 결합(45쪽)은 정의 방법의 세 요소이다.

나아가서 이 세 가지 방법과 더불어 반박과 비유가 병행(並行)한다. 모순되는 로고스(말)의 반박은 비 모순율(23쪽)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소피스트, 유티프론, 파르메니데스 편). 모순되는 말은 회피하라는 것이다¹⁰⁶. 바로 이러한 **반박**(에렝코스)이 정의 탐색 방법 중의 하나로 쓰여진

106) 모순은 소피스트 편 아포리아의 핵심이기는 하나, 거기 모든 아포리아가 모순 때문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하나에 따르자면 동일한 것

(김익성) 실체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정의 방법들

다. 그리고 이것은 아포리아(난점)들을 이끌어 들이므로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의 시도(試圖)는 그것은 단지 아포리아 ‘학’(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가 예(例, **파라데이그마**)로 들어진 것의 자연(본성) 설명 그리고 그 예(例)를 정의 대상(definiendum)에 관련시키는 (유비적인)인 ‘**비유**’이다(97쪽). 낙시꾼(소피스트 편)과 직조술(정치가 편) 그리고 그 안의 모음이 존재로 비유되는 음절(테아이테토스, 소피스트, 정치가 편)이 바로 그 예들이다.

이러한 여러 방법을 통해 소피스트 편 존재 탐색은 행해진다(160쪽). 그리고 이런 방법들에 의한 진행은 약간의 일탈(逸脫)을 수반하면서 대부분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소피스트 편의 이런 진행 방식은 경건의 정의를 찾아가는 유티프론 편의 그것과도 아주 흡사하다(32쪽). 물론 유티프론 편은 **아포리아 학**에 머물기는 해도 말이다¹⁰⁷⁾.

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울 수 없다는 것(72쪽)과 그리고 힘으로서의 존재 정의가 에이도스 친구들의 입장에 적용된 ‘존재는 정지됐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 라는 ‘정의₂’가 함축하는 아포리아, 존재는 정지와 움직임 밖의 것이라는 것 등은 비 모순을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104쪽).

107)비록 관련 정의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아포리아(난제, 難題) ‘학’으로 불리울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정의의 대상은 이데아들이라는 것 등 등의 긍정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반박 과정에서 쏘다 저 나온다.

그러나 소피스트 편은 좀 상황이 사뭇 다르다. 물론 존재에 관한 최종

실체로존재물음의환원:존재와우시아정의>플라톤>아포리아해소>(비)존재의변증법 (김익성)

4-2)아리스토텔레스의 ‘대안’

4-2-1)아포리아

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세 가지 방법¹⁰⁸중의 하나로 **아포리아**로부터 출발하여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침 없이, 그리고 도그마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아포리아들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aporematics, 1982(1924), I, lxxvi)을 든다. ‘형이상학 전체는 긍정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찾아가는 마음의 노정’ (adventures, lxxvii, 路程)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이상학 그 전체에 긍정적인 내용이 결여 돼 있다고 보는 견해는 지나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필연적인 진실이 아니기에 여러 의견들을 자주 반박(이것을 로스도 다른 방법으로 인정함)하는 곳에서 조차 여러 긍정(특히 감마 편)적인 내용을 제공하기도 하기도 하며, 어떤 반박이나 아포리아에 깊숙이 빠져 들 없이 긍정적인 내용을(특히 람다 편)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이상학 제타 편은 그 자체 로기코스한 차원(말의 차원)

적인 ‘정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잠정적’인 정의들의 아포리아들을 ‘해소’시키는 존재의 자연에 관한 비유적인 설명과 그리고 그것을 짝으로 하여 존재가 밝혀지는 비존재의 정의(비존재는 존재와 다름이다)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108)다른 하나는 관련 이전 사유의 역사요, 다른 하나는 전제들로 시작하여 결론에 이르는 논증적인 추리(삼단논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제들의 거부가 역설적인 또는 불 가능한 귀결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 줌에서 그 전제들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아포리아

에서 진행되기도 하며 감마 편은 반박 논증을 도드라지게 드러 내기도 한다.

어쩌든 형이상학 전체 내용 전개 과정을 미리 보여 주는 베타 편 전체와 값과 편 1-2 장에서 제시된 아포리아들은 오히려 전체 13 편¹⁰⁹⁾모두를 **우시아** 라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시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4-2-1-1)형이상학 개요

먼저, 모든 것의 **아르케(우시아)**들에 관한 앎¹¹⁰⁾를 찾아 갔던 선행자들의 의견이 요약 비판되면서, 이 앎이 지니는 어려움들이 분석된다(116쪽). 바로 이 부분에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전부와 그리고 값과 편 1-2장(1052a18-1054a19)이 속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앎에 관련되는 용어들이 설명된다. 이 부분이 **델타**이다. 그 다음으로, 우시아들이 집중적으로 설명된다. 이 부분에는 **제타 에에타 이오타 람다 뫼 뉴** 등이 속한다. 그 사이에 잠재성과 활동성과 현실태와 진실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들이 논의된다. 이 부분에는 **테에타**가 속한다. 그리고 움직임이 분석된다-자연학의 요약이리라. 이 부분에는 값과 편 9-12장(1065b5-1069b14)이 속한다. 이처럼 형이

109) 알파(980a21-995a20)를 큰 것(980a21-993a27)와 작은 것(993a30-995a20)으로 나누면 총 14 편인 반면, 큰 것(980a21-993a27)과 작은 것(993a30-995a20)을 하나의 알파(980a 21-995a20)로 합치면 총 13 편이다.

110) 있는 것들의 원인 또는 아르케에에 관한 앎으로서 지혜라 불리워진다.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아포리아 (김익성)

형이상학

상학(980a21-1093a29) 총 14 편¹⁰⁷⁾은 다섯 부분으로 그 내용에 있어 나누어질 수 있다. 편 별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혜’를 찾아 갔던 선행자들의 의견들이 요약 비판되는 큰 알파(980a21-993a27)와 그리고 철학은 ‘진실에 관한 앎이다’ 라고 말하는 작은 알파(993a30-995a20)로 **알파** 편(980a21-995a20)은 이루어지며,

우리들이 찾는 앎이 지니는 어려움들 14가지가 열거 분석되면서 **베타** 편(995a23-1003a17)에서는 형이상학 전체의 문제 점들이 선명해지고,

감마 편(1003a21-1012b31)에서는 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있는 것 자체)에 관한 앎(철학)은 우시아를 다룬다고 말해지면서, 앎의 아르케에 관련된 **반박**(ἐλεγκτικῶς, Γ(1006a15))논증¹¹¹⁾이 이루어진다.

델타 편(1012a34-1025a34)에서는 그러한 앎과 관련하여 쓰여지는 여러 용어들이 설명된다. 아르케에 · 원인 · 요소 · 자연 · 필연적인 하나 · 있는 것 · 우시아(실체) · 동일 · 차이 · 같음 · 대립 · 먼저와 나중 · 뒤나뭇스(잠재성, 힘) · 량 · 질 · 관계 · 목적 · 한계 · ~에따라 · 배열 · 관습 · 속성 · 결여 · 결여 · 갖다 · 안에 있음 · 부분과 전체와 모두 · 잘린 · 류 · 거짓 · 우연 등이 오늘날의 백과사전에서처럼 수록된다.

111) 그러나 플라톤의 유티프론 편이나 소피스트 편에서 보여지는 반박 맥락은 다르다. 거기에서는 어떤 말이 함축하는 모순 때문에 반박되지만 여기에서는 앎의 아르케(비 모순율)를 부정하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반박되기 때문이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아포리아

엡실론 편(1025a3-1028a6)에서는 앎이 분류되고,
제타 편(1028a10-1041b33)에서는 에이도스로서의 우시아가 말해지며,
에에타 편(1042a3-1045b23)에서는 감각적인 실체 또는 질료 그리고 질료를 지니지 않는 것이 말해진다.

나아가서, 있는 것은 잠재성(힘)과 활동성과 현실태와 그리고 진실이라고도 말하여진다는 것이 **테에타** 편(1045b27-1052a11)에서 말해지며,

‘하나도 실체일까’라는 물음이 제기되면서 열려지는 **이오타** 편(1052a15-1059a14)에서는 있는 것과 있음, 하나와 여럿과 많음에 관해 말해지고,

앎에 관한 어려움과 항상 진실인 것이 말하여지는 **값파** 편(1052a18-1069a14)에서는 더불어 움직임도 설명된다.

람다 편(1069a18-1076a4)에서는 소멸하는 우시아와 영원한 우시아들, 곧 감각적인 우시아들과 움직이지 않는 우시아들이 말해지며,

뫼 편(1076a8-1087a25)와 **뫼** 편(1087a29-1093a29)에서는 ‘산술적인 것과 기하학적인 것 등 수학적 것과 이데아도 우시아일까?’ 라는 물음이 조사된다.

위의 개괄에서 보여지듯, 아포리아들을 직접 문제 삼는 곳은 **베타** 편 전체(995a23-1003a17)와 **값파** 편(1-6 장, 1059a18-1063b35)이며, **제타** 편(4-5, 1029a1-1031a14; 10-12 장, 1034b20-1038a35)이다. 그러나 언급된 것처럼, 베타 편과 값파 편에서는 우시아에 관한 앎이 지니는 어려움들이 다루어지는 반면, 제타 편에서는 우시아에 관한 ‘정의’가 지니는 어려움들이 다

실체으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아포리아 (김익성)

루어지는데, 본 논문은 존재와 실체(우시아)의 정의에 관한 것이므로, 무엇보다 제타 편(1028a10-1041b33) 각 장이 여기에 요약 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더 주요한 요약 이유는 존재 물음을 함축하는 물음, ‘우시아는 무엇인가’가 여기 제타 편 1 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4-2-1-1-1) 제타 편 개요

7-1) “가장 먼저 있는 것(τὸ πρότως ὄν, 1028a30)이 바로 우시아(실체)이므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 그것은 ‘우시아는 무엇(τί)인가?’ 라는 물음과 동일 선 상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우시아(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라고 말해지는 1 장(1028a10-1028b7)에 이어, 7-2) 2 장(1028b8-b32)에서는 ‘이전의 의견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실체들이 어떤 것(τί)인지’를 서술 한 뒤, 이런 소위(所謂) ‘실체’들과 더불어 제기되는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실체란 무엇인가?’가 조사되어야 한다 라고 거듭 말해진다. 그런데 7-3) “그 당시 실체라고 말해지는(λέγεται, 1028b33) 것들, 곧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 과 ‘보편자’ 와 ‘류’ 와 ‘기체’ 등 4 가지 가운데 우선 기체 또는 질료는 실체가 아니다. ‘분리 됨’과 ‘이 것’이 실체에 주로 속하는데 질료는 ‘이 것’이 아니며 기체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라고 3 장(1028b33-1029a 34)에서 말해진다. 여기까지가 제타 편의 들어가기라고 말할 수 있다.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ἦν εἶναι, 1028b34, 본질)에 대해 (4 장부터) 말하기 위해 지금까지(1-3 장, 1028a10-1029a34)의 로고스들이 필요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 장 이후의 장들이 본론이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아포리아

7-4)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며, 자신의 로고스와 정의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안에는 없는(μη εἶναι, 1029b20)우 시아가 정의에서 단지 말 해 질 뿐이다’고 하는 4 장(1029a1-1030b13)에 이어, 7-5) 5 장(1030b14-1031b14)에서는, 대 부분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 우시아(실체)에 속하는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의 정의 만이 왜 있는가’에 대해 말하여지고, 7-6) 6 장(1031b15-1032b11)에서는 각기 것에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이 그 각기 것과 동일한 것은(ταύτόν, 1031a15)어떠한 것이며, 다른(ἕτερον) 것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가’가 말하여진다.

이제, 이어지는 7~9 장(1032b12-1034b17)에서는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그것 안에 스스로를 낳으므로서 비로서 이 무엇으로부터 어떤 것이 생성한다”고 말하여지는 가운데, 생성이 설명되어진다. 7-7)‘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은 생성(된 것)이 아니다’고 말해지는 가운데, 7 장(1032b12-1033a23)에서는 자연적인 생성과 기교적인 생성과 자동적인 생성 등 이 세 가지 중, 앞 옛 것 두 가지가 말해진다. 어느 생성이든 생성(되는 것) 안에는 에이도스와 질료가 속 해 있는데,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이 바로 에이도스이며 이런 에이도스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성의 경우, 생성된 것 안에는 에이도스(種)라고 말하여지는 모르페에(μορφήν, 模樣, 1033b6)뿐 만아니라 질료도 있다. 7-8) ‘에이도스와 더불어 미리 있는 바로 이 질료 덕에 생성되는 것은 다르게 된다’고 말하는 8 장(1033a24-1034a8)에서는 “ ‘생성(된 것)과 관련지워 볼 때

실체으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아포리아 (김익성)

생성된 각기 것과 나란히 분리 해 있다'고 말해지는 에이도스는 쓸모 없다”라는 이데아 비판 론이 솟구친다 이어, 7-9) **9 장**(1034a9-1034b19)은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 생산 될 뿐 만아니라 자동적으로도 생산되는데, 왜 어떤 것은 기교적으로는 생산되는 반면 자동적으로는 생산되지 않을까?’ 라는 물음과 더불어 열려지면서, ‘질료의 움직임 때문이다’ 라는 답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끝 부분에서 다시 생성 일반에 대해 말하면서, 에이도스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다.

이제, 10-12장(1034b20-1038a35)으로 들어 서면서 그는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의 정의와 로고스를 부분과 전체에 연관지어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가 진짜로 우리에게 물어오는 물음은 ‘에이도스(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의 부분은 무엇이나?’ 라는 질문이다. 7-10) 그는 **10 장**(1034a20-1036a25)에서 ‘에이도스의 (또는 영혼의, 곧 개별 인간에게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 전체는 그 에이도스의 부분(에이도스 부분 만이 로고스의 부분이다)보다 나중인 반면, 합쳐진 전체 곧 각기 것의 전체는 자신의 부분 보다 먼저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7-11)‘만약 에이도스의 부분 만이 정의(로고스)의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어떠한(ποίησ, 1036a26)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질료(적인 것)은 아니다’고 답하는 **11 장**(1036a26-1037b7)은 ‘예를들어 소크라테스의 경우 그의 몸은 질료이며 그의 영혼은 에이도스이므로, 에이도스의 부분은 영혼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7-12)‘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은 결국 순수한 하나’라고 **12 장**(1037b8-1038a35)에서 말하여진다. 만약 부분이 전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아포리아

체에 속한다면 순수한 하나일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하나가 아닌데, 그 무엇의 부분은 전체에 속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철자(소리와 소리 아닌 것)가 음절에 속하 듯 말이다¹¹²⁾. 그러므로 ‘정의 역시 하나이다’고 말해진다. 이러한 정의는 차이로부터 차이로 나누어짐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이 차이 가운데서도 맨 끝 차이가 바로 에이도스이다.

이제, 그는 다시 3 장의 맥락으로 돌아가, 7-13)거기서 ‘실체라고 말하여진 보편자가 진짜로 실체인가?’ 라고 13 장(1038b1-1039a23)에서 묻고선 ‘아니다’고 대답하므로써, 실체에 대한 자신의 로고스를 계속 이어나간다. 여러 많은 것들에 공통으로 속한 것이 보편자인 반면, 실체는 각기 고유한 것이며, 여러 많은 것[속성]들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래서 그 속성들의 기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7-14) “‘류와 차이로부터 있으면서 동시에 분리해 있는 실체’라고 말하여지는 에이도스 곧 이데아는 실체가 아니다”고 말해지는 14 장(1039a24-1039b19)에 이어, 7-15) 15 장(1039b20-1040b4)에서는 ‘그러한 이데아는 인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정의 또한 있지 않으며, 또한 감각적인 실체의 정의 역시 있지 않다’고 말하여진다. 7-16)하나 역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주로 말하여지는 16장(1040b5-1041a5)의 시작 부분에서는 ‘실체들은 잠재적으로도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마지막으로 7-17) 17 장(1041a6-1041b33)은 제에타 편 끝 내기 장이다.

112) 철자와 음절은 10장과 그리고 17장 끝에서 들어지는 예(例)들이지, 12장에서 들어지는 예가 아니다. 12 장에서는 두 발과 생물이 예로 들어진다.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은 ‘위해지는 그 무엇’으로서의 그러한 목적 원인이기도 하며, ‘맨 처음 움직이게 하는 무엇’으로서의 ‘있음의 원인’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우시아이며 질료의 원인이기도 하다. 각기 것의 우시아란 각기 것의 있음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17장의 끝 부분(1041b11-b33)에서 음절과 철자를 예(例)로 들어, ‘우시아는 철자와 음절과는 다른 무엇으로서 음절과 철자[소리(모음)와 소리아닌 것(자음)]를, 그리고 살과불과흙 등을 있게 하는 있음의 원인이며, 그것들의 자연과 동일하다. 자연에 따라서 그리고 자연적으로 철자들이 음절을 이루기 위해 묶이기(συνεστήκασι, 1041b30)때문이다’ 라고 말하므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시아에 대한 자신의 제타 편의 논의를 마무리한다.

언급된 것처럼(109쪽), 아포리아들을 직접 문제 삼는 곳은 **베타** 편 전체(995a23-1003a17)와 **감파** 편(1-2 장, 1059a18-1060b30)과 **제타** 편(4-5, 1029a1-1031a14; 10-12 장, 1034b20-1038a35)이다¹¹³⁾. 그래서 먼저, 전자에서 다루어지는 우시아에 관한 얇이 지나는 어려움들을, 그 다음에 후자에서 다루어지는 우시아의 정의에 관한 어려움들을 나열(羅列) 해 보자.

113) 물론 다른 편들에서도 그 때 그 때 아포리아(물음)들이 적재 적소에서 나타난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아포리아

4-2-1-2)지혜(소피아)의 아포리아

4-2-1-2-1)베타 편

베타 편에서 검토되는 모든 류(πάντα το γένη, 996a19)의 원인에 관한 앎의 아포리아들은 다음 열 네 가지이다. 1)원인들에 관한 이론(θεωῆσαι τὰς αἰτίας, 995b5)은 앎 하나인가 아니면 여럿인가? 2)이런 앎은 우시아들로서의 앎의 첫 아르케들 만을 개관하는(ἰδεῖν, 995b8)가 아니면 논증의 전제들로서의 아르케도 개관하는가? 3)이런 앎이 우시아를 다룬다면 하나의 앎이 모든 우시아를 다루는가 아니면 우시아 각 각을 다루는가? 4)감각 실체들만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우시아들도 있는가? 5)우리의 이론은 단지 우시아들에만 관련하는가 아니면 우시아들의 속성(τὰ συμβεβηκότα, 995b19-20)들과도 관련하는가? 6)아르케들과 요소들은 류인가 아니면 어떤 류의 부분들인가?(141쪽) 7)류라면,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맨 먼저 말해지는 것들인가?(136쪽) 8)질료 이외의 원인 전체인 것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9)아르케들은 수적으로 제한되는가 아니면 종적으로 제한되는가? 10)소멸하는 것과 소멸하지 않는 것들의 아르케들은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가? 11)하나와 있는 것은 다른 것의 (속성)인가? 아니면 있는 것들의(τῶν ὄντων, 996a7) 우시아인가? 12)아르케들은 보편자인가 아니면 프라그마 각각인가? 13)아르케들은 잠재적인가 활동적인가(ἐνεργεία, 996a11)? 14)수들, 선(線)들, 꼴들, 점들은 우시아들인가 아닌가? 이런 아포리아들을 열거(列擧)한 후에 비로서 그것들에 관해 세론(細論)하는, 그러나 거기에서는 답을 제공하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여기에서 따라 갈 수는 없다. 대신, 형이상학 전체에서 보여지는(106쪽) 답 만을 간략하게 적어야 겠다.

1-1)원인들에 관한 이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예를들어 **우시아론**(제타 편과 에타 편)과 **테오로기아**(람다 편, 신학)—그러나 우시아에 관한 이론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들과 구분되는 **존재론**. 그래서 2-1) 논증의 ‘전제’들로서의 아르케들¹¹⁴)에 관한 이론 역시 우시아론과 신학과 구분된다. 나아가서 3-1)구분되는 우시아들을 다루는 여러 얇이 있다. 그 중 에이도스로서의 우시아를 다루는 얇은 하나, 곧 **우시아론**(제타 편)이다. 4-1)감각적이지 않는 다른 우시아들도 있다. 신(테오스)은 그러한 우시아들 중의 하나이다. 5-1)우리의 얇은 우시아 뿐만 아니라 우시아의 ‘속성’(τὰ τοῦτω ὑπάρχοντα, 1003a21-22)들(예를들어 동일과 다름)을 다룬다. 6-1)아르케와 요소들은 류가 아니다. 8-1)질료원인 이외에도 형상원인이 있다. 11-1) 있는 것은 있는 것들의 우시아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 어떤 것의 속성도 아니다. 있는 것은 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12-1)아르케는 보편자도 프라그마 각 각도 아니다. 13-1)아르케들은 활동적이다. 14-1)수와 선과 모양과 점들은 우시아들이 아니다.

4-2-1-2-2)값과 편 1-2 장

값과 편 1-2 장¹¹⁵)에서는 다음 여덟 아포리아가 숙고된다. 15)얇으로서

114)정의들(제타 편4-5, 1029a1-1031a14; 10-12 장, 1034b20-1038a35)이 그러한 아르케들이다.

115) G. Reale(trans. G.R.Catan, 1980, 262쪽)은 값과 편 1-2 장을 보다 엄밀한 의도를 위해 만들어진 베타 편의 요약(summary, 위의 책, 262쪽)이라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아포리아

의 지혜(아르케에 관한 앎)는 하나인가 아니면 여럿인가? 16)이런 앎은 모든 실체들을 조사하는가 하지 않는가? 17)요소인 아르케들을 다루는가? 18) 개별자 각 각을 다루는가? 19) 앎은 보편자에 관한 것이며 그리고 우시아는 보편자가 아니라 ‘분리’(χωριστόν, 1060b22)된 ‘이 것’이므로, 만약 아르케들에 관한 앎이 있다면 어떻게 우시아들을 아르케들이라고 상정할 수 있을까? 20)질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떨어진(παρά, 1060b2 4)어떤 것이 있는가 없는가? 21)에이도스 또는 모르페가 떨어져 따로 있는 바로 그것이라면 어느 경우에(ἐν τίνων, 1060b27)에 따로 있고 어느 경우에 따로 있지 않는가? 22)아르케들은 종에 있어 동일한가 수에 있어 동일한가?

베타 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아포리아들에 관한 답은 값과 편 1-2 장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형이상학 전체에서 보여지는 답을 개략적으로 적어야겠다.

15-1) 최상의 지혜(앎) 하나와 이와 구분되는 하위 ‘지혜’들이 있다. 가

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반(反)아리스토텔레스적 요소를 보여 준다고 주장하는 나토르프(*Natorp*, 위의 책, 260쪽)와 ‘베타 편’의 아포리아들은 베타 편에서 발전되고 있는 철학의 유형이 전체적으로 플라톤으로부터 파생 될 뿐만 아니라, 본성 상 플라톤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예거(*Jaeger*, 위의 책 260쪽)와 베타 편’의 아포리아들에 대한 값과 편 1-2 장의 교정된 아포리아들의 우위(優位)를 인정하는 아르님(*Arnim*, 위의 책, 261쪽)과, 값과 편 1-2 장은 베타 편에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분트(*Wundt*)와 골케(*Gohlke*, 위의 글) 모두를 반박한다.

실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아포리아 (김익성)

장 신성한 것(τὸ θεῖον¹¹⁶), 1064a37; θεϊότατον, 1074b15)과 신성한 것들(움직이지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들, 1074a15)에 관한 **앎(신학)**이 그 하나요, 첫 번째 있는 것으로서의 우시아와 이것에 관한 속성에 관한 **앎(우시아론)**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존재’로서의 ‘존재’에 관한 ‘앎(존재론)’은 ‘지혜’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16-1) 모든 실체들을 조사 할 것이다. 그러나 17-1) 어떤 사람들이 요소들을 아르케들이라고 말하긴 하나, 요소와 동일시되는 그런 ‘아르케’들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요소는 질료로서(ὡς ὕλην, 1041a32) 실체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18-1) 소멸하는 감각적인 ‘실체’에 관한 앎은 불 가능하다. 정의 자체가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렇다면 19) ‘이 것’으로서의 우시아가 분리 해 있고 그리고 아르케에 관한 앎이라면, 어떻게 우시

116) 신은 첫 번째로 가장 주로 아르케라고 말해질 수 있는(ἄν εἴη, 1064b1) 것으로서 영원한(αἰδίων, 1072a25) 실체(τις οὐσία, 1064a35)이다. 이것은 있는 것들 중 가장 고귀한(τὸ τιμιώτατον, 1064b5), 분리된, 움직이지 않는(χωριστὴ καὶ ἀκίνητος, 1064a35) 것이면서 자신을 욕망과 생각(τὸ)과 사랑(ὡς ἐρώμενον, 1072b3)의 ‘첫’ 목적(대상)이 되게 하는 활동(ἐνέργεια, 1072b25)을 통해 이외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κινεῖ, 1072b4) 있는 그러한 것(ἔστιν τι κινούν αὐτὸ ἀκίνητον ὄν, 1072b7-8)이다. 그래서 신은 영원히 살아 있는 선한(τὸν θεὸν εἶναι ζῶν αἰδίων ἄριστον, 1072b28) 활동(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앎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이며 가장 좋은(βέλτιστον, 1064b5) 것이다. 앎은 그 대상 덕분에 더 낮거나 또는 더 나쁘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아포리아

아에 관한 앓이 가능할까? 20-1) 소멸하는 감각 실체와 분리된 것이 있다는 것은 램다 편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21-1)분리된 경우의 에이도스(실체) 역시 램다 편에서 움직이지 앓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 설명된다. 22-1)아르케들이 수적으로 동일하지 앓다는 것은 그럴 경우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이 될 것이나, 그럴 수는 없으므로 종적으로 동일하다. 이것은 아르케의 여러 구분들에서도 확인된다.

위와 앓은 아포리아들 개관(概觀)으로부터, 꺆과에 이어지는 램다와 뵤와 뵤 편, 특히 램다 편 of 주제인 질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진 개체와 ‘분리’된 ‘이 것’으로서의 **우시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예비 물음들이 꺆과 1-2 편 of 아포리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물음’들은 베타 편 of 그것들과 상호 보완되면서 형이상학 of 주제를 전개시켜 나간다는 것이 분명 해 질 것이다. 이것은 베타 편 of 두 번째 아포리아, ‘지혜는 우시아들로서의 앓의 첫 아르케들 만을 개관(ἰδέειν, 995b8, 概觀)하는가 아니면 **논증 of 전제**들로서의 아르케(정의)들도 개관하는가?’ 라는 아포리아에서 도드라지는 정의들의 문제가 꺆과 편 1-2 장 of 아포리아들에서는 빠진다는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시아 정의**하는 것은 꺆과 편 이후 of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진다.

따라서 정의에 관련하는 나는 베타 편 두 번째 아포리아에 주목한다.

4-2-1-2-3) 베타 편 of 두 번째 아포리아

이 아포리아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하거나 변하게 하는 것(움

직임의 첫 원인)으로서의 아르케¹¹⁷⁾와 그것으로부터 사태들이 처음 인식되는 것(논증의 전제들, *αι ὑποθέσεις*, 1013a16)으로서의 아르케를 구분하도록 하므로서, 독자로 하여금 형이상학의 핵심적인 논의 방향을 미리 짐작 할 수 있도록 준다. 이에 관련된 감마 편(1003a21-1012b31)과 제타 편 4-5 장(1029a1-1031a14)과 10-12 장(1034b20-1038a35)은 후자의 아르케에 관한 논의(비 모순율과 전제들-값과 편, **우시아 론**)이며, 람다 편(1069a18-1076a4)은 전자의 아르케에 관한 논의(**신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의 이러한 궁극적인 전제인 비 모순율을 거부하는 자들¹¹⁸⁾을 반박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정의(전제)는 어떤 것을 필연적으로 가리키는(*σημαίνειν*, 1012b23)로고스인데, 이러한 로고스의 이름

117) 그는 델타 편 1 장(1012a34-1013b23)에에서 아르케(*ἀρχή*, 1012a14)를 여섯 가지로 구분 한다. ①움직임의 시작(‘지점’), ②가장 잘 (생성)되는 ‘것’(예: 가장 잘 배워지는 것), ③안에서(*ἐνυπάρχοντος*, 1013a4)의 생성을 시작하게 하는 ‘것’(예: 배의 용골), ④밖에서의 생성을 시작하게 하는 ‘것’(예: 어린 이의 부모), ⑤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하고 변하게하는 것(예: 군주나 건축가), ⑥그것으로부터 사태에 대한 인식이 처음 시작되는 것(예: 논증의 전제들).

118) 감각적인 것들 이외의 우시아(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 $\Gamma(4)$, 1007a21)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자들-프로타고라스, 아낙사고라스, 데모크리토스 등.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아포리아

이 그들을 필연적으로 고정시켜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σημείον¹¹⁹), 1012a24, 부호)이다'라고, 정의에 관해 단편적으로 언급한다.¹²⁰

“26)이런 자들을 다루는 출발점은 정의(ἐξ ὀρισμοῦ, 1012a22)이다. 정의는 이들이 어떤 것을 필연적으로 가리킨다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며, 그것의 이름이 [하나의] 부호인 로고스가 정의로 되기 때문이다(형이상학 감마 7장 1012a23-a24)”

우연히 아니라 어떤 것을 필연¹²¹적으로 가리키는(의미하는) 로고스가 정의이므로(49쪽, 128쪽), 의미의 필연성이 해당 로고스들을 정의와 정의 아닌 것으로 구분 지우며, 그렇게 구분된 로고스(정의)가 '기호'로서의 고유한 이름으로 기능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정의(πρότασις ἔνδοξος, 분석론 전서, 70a4, 표지)는 '모든 것은 있으며 있지 않다'이며, 아낙사고라스의 표지는 '있는 것들이 섞일 때의 그 섞임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이다. 그러나

119) 나는 이것을 이미 파르메니데스의 세마와 플라톤의 호로스와의 관련시킨 바 있다(11, 45쪽).

120) 이것은 소피스트 편에서 플라톤이 이전의 양적인 존재 규정 반박 논의를 진행시킨 것과 비슷하다.

121) 필연은 항상 동일한 상태여서 달리 있을 수 없음(... ἀεὶ ὡσαύτως ἄδχοντα ... τῷ μὴ εὐδεχεσθαι ἄλλως, 1026b29)이므로, 이렇게 필연적으로 있는 것은 저렇게 있을 수 없다. 반면 우연적인 것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있을 수 있음이다.

전자는 모든 것을 진실로 만들며, 후자는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있는 것을 있다고 있지 않는 것을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인 반면 ‘있는 것을 있지 않다고 있지 않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이들은 부정하여, 모순들이 동일하게 진실(1007b18)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다’고 말하며, 결국 ‘동일한 것이 동시에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 없다’는 비 모순율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연으로 간주하여 필연성을 파괴 한다(본질로서의 우시아 거부, 1007a21-22).

4-2-2)우시아

그런데 제타 편 1 장(1028a10-b7)에서 주어지는 물음은 베타 편이나 갈파 편 1-2 장에서 주어지는 것들과는 다른, 그리고 플라톤의 소피스트 편에서 시작되는 물음, ‘**존재**(온)는 무엇이나’와 ‘**실체**(우시아)는 무엇이나’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존재물음이 실체물음으로 환원된다. 무엇 때문에 그는 이런 환원을 시도하여, 존재 대신에 실체의 정의를 찾아 가려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나는 제타 편의 관련 번역을 다시 반복하므로써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7쪽).

“2) 그리고 실로 오래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탐구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려움에 빠지는,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것은 **우시아**(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 이 때문에 단지 그리고 주로 그리고 첫 번째로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지고 있는 것에 관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론화해야한다(형., Z(1), 1028b2-7) ”.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

이렇게 제타 편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시작한다. 그것도 물음의 대상이 우시아이다. 나는 여기서 미묘(微妙)한 차이를 본다. 유티프론 편의 플라톤에게서는 ‘무엇이냐’의 물음 대상이 경건이고 소피스트 편에서는 존재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였으며,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이데아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들의 예시(例示)나 이데아의 속성 제시(提示)가 아니라, 해당 이데아의 **우시아**(25쪽)제시인 반면¹²²⁾, 여기에서는 우시아가 **무엇이냐**고 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의 **무엇**(τί, 1028b4)역시 **어떠한 것**(τι)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¹²³⁾. 이어지는 2 장에서는 실체들을 예시(例示)한 이전의 의견들¹²⁴⁾과

122) 이것은 이데아와 ‘우시아’의 독특한 용법이다. 여기서는 이데아가 곧 우시아이다. 왜냐하면 정의의 대상 이데아가 곧 우시아라면 그리고 이런 우시아가 정의에서는 반드시 말해져야 한다면, ‘경건(이데아)은 무엇이냐’의 답은 ‘경건(이데아)은 경건(우시아)이다’일 것이나, 이런 동어 반복은 잘못된 동일화로 빠져드는(27쪽)것으로서 정의에 있어 반드시 회피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쓰임새는, 예를들어 ‘억견(감각)의 대상은 **우시아**들과 있지 않음 사이에 있다’의 ‘우시아들’에서처럼(국가 편, 479c7), 이데아 자체를 우시아로 간주하는 쓰임새와는 다르다. 테아이테토스 편의 쓰임새들(185b7, 186c7, 186a2)과 비교 해 보라.

123) G.Reale(trans. J.R.Caton, 1980, 210쪽)은 ‘What is substance’(실체는 무엇이냐)는 다른 물음 ‘What substance exist’(어떤 실체가 존재하느냐)에 적용되어야만 충분히 밝혀질(exhausted) 수 있다고 말한다.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 (김익성)

관련하여 ‘무엇(τί, 1028b27)이 좋고 좋지 않은 가’를, ‘무슨(τινές, b27)실체들이 있는가’를, ‘감각 체들과 나란한 어떤 것들(τινες παρά, b29)이 있는지 또는 있지 않은지’를, ‘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있을 지’를, 그리고 ‘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δία τι, b30)어떻게 그러한 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 실체가 무엇이냐’의 물음의 윤곽이 잡혀질(ὑποτυπωσάμενοις τὴν οὐσίαν πρῶτον τί ἐστίν, 1028b31)뿐만 아니라, 3 장에서는 우시아로 거론되는 것들이 네 가지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시아는 무엇이냐’는 물음이 유티프론 편의 유티프론이 처음 잘못 이해했던 것과 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시아들이냐’는 물음이었다면, 관련 정의에 관해 논구(論究)하는 그리고 나눔에 따른(κατὰ τὰς σιδαιρέσις, 1037b28)방법에 의해 우시아를 맨 끝 차이(1038a 19)로 정의(ὀρισμῶν, 1037b28-29)하여 그것이 에이도스라는 결론을 내리는 4-5 장과 10-12 장, 그리고 플라톤의 에이도스는 류와 차이로부터 있으면서 동시에 분리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14 장과 그래서 플라톤의 에이도스는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15장은 열려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들이냐’의 물음과 혼동되지 말아야 할 ‘무엇이냐’는 물음은¹²⁵⁾ 제타 편 전

124) 몸들과 체((τὸ σῶμα καὶ τὸ στερεόν, 1028b18), 면과 선과 점과 모나드들 같은 몸의 한계들(πέρατα, 1028b16), 감각의 대상들(τὰ αἰσθητὰ, 1028b18), 수학적인 것들과 플라톤의 에이도스들 같은 영원한 것들(αἰδία, 1028b19)이 우시아들이라는 의견들.

125) 따라서 이 물음은 애매하지 않다. 물론 ‘어떤 것이냐’는 물음을 함축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으로서의 우시아

체 논의를 한 가운데서 끌고 가는 물음(아포리아)라는 것이 선명해진다.

4-2-2-1)정의

‘무엇이냐’ 물음이 ‘어떤 것이냐’ 물음과 우시아와 관련하여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5 장에서도 확인된다¹²⁶⁾. 왜냐하면 ‘어떤 것’(τι)은 정의될 수 없는 반면 ‘무엇’(τι)만이 정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ἦν εἶναι, 본질)만이 순수하게 정의된다. 그래서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ἐστίν)은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에 속하지 않는 한 정의 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우시아**라고, 그리고 후자를 우시아 이외의 질 량 관계 등 등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들 모두는 ‘어떤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시아가 어떤 것이냐’는 물음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우시아는 무엇이냐’는 우시아를 자신의 대상으로하여 그 정의를 찾아 가는 물음이라는 것이 뚜렷 해 진다. 그러나 **정의안**에는 정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는 말 뿐(λογίως, 논리적)이라는 것(45쪽)에 유념 해야 한다. 바로 이런 말 ‘뿐’인 차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에 관해 말한다(49, 123쪽).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엇이냐’의 물음은 형이상학 다른 편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5쪽 참조).

126) 이 구분은 10 장에서도 확인된다. 무엇(τί, 1039a19)은 어떤 것(τι, 1036a19)보다 더 늦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의 ‘τι’는 감각 개별자가 아니라 정의(로고스)의 부분인 것으로서의 에이도스이기는 해도 말이다.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 (김익성)

“15) 그리고 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은 각 각 자체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처음으로 그것에 관해 논리적(λογικώς, 1029b13)으로 말한다. ... 말해질 때, 그것 자체는 로고스(말)에 없는 그러한 것이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각기 것의 본질)이다 ... 27)그것들의 로고스가 정의인 것이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이다 ... 26)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부호(σημείον, 1012a24)로서의 로고스가 정의로 된다(1029b19-b21 ... 1030a7-8 ... 1012a23-a24) ”

그것의 부분을 이루는 음절 안에는 공기에 떠도는 철자나 밀납에 찍힌 철자가 있지(ἐνέσται, 1035a15)않듯이 그렇게 자신 안에는 들어 있지 않는(μὴ ἐνέσται, 1029b19-20)우시아를 말 할 뿐인 정의(49쪽)들을 아르케들로 삼는 논증은 그 정의가 속 해 있는 개별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비록 논리적인 진행에 상응하는 프라그마(사태)의 연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논리’ 그 자체는 단지 ‘말 뿐’인 수준에서 진행 된다. 바로 이러한 논증적인 추리 외부에서, 논증의 아르케들로서의 정의들에 관해 말하는 방식의 부사적 표현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기코스(λογικώς)라는 낱 말을 선택한다. 따라서 제타 편 여기 논의는 학문적인 논증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분명 해 진다.

그러나 말 뿐이라고 해서 정의가 허구(虛構)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 정의인 로고스가 필연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어떤 것 곧 각기 감각적인 개별 사물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은 ‘흰 사람’의 ‘흰’과 같은 우연적인 존재 보다 더 뚜렷한 필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우시아)의 정의만 가능하고, 흰 사람의 정의는 불 가능할 까? 이미 말해진 것처럼, ‘흰 사람’의 ‘흰’은 비록 순수하게는 아니더라도 정

의 가능하다. 우시아 이외의 범주들도 우시아에 따라 자체적인 것이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사람’에 ‘힘’이 합해진 것으로서의, ‘흰 사람’의 경우에는 정의가 가능한가?

첫째, ‘흰 사람’이 입고 있는 ‘외투’를 가리키는(σημαίνουσι, 1029a34)식으로 안 된다. 이 경우 사람이 힘에도 불구하고 외투를 가리키면 힘은 외투의 힘일 것이므로, ‘흰 사람’을 정의하면서 외투를 ‘흰’으로 말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정의가 이렇게 엇 갈려서는¹²⁷⁾안 된다. 둘째, ‘힘’을 정의하는데 ‘흰

127) 엇 갈리게 다른 것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로스는 ‘빠트리느 식으로’로 번역한다(... is omitted in the definition, 167쪽). 그는 정의 과정에서 정의 대상(힘)을 빠트리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그런 번역어를 선택했을 것이다.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리킨다’(signify)로 옮겨져야 한다. 하나의 부호(기호, 세마이온)로서의 로고스는 우연적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므로(세마이노이, 123쪽 인용 글월 26번), 정의로서의 로고스 역시 반드시 ‘무엇’을 지시 할 것인데, 빠트리면 어떤 것도 지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의미’라는 현대철학 용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로고스에 의한 ‘사태’의 지시 맥락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가지로 말해지다’(πολλαχῶς λέγεται)를 ‘여러 의미를 지닌다’로 번역 할 경우, 여기 ‘여러 가지’는 정의로서의 존재의 로고스(말)의 ‘여러 의미’가 아니라, 우시아에 의존(πρὸς)하는 존재들을 우연히 지시한다는 뜻에서 존재라는 말(로고스)의 ‘여러 의미’들이어야 할 것이다.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 (김익성)

사람'이라고 말하는 식이어서도 안 된다. 여기서의 정의 대상에 다른 것이 더 해지기(προσθέσως, 1029b30)때문이다. 정의하는 데 다른 것이 덧붙혀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처럼 '힘'을 정의하는데 '힘'을 다른 것 '사람'에 덧붙혀 '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처럼 어떤 것(힘에 있음)을 정의하는데 그 어떤 것 대신에 다른 것(외투에 있음)을 말하는 것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셋째, '코'와 '폭 꺼짐'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주어짐에 의해서 연결된 '들창¹²⁸'처럼 정의하려고 해도 안 된다. 코가 반복(πρόσσειν, 1029b19)되기 때문이다. '들창'을 '폭거진 코'로 정의 한다면, 그 정의는 '들창 (코)는 폭거진 코이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들창 코

그러나 후자 역시 범주(57쪽 각주 51번)들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심지어 범주들을 포함 필연과 현실(활동)과 '진실' 등의 여러 가지 존재는 '말'의 의미들 보다는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양상(樣相, 相)이기 때문이다(151쪽). 다시 말해 이것은 어떤 지시 차원이 아니다.

128) '들창' 안의 '폭꺼짐과 코'와 같은 연결은 '힘 사람'의 '힘'과 '사람'의 그것은 아니다. '힘'은 '사람' 또는 칼리아스에게 우연히 속해 있지만, '폭 꺼짐'은 '코'에 그 자체로 속해 있기-'폭꺼짐'은 '코'의 그 자체 속성이다- 때문이다. '수컷 생물'의 '수컷'과 '생물' 그리고 '홀 수'의 '홀'과 '수' 등도 '폭 꺼짐'과 '코'와 같은 연결들이다. '코'와 '폭 꺼짐'의 이런 식의 연결이 '들창' (코)이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

불가능한 정의들

과 ‘폭 꺼진 코’(συμὲ ρίς καὶ κοίλη ρίς, 1030b29)가 동일하다면 ‘들창’과 ‘폭 꺼짐’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들창’과 ‘폭 꺼짐’은 동일하지 않다. ‘들창’은 ‘폭 꺼진 코’이기 때문이다¹²⁹). 그러나 ‘들창’과 ‘폭꺼짐’이 동일하지 않다면 자신이 그것의 자체 속성인 그 프라그마(폭 꺼짐) 없이 ‘들창 (코)는 폭꺼진 코’라고 말하는 것일 텐데 이것은 불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들창은 폭꺼진 코이다’이라는 정의에는 ‘코 코 폭 꺼짐’이라는 식으로 동일한 것이 두 번 말하여질 것이다. ‘들창’은 ‘폭 꺼진 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것을 두 번 오히려 무한히 말하는 식의 이러한 반복은 정의하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정의 할 때, 동일한 것을 반복하거나, 다른 것을 덧 붙이거나, 엇 갈린 대상을 지시해서도 안 된다면¹³⁰), 그리고 정의는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의 로고스라면, 로고스의 부분은 어떤 것이며 그 부분이 전체에 대해 맺는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정의의 부분은 어떤 것이며, 무엇 때문에 정의 전체는 하나일까? 먼저 로고스의 부분부터 살펴 보자.

129) ‘들창’은 ‘코’와 ‘폭 꺼짐’ 이 둘 중 어느 하나 만으로는 결코 생겨 날 수 없는 자연적인 몸의 부분이다.

130) 그렇다면 반복해서 덧 붙여지거나 엇갈려 지시되는 그러한 것을 허용하는 모든 대상은 정의가 아예 불 가능 할 것이다(감각적인 개별자들에 관한 것 등 등의 정의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50쪽 참조 할 것) 50쪽에서는 어떤 대상들이 정의 불 가능한 이유가 직접 언급되는 반면 여기에서는 정의 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결부되어 정의 불 가능한 대상이 말해진다.

4-2-2-2-1)부분과 전체

우시아(실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먼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생성되는 어떤 것에 자신과 같은 것을 질료에다 낳아 주는 에이도스이다. 바로 이것의 로고스만이 순수한 정의이다. 각 각에 있어 오는 그 무엇과 그 각 각이 동일한 것은 오직 에이도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로고스 일반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일까?

어떤 부분은 전체에 속하나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 예를들어 원의 부분인 호(弧)와 음절의 부분인 철자의 경우, 원의 로고스는 호의 로고스를 지니지 않으나 음절의 로고스는 철자의 로고스를 지니므로, 호의 로고스는 원의 로고스에 속하지 않으나 철자의 로고스는 음절의 로고스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이 호로 나뉘어지는 것과 똑 같이 음절도 철자로 나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전체에 속함에 있어 왜 그렇게 다른가?

철자들¹³¹⁾은 질료적이지 않는 반면에 호들은 질료가 섞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자들의 로고스는 음절들의 로고스에 속하지만 호들의 로고스는 원들의 로고스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 편으로 질료가 섞인 것의 로고스가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 질료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의 로고스

131) 정의의 '요소'는 들리는 소리나 종이에 쓰여진 '철자'가 아니다. 밀랍(종이) 또는 공기 안의(τὰ κήρυα ἢ τὰ ἐν τῷ ἄερι; 1035a14-16)철자가 음절의 로고스 안에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

가 있을 것이므로, 로고스의 부분에도 한편으로 질료인 것(호)과 한편으로 질료 아닌 것(철자)이 있을 것이며, 그러기에 질료(살과 청동) 역시 어떤 것의 부분인 것이며 그리고 에이도스(모습)도 어떤 것의 부분인 것이다. 자신들이 합쳐진 것[들창(코). 청동으로 된 공, 칼리아스, 원], 곧 '실체'(οὐσία, 1035a2)안에 질료와 에이도스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라지는 '실체'인 합쳐진 것의 로고스의 부분은 전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질료 없는(ἀνευ, 1035a28)것(에이도스)의 로고스에는 그 부분의 로고스가 속한다.

나아가서, 질료의 부분은 전체 보다 나중이며 에이도스의 부분은 먼저인 반면, 합쳐진 것의 부분은 어떤 때는 먼저이나 어떤 때는 나중이며 어떤 때는 동시적이다. 예각, 반 원, 손가락 등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직각, 원, 몸 등에 호소 해야 하기 때문에 질료의 부분들은 나중이며, 영혼의 경우 각 부분의 감각적인 작용을 지시함 없이 각 부분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보다 정의에 있어 먼저이고¹³²⁾, 그리고 합쳐진 것의 부분은 전체와 분리된다면 부분들은 심지어 있을 수 없으므로 나중이거나 또는 죽은

132) 직각, 원, 예각, 반 원 등은 이에 따르면 기하학적인 질료(부분)인 반면 영혼은 몸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 으로서의 몸의 실체(우시아)이다. 따라서 정의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 뿐이므로, 여기 보기들 가운데 영혼 만이 순수한 정의로서의 로고스(의 부분)이 될 수 있다.

생물의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고 단지 호모뉘모스한 것으로서 만 손가락이므로 먼저이거나 또는 열과 두뇌처럼 어느 것도 먼저나 나중에이지 않고 동시적이기 때문이다.

이것들 중, 에이도스의 부분 만이 정의의 부분이다. 그렇다면 에이도스의 부분들은 **어떠한**(ποιῶν, 1036c26)것인가?

이 경우 에이도스의 부분은 질료의 부분과 그리고 합쳐진 것의 부분과 관련지어져 말해져야 할 것이다. 질료(청동)와 분리된 것이 에이도스(모습)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분리되지 않는다면, 질료는 에이도스와 같을(ὁμοίως ἔχειν, 1036a35)것이고, 그래서 청동은 모습의 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질료는 에이도스와 분리¹³³⁾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πότε, 1036b8)분리되는가?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애매(ἄδηλον, 1036b8, 曖昧)해 할 뿐이다.

4-2-2-2-2)하나!

어쩌든 애매하지만 질료와 분리된다면, 그러면서 부분 보다 전체가 늦다면, 정의의 부분과 전체는 어떻게 하나(ἓν)¹³⁴⁾일 수 있는가.

133) 그러나 분리 한 뒤, 피타고라스 학자들과 이데아 론 자들처럼 생각 끝에 질료(청동)를 제거(ἀφωλεῖν, 1036b3)해 버려서는 안 된다.

134) 정의의 단일성(unity) 뿐만이 아니라 순수한 정의 개 수의 하나를 말한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

정의 하나

정의는 에이도스의 정의이고 에이도스의 부분은 질료(적인 것)가 아니라 하는 것이 주로 말해지는 11 장에 이어 12 장은 '정의인 로고스가 무엇을 통해서 언제 하나(διὰ τί ποτε ἔν, 1037b11)인가' 라는 아포리아³⁵⁾와 더불어 열려진다.

사람의 정의가 '두 발 생물'이라면, 그 정의는 무엇 때문에 하나인가? '두 발'과 '생물'은 여럿일 것 같기 때문이다. '사람'과 '힘'을 보자. 다른 하나가 다른 하나에 속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여럿인 반면, 속한다면 그래서 기체(사람)가 힘이라는 속성을 우연히 지닌다면, '흰 사람'은 통일성(ἔν)을 유지 할 것이다. 그러나 '두 발'과 '생물'의 경우에는 다른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나누어 지니지(οὐ μετεχει, 1037b18)않는다. 류(생물)가 차이들을 나누어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나누어 지닌다면, 동일한 것(류)이 동시에 반대들을 나누어 지닐 것이므로 그렇다. 류를 차이하게 하는 것들은 그러한 반대들이기 때문이다. 설령, 나누어 지닌다고 해도 여럿일 것이다. '발', '두(둘)', '날개 없음' 같은 차이들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발 생물'은 우연적인 하나인 '흰 사람'과 같은 하나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여럿이 아니라 하나인가? 그것은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ἐξ ἀπέρτων, 1037b24)하나이기 때문이다³⁶⁾. 정의의 대

135) 차이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동일한 것들을 잘 파악하여 동일한 것(로고스) 하나(ἔν, 베타(13), 97b17)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론 베타 편과 동일한(ταύτην, 형이상학, Z(12), 1037b17)맥락에 이어지는 아포리아이다.

136)본디 하나는 전체로(ὅλη, Δ(6), 1016b17)있다.

상인 우시아가 바로 ‘하나인 것’이며 ‘이 것’(ἐν τῷ καὶ τὸδε τῷ, 1037b27)이기 때문이다. 우시아가 하나이므로, 우시아의 정의 역시 하나 라는 것이다. 정의의 부분들은 이렇게 전체와 하나이다.

4-2-2-2-3)우시아

정의(두 발 생물) 안에는 첫 번째로 말해지는 류(생물)(14쪽 각주 16)와 차이(두 발)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첫 번째 류 이외의 다른 류는 ‘첫 번째 류와 더불어(μετὰ τούτου, 1037b31)취하여진 차이’일 것이다. 예를들어 첫 번째 류가 ‘생물’이라면, 다른 류는 ‘두 발 생물’일 것이고, 그 다음 류는 ‘날개 없는 두 발 생물’일 것이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차이들이 다.

정의를 위해서는 이런 차이에서 차이로 필연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 그러나 나눌 때는 올바르게(κατὰ τὸ ὀρθόν, 1038a30) 매끈하며(καλῶς, 1038a13) 고유하도록(τῇ οἰκείᾳ, 1038a24)나누어야지, ‘발’에서 ‘날개’와 ‘날개 없음’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차이)에서 발의 차이들인 ‘갈라짐’ 과 ‘안 갈라짐’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 경우, ‘갈라진 발’은 ‘어떤 발’ (ποδοτῆς, τῆς, 1038a15)이다. 그리고 끝까지 더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나누어야 한다(53쪽). 그러다 보면 차이들의 개수 만큼 구분되는 종(에이도스)들과 그 안의 동일한 류들을 발견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다다른 끝 차이-바로 이 차이가 에이도스이다-가 바로 프라그마의 우시아이며, 그리고 그 차이로 이루어진 로고스가 정의이다. 따라서 우시아의 정의는 맨 끝 차이로 이루어진 로고스이다(53쪽).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

지금까지 언급된 정의에 관한 정의와 로고스들은 아래처럼 모아 볼 수 있다.

정의에 대한 정의와 로고스들

로고스₁: 정의는 어떤 로고스이다.

로고스₁₋₁: 정의라면, 로고스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기호이다.

로고스₁₋₂: 정의라면, 로고스의 부분(절자)안에는 어떤 질료도 있지않다(1035a14-16).

로고스₂: 정의 안에는 어떤 존재(τὸ ὄν, H(6), 1045b3)도 있지않다.

로고스₂₋₁: 정의의 대상은 정의 안에 있지 않다.

로고스₂₋₂: 정의의 대상은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다.

로고스₂₋₃: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 정의 안에 있지 않다.

로고스₂₋₂₋₁: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 에이도스이다. 그래서,

로고스₂₋₂₋₂: 에이도스는 정의 안에 있지 않다.

로고스₂₋₃: 정의의 대상은 에이도스이다. 그래서,

로고스₃: 정의는 에이도스의 로고스이다.

로고스₃₋₁: 에이도스는 우시아이다. 따라서,

정의₄: 정의는 우시아의 로고스이다.

우시아에 대한 정의와 로고스들

로고스₅: 정의 안에는 류와 차이들 만이 있다.

로고스₅₋₁: 정의 안에는 차이들 만큼의 에이도스들이 있다.

로고스₅₋₁₋₁: 차이들은 에이도스들이다.

로고스₅₋₂: 에이도스는 우시아이다. 그리고,

로고스₅₋₃: 프라그마의 우시아는 맨 끝 차이이다. 따라서,

정의₆: 우시아의 정의는 맨 끝 차이와 첫 번째 류이다-사람의 정의는 두발 생물이다.

우시아에 관한 로고스들

범주론

로고스₆:우시아는 기체 안의(ἐν ὑποκειμένῳ, 범(5), 2a13)것이라고도, 기체에 따른(καθ' ὑποκειμένου, a13)것이라고도 말해지지 않는 것이다.

로고스₇::우시아가 있지 않다면, 어떤 다른 것도 있을 수 없다(ἀδύνατον εἶναι, 범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 (김익성)

우시아에 대한 로고스(말)들

(5), 2b6)(146쪽).

로고스₉:우시아는 다른 모든 것들의 기체가 된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시아의 카테에고리아이거나, 우시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우시아들이 첫 번째 것들(αἱ πρῶτα οὐσίαι, 범(5), 2b7)이다. 그러기에 종과 류인 두 번째 우시아 역시 첫 번째 우시아에 속한다. 사람과 생물은 사람인 것의(τοῦ τινός ἀνθρώπου, 범(5), 2a36-38)카테에고리아가 되기 때문이다.

로고스₉:_리우시아는 다른 우시아 보다 더(μᾶλλον, 범(5), 2b7) 우시아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좋은 류 보다 더 우시아이다. 예를들어 사람은 생물의 기체이므로, 생물은 사람의 카테에고리아가 되지만 사람의 기체가 생물은 아니므로, 사람은 생물의 카테에고리아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류 보다는 종이 더 인식되고 첫 번째 우시아에 더 가깝기(ἐγγιον, 범(5), 2b8)때문이다. 사람이 생물 보다 사람인 것에 더 고유한(ἰδίον, 2b12)반면 생물은 훨씬 더 공통적(κοιούερον, 2b13)이므로 그렇다. 그러나 종 에이도스 각각과 계노스(류) 각 각은 서로 보다 더 또는 덜 실체가 아니다.

로고스₁₀:우시아는 더 많고 적음(τὸ μᾶλλον καὶ τὸ ἥττον, 범(5), 3b33-34)을 허용하지 않는다.

로고스₁₁:우시아는 모두 이 것(τόδε τί, 범(5), 3b10)을 가리킨다. 그러나 두 번째 우시아는 이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첫 번째 우시아의 질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를들어 힘과 같은 자연적인 질은 아니다.

로고스₁₂:우시아의 반대(ἐναντίον, 범(5), 3b15)는 있지않다. 그러나 반대들을 받아 들일 수 있다(δεκτικόν, 범(5), 4a13). 로고스와 의견(의견)도 반대들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받아 들이는 길에 있어서 우시아와 차이난다. 우시아는 자신에 붙어 있는 질이 변함에 의해서 그 반대들을 받아들이나, 로고스와 의견은 자신에 붙어 있는 것의 변화에 의해서 반대를 받아 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프라그마의 속성에 의해서 반대를 받아 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고스와 의견 자체에서는 전혀 겪어짐 또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반대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를 받아 들일수 있다는 것은 오직 실체에서만 고유한 것이다(1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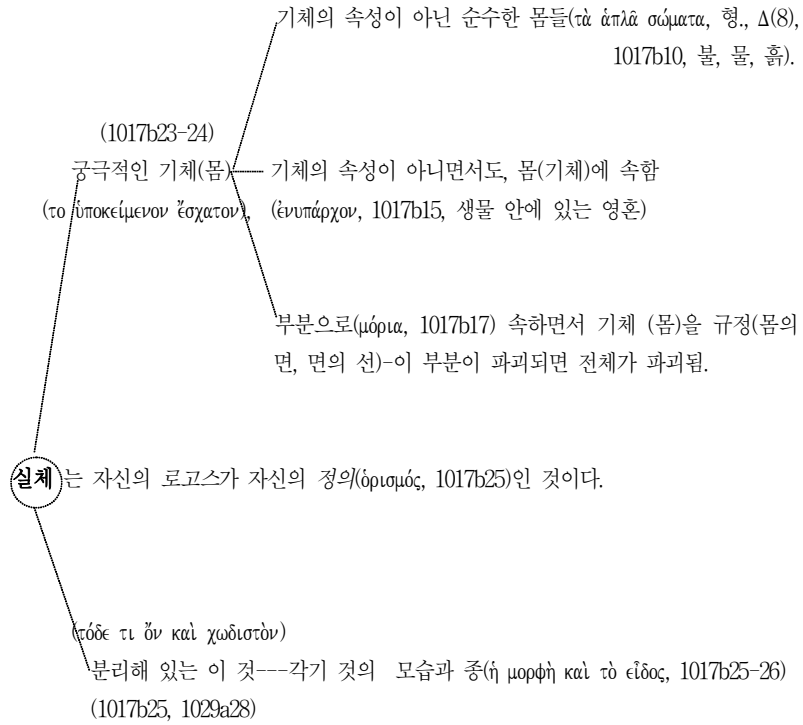
이상은 범주론 5 장에서 말해진 우시아들이다. 이제 형이상학에서 말하여지는 우시아를 정리해 보자. 먼저 델타 편 8 장(1017b10-b26)에서 말해지는 우시아는 아래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는 궁극적인 기체와 그리고 '분리'해 있는 '이 것' 등 두 가지 길(κατὰ δύο τόπους, 형., Δ(8), 1017b 23)우시아가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 곳 형이상학 델타 편 5 장과 거기 범주론 5 장에서 말하여지는 우시아는 크게 다를 바 없다. 비록 종이 제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

우시아에 대한 로고스(말)들

2 우시아라고 말하여지지는 않지만, 델타 편에서도 좋은 우시아이며, 우시아는 이 것이라고 말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주론에서는 ‘제 2 우시아’는 ‘우시아’ 라는 그 이름에 따라(τῆς προσηγορίας, 범., 3b14)이 것을 가리킬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해지는 반면에 여기 델타 편에서는 에이도스가 ‘이 것’이라고 말해진다는 점에서는 다른 것처럼 보인다.

형이상학 델타 편 8 장



(우시아가 말해지는 두 가지 길)

형이상학 제타 편

로고스₁₃:우시아는 첫 번째로 있는(τὸ πρῶτως ὄν, 형., Z(1), 1028a30)것이다. ‘첫 번째’(τὸ πρῶτον, a32)는, 1)로고스에 있어, 또는 2)인식에 있어(γνώσει, a33), 또는 3)시간에 있어, 여러 가지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우시아만이 이 모든 것에 있어

실체으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 (김익성)

우시아에 대한 로고스(말)들

그 전체적으로 첫 번째 것이다. 1) 여러 범주들 가운데 우시아만이 분리해 있으며, 그리고 각기 것의 로고스에는 반드시 우시아가 주어져야 하므로, 로고스에 있어서도 우시아는 첫 번째 것이고, 그리고 2) 각기 것의 무엇(τί, 1028a36)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의 질 또는 량 또는 장소(πού, 1028b1) 등의 범주들을 인식하는 것 보다 그것을 가장 많이 알기(εἰδέναι.....μάλιστα, a36)알기 때문이다(144쪽). 3) 시간적으로는 먼저와 나중이다.

로고스₁₄: 우시아는 순수하게 있는(τὸ ἀπλῶς ὄν, 형., Z(1), 1028a31) 것이다. ‘순수’는 어떠한 그 상태가 동일함(ἀπλοῦν πῶς ἔχον αὐτό, 형., Λ(7), 1072a34)을 가리킨다.

로고스₁₅: 우시아는 어떤 점에서는 기체이나, 기체가 곧 우시아는 아니다. 질료도 그 질료와 모르페에로 이루어진 것도 우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것들이 자신의 카테에고리아(속성)이긴 해도, 자신은 다른 것들의 속성이 아니므로, 기체(τὸ ὑποκείμενον, 형., Z(3), 1029a1), 곧 질료(ἡ ὕλη, a2, 예를들어 청동), 또는 겉 모양(ἡ μορφή, a3, τὸ σχῆμα τῆς ἰδέας, a4-5), 또는 그 질료와 모르페에가 합쳐진 것(τὸ ἐκ τούτων, a3, 예를들어 청동상(靑銅像))이 실체일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만약 기체가 우시아라면 질료 역시 실체일 것이다. 그러나 질료¹³⁷⁾는 ‘분리’된 ‘이 것’이 아니므로 우시아가 아니다. 우시아에는 ‘분리 가능’과 ‘이것’(τὸ χωριστὸν καὶ τὸ τόδε τι, 형., Z(3), 1029a28)이 가장 많이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이도스가, 그리고 에이도스와 질료 이 양자로 이루어진 것이, 질료 보다 더 우시아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양자로 이루어진 것 역시 우시아가 아니다.

더 늦은(ὕστερα¹³⁸⁾, a31) 것이기 때문이다.

로고스₁₆: 우시아에는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ἦν εἶναι ἐκάστῳ, 형., Z(3), 1029b20, 형., Z(4), 1030a29, 본질)’이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속한다.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은 에이도스이며, 이 에이도스가 첫 번째 우시아(πρώτην οὐσίαν, 형., Z(7), 1032b2)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더 늦기** 때문에 첫 번째 우시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 ‘합쳐진 것(각기 것, 개별자)’을 ‘첫 번째 우시아들(αἱ πρώται οὐσίαι, 범(5), 2b15)’이라고 말하는 범주들의 규정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렇지 않다. 1) 정의를 통한 인식에 있어서는 ‘합쳐진 그것’이 에이도스 보다 늦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이 아니다. 그러나 2) 바로 ‘이 것’은 감각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더 ‘먼저’인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이다. 그래서 범주론에서 말해진 것과 형이상학 제1타 편에서 말해진 것은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3) ‘인식’에 있어서의 먼저와 나중이 ‘우시아’에 있어서의 먼저와 나중은 아니므로, 그것들이

137) 질료는 무엇과 량 등의 범주가 아니다. 규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138) ‘정의를 통한 인식에 있어 더 늦은’을 뜻한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 환원: 존재와 우시아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에 관한 로고스

‘우시아에 있어서는 모두 ‘첫 번째 것’이라는 데에는 그러한 인식의 선후(先後)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50쪽 각주 51번).
로고스₁₇:우시아에는 ‘순서(τάξις, 형., Z(13), 1038a33)’가 있지 않으므로 그렇다. 따라서,
로고스₁₈:에이도스(εἶδος, 형., Z(7), 1032b1)가 첫 번째 우시아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시아는 ‘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므로, 이제 바로 이 ‘무엇’에 관한 로고스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에 관한 로고스

- 로고스₁₉:그 무엇은 각기 것 그 자체(ἐκαστον.....καθ’ αὐτό, 형., Z(4), 1029b20-21)고 말하여진다.
- 로고스₂₀:그 무엇이 말하여지는 로고스 안에는 그 무엇이 있지 않다(μὴ εἶναι, b1 9-20).
- 로고스₂₁:그 무엇의 로고스가 정의(ὀρισμός, 형., Z(4), 1030a7)이다.
- 로고스₂₂:그 무엇은 류의 종들에게(τῶν γένους, 형., Z(4), a12)만 고유하게 속한다.
- 로고스₂₃:그 무엇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로(πλεοναχῶς, a18)말하여진다. 우시아와 이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량과 질과 같은 카테에고리아들 각 각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리고 순수하게 우시아에 속하며, 그 다음에 알려진 카테에고리아에 속한다.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ἔστιν, a31)은 순수하게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질 또는 량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이다.
- 로고스₂₄:각기 것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본질)과 각기 것은 자체적인 것(καθ’ αὐτὸ, 형., Z(4), a28)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우연적인 것(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a19)의 경우에는 다르다.
- 로고스₂₅:그 무엇은 생산 자의 영혼 안에 있는 생산(ποιήσεις, 형., Z(7), 1032a27) 또는 생성(γένσεις, 형., Z(7), a27)의 에이도스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생성의 경우, 이 에이도스는 자연(φύσις, 1032a24)이라고도 말하여진다.
- 로고스₂₆:그 무엇은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생성되는 것 안에서 자기와 똑 같은 것을 낳을(γεννᾷ, 형., 1032a25)뿐이기 때문이다.
- 로고스₂₇:그 무엇은 질료 없는 우시아(οὐσίαν ἄνευ ὕλης, 1032b14)라고 말하여진다.
- 로고스₂₈:그 무엇은 질료를 지니지 않는다. 현실(ἐντελέχεια, 형., Λ(8), 1074a36)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고 있는 첫 번째 것(τὸ πρῶτον κινῶν ἀκίνητον¹³⁹) ὄν, 1074a37)이며, 그 로고스와 수에 있어 하나이

139)‘τὸ ὄν’에 관한 소피스테스 편(73쪽)의 플라톤의 ‘정의₁’, ‘ὅσα ἀκίνητα

존재

다. 그리고 이러한 첫 번째 것들이 바로 **신들**(θεοὺς, 1074b9)이다.

4-2-2-4)존재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정의에 다다르기 위해 나누는 방법을 사용한다(20-22쪽).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나눔의 방법을 ‘약한 증명(53쪽)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자신의 논증적인 추리를 발전시키지만 말이다. 그리고 ‘무엇이냐’는 물음을 통해 **(비)존재**의 정의를 찾아가는 플라톤(소피스트 편)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통해 우시아(**실체**)의 정의를 찾아 나선다(형이상학 제타 편). 존재 물음을 실체 물음으로 환원시킨 것이다(12쪽). 왜 이러한 환원을 시도 했는가? 중·류가 아니므로 ‘존재’는 더 이상 정의 대상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4-2-2-2-4-1)존재는 류가 아니다(정의 불가능)

베타 편 3장(998a20-999a23)의 여섯 번째(995b27-b29, 998a20-b14)와 일곱 번째 아포리아(995b29-b31, 998a14-999a23)에 대한 논구(論究) 도중에 (116쪽), 존재는 류가 아니라는 것을 이끌어 낸다[다음 쪽들의 ‘1’)과 ‘2)'].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분명한 소리들의 아르케는 그것들에 공통(τὸ κοινόν, 998a25)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첫 구성(σύγκεινται, 998a24)요소라

καὶ κεινημένα, τὸ ὄν τε καὶ τὸ πᾶν συναμφοτέρα λέγειν(소., 249d3)’와 그리고 정의₂, ‘τὸ ὄν οὔτε ἔστηκεν οὔτε κινεῖται(소., 250c6-7)’를 잘 살펴 보면, ‘τὸ πρῶτον κινῶν ἀκινήτου ὄν’ 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낯설지 않으리라.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존재

존재는 류가 아니다

는 것, 논증들 안에 속해 있는 기하학적 명제들은 논증의 아르케에라는 것, 그리고 불과 물처럼 몸을 이루는 부분들 역시 아르케라는 것은, 류는 모든 것의 아르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있는 것들의 아르케들은 있는 것들의 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111, 159쪽).

물론 류들은 정의 대상들의 아르케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기 것을 인식하는 정의들(τῶν ὀρισμῶν, 998b5)의 아르케가 류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류는 종들의 아르케이다. 있는 것들이 그것에 따라 말해지는 종(에이도스)들에 관한 앎은 있는 것들에 관한 앎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는 것¹⁴⁰⁾이 있는 것들의 류는 아니다. 왜냐하면 1) 어떤 사람들은 요소로 여겨, 있는 것을 있는 것들의 류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나, 류와 요소 또는 아르케를 있는 것들에 각기 양자적으로(ἀμφοτέρως, 998b11) 관련된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42쪽). 우시아의 로고스는 하나일 뿐 아니라 류를 통해 정의하는 것과 요소들에 관해 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며, 이미 보여진 것처럼 류는 요소와 아르케가 아니므로 그렇다.

나아가서, 보편자(류)들이 보다 더 아르케들이라면 분명히 최상위 류들이 최상의(μάλιστα, 998b14)아르케들일 것이다. 이 경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류가 그 아르케인가 아니면 첫 번째 류가 그 아르케인가?’ 라는 물음

140) 존재어로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본문의 ‘τὸ ὄν καὶ ἔν’(98b10, 있는 것과 하나)를 ‘τὸ ὄν’(있는 것)으로 환원(還元)시켰다.

존재는 류가 아니다

(아포리아)이 성립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첫 번째 류가 그 아르케라면 그리고 있는 것이 류라면 첫 번째 류들 만큼 있는 것들의 아르케들이 있을 것이고(135쪽) 그래서 있는 것¹³⁹⁾들이 아르케와 우시아(998b21)로 될 것이다. 그러나 있는 것이 있는 것들의 류가 되는 것은 불 가능하다. 왜냐하면 2)있는 것이 만약 류라면, 류의 차이들(διαφορές, 998b23)각 각이 반드시 있음이어야만 할 것인데, 류의 종이 그 고유한 차이들을 속성으로 지니는 것은 종 없는 류가 되지 않고서는 이 경우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142쪽). 있는 것이 류라면 그것이 자신의 종적인 차이는 있지 않는 것을 지녀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 그래서 보편자(류)는 아르케가 아니다.

다음으로 류가 아니라는 말은 있는 것은 정의의 아르케애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을 통해(διὰ τῶν ὁρισμῶν, 형., B(3), 998b5, 논자3, 119)각기 것의 본질이 인식되는 정의의 출발점이 바로 류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류가 아니라는 말은 있는 것은 종(τῶν εἰδῶν, 8b)의 아르케애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에 따라 있는 것이 말해지는 바로 종의 그 아르케애가 류인데 있는 것은 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는 것은 정의의 아르케애도 앎의 아르케애도 아니다. 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것은 류가 아니고 류는 아르케가 아니므로, 있는 것은 아르케가 아니라면, 그리고 아르케가 우시아라면, 있는 것은 우시아가 아닐 것이다. 아니라는 이 로고스는 분석론 후서 베타 편 7 장에 직접 나온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존재

존재는 류가 아니다

“27)다음으로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 각 각 모두도 논증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증명되어야한다고 우리는 말한다. (있는 그것이) 우시아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ㄹ)있음은 어떤 측면에서도 우시아가 아니다. ㄱ)있는 것은 류가 아니기 때문이다(92b12-b14)”.

전제, ‘ㄱ)’으로부터 결론, ‘ㄹ)’은 다음처럼 연역될 수 있다.

- ㄱ)있는 것은 류가 아니다.(앞 141쪽 ‘1’)과 앞 142쪽 ‘2’)로부터
- ㄴ)류는 아르케가 아니다. (앞 141쪽 ‘1’)과 앞 142쪽 ‘2’)로부터 그래서,
- ㄷ)있는 것은 아르케가 아니다.

- ㄷ)있는 것은 아르케가 아니다.
- ㄴ)아르케는 우시아이다.
- ㄹ)있는 것은 우시아가 아니다(147, 155쪽).

우시아(실체)가 아니라면 그래서 논증적인 추리에 의해서 알려질 수 없다면, 존재는 어떤 방법에 따라 말해져야 하는 것인가? “(존재)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관한 이전의 탐구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논증적인 추리(삼단논법)로 대치(代置)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존재를 이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 밖으로 밀어 낸 것처럼 보인다. 발견된 어떤 것의 사실과 사실의 이유와 그리고 어떤 그것의 존재와 그것의 본질(무엇임)을 한꺼번에 증명(59쪽)하는 논증적인 추리에서는 단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사실)만을 존재하는 어떤 것의 본질(정의)과 더불어 연역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논증에서 전제되는 정의 대상들인 우시아도 순수한 에이도스가 아니라 질료를 지니는 개별자 안에서만 질료와 구분되는 우시아일 뿐이다. 그래서 감각적인 개별자와 분리된 순수한 에이도스도 논증 이외의 영역으로 나간다. 게다가 전제(정의)들 자체에 관한 논박에 논증은 간여하지 않는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존재 (김익성)

πρὸς ἓν(하나에 대함)

다. 따라서 이것 역시 논증 외부 영역으로 밀려 난다.

그렇다면 존재 자체에 관한 앎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나 존재의 실체
에로의 환원으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에 관한 앎과 그 방법은 실체에 관한
그것들에 의존하여 다루어질 수 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πρὸς ἓν’이다.

4-2-2-2-4-2)πρὸς ἓν

물론 여기 ‘ἓν’(하나)는 ‘우시아’요 ‘πρὸς’(대함)는 ‘관계’와 ‘의존’이다. 첫
번째 있는 것(형., Z(1), 1028a30, 140쪽)이 우시아이므로, 있는 다른 것들은
이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시아가 없다면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범.(5), 2b6, 138쪽). 그렇다면 ‘하나’에 ‘의존’하면서 관
계 맺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바로 그것들이 여러 가지로 말해지고 있는
것들이다.

“28)하나와 어떤 자연 하나에 대하여(πρὸς ἓν, 1a33), 그리고 호모뉘모오
스하게(ὁμωνύμως, a34)가 아니라, 건강한 모든 것 각 각이 건강에 대하여 말하
여지는 것처럼,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해진다(형., Γ(2)1003a33-35)”

따라서, 있는 것은 호모오뉘마하게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런 것들이라면, 형이상학 겐과 편 3 장(1060b31-36)에서 말해지는 것처럼,
있는 것에 관한 앎은 불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건강한 것들
각 각이 그것에 대해 있는 건강(ὑγιεινόν, 1060b35)과 같은, 건강한 것들에
공통인, 어떤 것(τι κοινόν, b35)이 있지 않다면, 건강한 것에 관한 앎은 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모뉘오스(형., Z(4), 1030a34)하기만 하다면, 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존재

있는 것들은 호모뉴마도 쉬노오마도 아니다

시 말해, 이름은 같으나 그 뜻이 다르기만 하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만 말해지는 것들이어서, 자신들에 공통인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한다, 있는 것들은 **알려질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있는 것 자체에 관한 앎 역시 불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실체에 의존하는 이러한 앎이 있다고 상정한다. 따라서 있는 것은 호모오뉴마(equivocals,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하게 또는 다의어(多義語)적으로 말하여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쉬노오뉴마하게 말하여지는 것만도 아니다. 도구와 활동과 몸들이 동일한 것 하나-치료-에 대하여(πρὸς τὸ αὐτὸ καὶ ἓν, τὸ ἰατρικόν, 형., 1030a35-b1)치료적인 것이라고 말해질 때, 있는 것들은 동일한 것 하나-실체-와 ‘관계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해지지, 그 실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45쪽).

“29)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ἦν εἶναι, 1030a29)은 호모이오스하게(ὁμοίως, a29) 첫 번째로 그리고 순수하게 우시아에 속한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에 속한다.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ἐστίν, a31)이 순수하게 있어 오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질과 량에 있어 오고 있는 무엇인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호모뉴모스하게(ὁμωνύμως, a32)이것들은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해야 하든지 또는 알려질 수 없는 것과 알려질 수 있는 것에서처럼¹⁴¹)덧붙이거나 빼므로서 그것들은 있는 것들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러나 치료적인 것은 동일한 것 하나에 대해 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호모오뉴마하게도 동일하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옳바르기 때문이다(ἐπεὶ τὸ γὰρ ὀρθὸν ἐστὶ μῆτε ὁμωνύμως φάναι μῆτε ὠσαύτως¹⁴², ἀλλ’ ὥσπερ τὸ ἰατρικὸν τῷ πρὸς τὸ αὐτὸ μὲν καὶ ἓν, οὐ

141) ‘ὥσπερ καὶ τὸ μὴ ἐπιστητὸν ἐπιστητὸν’(1030a33-a34) ‘μὴ’가 ‘ἐπιστητὸν’ 앞에 붙여지거나 빼지거나 하듯이.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존재 (김익성)

있는 것들은 호모뉴마도 쉬노오마도 아니다

τὸ αὐτὸ δὲ καὶ ἓν, οὐ μέντοι οὐδὲ ὁμωνύμως). 하나에 따라(καθ' ἓν, b3)말하여지는 것도 아니요, 호모뉴마하게 말하여지는 것도 아니라, 몸과 활동(에르곤)과 도구는 하나에 대해(πρὸς ἓν, b3)치료적인 것이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1030a29-b3)”

따라서 ‘있는 것들’은 호모뉴마한 것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쉬노오뉴마한 것들 역시 아니다. 여기에 범주들 1 장의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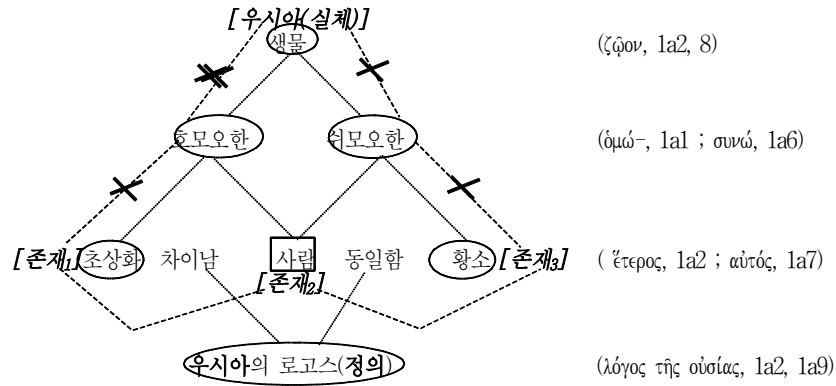
“30)공통의 이름을 지니는 이름들에 걸리는(κατὰ, 1a7)실체의 로고스가 동일한 것(ὁ αὐτὸς, a7)이 쉬노오뉴마(συνώνυμα, a6)라고 말해진다. 예를들어 사람과 황소인 생물처럼 말이다. 사람과 황소는 공통 이름 생물에 의해 불리워지며, 그 실체의 로고스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그 각각의 로고스를 제공한다면, 생물에 있는 것이 그것들 각각에 있는 무엇이다(그것들 각각에 있는 것은 생물이다)라는 동일한 로고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범., 1a6-12)”

쉬노오뉴마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나는 다음 쪽 도표를 그린다.

142) W. D. Ross[1924(1958), II, 813쪽]처럼, ‘συνώνυμα(in the same sence’로 나는 읽는다.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존재

있는 것들은 호모뉴마도 쉬노오마도 아니다



(호모오한 이름과 쉬노오한 이름과 존재의 이름_{1,2,3})

쉬모오한 것(다른 이름)의 보기로 사람과 황소가, 호모오뉴마한 것(같은 이름)의 보기로 초상화와 사람이 들어졌으므로, 사람은 이 예(例)들에 공통이다. 그래서 그 짝에 따라 사람은 호모오한 이름으로 되기도 하고, 쉬노오한 이름으로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쉬노오한 이름이 어떤 때는 호모오한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점에서 이 양자는 상대적이다. 만약 자신의 우시아의 정의가 다르면 호모오한, 즉 이름은 같지만 그 뜻(정의)가 다른 것들인 반면 동일하다면 쉬노오한, 즉 이름은 달라도(함께 해도) 그 뜻이 같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 어느 경우이든 자신의 짝과 더불어 그것은 반드시 공통의 이름을 지녀야만 한다. '초상화'와 사람과 황소가 모두 생물이라는 공통의 이름을 지닌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초상화'의 우시아에 관한 정의는 사람의 우시아와 황소의 우시아에 관한 정의와 다르다. 그래서 초상화와 사람은 호모오한 이름이다 그 우시아의 이름만 같다. 이름들의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위 도표는 그러나 존재들과 우시아 사이에는 단지 그러한 관계가 성립

실체으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존재 (김익성)

있는 것들은 호모뉘마도 쉬노오마도 아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것이 ~의 의미이다)도 보여 줄 것이다.

그렇다면 호모뉘마하게도 쉬노오뉘마하게도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있는 것들에 관해 말하는 길**(방법, 호도스)은 무엇인가? 유비적인 길인가? 만약 동일한 것 하나에 ‘대하여’(πρὸς τὸ αὐτὸ καὶ ἕν, 1030a35-b1)가 ‘유비적으로’를 뜻한다면, 있는 것들은 유비적으로 말해질 것이다(57쪽, 100쪽 각 주 93번). “31)때때로 그(유비) 대신에(ἀνθ’οὐ, 1574b19)사람들은 ‘대해 있음(πρὸς ὃ ἔστιν, b20)’을 [말 하므로서 그 유비를] 한정하기(προστίθεαισι, b19)(시학, 1574b19-b20)”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정된다고 하질 않는가? 그래서 한정된다면, 존재하는 것들이 우시아와 다른 존재들에게 맺는 ‘관계’가 반드시 ‘유비’(類比)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물론 모든 유비는 그러한 관계이기는 해도 말이다¹⁴³⁾. 그래서 유비적인 것이 아닌 관계를 존재들이 우시아와 맺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와 ‘유비’는 동일하지 않다.

어쩌든 이렇게 우시아 하나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해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원 안에 몽땅그려 넣으면 다른 쪽의 그림이 나온다.

143) 그렇다고 유비적인 관계를 맺는 항들이 꼭 4 개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6 개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있는 것들의 양상을 나타내는 ‘이름’들도 4개(범주들과 필연과 진짜와 현실)가 넘질 않는가? (다음쪽 존재 양상 그림 참조)

(김익성) 실체으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존재

필연과 우연, 진짜와 가짜, 현실과 가능, 그리고 이것과 그러한 것과 그 만큼한 것, 하나와 여럿 등 여섯 가지로 나뉠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분된 영역이 서로에 상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나는 점선을 썼다.

물론 이 여섯 가지가 텍스트 어느 한 군데에서 모두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¹⁴⁵⁾. 형이상학 Δ 편 7 장(1017a7)과 E 편 2 장(1026b2)에서는 범주, 필연과 우연, 진짜와 가짜, 현실과 가능 등 네 가지 만 함께 말하여지지, 이 것과 그러한 것 그리고 하나와 여럿은 말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것(τόδε τι)’와 ‘그러한 것(τοίοντε)’ 또는 ‘그 만큼한 것’을 있는 것들의 구분되는 양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것’에 속하는 또는 ‘그러한 것’에 속하는 것들로 있는 모든 것은 구분되기 때문이다. 있는 모든 것 각 각은 ‘이 것’이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첫 번째 것 우시아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εἶναι πρὸς ἓν)하고 있다. 인식과 앎과 시간과 존재에 있어 말이다. 바로 이러하기에 있는 것에 관해 말하려면 반드시 우시아를 말해야만 한다. 그래서 실체어로 존재를 환원 했으리라. 형이상학 제타 편 1 장에서 ‘무엇

145)이 여섯 가지가 나오는 곳은 다음과 같다. 범주론(1b26-27, b30)들, 형이상학: 그자체(스스로, 필연, 1017a18, 1025a15, 1015a32)과 우연(1017a7), 진짜(1051b1,660)와 가짜(1034b2), 현실(1045b35)과 가능(1034b35), 이것(범., 3b10)과 그러한 것(1039a2)과 그만큼한 것(1089a12) 하나(1054a30)와 여럿(1056b11).

(김익성)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존재

존재 양상들

이냐는 존재 물음을 우시아 물음 뒤 바꾸면서 말이다.

실체어로 존재물음의환원: 존재와우시아 정의>아리스토텔레스>우시아>정의>존재 (김익성)

5)우시아로의 존재 환원

5-1)환원 과정

‘무엇이냐’에서 ‘존재가 무엇이냐’를 거쳐 ‘실체는 무엇이냐’에 다다른 길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무엇이냐’고 물었다는 점에서는 세 사람 모두 같고, 존재와 관련하여 그렇게 물었다는 점에서는 후자 두 사람이 같다. 그런데 존재에 관해 말한 첫 사람은 이들이 아니라 엘레아 출신의 파르메니데스이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통한 길 보다는 계시(啓示)를 통해 존재에 다다른 길(표지)을 인간에게 가르치면서, ‘비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 할 수도 없으니 생각하러 들지도 말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비 존재를 도외시(度外視)하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아포리아(물음)는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본디 계시(啓示)는 받는 쪽의 어떤 물음을 전제하지 않는다. 아니 계시 받는 쪽에서 물을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것도 공개 석상에서 말이다. 그리고 이 물음을 통해 대화에 참여하는 자의 무지(無知)를 알게 하므로서 그릇 됨에서 벗어나 올바른 실천으로 이끌려 했으나 그것은 역설이었다. 앞에 따라야만 행동이 올바르다면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찌 실천의 올바름이 주어지리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존재’가 무엇이냐고는 묻지 않았던 듯 싶다. 이 물음은 소위 플라톤의 후기 대화 편 소피스트에 가서야 비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존재에 관한 사유 편린(片鱗)들은 플라톤의 대화 편 곳 곳에(13쪽 각주 7번과 8번) 지뢰처럼 깔려 있긴 하다. 잘못 건드리면 헤어날 수 없는 ‘죽음’에 빨려들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무엇이냐’는

물음을 통해 직접 존재자의 존재를 탐구하는 곳은 소피스트 편 하나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제타 편은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나 물음의 대상은 존재가 아니라 실체(우시아)이다. 그렇다면 여기 두 물음, 곧 ‘존재가 무엇이냐’와 ‘실체가 무엇이냐’는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가(7, 125, 145쪽). 만약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며 동일하다면 무엇이 동일한가.

형식 상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는 물음이다. 이것은 지향하는 바가 정의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정의는 말(로고스)들 중의 하나이다. 모든 말이 정의일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리고 정의 대상이 만약 하나라면, 그리고 그것의 로고스가 정의라면, 그 로고스 역시 하나일 것이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바로 그 대상이다. 그래서 비록 어떤 이데아에 관한 말들은 수없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말들 중에서 이데아에 관한 정의는 오로지 하나이다. 존재의 이데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존재에 관한 로고스들은 수없이 많을 수 있지만 그에 관한 정의로서의 로고스는 딱 하나일 것이다. 하나로서의 이데아,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를 그대로 따른다¹⁴⁶⁾. 따르면서 그는 자신의 소피스트 편에서 하나인 그것에 관한 정의(定

146) 비록 선의 이데아 하나에 여러 이데아들이 질서지워지기는 해도 말이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의 하나는 ‘분리와 이 것’으로서의 우시아의 ‘기준’에 그대로 다시 나타난다.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義)의 성립 근거와 그리고 그 정의를 근거로 하여 무수하게 파생하는 말들의 결합 근거를 밝히려 한다.

따라서 ‘존재는 무엇이나’는 ‘로고스(말)이 무엇이나¹⁴⁷⁾’는 물음을 그 하위 것으로 하여 진행된다. 테아이테토스 편에서는 로고스에 관한 세 가지 로고스, 1)소리를 통해 표시된(ἐνδείξασθαι, 206d8)생각(διάνοια, 206d1, 208c5), 2)철자들의 전체 열거(그러나 음절(συλλαβας, 207c8)들의 전체 열거는 아니다), 3)차이를 나타내는 기호(σημειον, 208c9, 記號) 등이 나열 될 뿐, 로고스에 관한 **첫 번째 가장 짧은**(45쪽) 로고스(정의¹⁴⁸⁾), ‘레에마와 오노마의 첫 결합’(λόγος ἐγεντο ἐυθύη ἢ πρώτη συμπλοκή, 262c5-6)이 주어지는 곳은 소피스트 편이(45쪽).

나아가서, 말들에는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있지 않는** 것들이 뒤 섞여 있다는 것에 주목 해야 한다. 따라서 ‘존재는 무엇이나’는 ‘로고스는 무엇이나’를 거쳐 ‘비 존재는 무엇이나’로 나아 간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의 경고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없음’에 관한 엄청난 아포리아에 직

147) ‘δεῖ λόγον ... τί ποτ’ ἔστιν,’(소피스트 편, 260a7-8), ‘τί ποτε ... τὸν λόγον ἡμῖν σημαίνει;’(테아이테토스 편, 206c7-8)

148) 정의에 대한 정의, “정의는 차이들과 류들로 합쳐진 로고스이다”(Ὅρος λόγος ἐκ διαφορᾶς καὶ γένους συγκείμενος, 정의론, 414d10)를 나는 18쪽 각주 16번에서 언급한 바 있다.

거짓 말

면한다. 진짜 없다면, ‘없다’는 낱 말은 아무 것도 가리킬 수 없기 때문이고, 가리킬 수 없다면 전혀 어떤 말(로고스)도 불 가능 할 것이며 그래서 ‘없는 것’에 관해서는 입도 뻥긋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69쪽). 말이란 어떤 것을 반드시 가리켜야므로 그렇다. 그렇다면 있지 않는 모든 것에 관한 어떤 말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이른 바 헛 말 조차 가능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에 진실인 말들 만이 차고 넘칠 것이다. 거짓 말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톤에게는 이전의 소피스트들의 말들이 거짓이었므로¹⁴⁹⁾, 이런 거짓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거짓 말이 있다는 것과, 거짓 말의 근거가 되는 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증명 해야 만 했다. 비 존재와의 이러한 관련 속에서 존재 물음은 진행하기 때문에 엘레아 낱선이는 비 존재에서 존재로, 존재에서 비 존재로, 다시 비존재에서 로고스로 소피스트 편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사유 안에서는 존재와 비 존재가 동일한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66쪽) 어느 한 쪽의 해명은 다른 쪽의 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그러나 비 존재의 ‘비’에 관한 새로운 해석과 음절의 비유에 의한 ‘존재’의 자연(본성) 해명에도 불구하고, ‘존재는 무엇이나’는 물음에 관한 답 곧 존재의 정의는 소피스트 편에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¹⁵⁰⁾.

149) 아리스토텔레스는 비 모순을 거부하는 자들의 전제들을 반박하면서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122쪽)

150) 그렇다고 이것이 소피스트 편 의 아포리아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

5-2) 존재 환원의 이유

소피스트 편의 바로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우시아)로의 환원은 잇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존재에 관한 정의 하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¹⁵¹⁾, 대신 정의 가능한 우시아에로 거슬러 올라(환원)가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판단은 ‘존재는 류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 라는 플라톤(류이다)과 아리스토텔레스(아니다)의 존재론적 차이를 보여준다. 나타난다. 다시 말해, 플라톤에게 존재는 있는 모든 것이라면 반드시 지니는 그러한 ‘이데아’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존재는 류적인 그런 이데아도 아니요 그래서 있는 모든 것이면 반드시 지니는 그런 ‘속성’ 또는 ‘요소’(143쪽)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 존재의 ‘비’(非)에 관한 플라톤 해석¹⁵²⁾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류로서의 존재 안에 존재의 차이

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미 ‘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달리 있음’으로서의 ‘비 존재’ 정의는 그것들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1) 낱말들이 지니는 의미 군(群)의 비슷함(family likenesses, 청색과 갈색 노트, 20쪽)은 선명하게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비트겐슈타인은 개별 용어들(applications)이 공통으로 지니는 일반 용어(general term)을 선명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철학 탐구에 족쇄를 채웠다고 한다[플라톤과의 관련 논의 요약에 대해서는 Guthrie(V, 1978, 69-70)참조].

152) 그래서 있지 않는 것도 있다는 주장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적인 쾨변(σοφιστική, 형이상학 교과 8장 1064b28)으로 간주한다. 비록 가능한

인 ‘비 존재’가 들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그러나 잠재적으로는 가능하다 불 가능하다고 본 것은 비 존재의 ‘비’를 그가 모순 관계¹⁵³⁾로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차이)들을 받아 들일 수 있는(138쪽) 기체적인, 그러나 분리된 이 것으로서의 우시아를 상징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그가 존재를 실체으로 환원한 이유들 중 첫 번째 것이다-존재를 류로 파악하는 것은 존재 안에 그에 모순되는 비존재를 허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존재와 모든 앎의 아르케로서의 비모순율을 현실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류 아닌 존재가 그것에 의존하는 그리고 반대들이 거기에 받아 들여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우시아’를 상징하자는 것.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케변’이라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의 모순(contrarium, 신의나라, XII, 2) 곧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바로 이 없는 것(무, 無)으로부터 창조하는(ex nihilo creavit, 위의 곳)는 신을 그는 최상의 우시아 또는 에센티아(οὐσία, essentia)라고 부른다. 고전 라틴 저술가에서는 에센티아라는 용어가 쓰여지지 않지만 자신의 시대에는 그 용어가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레 사용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는 그것을 ‘dura’라고 부른다.

153) 그는 모순적인 대립과 반대적인 대립을 구분한다. 중간들이 있으면 반대로 없으면 모순이다.

나아가서, 류는 정의의 아르케이므로, 만약 존재가 류는 아니라면, 존재에 대한 정의가 불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환원의 두 번째 이유가 있다. 존재에 관한 정의는 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로 환원된 실체의 정의와 관련하여 존재에 관한 ‘앎’을 성립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환원에 근거하여 존재에 관한 앎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길이 바로 프로스 헨(πρὸς ἕν), 즉 우시아의 정의 하나(ἕν)에 의존(πρὸς)하는 여러 ‘로고스’들을 그것 하나에 관련(πρὸς)시키는 방식이다¹⁵⁴). 그러기 위해서는 우시아들에 관한 앎이 먼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안에서, 우시아들에 관한 정의 하나들을 획득하기 위한 나눔의 방법과, 획득된 정의들이 필연적인 앎인지를 ‘검증¹⁵⁵’ 또는 ‘증명’하는 논증적인 추리와, 이러한 정의(전제)들 관련된 반박(에렝코스)과 변증법, 그리고 유비적인 방법(에네르게이아로서의 우시아에 관한 설명) 등

154)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인 것과 공통인 것으로 환원될 수 있으므로, 반대되는 것 각 각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의 첫 번째 차이들과 반대들에도 환원될 수 있으리라 ἐπεὶ δὲ παντὸς τοῦ ὄντος πρὸς ἕν τι καὶ κοινὸν ἢ ἀναγωγή γίνεται, καὶ τῶν ἐναντιώσεων ἕκαστη πρὸς τὰς πρώτας διαφορὰς καὶ ἐναντιώσεις ἀναχθήσεται τοῦ ὄντος (형이상학 겐과 3 장 1016a10-13)”(16쪽)-여기서 있는 것의 첫 번째 차이들은 하나와 여럿 그리고 같음과 같지않음들이다.

155) 위드테이커는 “정의에 관한 파악이 가능하지 않으면 논증은 불가능한 반면, 정의는 논증에 의해 ‘확인’(is conformed, Whitaker, 1996, 214쪽)된다”고 한다.

을 사용한다.

이것들 중 특히 논증적인 연역이 실제로 환원의 세 번째 이유가 된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존재하는 어떤 그것의 본질(무엇임)과 더불어 논증적인 연역 안에서 ‘증명’ 될 수 있기 때문이다(59쪽). 삼각형의 정의를 아는 자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사실)도 더불어 아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런 증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존재’ 보다는 정의 되어 할 그것의 ‘우시아’(본질, 에이도스)가 먼저 존재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시아들이 가장 먼저 존재 해야, 이것들에 관한 정의들이 가능하며 그리고 정의들이 획득되어야, 이것들을 자신의 전제들로 삼는 연역이 비로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증적인 추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작(造作)이 실제론 존재 환원(ἀναγωγή) 또는 분석(τὸ ἀναλυτικά)이다¹⁵⁶). 그렇다면 이러한 환원의 역(逆) 과정이 논증적인 추리이다! 우시아(τί 본질)가 속하고 있는 것(τι)의 존재가 중간 항(59쪽)을 통해 이어지는 논증에 의해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약간은 긴 아래의 인용 글월이 보여 줄 것이다.

“31)그렇다면 정의하는 자는 실로 우시아 또는 있는 그 무엇을 어떻게 밝히는가? 왜냐하면 그는 논증에 있어서처럼 우리가 동의하는 것들로부터 어떤 것이 저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아니며-이것이 논증(ἀπόδειξις, a36-37)이기 때문이다, 귀납하는 자처럼(ὡς ὁ ἐπάγων, a37) 그는 모든 어떤 것도 그렇게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개별적으로(καθ’ ἕκαστα, 92b37)분명

156) 로빈 스미쓰는 아날뤼케인과 아나게인을 동의어(synonym, Robin Smith, 1989, 61쪽)로 사용한다.

한 것들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의**하는 자는 있거나 있지 않다는 사실(ἔστι, 92b1)이 아니라 무엇(τί, 92a38)을 밝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각에 의해서 또는 손가락으로 가리킴에 의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 아닌 다른 길이 남아 있는가?

나아가서 그는 있는 그 무엇을 어떻게 밝히는가? 사람이든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의)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ἔστιν, 92b4-5)을 보아 아는 자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 아는(εἰδέαι, b5)반면, 어떤 것이(τι, b7)**있다는 것**을 보아 아는 자는 있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염소를 말할 때 마다 그 로고스 또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을 보아 알긴 하나, 염소가 무엇인지를 보아 알(εἰδέναι, b8)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있는 그 무엇과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면, 어떻게 동일한 로고스에 의해서 밝힐까? 정의와 논증은 어떤 것 하나(ἐν τι, 92b9)을 분명하게 하는데(ὁμοί, 92b10)사람의 있는 그 **무엇**과 사람의 **있음**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있다는 것 각각 모두는 논증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우리는 말한다. 우시아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있음은 어떤 측면에서도 우시아가 아니다. 있는 것은 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다는 사실에 관한 논증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앎을 지니는 자들이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기하학자들은 삼각형이 가리키는 그 무엇을 추측하고서, [그 무엇이 삼각형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밝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있는 그 무엇을 정의하는 자는 무엇을 분명하게 하는가? 삼각형 이외의 것인가?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있는 그 무엇을 보아 아는 자가 [그 무엇이 속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보아 알지 못 할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분석론 후서, B(7), 92a34-92b18) ”.

그러나 논증적인 추리에서는 단지 본질(에이도스)로서의 우시아를 안에 지니는 어떤 개별자¹⁵⁷⁾가 존재 한다는 사실 만이 그것의 본질 정의와 더불어

157) 루카시에비츠(J.Lukasiewicz)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 (Aristotle’s syllogistic, 1951(1998), 5~6쪽)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의 가장 큰 약점은 단칭 항(singular terms, 6쪽, 개별자)과 단칭 명제들을 다루지 않는

존재 환원 방법

어 연역 될 뿐이다. 따라서 개별자들의 존재 일반에 관한 앎은 논증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밀려 난다. 이것은 실체(우시아)들의 정의 획득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 전체에서 나눔과 논증 이외의 여러 반박과 변증법과 유비적인 방법 등을 혼용(混用)했을 것이다. 신화적인 소재(예를들어, 기간토마키아)는 제거 하면서 말이다.

바로 이러한 혼용이 플라톤의 특히 소피스트 편이 특징이었다(107쪽).

것이라고 말한다. 일상(日常)과 과학적인 탐구에서 개별자들이 보편자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인, 논증을 통해 예를 들어 삼각형의 본질을 아는 자에게 ‘확인’되는 것은 특정한 어느 개별 삼각형의 존재가 아니라 종적인 삼각형 등의 존재이며 마찬가지로 개별자 소크라테스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이기에,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종(에이도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개별자에 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앎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그에 관한 우연적인 설명이나 언급은 언제나 가능하다. 게다가 ‘개별’적인 것들(καθ' ἑκάστα, 분석론 후서, B(7), 92a37)로부터 보편(적인 속성)을 ‘발견’하는 귀납도 있지 않은가?

(김익성)

실체(로 존재물음의 환원: 우시아로의 존재 환원>환원 이유

우시아에로의 존재 환원 요약

1)들어가기	2
2)플라톤 이전의 존재 물음	3
3)플라톤의 존재 정의	3
3-1)방법	3
3-2)존재 정의	4
3-2-1)비 존재 정의	6
4)아리스토텔레스의 대안	7
4-1)방법	7
4-1-1)정의	7
4-2)우시아로의 존재 환원	8

학번: 95113-554

이름: 김 익성

1) 들어가기

형이상학 제타 편 1장(1028b2-8)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ἔν)은 무엇인가’ 대신에 ‘우시아(οὐσία, 실체)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전자는 후자 바로 그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본 글에서 나는 그가 후자(後者)로 전자(前者)를 ‘환원’(ἀναγωγή)¹⁾한 이유를 밝히려 한다. 그 과정에서 이전의 존재물음 해결 방법과 내용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과 대안이 기술(記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난문(아포리아, 難問)이었다고 하면서 그가 문제 삼은 ‘존재란 무엇(τί)이냐’는 물음은 오래 된(παλαι) 것 이었다. 이 때, 비록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플라톤의 소피스트 편(244a4-8)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존재의 양적인 규정들이 아포리아에 빠지는 상황 설정이 이 두 곳 모두 같기 때문이다²⁾. 따라서 그의 우시아(실체) 물음의 출발 선은 플라톤의 존재 물음과 이것의 답이다. 그런데 ‘무엇이냐’는 물음 그 자체가 애매하다. ‘무엇이냐’(τί)는 물음은 ‘어떤 것이냐’(τί)는 물음으로도, 그래서 ‘존재는 무엇이냐’는 물음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로도, 또 ‘우

1) ‘환원’(ἀναγωγή, inductio)라는 말이 문제의 그곳(형이상학 제타(1), 1028b2-8)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하나(一)로의 환원(πρὸς ἓν τι ... ἡ ἀναγωγή γίνεται, 형이상학 겐과(3), 1016a10-13)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시아 하나(一)로 거슬로 올라간다(lead up,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Joseph Owens(2nd edit, 1963, p.321)와 G.Reale(trans. N.Catan, p.205)은 ‘reduction’(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형이상학 제타 편 여기를 설명한다. 그러나 M.V.Wedin(2002, p.176)은 피타고라스 학자들처럼 생각 끝에 질료를 제거 해버리는(형상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곳(형이상학, 1029a10-26)에 환원적인 논의(reduction argument)이라는 제목을 붙인다[아리스토텔레스의 ‘아나게인’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P.H.Byrne(1997, pp.23-25)참조].

뿐만 아니라, ‘아나고게’(환원)가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아나게인’은 이미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편(265d4, 논문5, 33쪽)에서 나타난다. 비록 맥락은 아주 다르지만 말이다.

2) 형이상학 전체를 강의하기 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소피스트 편을 진지하게 연구했다는 것은 그 대화 편(篇)의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인 ‘비존재’와 관련하여, “비존재에 종사하는 자들이 소피스트들이라고 플라톤이 말한 것은 나쁘지 않다”(πλάτων οὐ κακῶς, 형이상학 겐과(8) 1064b30)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직접적인 평가에서 다시 확인된다.

시야는 무엇이냐는 ‘어떤 것들이 우시아냐’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 중에서 나는 정의(ὄρος, ὄρισμός, 定義, definition)에 관한 물음으로서의 ‘무엇이냐’에만 집중할 것이다.

2) 플라톤 이전의 존재물음.

‘존재는 무엇이냐’ 대한 답으로서의 존재 규정은 플라톤 이전의 파르메니데스에 의해 존재(τὸ εἶναι)의 표지(σημα, 標識)들로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생성소멸하지 않음’(있는 것은 전체, 움직이지 않음, 시작도 끝도 없음, 동일함, 정지)과 ‘있어 왔지도 있을 것이지도 않음’(모든 것은 지금 있음, 같음, 하나, 연속)과 ‘필연성’과 ‘한계성’ 등으로 말이다. 나는 존재의 이러한 표지들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ὄρος 혹은 ὄρισμός) 또는 세메이온(σημείον)에 결부시킨다. 존재의 인식과정에서 나오는 언표(言表)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존 단편들은 파르메니데스가 ‘존재란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해도 말이다.

3) 플라톤의 존재 정의

3-1) 방법

뿐만 아니라, 그 물음은 플라톤의 대화 편들 중에서도 단지 소피스트 편에서만 제기된다. 물론 ‘무엇이냐’는 물음은 후기 대화 편 정치가 등과, 초기 대화편 유티프론의 주요 흐름을 형성하나, ‘존재란 무엇이냐’고 묻는 곳은 이 물음에 관한 답을 찾아가는 길들 중의 하나인 나뉘는 방법이 아주 잘 예시(例示)되는 소피스트 편 하나 뿐이다. 먼저 나는 ‘무엇이냐’는 물음이 지니는 특성(정의의 기준)들을 유티프론 편에 따라 기술하려 한다.

첫째, 그 물음의 대상은 이데아이다. 그래서 ‘경건은 무엇이냐’는 물음의 대상은 ‘경건’이라는 이데아이지, 개별적인 경건한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경건한 자는 소크라테스이다’와 같은 답이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그 물음이 요구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둘째, 정의는 그 대상의 어떤 속성(παράθεσις)이 아니라 우시아(본질)를 기술해야 한다. 그래서 경건의 속성인 사랑이 경건의 정의 향으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즉 ‘경건은 사랑이다’는 경건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은 경건의 우시아(본질)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셋째, 문제의 정의가 모순을 함축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들어 신에 대한 불경(경건의 모순, 여기서는 증오)을 함축하는 ‘경건은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에서 처럼 말이다. 경건(신을 즐겁게 함)이 불경

(신을 증오하게 함)을 함축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정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연역)에서 동일한 것이 반복되서는 안된다. 그래서 ‘경건은 신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로 환원되는 ‘경건은 인간과 신의 상호 교제 기교(압)이다’는 경건에 대한 정의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외연이) 더 넓은 것에서 더 좁은 것으로 종(에이도스)을 나누어 가는 길이 정의 과정에서 사용된다. 이 방법은 유티프론에서의 최종적인 ‘정의’, ‘경건은 신들과 인간들의 상호 교제 기교’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경건을 신들에 관계되는 봉사와 인간들에 관계되는 봉사로, 그리고 후자를 다시 말과 개와 소 등에 관계되는 것으로 나눌 때 사용된다. 따라서 종에 따라 나누는 방법은 정의를 이끌어 내는 길들 중의 하나임이 여기 플라톤의 초기 대화 편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나누기 위해서는 나눌 모든 하위 것들이 최 상위 것 아래로 ‘**함께(συν)끌어(ἄγειν) 모아져(συναγωγή)**’ 직관되어야 하며, 그리고 끝까지 나눈 후에는 정의를 위해 이것들을 다시 질서에 맞게 결합해야 한다. 따라서 나눔 이외에도 직관과 결합 이 두 가지 방법이 정의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이 정의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여러 ‘정의’들의 **모순(아포리아)**을 이끌어 내는 반박과 유비적인 비유와 그리고 신화 등이 적재 적소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핵심은 직관과 나눔과 결합 이 세 가지이다.

3-2) 존재 정의

‘무엇이냐는 물음의 대상이 소피스트와 존재인 소피스트 편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들이 두루 쓰여진다. 먼저 아포리아(난점) 또는 모순 때문에 기존의 일원적이고 다원적인 존재 ‘규정’들이 포기된다. 존재가 반대되는 두 가지 것(예를들어 음과 양)인 경우, 존재가 그 두 가지 양자와 동일하다면 음이 양이고 양이 음이라는 불 가능한 일(아포리아)이 발생할 것이며, 그 양자와 다르다면 둘이 아니라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음과 양이 공존 할 수 없게 된다는 아포리아에 빠지기 때문이며[다원론 반박], 존재가 하나라면, 동일한 것이 다른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지 못하는 불 가능한 일(더구나, 불리운다면, 이미 여럿이다)이 발생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이름이 프라그마(것, τι)와 동일하다고도 다르다고도 말 할 수 없게 될 것이고(동일하다면 이름뿐인 이름이 되고, 다르다면 두 가지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나아가서 하나가 부분들을 지니는 공과 같을 경우, 부분들의 전체와 하나가 동일하다면 하나는 전체의 그 부분들로 나눌 뿐만 아니라 전체이기 위해서 하나 자신으로부터 하나 자신이 빠져 나가게 돼 결국 있는 하

나가 있지 않게 될 것이며, 자신의 부분들 전체와 하나가 다르다면 어떤 것도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생성되는 것은 전체로 이루어지는 있는 하나가 그 전체와 다르다면 생성도 우시아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불 가능한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일원론 반박].

위와 같은 량적인 규정들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적인 규정들의 ‘종합’에 있어서도 아포리아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시아(ούσια, 존재)는 ㄱ)몸(σώμα)과 그리고 ㄴ)이데아이다’ 라고 종합 할 경우, 만약 몸과 이데아 중 어느 하나만이 근원적인 것(우시아)이라면, 위(上)이원론자의 아포리아에 직면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시아로서는 공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ㄱ)을 주장하는 자는 이데아가 우시아(존재 또는 실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ㄴ)을 주장하는 자는 몸이 우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ㄱ)과 ‘ㄴ)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불 가능(모순)하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소피스트 편의 엘레아 낫선이는 반대되는 이 양측을 설득할 수 있는 존재에 관한 공통의 정의(ῥος, 표지, 標識)들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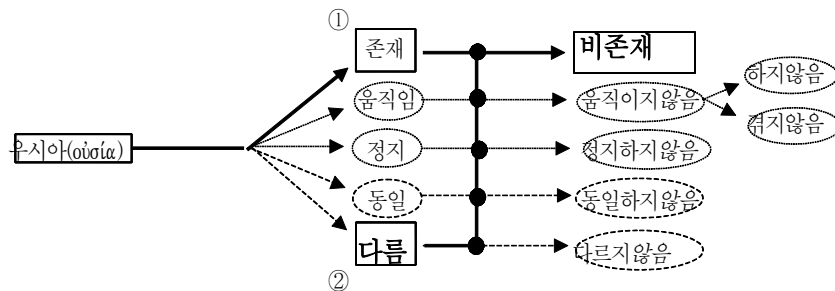
‘ㄱ)을 주장하는 쪽에 제시한 정의는 ‘정의₀: 존재는 하고 쥘는 힘이다’. 이러한 힘을 지니는 어떤 것이든 존재한다는 것에 그 쪽이 동의 할 것이라는 확신에서다. 그리고 ‘ㄴ)을 주장하는 쪽(친구)에게는 ‘정의₀₁: 있는 것은 움직임과 정지이다’와 ‘정의₀₂: 있는 것은 움직임도 정지도 아니다’를 제시한다. 여기의 ‘정의₀’은 ‘정의₀₁’와 ‘정의₀₂’에 인식의 측면에서 관련을 맺는다. 힘에 의해서 인식하고 인식되며 그리고 인식되는 것(에이도스)은 정지된 것인 반면 인식하는 것(영혼)은 움직이기 때문이다-인식되는 것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 할 수 있느냐는 그래서 그것의 움직여지지않음이 유지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자. 그러나 ‘정의₀₁’은 위(上) 이원론이 지니는 아포리아(어려움)에, ‘정의₀₂’는 존재가 움직임과 정지에 무관하게 된다는 아포리아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어려움을 수반하는 이러한 정의들은 설득력을 잃게 되고, 결국 존재를 정의하려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비 존재의 존재를 확보하려는 낫선이의 시도는 미궁(迷宮)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낫선이는 존재를 모음으로 빗대는 유비적인 비유를 사용한다. 모음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자음들을 묶어주듯, 존재도 움직임과 정지 등의 반대들을 묶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정의하는 대신 존재를 모음으로 비유하는 샛길로 빠져 버린다-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정의 할 때는 비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석론 후서(97b37-b39)의 아리스토텔

레스는 경고 했을 것이다. 물론 그는 ‘비’(τὸ μὴ καὶ τὸ οὐ, 아님, 非)에 ‘다름’(ἄλλο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눔의 방법을 통해 ‘있지 않음’(비 존재)를 ‘달리 있음’[타(他) 존재]으로 정의하기는 해도 말이다. 이것을 나는 비존재의 변증법 또는 연역이라고 말한다.

3-2-1)비 존재 정의

모음에 존재를 빗대므로서, 그는 움직임과 정지 그리고 동일과 다름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확보한다. 그런 후, 이 다섯 가지 가장 큰 류들을 하나 씩 분별 구분해 나가면서, 이들의 상호 교통(메텍시스)을 확보하는 데, 바로 이것이 비 존재의 정의(인식)를 통해서 완성된다. 왜냐하면 존재(모음)의 묶는 활동이 비 존재의 분리하는 활동과 어우러져, 류들 상호 간의 교통(ἐπικοινωνεῖν)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눔에 의한 비존재의 정의 과정은 아래처럼 그려질 수 있으리라.



나눔의 끝에서 도달하게 되는 비 존재는 ㄱ)‘다른 존재’라는 것이 위 그림에서 분명해 질 것이다. 나뉜 정의 항들 ‘①’(존재)와 ‘②’(다름)을 다시 결합하면 비 존재의 정의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직관과 나눔과 결합).

이렇게 해서 반대되는 두 짝이 (비) 존재에 의해 함께 하거나 분리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비) 존재에 관한 아포리아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운동과 정지 등의 반대 짝에 메테케인하는,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것이 정지하게 되는 등 반대로 변하는 ‘시점’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시점’이 순간(ἐξ-αίφνης)이라면, 그리고 그 순간에 메테케인이 이루어진다면, 소피스트 편 뿐만 아니라 파르메니데스 편이 아포리아들이 순식간에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플라톤의 ‘메텍시스’(μέθεξις)가 헛 소리로 간주되

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아포리아 해소 시도는 의미 없다.

4)아리스토텔레스의 대안

4-1)방법

나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적인 추리의 전제로서 쓰여지는 정의를 획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쓸모있긴 하나, 그것은 증명되지 않는 중간항을 요청한 것이라고 종에 따라 나누는 방법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중간항을 증명하는 자신의 논증적인 추리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논증에 의해서만 정의의 대상 곧 우시아는 필연적인 앞의 대상으로 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획득하는 길과 그리고 획득된 정의로부터 필연적인 앞(진실)을 이끌어 내는 길을 구분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의를 획득하는 길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들 중의 하나가 차이(중)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다--귀납(ἐπαγωγή)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4-1-1)정의

그러나 모든 것의 정의가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획득 될 수 있는 것 보다는 될 수 없는 것이 수적으로 훨씬 더 많다. 우선 소크라테스와 같은 개별자는 정의 될 수 없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닌 어느 한 때 있다가 다른 때는 없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연성을 자신의 자연으로 지니는 질료(적인 것)역시 정의 될 수 없다. 나아가서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는 플라톤적인 이데아 역시 정의될 수 없다. 정의란 분리되지 않은 개별자 안의 본질(우시아, 에이도스)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리된 것은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종에 따라 나누는 방법에 의해 정의할 때는 1) 있는 그 무엇(개별자 안의 본질, 에이도스)의 차이들을 철저하게 파악하면서, 2)그 차이들의 순서를 정해야 하고, 그러면서 3) 모든 순서가 정해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서, 확인되면, 4)차이들 각 각이 지니는 동일한 것을 조사한 후, 다시 5)동일한 그 류 안의 다른 것들을 살펴 보고, 6)동일한 그 류들이 지니는 동일한 것 하나를 파악해야 한다. 7)바로 이 동일한 것 하나와 마지막 차이로부터 이루어진 로고스 하나가 해당 프라그마의 정의이다--우시아는 맨 끝 차이.

4-2)우시아로의 존재 환원

플라톤의 소피스트 편은 해소될 수 없는 아포리아(난관)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제기된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 곧 ‘존재는 하고 겪는 힘(δύναμις)이다’는, 만약 다름으로서의 ‘아님’과 ‘다른 존재’로서의 비 존재 정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반대(모순)가 아니라 존재의 다름이라는 비 존재 정의와 엑사이프네스에서의 메텍시스(나누어 지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순(‘존재는 움직여왔으나 움직이지 않으며 정지했던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다’--‘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을 함축 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 편이 아포리아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비록 잠재적으로 있는 것(τὸ δυνάμει ὄν)은 있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³⁾.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를 정의하려는 소피스트 편이 시도의 실패 이유는 본디 정의 될 수 없는 존재 그 자체를 정의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의는 첫 번째(최근) 류로부터 시작하나, 류가 아니므로, 존재는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존재가 류라면, 그것의 차이인 ‘존재하지 않음’(비존재)가 그 류(존재)에 속해야 할 것인데, 그럴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모순이 허용될 것이고, 그래서 존재에 관한 앎 역시 불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앎의 아르케는 비모순율. 이미 언급된 것처럼, 논증은 정의를 전제로 하여 시작하므로 그렇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를 우시아(실체)로 환원하여, 환원된 그것의 정의를 논증 안에서 필연적인 앎으로 끌어 올리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본질을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ᾄτι)이 논증된다. 논증되고 있는 정의가 자신의 대상이 존재하는 이유(원인)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천둥(A), 구름(Γ), 불의 소멸(B)이라고 해 보자. 여기서 ‘B’는 ‘Γ’에 속하며(불은 구름 안에서 소멸하므로), ‘Γ’에 ‘A’가 속한다(천둥(소리)은 구름 안에서 일어나므로)--만약 불의 소멸이 구름에 속하고, 구름에 천둥(소리)가 속한다면, 불의 소멸은 천둥에 속한다. 만약 천둥이 구름 안의 소리라면, 구름 안에서 소리나는 이유(τὸ διότι)는 구름 안에서 불이 소멸(B-불의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둥(A)은 구름(Γ) 안에서 소멸하는 불(B)의 소리이다. 이렇게 사실의 이유(구름 안의 소리, 천둥)와 사실의 무엇임이 동일시되는 바로 이러한 논증(정의 과정)을 통해서 천둥이 존재한다는 사실

3) 여기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소피스트 편의 ‘뒤나미스’ 라는 개념을 어떻게 변용(變容)시켰는지를 볼 수 있다.

이 증명된다. 그리고 더불어 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러한 과정은 (천동의)우시아
에로 존재를 환원하는 것의 역(逆) 과정(過程)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시아⁴⁾에 관한 앎만이 가능하고, 존재 자체에 관한 ‘앎’(ἐπιστήμη)⁵⁾은 불가능하다면,
존재 자체에 관한 앎으로서의 형이상학은 불 가능한 것인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ὄν)를 우시아 하나(πρὸς ἓν)로 환원시켜, 존재의 여러 ‘의미’(meaning)
들을 고정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시아 론을 통해서만 존재 론 일반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
고 그 방법은 형이상학 전체가 보여 주는 것처럼 다양하다(반박, 변증법, 논증, 유비적인 비유)-
그러나 ‘신화’는 아니다. 신학일지언정.

4)천동에 있어 오고 있는 그 무엇(τὸ τί ἦν εἶναι, 본질), 천동의 무엇임, 천동의 에이도스.

5) 존재 그 자체에 관한 ‘앎’과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앎’은 다르다. 후자는 필연적
인 인식의 수준(논증이 가능하므로)으로 상승하지만 전자는 그 인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논
증이 불 가능하므로).

Bibliography¹⁾(알파벳 순)

1)Text

Diels H. und Kranz W. (hrsg.) (1974),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Erster Band, der 19. (Berlin: Weidmann).

Burnet, I. (ed.) (1922). Ευθυφρων: Platonis Opera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2a-16a(pp.1-23).

Burnet, I. (ed.) (1922). Σωφιστης: Platonis Opera Vol.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16a-268d (pp.357-442).

Burnet, I. (ed.) (1922). Πολιτικος: Platonis Opera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257a-311c(pp.443-442).

Bekkeri, Immanuel (1831). Κατηγοριαι: Aristoteles Graece, Volumen Prius.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1a-15b.

Bekkeri, Immanuel (ed.) (1831). Τὰ Μετὰ τὰ Φυσικὰ: Aristoteles Graece, Volumen Alterum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980a-1903b.

Bekkeri, Immanuel (ed.) (1831). Ἀναλυτικὰ πρότερα καὶ ὕστερα: Aristoteles Graece Volumen Prius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24a-100b.

Bekkeri, Immanuel (ed.) (1831). Τοπικὰ: Aristoteles Graece, Volumen Alterum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100a-164b.

1-1)번역

Hölscher, (hrsg. u. übers.) (1969). Parmenides: Vom Wesen des Seienden (Frankfurt: Suhrkamp Verlag).

Hamilton E. and Cairns H. (eds.) (1982).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Euthyphro, trans. by Lane Cooper(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69-185.

Eigler, Gunther. (hrsg.) (1990). Platon Bd. 6 : Theaitetos, Der Sophist, Der Staatsmann. (bearb. von Peter Staudacher. Griech. Text von Auguste Diès., Dt. Übers. von Friedrich Schleiermacher,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Fowler, H.N. (trans.) (1952). Plato Vol. II: Theaetetus Sophis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pp.261-458.

Cornford, F. M., (trans.) (1979). Plato's Theory of Knowledge,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1) ‘*’는 아직 내가 구입하지 못 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Kegan Paul.)

Hamilton E. and Cairns H. (eds.) (1982).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Statesman, trans. by Lane Cooper(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69-185.

Ackrill, J.L. (trans.) (1963). Aristotle's Categories and De Interpretatione (Oxford: Clarendon Press).

Ross, W.D. (trans.) (1928).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Vol. VIII: Metaphysica (Oxford).

Tredennick, H. (trans.) (1947). Aristotle. The metaphysics 2vol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ooks I-XIV.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Frede M. und Patzig G. (trans.) (1988). Arstotels 'Metaphysica Z': Einleitung, Text und Übersetzung Erster Band (München: Verlag C.H.Beck).

Cooke, H.P. (trans.) (1949). Aristotle the Organon I: The Categories On Interpretation (Cambridge).

Barnes, J. (ed.) (1984).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Prior Analytics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 I, trans. by Jenkins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9-113.

Barnes, J. (ed.) (1984).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Posterior Analytics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 I, trans. by Barnes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14-166.

Flashar H. (hrsg.) (1993). Aristoteles: Analytica Posteriora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Wolfgang Detel Erster Halbband (Berlin: Akademie Verlag).

Forster, E.S. and Tredennick, I. (trans.) (1966). Aristotle: Posterior Analytics and Topica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2)Context

김남두(2002). 파르메니데스 편에 탐구의 길과 그 논의 구조. “서양 고·중세 철학과 그 유구한 문제들”, 김완수 외. 서울: 철학과 현실사. 35-63쪽.

김완수 (1988).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나타난 실체개념을 중심으로 본 형이상학의 제 문제. “希臘哲學研究”, 조요환 외. 서울: 종로서적.

김완수 외(2002). 서양 고·중세 철학과 그 유구한 문제들. 서울: 철학과 현실사.

김완수(1984). 플라톤 초기 대화편에 있어서의 Idea論. “哲學研究”, 19, 81-103.

김완수(1999). 플라톤 철학의 재음미.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남경희(1984). 플라톤의 후기 존재론 연구. “哲學研究”, 19, 105-145.

- 노회천(1994).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름과 존재. “汎韓哲學”, 9, 205-240.
- 박종현(1982). 희랍 사상의 이해. 서울: 종로서적
- 박종현(2001). 헬레스 사상의 심층. 서울: 서광사.
- 박홍규 (1977). 소피스트 편에 대한 분석. “박홍규전집1: 희랍철학논고”, <박홍규전집> 간행 위원회. 서울: 민음사. 1996. 127-157쪽.
- 박홍규 (1979) (강의). 파르메니데스 편 강의, “박홍규 전집 4: 플라톤 후기 철학 강의”, 서울: 민음사. 172-198쪽.
- 박홍규 (1986) (강의). 인식과 존재 : 테아이테토스 편과 소피스트 편. “박홍규전집2: 형이상학 강의 1”, 서울: 민음사. 1995. 176-247쪽.
- 박홍규 (1986) (강의). 인식과 존재 : 테아이테토스 편과 소피스트 편. “박홍규전집2: 형이상학 강의 1”, 서울: 민음사. 1995. 176-247쪽.
- 박홍규 (1987) (강의). 앎의 개념, “박홍규전집1: 형이상학 강의1”, <박홍규전집>간행위원회. 서울: 민음사, 1995, 300-348.
- 박홍규(1995). 박홍규전집1: 희랍 철학 논고. <박홍규전집> 간행위원회(편). 서울: 민음사.
- 박홍규(1995). 박홍규전집2: 형이상학 강의1. <박홍규전집> 간행위원회(편). 서울: 민음사.
- 박홍규(2004). 박홍규전집3: 형이상학 강의2. <박홍규전집> 간행위원회(편). 서울: 민음사.
- 박홍규(2004). 박홍규전집4: 플라톤 후기 철학 강의. <박홍규전집> 간행위원회(편). 서울: 민음사.
- 박홍규 · 이태수(1988).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목적인과 운동인. “希臘哲學研究”, 조요환 외. 서울: 종로서적.
- 소광희 외(1955). 고전 형이상학의 전개.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양문흠(1984). 플라톤의 後期 存在論 研究. “哲學研究”, 19, 105-145.
- 양문흠(1995). 실재하는 것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음. “고전 형이상학의 전개”, 김효명(편). 서울: 철학과현실사.
- 양호영(2000).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실체와 하나.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재훈(1985). 플라톤 哲學研究. 서울: 탑 출판사.
- 이창대(1976). 플라톤의 存在에 관한 分析的 考察. “哲學研究”, 11, 25-46.
- 조요한 외(1988). 希臘哲學研究. 서울: 종로서적.

- 조요환(1995). 아리스토텔레스의 哲學. 서울: 경문사.
- 조요환(1969). Aristoteles와 形而上學의 문제. “哲學研究”, 4, 59-77.
- 최정식(1995). 플라톤의 기초존재론 抄. “고전 형이상학의 전개”, 김효명(편). 서울: 철학과현실사.
- 홍성대(1979). 플라톤의 소피스트 편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Ackrill, J.L. (trans.) (1963). Aristotle's Categories and De Interpretatione (Oxford: Clarendon Press).
- Aiken D. W., 1991. Essence and existence, transcendentalism and phenomenism : aristotle's answers to the questions of ontolog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LV, No. 1, 29-55 [II, 65-91].
- Alan Code, 1984. The aporetic approach to primary being in metaphysics Z,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Supplementary Vol. X; In Classical 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305-324.
- Albritton R., 1957. Forms of particular substance in Aristotle's Metaphysics, In Classical 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153-162.
- Allaire E., Existence, independence, and universals, 485-496, [논문 XIV, 247b-253a]
- Allen D. J., 1960. Aristotle and Parmenides,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urth Century, ed. Düring I. and Owen G. E. L., Göte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133-144.
- Allen, R.E. (1970). Plato's 'Euthyphro' and the Earlier Theory of Form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Annas J., 1974. Forms and first principle, Phronesis VOL. XIX, 257-283. [IV, 61b-74b].
- Apelt. O. (1891).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Griechischen Philosophie (Leipzig: Druck und Verlag von B.G. Teubner).
- Aubenque P. (1962). Le Problème de L'Être chez Aristote (Paris: Presse Universitaires de France).
- Bach Emmon., 1967. Have and be in English syntax., Language: Journal of the Linguistics Society of America, Vol. 43-NO. 1, 462-485. [V, 48-71].
- Barber R. L., 1953, Being and possibility: A Repl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VI, No. 4, 605-616. [논문 XXVI, 449b-616a]
- Barnes K. T., 1977. Aristotle on identity and its problems, Phronesis Vol. XXII-NO. 1, 48-62. [IV, 246a-253a].

- Barnes, J. (ed.) (1984).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Posterior Analytics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 I, trans. by Barnes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14-166.
- Barnes, J. (ed.) (1984).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Prior Analytics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 I, trans. by Jenkins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9-113.
- Bayer G. (1995). Definition through demonstration: the two types of syllogismus in posterior analytics II. 8, *Phronesis* Vol. XL, No. 3, pp. 241-264. [논문집 XXIX, 239]
- Bayer G. (1997). The what-is-x? question in the posterior analysis, *Ancient Philosophy* 17, : Mathesis Publications. pp.317-334.
- Beaver A. F., 1988, Motion, mobility, and method in Aristotle's Physics : Comments on Physics 2. 1. 192b20-24,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LII, No. 2, 357-374. [논문 XXVII, 271b-280a]
- Beierwaltes W. (1980). Identität und Differenz (Frankfurt: Vittorio Klostermann).
- Beierwaltes W., 1978. Nicht-sein i s t: idintät und differenz als elemente platonischer dialektik, In Identität und Differenz, hrsg. Beierwaltes W.,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9-23.
- Berger F. R. (1965). Rest and Motion in the Sophist, *Phronesis* VOL. X-NO. 1, 70-77. [I, 449-456].
- Berti E., 1996, "Der Begriff der Wirklichkeit in der Metaphysik (θ 6-9 u. a.)",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289-311.
- Bluck, R. S. (1975). Plato's Sophist ed. by Neal G. C. (Oxfor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olton R., 1976, Essentialism and semantic theory in Aristotle, *The Philosophical Review*, LXXXV, 514-544. [논문 XVI, 187a-202a]
- Bonevac D.A. (1982). Reduction in the Abstract Sciences. (Indianapolis: Regeview Publishing Company).
- Bonitz H. (1961). Index Aristotelicus, *Aristotelis Opera Volumen Quintum* (ed.) Academia Regia Borussica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 Bonitz, H. (1886). Platonische Studien (Berlin).
- Bonitz, H. (1960). Aristotelis Metaphysica Commentarius, Unveränderter Nachdruck der Ausgabe *Aristotelis Metaphysica Volumen II*, Bonn 1849 (Hildesheim: Gerog Olms Verlagsbuchhandlung).
- Bonitz, H. (übers.) (1994). Aristoteles Metaphysik, hrsg. von Wellmann (rowohlts enzyklopädie).
- Bormann, K. (1971). Parmenides: Untersuchungen zu den Fragmenten (Hamburg: Felic Meiner Verlag).

- Bostock, D. (1995). Aristotle Metaphysics books Z and H (Oxford: Clarendon Press).
- Brandwood L. (1976). A world Index to Plato (Leeds: W.S.Maney & son Limited).
- Brenner W.H. (1993). Logic and Philosophy. (Notredame and London: University of Notredam Press).
- Brentano F. (1986). Über Aristoteles, Herausgegeben von Rolf George (Hamburg: Felix Meiner Verlag).
- Brinkmann, K. (1979). Aristoteles' Allgemeine und Spezielle Metaphysik (Berlin: Walter de Gruyter).
- Buchheim T., 1996, Genesis und substantielles Sein. Die analytik des werdens in Z 7-9,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105-132.
- Burger R., 1987, Is each thing the same as its essence?: On metaphysics Z. 6-11,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LI, No. 1, 53-76. [논문 XXVII, 179b-191a]
- Burnyct, M. (2001). A Map of Metaphysic Zeta (Pittsburgh: Mathesis Publications).
- Byrne P.H. (1997). Analysis and Science in Aristotl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ampbell R.L. (1973). Sophistes and Politicus of Plato, with a revised text and english notes (Oxford: the Clarendon Press).
- Chakrabarti, K.K. (1995). Definition and Induction(Honoluu: University of Hawai 'i press).
- Charles D. and Lennon K. (ed.) (1998). Reduction, Explanation, and Realism. (Oxford: Clarendon Press).
- Chen Chung-Hwan, 1957. Aristotle's concept of primary substance in Books Z and H of the metaphysics, Phronesis VOL. 2-NO. 1, 46-59. [I, 360-373].
- Chen Chung-Hwan, 1957. Aristotle's concept of primary substance in books Z and H of the metaphysics, Phronesis Vol. 2-NO. 1, 46-59. [I, 360-373].
- Chen Chung-Hwan, 1975. Aristotle's analysis of change and plato's Theory of Transcendent Ideas.", Phronesis VOL. XX-NO. 2, 129-145. [IV, 291b-299b].
- Cherniss H. (1962). Aristotle's Criticism of Plato and The Academy(Newyork: Russel & Russell · INC) pp.1-82(Diaeresis, Definition, and Demonstration).

- Code A. D., 1993. Vlastos on a metaphysical paradox, In *Virtue, Love & Form* ed. Irwin T. Edmonton: Academic Printing & Publishing, 85-98.
- Cohen S. M., 1978, Essentialism in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 No. 3, 387-405. [논문 XXVII, 219b-228b]
- Cohen S., 1984, Aristotle's doctrine of the material substance,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XCIII, No. 2, 171-194. [논문 XXVI 226b-238a]
- Cohen S., 1984. Aristotle's doctrine of the material substrate, *The Philosophical Review*, XCIII-NO. 2, In *ClassicalPhilosophy, VOL. VI(Aristotle: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95-118.
- Cooke, H.P. (treans.) (1949). *Aristotle the Organon I: The Categories On Interpretation* (Cambridge).
- Cornford, F. M. (1979). *Plato's Theor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Cornford, F. M., (trans.) (1979). *Plato's Theory of Knowledge*,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 Cousin D. R., 1933, Aristotle's doctrine of substance (I), *Mind*, Vol. XLII, 317-337, [논문 XXVI, 115b-124b]
- Cousin D. R., 1935, Aristotle's doctrine of substance (II), *Mind*, Vol. XLIV, 167-185, [논문 XXVI, 104a-112b]
- Crombie, I.M. (1979). *An Examination of Plato's Doctrines II. Plato on Knowlegde and Reality* Fourth impression with corrections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 Crombie, I.M. (1994). *Socratic Definition*. In *Plato's Meno*, ed. by Jane M. Day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pp.172-207.
- Dancy R. M., 1983. Aristotle and existence, *Synthese* 54, 409-442; In *The Logic of Being: Historical Studies*, ed. D. Knuuttila S. and Hintikka J. Dordrecht/Boston/Lancaster/Tokyo: Reidel Publishing Company, 1986, 49-80. [IX, 139a-155a].
- Dancy R., 1975, On some of aristotle's first thoughts about substance, *The Philosophical Review*, 19757, 338-373. [논문 XXVI, 50a-67b]
- Dancy R., 1978. On some of aristotle's second thoughts about substaces: matter, *The Philosophical Review*, LXXXVII-NO. 3, In *Classical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52-93.
- De Rijk, L.M. (2002). *Aristotle: Semantics and Ontology* vols 2 (Brill: Tuta sub Aegide Pallas).

- De Vogel C. J., 1960. The legend of the platonizing aristotle,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rth Century, ed. Düring I. and Owen G. E. L., Göter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248-25
- De Vogel C. J., 1968. Aristotle's attitude to plato and the theory of Ides, According to the Topics.", In Aristotle on Dialectic : The Topics, ed. Owen G. E. L., Oxford: The Clarendon Press, , 91-102.
- Demetra Sfendoni-Mentzou. (2002). Aristotle and Contemporary Science (Newyork: Peter Lang Publishing, Inc.).
- Demoss D. and Devereux D. (1988). Essence, existence and nominal definition in Aristotle's Posterior Analytics II 8-10, Phronesis VOL. 33, 133-154. [IV, 200a-211a].
- Diels H. und Kranz W. (hrsg.) (1974). Parmenides: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Erster Band, der 19. (Berlin: Weidmann). ss. 217-246.
- Diès, A. (1963). Définition de l'Être et Nature des Idées dans le sophiste de platon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 Dorter, K. (1994). Form and Good in Plato's Eleatics Dialogues : The Parmenides, Theaetetus, Sophist, and Statesman (Berkeley: University of Claifornia Press).
- Driscoll J. A., 1981. EIDH in aristotle's earlier and later thories of substance, In Classical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273-303.
- Driscoll J., 1979. The platonic ancestry of primary substance, Phronesis Vol. XXIV-NO. 3, 253-269. [IV, 213a-221b].
- Dumoulin, B. (1986). Analyse Génétique de la métaphysique D'Aristote (Paris: Les Belles Lettres)
- Décarie V. (1961). L'Objet de la Métaphysique selon Aristote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Vrin).
- Düring, I. (1966). Aristoteles (Heidelberg: Carl Winter · Univergitätverlag).
- Édouard des Places (1989). Lexique, Platon Oeuvers Complètes tome xiv (Paris: Les Belles Lettres).
- Eigler, Gunther. (hrsg.) (1990). Platon Bd. 6 : Theaitetos, Der Sophist, Der Staatsmann. (bearb. von Peter Staudacher. Griech. Text von Auguste Diès., Dt. Übers. von Friedrich Schleiermacher,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Elders L., 1968. The Topics and the Platonic Theory of Principles of Being, In Aristotle on Dialectic : The Topics, ed. Owen G. E. L., Oxford: The Clarendon Press, 126-137.
- Essler*, W.K. (1970). Wissenschaftstheorie 1: Definition und Reduktion.

Euclid. *The Thirteen Books of The Elements* Vol. I, trans. by Thomas L. Heath(New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56) pp.143-151(The Definitions).

Falcon A., (1966). Aristotle's rules of division in the topics : The relationship between of genus and differentia in a division, In *Ancient Philosophy*, Vol. 16, 377-387. [논문 XIV, 59b-64b].

Feibleman J. K., 1953, History of dyadic ontolog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VI, No. 3, 351-367. [논문 XXVI, 437b-446a]

Ferejohn M. T., 1980. Aristotle on focal meaning and the unity of science, *Phronesis* Vol. 25, NO. 1-2, 117-129. [IX, 117b-182a].

Ferejohn M.T. (1982). Definition and the two stages of aristotlian demonstration,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VI, No.2, pp.375-395. [논문집 XXVI]

Ficino. M., (1989). Icastes : Marsilio Ficino's Interpretation of Plato's Sophist, trans. by Michael J. B. All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ine G. (1983). Plato and aristotle on form and substance,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209, pp. 23-47; In *Plato's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Vol 4, ed. Irwin T. New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5, pp.235-259.

Flashar H. (hrsg.) (1993). Aristoteles: Analytica Posteriora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Wolfgang Detel Zweiter Halbband (Berlin: Akademie Verlag).

Flashar H. (hrsg.) (1993). Aristoteles: Analytica Posteriora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Wolfgang Detel Eerster Halbband (Berlin: Akademie Verlag).

Forster, E.S. and Tredennick, I. (trans.) (1966). Aristotle: Posterior Analytics and Topica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Fowler, H.N. (trans.) (1952). Plato Vol. II: Theaetetus Sophis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pp.261-458.

Frede M. and Chales D. (ed.) (2000), Aristotle's Metaphysics Lambda (Oxford: Clarendon Press).

Frede M. und Patzig G. (1988). Aristoteles 'Metaphysick Z' I·II text, übersetzung und kommentar (München: Verlag C.H.Beck).

Frede M. und Patzig G. (trans.) (1988). Arstotels 'Metaphysica Z': Einleitung, Text und Übersetzung Erster Band (München: Verlag C.H.Beck).

Frede M., 1987. Categories in aristotle., In *Essays in Ancient Philosophy*, ed. Frede M., Oxford: Clarendon Press, 29-48.

Frede M., 1987. Substance in Aristotle's metaphysics, In *Essays in Ancient Philosophy*, ed. Frede M., Oxford: Clarendon Press, 72–80.

Frede M., 1987. The unity of general and special metaphysics: Aristotle's Conception of Metaphysics.", In *Essays in Ancient Philosophy*, ed. Frede M., Clarendon Press, Oxford, 81–95.

Frede, M. (1967). Prädikation und Existenzaussag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Friedländer, P. (1964). Platon I · II · III, Dritte verbesserte Auflage (Berlin: Walter de Gruyter).

Friedrich G. (ed.) (1971).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s 9 (Michigan: WM. G. Eerdmans Publishing Company).

Furth M., 1978. Trans-temporal Stability in Aristotelean Substance, In *Classical Philosophy*, Vol. VI (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28–50.

Furth, M. (1988). Substance, Form and Psyche: an Aristotelean metaphys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uss, H. (1961). Philosophischer Handkommentar Zu Den Dialogen Plato III/I, (Berlin: Verlag Herbert Lang & Cie). ss.183–232.

Gentzler J. (1998). Method in Ancient Philosophy (Oxford: Clarendon Press).

Gerson L. P. (1986). A distinction in Plato's *Sophist*, *The Modern Schoolman* 63, 251–66; In *Plato : Critical Assessments*, Vol.4, ed. Smith N. 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125–141.

Gill M. L., 1996, "Metaphysics H 1–5 on perceptible substances.",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209–228.

Gill, M.L. (1989). Aristotle on Substance: The Paradox of Un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rski*, D.P. (1967). Über die Arten der Definition und ihre Bedeutung in der *Wiss. Stud. zur Logik der wiss. Erkenntnis* (Moskau 1964, dtsh. 1967) 361–433.

Gosling, J.C.B. (1973). Being and definition In *Plato* (London and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pp. 176–197.

Granger H. (1984). Aristotle on genus and differentia, In *Aristotle Critical Assessments II*, ed. Gerson L.P.,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pp.254–277.

Grice P., 1988. Aristotle on the multiplicity of being,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69, 175–200; In *Classical Philosophy*, VI (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1-26.

Guthrie W.K.C. (1978). A History of Greek Philosophy vols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ómez-Lobo A. (1977). Plato's description of dialectic in the Sophist 253d1-e2, *Phronesis* Vol. XXII-No. 1, 29-47. [I, 204-222].

Gómez-Lobo A., 1977, Aristotle's hypotheses and the euclidean postulate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 No. 3, 430-439. [논문 XXVII, 208a-212~1b]

Gómez-Lobo A., 1980. The so called question of existence in Aristotle, *An. Post.* 2. 1-2,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V, No. 1, 71-99 [II, 93-111].

Halper E.C. (1989). One and Many in Aristotle's Metaphysics the Central Book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Columbus).

Hamilton E. and Cairns H. (eds.) (1982).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Euthyphro*, trans. by Lane Coop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69-185.

Hamilton E. and Cairns H. (eds.) (1982).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Statesman*, trans. by Lane Coop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69-185.

Hamlyn D.W. (1976). Aristotelian epagoge, *Phronesis* Vol. XXI, Assen: VanGorcum, pp.167-184.

Haring E. S., 1956, Substantial form in Aristotle's metaphysics Z (I),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2, 308-332 [논문 XXVI, 70a-81a]

Haring E. S., 1956, Substantial form in Aristotle's metaphysics Z (II),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3, 483-501 [논문 XXVI, 84a-93b]

Haring E. S., 1956, Substantial form in Aristotle's metaphysics Z (III),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4, 698-713 [논문 XXVI, 94a-101b]

Hartman E., 1976, Aristotle on the identity of substance and essence, *The Philosophical Review*, LXXXV, 545-561. [논문 XVII, 202b-210b]

Hartmann N. (1965). Platos Logik des Seins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Heidegger M. (1981). Aristoteles, Metaphysik θ 1-3, Gesamtausgabe band 33, (Frankfurt: Vittorio Klostermann).

Heidegger, M. (1992). Gesamtausgabe band 19 Platon: Sophistes Vorlesungen 1919-1944 (Göttingen: Vittorio Klostermann).

Heinaman R. (1997). Frede and patzig on definition in metaphysics Z.10 and 11, Phronesis Vol. XVII, No.3 pp.283-298. [논문집 XXIX 298]

Hintikka J., 1986. The varieties of being in aritotle, In The Logic of Being: Historical Studies, ed. D. Knuuttila S. and Hintikka J. Dordrecht/Boston/Lancaster/Tokyo: Reidel Publishing Company, , 81-114. [IX, 155b-114a].

Hoyningen-Huene P. (1989). Reductionism and Systems Theory un the life Sciences.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Hölscher, (hrsg. u. übers.) (1969). Parmenides: Vom Wesen des Seienden (Frankfurt: Suhrkamp Verlag).

Hudlicky M. (1986). Reduction in Organic Chemistry. (Newyork: Ellis Horwood Limited).

Irwin T. H., 1977. Aristotle's discovery of metaphysic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 No. 2, 114-133 [II, 114-133].

Irwin T. H., 1981, Homonymy in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V, No. 3, 523-544. [논문 XXVII, 166b-177a]

Jaeger, W. (1961). Aristotle: Fundamentals of the History of His Development second edtion trans. by Richard Robinson (Oxford University Press).

Johnson P. A. (1978). Keyt on ἔτερον in the Sophist, Phronesis VOL. XXIII-NO. 2, 151-157. [I, 302-308].

Jones B., 1974, Aristotle's introduction of matter, The Philosophical Review, 1974년, 474-500. [논문 XXVII, 212a-224b]

Kahn C. H., 1966, The greek verb 'to be' and the concept of being, in Foundation of Language 2, 1966, pp.245-265 : 책90 pp.157-177.

Kahn C. H., 1973. Linguistics relativism and the greek project of ontology, In The Question of Being : East-West Perspective, ed. sprung M., Delhi: Sri Satguru Publications, , 31-44.

Kahn C. H., 1973. On the accent of ἐστὶ and its position in the sentence, In The Verb 'Be' and its Synonym : (6) The Verb 'Be' in Ancient Greek, Kahn C. H., D. Dordercht-Holland/Boston: Reidel Publishing Company, 420-434.

Kahn C. H., 1973. On the theory of the verb 'to be', In Logic and Ontology, ed. Munitz M. K.,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20.

Kahn C. H., 1973. The nominalized forms of the verb : τὸ ὄν and οὐσία, In The Verb 'Be' and its Synonym : (6) The Verb 'Be' in Ancient Greek, Kahn C. H., D. Dordercht-Holland/Boston: Reidel

Publishing Company, 453-462.

Kahn C. H., 1981. Some philosophical uses of 'to be' in plato, *Phronesis* Vol. XXVI-NO. 2, 105-407. [I, 378-134]. [I, 458-460 : Review]

Karl-Heinz Volkman-Schluck. (1979). Die Metaphysik des Aristoteles (Frankfurt: Vittorio Klostermann).

Ketchum R. J. (1978). Participation and predication in the sophist 251-260, *Phronesis* Vol. XXIII-NO. 1, pp.42-61. [I, 237-255].

Kirk G.S. & Raven J.E. (1966).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pp. 263-287.

Kirwan, C. (1993). Aristotle Metaphysics books Γ, Δ, and E (Oxford: Clarendon Press).

Klein, J. (1977). Plato's Trilogy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lubert G. P., 1957, The problem of the analogy of being,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4, 553-579. [논문 XXVI, 456b-469b]

Kneale W. and Kneale M. (1978). The Development of Logic, with corrections (Oxford: Clarendon Press). pp.77-81.

Kostman J. R. (1973). False Logos and Not-Being in Plato's Sophist, In *Patterns in Plato's Thought*, ed. J. Moravcsik, Dordrecht-Holland/Boston: M. E., D. Reidel Publishing Company[I, 163-183].

Krämer H.J. (1959). Arete bei Platon und Aristoteles: Zum Wesen und zur Geschichte der platonischen Ontologie (Heidelberg: Carl Winter · Universitätsverlag).

Lacey A. R., 1965. οὐσία and form in aristotle, *Phronesis* VOL. X-NO. 1, 54-69. [I, 433-448].

Lacey A. R., 1965. οὐσία and form in aristotle, *Phronesis* VOL. X-NO. 1, 54-69. [I, 433-448].

Lang H. S., 1981, Aristotle's immaterial mover and the problem of location in physics VIII,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V, 198112, 321-335. [논문 XXVII, 310b-317b]

Larkin S.M.T. (1971). Language in The Philosophy of Aristotle (Paris · The Hague: Mouton).

Laycok H., 1972, Some question of ontology, *The Philosophical Review*, 3-42. [논문 XXVI, 502b-522a]

Lenz W. (1998). The Problem of Motion in the Sophist, *Aperion*, Vol. XXXI, No. 4, 89-108.

- Leo Elders S.V.D. (1960). Aristotle's Theory of The One (Assen: Van Gorcum & Comp. N.V.).
- Leo Elders, S.V.D. (1960). Aristotle's Theory of The One a Commentary on Book X of the Metaphysics (Assen: Van Gorcum & Comp. N.V.).
- Leszl, W. (1970). Logic and Metaphysics in Aristotle (Padova: Editrice Antenore).
- Lewis F. K., 1982. Accidental Sameness in Aristotle, *Philosophica Studies* 42, In *Classical Philosophy, VII(Aristotle : Metaphysics, epistemology, natural Philosophy)*, ed. Irwin, T., Grand publishing Inc., New york & London, 157-192..
- Lindbeck G., 1957, Philosophy and existenz in early christianit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3, 428-440. [논문 XXVI, 410a-417]
- Loux M. J., 1979, Form, species and predication in metaphysics Z, H, and θ , *Mind*, Vol, 1-23. [논문 XXVI, 145b-156b]
- Loux, M.J. (1991). Primary Ousia: An Essay and Aristotle's Metaphysics Z and H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Lukasiewicz J., 1971, On the principle of contradiction in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IV, No. 3, 485-509. [논문 XXVI, 240b-252b]
- Lukasiewicz, J. (1998). Aristotle's Syllogistic: From the Standpoint of Modern Formal Logic second edition enlarged (Oxford: The Clarendon Press). pp.111-120.
- Mackinnen D. M., 1965. Aristotle's conception of substance, In *New Essays on Plato and Aristotle*, ed. Bambrough 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97-119. [IV, 185a-196b].
- Malcolm J. (1967). Plato's analysis of $\tau\acute{o} \acute{\omicron}\nu$ and $\tau\acute{o} \mu\eta \acute{\omicron}\nu$ in the Sophist, *Phronesis* Vol. 12, 130-146. [I, 332-348].
- Manley T., 1953, On aristotle's square of opposi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LXII, 251-265. [논문 XXVI, 380b-387b]
- Mansfeld, J. (1964). Die Offenbarung des Parmenides und die menschliche Welt (Assen: Van Gorcum & Comp. N.V.).
- Marx, W. (1972). Einführung in Aristotelesä Theorie vom Seinden (Freiburg: Verlag Rombach).
- Matthen M., 1983. Greek ontology and the 'is' of truth, *Phronesis* Vol. 28-NO. 2, 113-135. [I, 409-135].
- Matthews, G. (1972). Plato's Epistemology and related logical Problems (London: Faber & Faber).

- McDowell J. (1982). Falsehood and Not-Being in Plato's Sophist, Language and Logo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5-34; In Classical Philosophy ed. by T. Irwin, Vol. IV, 1995, 283-302.
- McKirahan R., 1995. Aristotle's metaphysic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sterior analytics,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ed. Cleary J. J. and Wians, Vol. XI, Lanham/Newyork/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75-306..
- Mei Tsu-Lin, 1961, Subject and predicate, a grammatical preliminary,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LXX, 153-175. [논문 XXVI, 398b-409b]
- Menne A., 1982, Concerning the logical analysis of 'existence', The Monist, Vol. 65, No 4, 415-419. [논문 XXVI, 169a-171b]
- Mesch W., 1996, Die teile der definition (Z 10-11),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135-256.
- Meyer S.S. (1992). Aristotle, teleology, and reduction, In Classical Philosophy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5. pp.81-115.
- Miller B., 1986, Exist and existenc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L, No. 2, 237-270. [논문 XXVII, 341b-34ba]
- Montet D. (1990). Les traits de l'être: Essai sur l'ontologie platonicienne (Grenoble: Jérôme Millon)
- Moravcsik J. (1992). Platonism in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and general ontology, In Plato and Platonism ed. Barnes J., Oxford & Cambridge: Blackwell, 253-290.
- Moravcsik J. (1992). The eleatic-proof theory of forms of the sophist, In Plato and Platonism. Oxford UK & Cambridge: Blackwell, pp.168-212.
- Moravcsik J. (1992). The ontology of order reconsidered: the divisions and the philebus, In Plato and Platonism ed. Barnes J., Oxford UK & Cambridge: Blackwell,, 213-249.
- Moravcsik, J.M.E. (ed.) (1973). Patterns in Plato's Thought (Boston: D.Reidel Publishing Company).
- Morrison D., 1996, Substance as cause (Z 17),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193-208.
- Morrison D., The place of unity in aristotle's metaphysical project,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ed. by Cleary J. J. and Wians W., Vol. IX, Lanham, Newyork, and London: Press of America, 1993, 131-156.
- Moutafakis N. J., 1982, Aristotle's metaphysics (book lambda) and the logic of events," The Monist, Vol. 65, No. 4, 420-536. [논문 XXVI, 172a-179a]

- Munitz M.K. (ed.) (1973). Logic and Ontolog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Nakhnikian G. and Salmon W. C., 1957, 'Exist' as Predicate, *The Philosophical Review*, 1957 10, 535-542. [논문 XXVI, 496b-500a]
- Nehamas A. (1989). Epostēmē and logos in plato's later thought, In *Essay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III : Plato* ed. Anton J. and Preus 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67-292.
- Nicholas R., 1959, On the logic of existence and denota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LXVIII, 157-180. [논문 XXVI, 525b-537a]
- O'brien D. (1995). Le Non-Être: Deux Études sur le Sophiste de Platon (Sankt Augustin: Academia-Verlag).
- O'Brien D., 1995. Aristotle's theory of movement,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ed. Cleary J. J. and Wians, Vol. XI, Lanham/Newyork/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47-100.
- Ohler, K. (1986). Aristoteles Kategorien (Berlin: Akademie-Verlag).
- Owen G. E. L. (lecture) (1967). Plato on Not-Being, In *Plato I: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ed. G. Vlastos (Garden City, N.Y. : Doubleday, 1970, repr.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8), pp.223-67; In *Logic, Science, and Dialectic* ed. by Nussbaum M.,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p.104-137.
- Owen G. E. L., (1986). Aristotle on the snares of ontology, In *Logic, Science, and Dialectic* ed. by Nussbaum M.,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59-278.
- Owen G. E. L., 1960. Logic and metaphysics in some earlier work of aristotle,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rth Century*, ed. Düring I. and Owen G. E. L., Göter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163-190.
- Owen G.E.L. (1986). Logic, Science, and Dialectic (Ihtaca and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Owen G.E.L. and Düring I. (ed.) (1960).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urth Century (Göte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 Owens J., 1960, Aristotle on categorie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IV, No. 1, 73-90. [논문 XIV, 105b-114a]
- Owens J., 1973. Being in early western tradition, In *The Question of Being : East-West Perspective*, ed. sprung M., Delhi: Sri Satguru Publications, 17-30.
- Owens J., 1973. The Content of existence, In *Logic and Ontology*, ed. Munitz M. K.,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1-35.

Owens, J. (1963). The Doctrine of Being in the Aristotelia Metaphysics Second edition revised (Toronto: Pontifical Institute of Mediaeval Studies).

Page C., 1985, Predicating forms of matter in aristotle's metaphysic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X, No. 1, 57-82. [논문 XXVII, 193b-206a]

Palmer J.A. (1999). Plato's Reception of Parmenides (Oxford: Clarendon Press).

Peck A. L., 1962. Plato's Sophist : the συμπλοκή τῶν εἰδῶν, Phronesis Vol. 7, 46-66. [I, 257-276].

Pelletier, F.J. (1990). Parmenides, Plato, and the Semantics of Not-being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eters F.E. (1967). Greek Philosophical Terms: A Historical Lexic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Rapp C., 1996, 'Kein allgemeines ist substanz' (Z 13, 14-16),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157-192.

Rapp C., 1996, Substanz als vorrangig seindes (Z 1),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27-40. [책 44-1]

Rapp, C. (hrsg.) (1996).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Z, H, Θ) (Berlin: Akademie Verlag).

Reale, G. (1980). The concept of First Philosophy and the Unity of the Metaphysics of Aristotle Edited and translated by John R. Cata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Ricoeur, P. (1968). Platon et Aristote: Etre, Essence et Substrance chez Platon et Aristote, Cours professeés à l'Université de Strasbourg en 1953-1954 (Paris: Centre de Documnetation Universitaire).

Ritter J. (hrsg.) (1961-2001).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ände 1-11 (Basel: Schwabe & Co Ag · Verlag).

Ritter J. und Gründer K. (hrsg.) (1992).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nd 8 (Basel: Schwabe & Co Ag · Verlag). s.v. 'Reduction', ss.370-383.

Ritter, C. (1910). Neue Untersuchungen über Platon (München: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Roberts J. (1986). The problem about being in the sophist,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3, pp. 229-43; In Plato : Critical Assessments, Vol.4, ed. N. D. Smit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pp.142-157.

Robinson, R. (1953). Plato's earlier Dialectic(Oxford: The Clarendon Press) pp.49-60(Socratic Defintion).

- Robinson, R. (1954). Definition(Oxford: The Clarendon Press).
- Rosen, S. (1983). Plato's Sophist : The Drama of Original and Imag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Ross, W.D. (1923). Aristotle (London: Methuen & CO. LTD.).
- Ross, W.D. (1953). Plato's Theory of Ideas (Oxford: The Clarendon Press).
- Ross, W.D. (1924). Aristotle's Metaphysics vols 2: A Revised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87).
- Ross, W.D. (trans.) (1928).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Vol. VIII: Metaphysica (Oxford).
- Ross* W.D. (1949). Aristotle's Prior and Posterior Analytics, A revised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Oxford, 1957).
- Rudebusch G. (1989). Plato's aporetic styl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27. pp.539-47; In Plato Critical Assessments I ed. Smith 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pp.349-356.
- Sallis, J. (1996). Being and Logos : Reading the Platonic Dialogues, third edi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Sayer K.M. (1969). Plato's Analytic Methode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yre K.M. (1983). Plato's late Ontology A riddle resolved (Princeton a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ipper E. W. (1964). The meaning of existence in Plato's Sophist, Phronesis Vol. 9, NO. 1, 38-44. [I, 323-329].
- Scodel, H.R. (1987). Diaeresis and Myth in Plato's Statesma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Seligman, P. (1974). Being and Not-Being: An introduction to plato's sophist, (The Hague: Martinus nijhoff).
- Sellars W., 1957. Substance and form in aristotle, In Classical Philosophy,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140-151.
- Smart R. N., 1956, Being and the bib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IX, No. 4, 589-608. [논문 XXVII, 330b-
- Smith J.A., 1921. Τόδε τι in Aristotle, In Classical Philosophy, Vol.VI (Aristotle : Substance, Form

-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51.
- Smith, R. (1989). Aristotle: Prior Analytics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 Solmsen F., 1960. Platonic influences in the formation of Aristotle's physical system,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urth Century*, ed. Düring I. and Owen G. E. L., Göte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företag, 213-235.
- Sonderogger E. (1983). Die Bildung des Ausdrucks τὸ τί ἦν εἶναι durch Aristoteles, In *Das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Hrsg.) von Karl-Heinz Ilting, Berlin: Walter de Gruyter, ss.18-39.
- Sorabji R. (1980). Necessity, Cause, and Blame: Perspectives on Aristotle's Theory (Ithaca an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Sprung M. (ed.) (1995). The Question of Being: East-West Perspectives (Delphi: Sri Satguru Publications).
- Steinfath H., 1996, Die Einheit der Definition und die Einheit der Substanz: Zum Verhältnis von Z 12 und H 6,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229-252.
- Stenzel J. (1931). Studien zur Entwicklung der Platonischen Dialektik von Sokrates zu Aristoteles, zweite erweiterte Auflage (Leipzig und Berlin: Verlag und Druck von B.G. Teubner).
- Theodorakopoulos J. (1927). Platons Dialektik des Seins (Tübingen: Verlag von K.C.B. Mohr).
- Thomae Aquinatis (1950). Metaphysicorum Aristotelis Expositio, Editio M.-R. Cathala (Romae: Marietti).
- Thorp J. W., 1974. Aristotle's use of categories : An easing of the oddness in metaphysics D7, *Phronesis* VOL. XIX, 238-256. [IV, 52a-61a].
- Tredennick, H. (trans.) (1947). Aristotle. The metaphysics 2 vol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ooks I-XIV.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Trenaskis J.R. (1967). Division and its relation to dialectic and ontology in Plato, *Phronesis* vol. XII, pp.118-129. [논문집 XXIX, 226].
- Trevaskis J. R. (1966). The μέγιστα γένη and the vowel analogy of Plato, *Phronesis* Vol. XI-No.2, 99-116. [I, 185-202].
- Tugendhat, E. (1988). ΤΙ ΚΑΤΑ ΤΙΝΟΣ (München/Freiburg: Verlag Karl Alber)
- Upton T. V., 1983, Psychological and metaphysical dimensions of non-contradiction in Aristotle,

-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VI, No. 3, 591-606. [논문 XXVII, 230b-238a]
- Upton T. V., 1985, Aristotle on hypothesis and the unhypothesized first princip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X, No. 2, 283-301. [논문 XXVII, 240b-249b]
- Van Fraassen B. C. (1969). Logical structur in the plato's sophist,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II, No. 3, pp. 482-498. [논문 XIV. 3b-21a].
- Vanhoutte M. (1956). La Méthode Ontologique de Platon (Paris: Béatrice-Nauwelaerts).
- Verdenius W.J. and Van Winden J.C.M. (eds.) (1990). Simplicius Commentare sur les Catégories (Leiden: Tuta sub Aegide Pallas).
- Vlastos G. (1963). On plato's Oral Doctrin: Review of Hans Joachim Krämer, Arete bei Platon und Aristoteles, Zum Wesen und zur Geschichte der platonischen Ontologie[Heidelberg, 1959], 600pp. In Platonic Stud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p.379-398.
- Vlastos G. (1973). An Ambiguity in the Sophist,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70-322.
- Vlastos G. (1973). Platonic Stud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lastos G., 1965. Degree of reality in plato, New Essays in Plato and Aristotle ed. Baumbrough 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58-75.
- Vlastos G., 1966. A metaphysical paradox, Proceesing and Address of the Amer. Philos. Association 39, 5-19;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43-57.
- Vlastos G., 1973. Plato on knowledge and reality,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74-378.
- Vlastos G., 1973. The 'two-level paradoxes' in aristotle.",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323-334.
- Waletzki W., 1979. "Plato's ideenlehre und dialektik im sophistes 253d.", Phronesis Vol. XXIV - No. 3, 241-252. [224-235].
- Walton W., 1952, FR. Owens and the metaphysics of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VI, No. 2, 257-264. [논문 XXVII, 181b-185a]
- Wedin M. V., 1996, Subjects and substance in metaphysics Z 3,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41-74. [책 44-1]
- Wedin, M.V. (2000). Aristotle's Theory of Substance: the Categories and Metaphysics Zeta (Oxford

University Press).

Wehrh W. E., 1994, Metaphysics Z 3 : An announcement of 'metaphysical' inquiry, Mind, Vol. XXVII, No. 3, 191-224. [논문 XVI, 127b-224a]

Weidemann H., 1996, Zum begriff des τὴν ἐλευθερίαν und zum verständnis von Met. Z 4, 1029b22-1030a6,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75-104.

Weidemann H. (1989). Aristotle on inferences from signs: Rhetoric I 2, 1357b1-25. Phronesis XXXIV, No. 3, pp.343-351. [논문집 XXIX, 191].

White N. P., 1971. Aristotle on sameness and oneness, Philosophical Review 89, In Classical Philosophy, VII(Aristotle : Metaphysics, epistemology, natural Philosophy),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35-155.

White N. P., 1972, Origins of Aristotle's essentialism,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VI, No. 1, 57-85. [논문 XXVII, 212~1b-217b]

White N.P. (1976). Plato on Knowledge and Reality (Indianapolis ·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Witt, C. (1989). Substance and Essence in Aristotle: An Interpretation of Metaphysics VII-IX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Wittgenstein L. (1958). The Blue and Brown Books (New York: Basil Blackwell).

Woods M. J., 1975. Substance and essence in Aristotle, In Classical 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209-222..

Yoshida R.M. (1997). Reduction in the Physical Sciences. (Dalhousie University Press).

Zeller, E. (1839). Platonische Studien (Tübingen: bei C.F.Osiander).

bibliography 2(단행본과 논문)

2-1)text

Diels H. und Kranz W. (hrsg.) (1974),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Erster Band, der 19. (Berlin: Weidmann).

Burnet, I. (ed.) (1922). Ευθυφρων: Platonis Opera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2a-16a(pp.1-23).

Burnet, I. (ed.) (1922). Σωφιστής: Platonis Opera Vol.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16a-268d(pp.357-442).

Burnet, I. (ed.) (1922). Πολιτικός: Platonis Opera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257a-311c(pp.443-442).

Bekkeri, Immanuel (1831). Κατηγοριαι: Aristoteles Graece, Volumen Prius.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1a-15b.

Bekkeri, Immanuel (ed.) (1831). Τὰ Μετὰ τὰ Φυσικά: Aristoteles Graece, Volumen Alterum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980a-1903b.

Bekkeri, Immanuel (ed.) (1831). Ἀναλυτικὰ πρότερα καὶ ὕστερα: Aristoteles Graece Volumen Prius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24a-100b.

Bekkeri, Immanuel (ed.) (1831). Τοπικά: Aristoteles Graece, Volumen Alterum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100a-164b.

2-1-1)번역

Hölscher, (hrsg. u. übers.) (1969). Parmenides: Vom Wesen des Seienden (Frankfurt: Suhrkamp Verlag).

Hamilton E. and Cairns H. (eds.) (1982).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Euthyphro, trans. by Lane Cooper(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69-185.

Eigler, Gunther. (hrsg.) (1990). Platon Bd. 6 : Theaitetos, Der Sophist, Der Staatsmann. (bearb. von Peter Staudacher. Griech. Text von Auguste Diès., Dt. Übers. von Friedrich Schleiermacher,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Fowler, H.N. (trans.) (1952). Plato Vol. II: Theaetetus Sophis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pp.261-458.

Cornford, F. M., (trans.) (1979). Plato's Theory of Knowledge,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Hamilton E. and Cairns H. (eds.) (1982).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Statesman, trans. by

Lane Cooper(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69-185.

Ackrill, J.L. (trans.) (1963). Aristotle's Categories and De Interpretatione (Oxford: Clarendon Press).

Ross, W.D. (trans.) (1928).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Vol. VIII: Metaphysica (Oxford).

Tredennick, H. (trans.) (1947). Aristotle. The metaphysics 2vol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ooks I-XIV.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Frede M. und Patzig G. (trans.) (1988). Arstotels 'Metaphysica Z': Einleitung, Text und Übersetzung Erster Band (München: Verlag C.H.Beck).

Cooke, H.P. (trans.) (1949). Aristotle the Organon I: The Categories On Interpretation (Cambridge).

Barnes, J. (ed.) (1984).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Prior Analytics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 I, trans. by Jenkins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9-113.

Barnes, J. (ed.) (1984).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Posterior Analytics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 I, trans. by Barnes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14-166.

Flashar H. (hrsg.) (1993). Aristoteles: Analytica Posteriora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Wolfgang Detel Erster Halbband (Berlin: Akademie Verlag).

Forster, E.S. and Tredennick, I. (trans.) (1966). Aristotle: Posterior Analytics and Topica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2-2)Context

2-2-1)단행 본

박홍규(1995). 박홍규전집1: 희랍 철학 논고. <박홍규전집> 간행위원회(편). 서울: 민음사.

박홍규(1995). 박홍규전집2: 형이상학 강의1. <박홍규전집> 간행위원회(편). 서울: 민음사.

박홍규(2004). 박홍규전집3:형이상학 강의2. <박홍규전집> 간행위원회(편). 서울: 민음사.

박홍규(2004). 박홍규전집4: 플라톤 후기 철학 강의. <박홍규전집> 간행위원회(편). 서울: 민음사.

조요한(1995). 아리스토텔레스의 哲學. 서울: 경문사.

조요한 외(1988). 希臘哲學研究. 서울: 종로서적.

김완수(1999). 플라톤 철학의 재음미.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김완수 외(2002). 서양 고·중세 철학과 그 유구한 문제들.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박종현(1982). 희랍 사상의 이해. 서울: 종로서적
- 박종현(2001). 헬레스 사상의 심층. 서울: 서광사.
- 김내균(1996).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 서울: (주)교보문고.
- 김태경(2000). 플라톤의 후기 인식론.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Ackrill, J.L. (trans.) (1963). Aristotle's Categories and De Interpretatione (Oxford: Clarendon Press).
- Allen, R.E. (1970). Plato's 'Euthyphro' and the Earlier Theory of Form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Apelt, O. (1891).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Griechischen Philosophie (Leipzig: Druck und Verlag von B.G.Teubner).
- Aubenque P. (1962). Le Problème de L'Être chez Aristote (Paris: Presse Universitaires de France).
- Barnes, J. (ed.) (1984).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Posterior Analytics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 I, trans. by Barnes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14-166.
- Barnes, J. (ed.) (1984).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Prior Analytics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 I, trans. by Jenkins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9-113.
- Beierwaltes W. (1980). Identität und Differenz (Frankfurt: Vittorio Klostermann).
- Bekkeri, Immanuel (1831). Κατηγοριαι: Aristoteles Graece, Volumen Prius.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1a-15b.
- Bekkeri, Immanuel (ed.) (1831). 'Αναλυτικὰ πρότερα καὶ ἕστερα: Aristoteles Graece Volumen Prius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24a-100b.
- Bekkeri, Immanuel (ed.) (1831). Τὰ Μετὰ τὰ Φυσικά: Aristoteles Graece, Volumen Alterum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980a-1903b.
- Bekkeri, Immanuel (ed.) (1831). Τοπικά: Aristoteles Graece, Volumen Alterum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100a-164b.
- Bekkeri, Immanuel (ed.)(1831). Τα Μετα τα Φυσικα: Aristoteles Graece, Volumen Alterum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980a-1903b.
- Bluck, R. S. (1975). Plato's Sophist ed. by Neal G. C. (Oxfor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onevac D.A. (1982). Reduction in the Abstract Sciences. (Indianapolis: Regeview Publishing Company).

- Bonitz H. (1961). Index Aristotelicus, Aristotelis Opera Volumen Quintum (ed.) Academia Regia Borussica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 Bonitz, H. (1886). Platonische Studien (Berlin).
- Bonitz, H. (1960). Aristotelis Metaphysica Commentarius, Unveränderter Nachdruck der Ausgabe Aristotelis Metaphysica Volumen II, Bonn 1849 (Hildesheim: Gerog Olms Verlagsbuchhandlung).
- Bonitz, H. (übers.) (1994). Aristoteles Metaphysik, hrsg. von Wellmann (rowohlts enzyklopädie).
- Bormann, K. (1971). Parmenides: Untersuchungen zu den Fragmenten (Hamburg: Felic Meiner Verlag).
- Bostock, D. (1995). Aristotle Metahysics books Z and H (Oxford: Clarendon Press).
- Brandwood L. (1976). A world Index to Plato (Leeds: W.S.Maney & son Limited).
- Brenner W.H. (1993). Logic and Philosophy. (Notredame and London: University of Notredam Press).
- Brentano F. (1986). Über Aristoteles, Herausgegeben von Rolf George (Hamburg: Felix Meiner Verlag).
- Brinkmann, K. (1979). Aristoteles' Allgemeine und Spezielle Metaphysik (Berlin: Walter de Gruyter).
- Burnet, I. (ed.) (1922). Ευθυφρων: Platonis Opera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2a-16a(pp.1-23).
- Burnet, I. (ed.) (1922). Πολιτικός: Platonis Opera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257a-311c(pp.443-442).
- Burnet, I. (ed.) (1922). Σωφιστής: Platonis Opera Vol.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16a-268d(pp.357-442).
- Burnyet, M. (2001). A Map of Metaphysic Zeta (Pittsburgh: Mathesis Publications).
- Byrne P.H. (1997). Analysis and Science in Aristotl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harles D. and Lennon K. (ed.) (1998). Reduction, Explanation, and Realism. (Oxford: Clarendon Press).
- Campbell R.L. (1973). Sophistes and Politicus of Plato, with a revised text and english notes (Oxford: the Clarendon Press).

- Chakrabarti, K.K. (1995). Definition and Induction(Honoluu: University of Hawai 'i press).
- Cherniss H. (1962). Aristotle's Criticism of Plato and The Academy(Newyork: Russel & Russell · INC) pp.1-82(Diaeresis, Definition, and Demonstration).
- Cooke, H.P. (treans.) (1949). Aristotle the Organon I: The Categories On Interpretation (Cambridge).
- Cornford, F. M. (1979). Plato's Theor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Cornford, F. M., (trans.) (1979). Plato's Theory of Knowledge,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 Crombie, I.M. (1979). An Examination of Plato's Doctrines II. Plato on Knowlegde and Reality Fourth impression with corrections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 Crombie, I.M. (1994). Socratic Definition. In Plato's Meno, ed. by Jane M. Day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pp.172-207.
- De Rijk, L.M. (2002). Aristotle: Semantics and Ontology vols 2 (Brill: Tuta sub Aegide Pallas).
- Demetra Sfendoni-Mentzou. (2002). Aristotle and Contemporary Science (Newyork: Peter Lang Publishing, Inc.).
- Diels H. und Kranz W. (hrsg.) (1974). Parmenides: Die Fragmente Der Vorsokrtiker, Erster Band, der 19. (Berlin: Weidmann). ss. 217-246.
- Diès, A. (1963). Définiton de l'Être et Nature des Idées dans le sophiste de platon (Paris: Librairue Philosophique J. Vrin).
- Dorter, K. (1994). Form and Good in Plato's Eleatics Dialogues : The Parmenides, Theaetetus, Sophist, and Statesman (Berkeley: University of Claifornia Press).
- Dumoulin, B. (1986). Analyse Génétique de la métqphysique D'Aristote (Paris: Les Belles Lettres)
- Décarie V. (1961). L'Objet de la Métaphysique selon Qristote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Vrin).
- Düring, I. (1966). Aristoteles (Heidelberg: Carl Winter · Univergitätverlag).
- Édouard des Places (1989). Lexique, Platon Oeuvers Complètes tome xiv (Paris: Les Belles Lettres).
- Eigler, Gunther. (hrsg.) (1990). Platon Bd. 6 : Theaitetos, Der Sophist, Der Staatsmann. (bearb. von Peter Staudacher. Griech. Text von Auguste Diès., Dt. Übers. von Friedrich Schleiermacher,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Essler*, W.K. (1970). Wissenschaftstheorie 1: Definition und Reduktion.

Euclid. The Thirteen Books of The Elements Vol. I, trans. by Thomas L. Heath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56) pp.143–151 (The Definitions).

Ficino, M., (1989). Icastes : Marsilio Ficino's Interpretation of Plato's Sophist, trans. by Michael J. B. All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lashar H. (hrsg.) (1993). Aristoteles: Analytica Posteriora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Wolfgang Detel Zweiter Halbband (Berlin: Akademie Verlag).

Flashar H. (hrsg.) (1993). Aristoteles: Analytica Posteriora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Wolfgang Detel Erster Halbband (Berlin: Akademie Verlag).

Forster, E.S. and Tredennick, I. (trans.) (1966). Aristotle: Posterior Analytics and Topica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Fowler, H.N. (trans.) (1952). Plato Vol. II: Theaetetus Sophis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pp.261–458.

Frede M. and Chales D. (ed.) (2000), Aristotle's Metaphysics Lambda (Oxford: Clarendon Press).

Frede M. und Patzig G. (1988). Aristoteles 'Metaphysik Z' I · II text, übersetzung und kommentar (München: Verlag C.H.Beck).

Frede M. und Patzig G. (trans.) (1988). Aristoteles 'Metaphysica Z': Einleitung, Text und Übersetzung Erster Band (München: Verlag C.H.Beck).

Frede, M. (1967). Prädikation und Existenzaussag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Friedländer, P. (1964). Platon I · II · III, Dritte verbesserte Auflage (Berlin: Walter de Gruyter).

Friedrich G. (ed.) (1971).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s 9 (Michigan: WM. G. Eerdmans Publishing Company).

Furth, M. (1988). Substance, Form and Psyche: an Aristotelean metaphys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uss, H. (1961). Philosophischer Handkommentar Zu Den Dialogen Plato III/I, (Berlin: Verlag Herbert Lang & Cie). ss.183–232.

Gentzler J. (1998). Method in Ancient Philosophy (Oxford: Clarendon Press).

Gill, M.L. (1989). Aristotle on Substance: The Paradox of Un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rski*, D.P. (1967). Über die Arten der Definition und ihre Bedeutung in der Wiss. Stud. zur Logik

der wiss. Erkenntnis (Moskau 1964, dtsh. 1967) 361–433.

Guthrie W.K.C. (1978). A History of Greek Philosophy vols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lper E.C. (1989). One and Many in Aristotle's Metaphysics the Central Book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Columbus).

Hamilton E. and Cairns H. (eds.) (1982).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Euthyphro, trans. by Lane Coop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69–185.

Hamilton E. and Cairns H. (eds.) (1982).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Statesman, trans. by Lane Coop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69–185.

Hartmann N. (1965). Platos Logik des Seins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Heidegger M. (1981). Aristoteles, Metaphysik θ 1–3, Gesamtausgabe band 33, (Frankfurt: Vittorio Klostermann).

Heidegger, M. (1992). Gesamtausgabe band 19 Platon: Sokrates Vorlesungen 1919–1944 (Göttingen: Vittorio Klostermann).

Hoyningen-Huene P. (1989). Reductionism and Systems Theory in the Life Sciences.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Hölscher, (hrsg. u. übers.) (1969). Parmenides: Vom Wesen des Seienden (Frankfurt: Suhrkamp Verlag).

Hudlicky M. (1986). Reduction in Organic Chemistry. (New York: Ellis Horwood Limited).

Jaeger, W. (1961). Aristotle: Fundamentals of the History of His Development second edition trans. by Richard Robinson (Oxford University Press).

Karl-Heinz Volkman-Schluck. (1979). Die Metaphysik des Aristoteles (Frankfurt: Vittorio Klostermann).

Kirk G.S. & Raven J.E. (1966).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pp. 263–287.

Kirwan, C. (1993). Aristotle Metaphysics books Γ , Δ , and E (Oxford: Clarendon Press).

Klein, J. (1977). Plato's Trilogy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neale W. and Kneale M. (1978). The Development of Logic, with corrections (Oxford: Clarendon Press). pp.77–81.

- Krämer H.J. (1959). Arete bei Platon und Aristoteles: Zum Wesen und zur Geschichte der platonischen Ontologie (Heidelberg: Carl Winter · Universitätsverlag).
- Larkin S.M.T. (1971). Language in The Philosophy of Aristotle (Paris · The Hague: Mouton).
- Leo Elders S.V.D. (1960). Aristotle's Theory of The One (Assen: Van Gorcum & Comp. N.V.).
- Leo Elders, S.V.D. (1960). Aristotle's Theory of The One a Commentary on Book X of the Metaphysics (Assen: Van Gorcum & Comp. N.V.).
- Leszl, W. (1970). Logic and Metaphysics in Aristotle (Padova: Editrice Antenore).
- Loux, M.J. (1991). Primary Ousia: An Essay and Aristotle's Metaphysics Z and H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Lukasiewicz, J. (1998). Aristotle's Syllogistic: From the Standpoint of Modern Formal Logic second edition enlarged (Oxford: The Clarendon Press). pp.111-120.
- Mansfeld, J. (1964). Die Offenbarung des Parmenides und die menschliche Welt (Assen: Van Gorcum & Comp. N.V.).
- Marx, W. (1972). Einführung in Aristotelesä Theorie vom Seinden (Freiburg: Verlag Rombach).
- Matthews, G. (1972). Plato's Epistemology and related logical Problems (London: Faber & Faber).
- Montet D. (1990). Les traits de l'être: Essai sur l'ontologie platonicienne (Grenoble: Jérôme Millon)
- Moravcsik, J.M.E. (ed.) (1973). Patterns in Plato's Thought (Boston: D.Reidel Publishing Company).
- Munitz M.K. (ed.) (1973). Logic and Ontolog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O'brien D. (1995). Le Non-Être: Deux Études sur le Sophiste de Platon (Sankt Augustin: Academia-Verlag).
- Ohler, K. (1986). Aristotles Kategorien (Berlin: Akademie-Verlag).
- Owen G.E.L. (1986). Logic, Science, and Dialectic (Ihtaca and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Owen G.E.L. and Düring I. (ed.) (1960).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urth Century (Göte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 Owens, J. (1963). The Doctrine of Being in the Aristotelia Metaphysics Second edition revised (Toronto: Pontifical Institute of Mediaeval Studies).
- Palmer J.A. (1999). Plato's Reception of Parmenides (Oxford: Clarendon Press).

- Pelletier, F.J. (1990). Parmenides, Plato, and the Semantics of Not-being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ters F.E. (1967). Greek Philosophical Terms: A Historical Lexic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Rapp, C. (hrsg.) (1996).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Z, H, Θ) (Berlin: Akademie Verlag).
- Reale, G. (1980). The concept of First Philosophy and the Unity of the Metaphysics of Aristotle Edited and translated by John R. Cata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Ricoeur, P. (1968). Platon et Aristote: Etre, Essence et Substrance chez Platon et Aristote, Cours profeseés à l'Université de Strasbourg en 1953-1954 (Paris: Centre de Documnetation Universitaire).
- Ritter J. (hrsg.) (1961-2001).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ände 1-11 (Basel: Schwabe & Co Ag · Verlag).
- Ritter J. und Gründer K. (hrsg.) (1992).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nd 8 (Basel: Schwabe & Co Ag · Verlag). s.v. 'Reduction', ss.370-383.
- Ritter, C. (1910). Neue Untersuchungen über Platon (München: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 Robinson, R. (1953). Plato's earlier Dialectic(Oxford: The Clarendon Press) pp.49-60(Socratic Defintion).
- Robinson, R. (1954). Definition(Oxford: The Clarendon Press).
- Rosen, S. (1983). Plato's Sophist : The Drama of Original and Imag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Ross, W.D. (1923). Aristotle (London: Methuen & CO. LTD.).
- Ross, W.D. (1953). Plato's Theory of Ideas (Oxford: The Clarendon Press).
- Ross, W.D. (1924). Aristotle's Metaphysics vols 2: A Revised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87).
- Ross, W.D. (trans.) (1928).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Vol. VIII: Metaphysica (Oxford).
- Ross* W.D. (1949). Aristotle's Prior and Posterior Analytics, A revised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Oxford, 1957).
- Sallis, J. (1996). Being and Logos : Reading the Platonic Dialogues, third edi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Sayer K.M. (1969). Plato's Analytic Methode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yer K.M. (1983). Plato's late Ontology A riddle resolved (Princeton a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odel, H.R. (1987). Diaeresis and Myth in Plato's Statesma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Seligman, P. (1974). Being and Not-Being: An introduction to Plato's sophist, (The Hague: Martinus Nijhoff).
- Smith, R. (1989). Aristotle: Prior Analytics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 Sorabji R. (1980). Necessity, Cause, and Blame: Perspectives on Aristotle's Theory (Ithaca an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Sprung M. (ed.) (1995). The Question of Being: East-West Perspectives (Delphi: Sri Satguru Publications).
- Stenzel J. (1931). Studien zur Entwicklung der Platonischen Dialektik von Sokrates zu Aristoteles, zweite erweiterte Auflage (Leipzig und Berlin: Verlag und Druck von B.G. Teubner).
- Theodorakopoulos J. (1927). Platons Dialektik des Seins (Tübingen: Verlag von K.C.B. Mohr).
- Thomae Aquinatis (1950). Metaphysicorum Aristotelis Expositio, Editio M.-R. Cathala (Romae: Marietti).
- Tredennick, H. (trans.) (1947). Aristotle. The metaphysics 2 vol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ooks I–XIV.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Tugendhat, E. (1988). ΤΙ ΚΑΤΑ ΤΙΝΟΣ (München/Freiburg: Verlag Karl Alber)
- Vanhoutte M. (1956). La Méthode Ontologique de Platon (Paris: Béatrice-Nauwelaerts).
- Verdenius W.J. and Van Winden J.C.M. (eds.) (1990). Simplicius Commentare sur les Catégories (Leiden: Tuta sub Aegide Pallas).
- Vlastos G. (1963). On Plato's Oral Doctrine: Review of Hans Joachim Krämer, *Arete bei Platon und Aristoteles, Zum Wesen und zur Geschichte der platonischen Ontologie* [Heidelberg, 1959], 600pp. In *Platonic Stud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p.379–398.
- Vlastos G. (1973). Platonic Stud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din, M.V. (2000). Aristotle's Theory of Substance: the Categories and Metaphysics Zeta (Oxford

University Press).

White N.P. (1976). Plato on Knowledge and Reality (Indianapolis ·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Witt, C. (1989). Substance and Essence in Aristotle: An Interpretation of Metaphysics VII-IX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Wittgenstein L. (1958). The Blue and Brown Books (New York: Basil Blackwell).

Yoshida R.M. (1997). Reduction in the Physical Sciences. (Dalhousie University Press).

Zeller, E. (1839). Platonische Studien (Tübingen: bei C.F.Osiander).

2-2-2)논문

박홍규 (1986) (강의). 인식과 존재 : 테아이테토스 편과 소피스트 편. “박홍규전집2: 형이상학 강의 1”, 서울: 민음사. 1995. 176-247쪽.

박홍규 (1987) (강의). 앞의 개념, “박홍규전집1: 형이상학 강의1”, <박홍규전집>간행위원회. 서울: 민음사, 1995, 300-348.

박홍규 · 이태수(1988).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목적인과 운동인. “希臘哲學研究”, 조요환 외. 서울: 종로서적.

조요환(1969). Aristoteles와 形而上學의 문제. “哲學研究”, 4, 59-77.

김완수(1984). 플라톤 초기 대화편에 있어서의 Idea論. “哲學研究”, 19, 81-103.

김완수(1988).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나타난 실체개념을 중심으로 본 형이상학의 제 문제. “希臘哲學研究”, 조요환 외. 서울: 종로서적.

남경희(1984). 플라톤의 후기 존재론 연구. “哲學研究”, 19, 105-145.

김남두(2002). 파르메니데스 편에 탐구의 길과 그 논의 구조. “서양 고·중세 철학과 그 유구한 문제들”, 김완수 외. 서울: 철학과 현실사. 35-63쪽.

강철웅(2003). 파르메니데스에서 진리와 독사(Doxa): 세 텍스트 부분의 상호 연관에 주목한 파르메니데스 단편 해석. 서울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미간행

김경희(2002).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어-기호 이론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노회천(1994).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름과 존재. “汎韓哲學”, 9, 205-240.

소광희 외(1955). 고전 형이상학의 전개.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양문흠(1984). 플라톤의 後期 存在論 研究. “哲學研究”, 19, 105-145.
- 양문흠(1995). 실재하는 것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음. “고전 형이상학의 전개”, 김효명(편). 서울: 철학과현실사.
- 양호영(2000).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실체와 하나.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재훈(1985). 플라톤 哲學研究. 서울: 탑 출판사.
- 이창대(1976). 플라톤의 存在에 관한 分析的 考察. “哲學研究”, 11, 25-46.
- 최정식(1995). 플라톤의 기초존재론 抄. “고전 형이상학의 전개”, 김효명(편). 서울: 철학과현실사.
- 홍성대(1979). 플라톤의 소피스트 편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Aiken D. W., 1991. Essence and existence, transcendentalism and phenomenism : aristotle's answers to the questions of ontolog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LV, No. 1, 29-55 [II, 65-91].
- Alan Code, 1984. The aporematic approach to primary being in metaphysics Z,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Supplementary Vol. X; In Classical 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305-324.
- Albritten R., 1957. Forms of particular substance in aristotle's Metaphysics, In Classical 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153-162.
- Allaire E., Existence, independence, and universals, 485-496, [논문 XIV, 247b-253a]
- Allen D. J., 1960. Aristotle and parmenides,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rth Century, ed. Düring I. and Owen G. E. L., Göte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133-144.
- Annas J., 1974. Forms and first principle, Phronesis VOL. XIX, 257-283. [IV, 61b-74b].
- Bach Emmon., 1967. Have and be in english syntax., Language: Journal of the Linguistics society of America, Vol. 43-NO. 1, 462-485. [V, 48-71].
- Barber R. L., 1953, Being and possibility: A Repl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VI, No. 4, 605-616. [논문 XXVI, 449b-616a]
- Barnes K. T., 1977. Aristotle on identity and its problems, Phronesis Vol. XXII-NO. 1, 48-62. [IV, 246a-253a].
- Bayer G. (1995). Definition through demonstration: the two types of syllogismus in posterior analytics II. 8, Phronesis Vol. XL, No. 3, pp. 241-264. [논문집 XXIX, 239]

Bayer G. (1997). The what-is-x? question in the posterior analysis, Ancient Philosophy 17, : Mathesis Publications. pp.317-334.

Beaver A. F., 1988, Motion, mobility, and method in Aristotle's Physics : Comments on Physics 2. 1. 192b20-24,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LII, No. 2, 357-374. [논문 XXVII, 271b-280a]

Beierwaltes W., 1978. Nicht-sein i s t: idintät und differenz als elemente platonischer dialektik, In Identität und Differena, hrsg. Beierwaltes W., Frnakfrut am Main: Vittorion Klostermann, 9-23.

Berger F. R. (1965). Rest and Motion in the Sophist, Phronesis VOL. X-NO. 1, 70-77. [I, 449-456].

Berti E., 1996, "Der Begirff der Wirklichkeit in der Metaphysik (θ 6-9 u. a.)",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289-311.

Bolton R., 1976, Essentialism and semantic theory in aristotle, The Philosophical Review, LXXXV, 514-544. [논문 XVI, 187a-202a]

Buchheim T., 1996, Genesis und substantielles Sein. Die analytik des werdens in Z 7-9,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105-132.

Burger R., 1987, Is each thing the same as its essence?: On metaphysics Z. 6-11,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LI, No. 1, 53-76. [논문 XXVII, 179b-191a]

Chen Chung-Hwan, 1957. Aristotle's concept of primary substance in Books Z and H of the metaphysics, Phronesis VOL. 2-NO. 1, 46-59. [I, 360-373].

Chen Chung-Hwan, 1957. Aristotle's concept of primary substance in books Z and H of the metaphysics, Phronesis Vol. 2-NO. 1, 46-59. [I, 360-373].

Chen Chung-Hwan, 1975. Aristotle's analysis of change and plato's Theory of Transcendent Ideas.", Phronesis VOL. XX-NO. 2, 129-145. [IV, 291b-299b].

Code A. D., 1993. Vlastos on a metaphysical paradox, In Virtue, Love & Form ed. Irwin T. Edmonton: Academic Printing & Publishing, 85-98.

Cohen S. M., 1978, Essentialism in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 No. 3, 387-405. [논문 XXVII, 219b-228b]

Cohen S., 1984, Aristotle's doctrine of the material substance,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XCIII, No. 2, 171-194. [논문 XXVI 226b-238a]

Cohen S., 1984. Aristotle's doctrine of the material substrate, The Philosophical Review, XCIII-NO. 2, In ClassicalPhilosophy, VOL. VI(Aristotle: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95-118.

Cousin D. R., 1933, Aristotle's doctrine of substance (I), *Mind*, Vol. XLII, 317-337, [논문 XXVI, 115b-124b]

Cousin D. R., 1935, Aristotle's doctrine of substance (II), *Mind*, Vol. XLIV, 167-185, [논문 XXVI, 104a-112b]

Dancy R. M., 1983. Aristotle and existence, *Synthese* 54, 409-442; In *The Logic of Being: Historical Studies*, ed. D. Knuuttila S. and Hintikka J. Dordrecht/Boston/Lancaster/Tokyo: Reidel Publishing Company, 1986, 49-80. [IX, 139a-155a].

Dancy R., 1975, On some of aristotle's first thoughts about substance, *The Philosophical Review*, 19757, 338-373. [논문 XXVI, 50a-67b]

Dancy R., 1978. On some of aristotle's second thoughts about substaces: matter, *The Philosophical Review*, LXXXVII-NO. 3, In *Classical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52-93.

De Vogel C. J., 1960. The legend of the platonizing aristotle,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rth Century*, ed. Düring I. and Owen G. E. L., Göter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248-25

De Vogel C. J., 1968. Arstotle's attitude to plato and the theory of Ides, According to the 'Topics.', In *Aristotle on Dialectic : The Topics*, ed. Owen G. E. L., Oxford: The Clarendon Press, , 91-102.

Demoss D. and Devereux D. (1988). Essence, existence and nominal definition in Aristotle's Posterior Analytics II 8-10, *Phronesis* VOL. 33, 133-154. [IV, 200a-211a].

Driscoll J. A., 1981. EIDH in aristotle's earlier and later thories of substance, In *Classical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273-303.

Driscoll J., 1979. The platonic ancestry of primary substance, *Phronesis* Vol. XXIV-NO. 3, 253-269. [IV, 213a-221b].

Elders L., 1968. The Topics and the Platonic Theory of Principles of Being, In *Aristotle on Dialectic : The Topics*, ed. Owen G. E. L., Oxford: The Clarendon Press, 126-137.

Falcon A., (1966). Aristotle's rules of divison in the topics : The realationship between of genus and differentia in a divion, In *Ancient Philosophy*, Vol. 16, 377-387. [논문 XIV, 59b-64b].

Feibleman J. K., 1953, History of dyadic ontolog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VI, No. 3, 351-367. [논문 XXVI, 437b-446a]

Ferejohn M. T., 1980. Aristotle on focal meaning and the unity of science, *Phronesis* Vol. 25, NO. 1-2, 117-129. [IX, 117b-182a].

Ferejohn M.T. (1982). Definition and the two stages of aristotlian demonstration,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VI, No.2, pp.375-395. [논문집 XXVI]

Fine G. (1983). Plato and aristotle on form and substance,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209, pp. 23-47; In Plato's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Vol 4, ed. Irwin T. New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5, pp.235-259.

Frede M., 1987. Categories in aristotle., In Essays in Ancient Philosophy, ed. Frede M., Oxford: Clarendon Press, 29-48.

Frede M., 1987. Substance in aristotle's metaphysics, In Essays in Ancient Philosophy, ed. Frede M., Oxford: Clarendon Press, 72-80.

Frede M., 1987. The unity of general and special metaphysics: Aristotle's Conception of Metaphysics.", In Essays in Ancient Philosophy, ed. Frede M., Caedndon Press, Oxford, 81-95.

Furth M., 1978. Transtemporal Stability in Aristotelean Substance, In Classical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28-50.

Gerson L. P. (1986). A distintion in plato's sophist, The Modern Schoolman 63, 251-66; In Plato : Critical Assessments, Vol.4, ed. Smith N. 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125-141.

Gill M. L., 1996, "Metaphysics H 1-5 on perceptible substances.",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209-228.

Gosling, J.C.B. (1973). Being and definition In Plato(London and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pp. 176-197.

Granger H. (1984). Aristotle on genus and differentia, In Aristotle Critical Assessments II, ed. Gerson L.P.,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pp.254-277.

Grice P., 1988. Aristotle on the multiplicity of being,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69, 175-200; In Classical Philosophy,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1-26.

Gómez-Lobo A. (1977). Plato's description of dialectic in the Sophist 253d1-e2, Phronesis Vol. XXII-No. 1, 29-47. [I, 204-222].

Gómez-Lobo A., 1977, Arstotle's hypotheses and the euclidean postulate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 No. 3, 430-439. [논문 XXVII, 208a-212~1b]

Gómez-Lobo A., 1980. The so called question of existence in aristotle, An. Post. 2. 1-2,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V, No. 1, 71-99 [II, 93-111].

- Hamlyn D.W. (1976). Aristotelian epagoge, Phronesis Vol. XX1, Assen: VanGorcum, pp.167-184.
- Haring E. S., 1956, Substantial form in aristotle's metaphysics Z (I),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2, 308-332 [논문 XXVI, 70a-81a]
- Haring E. S., 1956, Substantial form in aristotle's metaphysics Z (II),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3, 483-501 [논문 XXVI, 84a-93b]
- Haring E. S., 1956, Substantial form in aristotle's metaphysics Z (III),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4, 698-713 [논문 XXVI, 94a-101b]
- Hartman E., 1976, Aristotle on the identity of substance and essence, The Philosophical Review, LXXXV, 545-561. [논문 XVII, 202b-210b]
- Heinaman R. (1997). Frede and patzig on definition in metaphysics Z.10 and 11, Phronesis Vol. XVII, No.3 pp.283-298. [논문집 XXIX 298]
- Hintikka J., 1986. The varieties of being in aristotle, In The Logic of Being: Historical Studies, ed. D. Knuuttila S. and Hintikka J. Dordrecht/Boston/Lancaster/Tokyo: Reidel Publishing Company, , 81-114. [IX, 155b-114a].
- Irwin T. H., 1977. Aristotle's discovery of metaphysic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 No. 2, 114-133 [II, 114-133].
- Irwin T. H., 1981, Homonymy in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V, No. 3, 523-544. [논문 XXVII, 166b-177a]
- Johnson P. A. (1978). Keyt on ἕτερον in the Sophist, Phronesis VOL. XXIII-NO. 2, 151-157. [I, 302-308].
- Jones B., 1974, Aristotle's introduction of matter, The Philosophical Review, 1974년, 474-500. [논문 XXVII, 212a-224b]
- Kahn C. H., 1966, The greek verb 'to be' and the concept of being, in Foundation of Language 2, 1966, pp.245-265 : 책90 pp.157-177.
- Kahn C. H., 1973. Linguistics relativism and the greek project of ontology, In The Question of Being : East-West Perspective, ed. sprung M., Delhi: Sri Satguru Publications, , 31-44.
- Kahn C. H., 1973. On the accent of ἐστὶ and its position in the sentence, In The Verb 'Be' and its Synonym : (6) The Verb 'Be' in Ancient Greek, Kahn C. H., D. Dordercht-Holland/Boston: Reidel Publishing Company, 420-434.
- Kahn C. H., 1973. On the theory of the verb 'to be', In Logic and Ontology, ed. Munitz M. K.,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20.

- Kahn C. H., 1973. The nominalized forms of the verb : τὸ ὄν and οὐσία, In The Verb 'Be' and its Synonym : (6) The Verb 'Be' in Ancient Greek, Kahn C. H., D. Dordrecht-Holland/Boston: Reidel Publishing Company, 453-462.
- Kahn C. H., 1981. Some philosophical uses of 'to be' in plato, Phronesis Vol. XXVI-NO. 2, 105-407. [I, 378-134]. [I, 458-460 : Review]
- Ketchum R. J. (1978). Participation and predication in the sophist 251-260, Phronesis Vol. XXIII-NO. 1, pp.42-61. [I, 237-255].
- Klubert G. P., 1957, The problem of the analogy of being,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4, 553-579. [논문 XXVI, 456b-469b]
- Kostman J. R. (1973). False Logos and Not-Being in Plato's Sophist, In Patterns in Plato's Thought, ed. J. Moravcsik, Dordrecht-Holland/Boston: M. E., D. Reidel Publishing Company[I, 163-183].
- Lacey A. R., 1965. οὐσία and form in aristotle, Phronesis VOL. X-NO. 1, 54-69. [I, 433-448].
- Lang H. S., 1981, Aristotle's immaterial mover and the problem of location in physics VIII,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V, 198112, 321-335. [논문 XXVII, 310b-317b]
- Laycok H., 1972, Some question of ontology, The Philosophical Review, 3-42. [논문 XXVI, 502b-522a]
- Lenz W. (1998). The Problem of Motion in the Sophist, Apeiron, Vol. XXXI, No. 4, 89-108.
- Lewis F. K., 1982. Accidental Sameness in Aristotle, Philosophica Studies 42, In Classical Philosophy, VII(Aristotle : Metaphysics, epistemology, natural Philosophy), ed. Irwin, T., Grand publishing Inc., New york & London, 157-192.
- Lindbeck G., 1957, Philosophy and existenz in early christianit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3, 428-440. [논문 XXVI, 410a-417]
- Loux M. J., 1979, Form, species and predication in metaphysics Z, H, and Θ, Mind, Vol, 1-23. [논문 XXVI, 145b-156b]
- Lukasiewicz J., 1971, On the principle of contradiction in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IV, No. 3, 485-509. [논문 XXVI, 240b-252b]
- Mackinnen D. M., 1965. Aristotle's conception of substance, In New Essays on Plato and Aristotle, ed. Bambrough 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97-119. [IV, 185a-196b].
- Malcolm J. (1967). Plato's analysis of τὸ ὄν and τὸ μὴ ὄν in the Sophist, Phronesis Vol. 12, 130-146. [I, 332-348].

- Manley T., 1953, On aristotle's square of opposi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LXII, 251-265. [논문 XXVI, 380b-387b]
- Matthen M., 1983. Greek ontology and the 'is' of truth, *Phronesis* Vol. 28-NO. 2, 113-135. [I, 409-135].
- Mcdowell J. (1982). Falsehood and Not-Being in Plato's *Sophist*, *Language and Logo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5-34; In *Classical Philosophy* ed. by T. Irwin, Vol. IV, 1995, 283-302.
- McKirahan R., 1995. Aristotle's metaphysic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sterior analytics,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ed. Cleary J. J. and Wians, Vol. XI, Lanham/Newyork/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75-306..
- Mei Tsu-Lin, 1961, Subject and predicate, a grammatical preliminary,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LXX, 153-175. [논문 XXVI, 398b-409b]
- Menne A., 1982, Concerning the logical analysis of 'existence', *The Monist*, Vol. 65, No 4, 415-419. [논문 XXVI, 169a-171b]
- Mesch W., 1996, Die teile der definition (Z 10-11),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135-256.
- Meyer S.S. (1992). Aristotle, teleology, and reduction, In *Classical Philosophy* ed. Irwin T. New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5. pp.81-115.
- Miller B., 1986, Exist and existenc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L, No. 2, 237-270. [논문 XXVII, 341b-34ba]
- Moravcsik J. (1992). Platonism in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and general ontology, In *Plato and Platonism* ed. Barnes J., Oxford & Cambridge: Blackwell, 253-290.
- Moravcsik J. (1992). The eleatic-proof theory of forms of the sophist, In *Plato and Platonism*. Oxford UK & Cambridge: Blackwell, pp.168-212.
- Moravcsik J. (1992). The ontology of order reconsidered: the divisions and the philebus, In *Plato and Platonism* ed. Barnes J., Oxford UK & Cambridge: Blackwell,, 213-249.
- Morrison D., 1996, Substance as cause (Z 17),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193-208.
- Morrison D., The place of unity in aristotle's metaphysical project,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ed. by Cleary J. J. and Wians W., Vol. IX, Lanham, Newyork, and London: Press of America, 1993, 131-156.
- Moutafakis N. J., 1982, Aristotle's metaphysics (book lambda) and the logic of events," *The*

Monist, Vol. 65, No. 4, 420-536. [논문 XXVI, 172a-179a]

Nakhnikian G. and Salmon W. C., 1957, 'Exist' as Predicate, The Philosophical Review, 1957 10, 535-542. [논문 XXVI, 496b-500a]

Nehamas A. (1989). Epostēmē and logos in plato's later thought, In Essay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III : Plato ed. Anton J. and Preus 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67-292.

Nicholas R., 1959, On the logic of existence and denota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LXVIII, 157-180. [논리 XXVI, 525b-537a]

O'Brien D., 1995. Aristotle's theory of movement,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ed. Cleary J. J. and Wians, Vol. XI, Lanham/Newyork/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47-100.

Owen G. E. L. (lecture) (1967). Plato on Not-Being, In Plato I: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ed. G. Vlastos (Garden City, N.Y. : Doubleday, 1970, repr.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8), pp.223-67; In Logic, Science, and Dialectic ed. by Nussbaum M.,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p.104-137.

Owen G. E. L., (1986). Aristotle on the snares of ontology, In Logic, Science, and Dialectic ed. by Nussbaum M.,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59-278.

Owen G. E. L., 1960. Logic and metaphysics in some earlier work of aristotle,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rth Century, ed. Düring I. and Owen G. E. L., Göter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163-190.

Owens J., 1960, Aristotle on categorie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IV, No. 1, 73-90. [논문 XIV, 105b-114a]

Owens J., 1973. Being in early western tradition, In The Question of Being : East-West Perspective, ed. sprung M., Delhi: Sri Satguru Publications, 17-30.

Owens J., 1973. The Content of existence, In Logic and Ontology, ed. Munitz M. K.,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1-35.

Page C., 1985, Predicating forms of matter in aristotle's metaphysic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X, No. 1, 57-82. [논문 XXVII, 193b-206a]

Peck A. L., 1962. Plato's Sophist : the συμπλοκή τῶν εἰδῶν, Phronesis Vol. 7, 46-66. [I, 257-276].

Rapp C., 1996, 'Kein allgemeines ist substanz' (Z 13, 14-16),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157-192.

Rapp C., 1996, Substanz als vorrangig seindes (Z 1),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27-40. [책 44-1]
- Roberts J. (1986). The problem about being in the sophist,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3, pp. 229-43; In *Plato : Critical Assessments*, Vol.4, ed. N. D. Smit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pp.142-157.
- Rudebusch G. (1989). Plato's aporetic styl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27. pp.539-47; In *Plato Critical Assessments I* ed. Smith 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pp.349-356.
- Schipper E. W. (1964). The meaning of existence in Plato's Sophist, *Phronesis* Vol. 9, NO. 1, 38-44. [I, 323-329].
- Sellars W., 1957. Substance and form in aristotle, In *Classical Philosophy*,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140-151.
- Smart R. N., 1956, Being and the bib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IX, No. 4, 589-608. [논문 XXVII, 330b-
- Smith J.A., 1921. Τόδε τι in Aristotle, In *Classical Philosophy*, Vol.VI (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51.
- Solmsen F., 1960. Platonic influences in the formation of Aristotle's physical system,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rth Century*, ed. Düring I. and Owen G. E. L., Göte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213-235.
- Sonderegger E. (1983). Die bildung des ausdrucks τὸ τί ἦν εἶναι durch aristoteles, In *Das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y* (hrsg.) von Karl-Heinz Ilting, Berlin: Walter de Gruyter, ss.18-39.
- Steinfath H., 1996, Die Einheit der definition und die einheit der substanz: Zum Verhältniss von Z 12 und H 6,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229-252.
- Thorp J. W., 1974. Aristotle's use of categories : An easing of the oddness in metaphysics D7, *Phronesis* VOL. XIX, 238-256. [IV, 52a-61a].
- Trenaskis J.R. (1967). Division and its relation to dialectic and ontology in plato, *Phronesis* vol. XII, pp.118-129. [논문집 XXIX, 226].
- Trevaskis J. R. (1966). The μέγιστα γένη and the vowel analogy of Plato, *Phronesis* Vol. XI-No.2, 99-116. [I, 185-202].
- Upton T. V., 1983, Psychological and metaphysical dimemsions of non-contradiction in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VI, No. 3, 591-606. [논문 XXVII, 230b-238a]
- Upton T. V., 1985, Aristotle on hypothesis and the unhypothesized first princip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X, No. 2, 283-301. [논문 XXVII, 240b-249b]

- Van Fraassen B. C. (1969). Logical structur in the plato's sophist,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II, No. 3, pp. 482-498. [논문 XIV. 3b-21a].
- Vlastos G. (1973). An Ambiguity in the Sophist,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70-322.
- Vlastos G., 1965. Degree of reality in plato, New Essays in Plato and Aristotle ed. Baumbrough 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58-75.
- Vlastos G., 1966. A metaphysical paradox, Proceesing and Address of the Amer. Philos. Association 39, 5-19;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43-57.
- Vlastos G., 1973. Plato on knowledge and reality,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74-378..
- Vlastos G., 1973. The 'two-level paradoxes' in aristotle.",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323-334.
- Waletzki W., 1979. "Plato's ideenlehre und dialektik im sophistes 253d.", Phronesis Vol. XXIV - No. 3, 241-252. [224-235].
- Walton W., 1952, FR. Owens and the metaphysics of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VI, No. 2, 257-264. [논문 XXVII, 181b-185a]
- Wedin M. V., 1996, Subjects and substance in metaphysics Z 3,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41-74. [책 44-1]
- Wehrh W. E., 1994, Metaphysics Z 3 : An announcement of 'metaphysical' inquiry, Mind, Vol. XXVII, No. 3, 191-224. [논문 XVI, 127b-224a]
- Weidemann H., 1996, Zum begriff des $\tau\iota\ \eta\upsilon\ \epsilon\iota\upsilon\alpha\iota$ und aum verständnis von Met. Z 4, 1029b22-1030a6,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Θ),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75-104.
- Weidemann H. (1989). Aristotle on inferences from signs: Rhetoric I 2, 1357b1-25. Phronesis XXXIV, No. 3, pp.343-351. [논문집 XXIX, 191].
- White N. P., 1971. Arisototle on sameness and oneness, Philosophical Review 89, In Classical Philosophy, VII(Aristotle : Metaphysics, epistemology, natual Philosophy),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135-155.
- White N. P., 1972, Origins of aristotle's essentialism,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VI, No. 1, 57-85. [논문 XXVII, 212~1b-217b]

Woods M. J., 1975. Substance and essence in aristotle, In Classical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209-222..

Bibliography 3(장 별로)

3-2) 존재물음

3-2-1) 단행본

3-2-2) 논문

Rudebusch G. (1989). Plato's aporetic styl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27. pp.539-47; In Plato Critical Assessments I ed. Smith 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pp.349-356.

3-3) 정의

3-3-1) Text

Burnet, I. (ed.) (1922). Ευθυφρων: Platonis Opera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2a-16a(pp.1-23).

Burnet, I. (ed.) (1922). Πολιτικός: Platonis Opera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257a-311c(pp.443-442).

Bekkeri, Immanuel (ed.) (1831). Ἀναλυτικὰ πρότερα καὶ ἕστερα: Aristoteles Graece Volumen Prius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24a-100b.

Bekkeri, Immanuel (ed.) (1831). Τοπικά: Aristoteles Graece, Volumen Alterum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100a-164b.

Bekkeri, Immanuel (ed.) (1831). Τὰ Μετὰ τὰ Φυσικά: Aristoteles Graece, Volumen Alterum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980a-1903b.

3-3-1-1) 번역

Hamilton E. and Cairns H. (eds.) (1982).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Euthyphro, trans. by Lane Cooper(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69-185.

Hamilton E. and Cairns H. (eds.) (1982).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Statesman, trans. by Lane Cooper(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69-185.

Barnes, J. (ed.) (1984).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Prior Analytics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 I, trans. by Jenkins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9-113.

Barnes, J. (ed.) (1984).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Posterior Analytics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Vol. I, trans. by Barnes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14-166.

Flashar H. (hrsg.) (1993). Aristoteles: Analytica Posteriora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Wolfgang Detel Eerster Halbband (Berlin: Akademie Verlag).

Forster, E.S. and Tredennick, I. (trans.) (1966). Aristotle: Posterior Analytics and Topica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3-3-2) Context

3-3-2-1) 단행본

Allen, R.E. (1970). Plato's 'Euthyphro' and the Earlier Theory of Form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Scodel, H.R. (1987). Diaeresis and Myth in Plato's Statesma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Smith, R. (1989). Aristotle: Prior Analytics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Flashar H. (hrsg.) (1993). Aristoteles: Analytica Posteriora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Wolfgang Detel Zweiter Halbband (Berlin: Akademie Verlag).

Ross* W.D. (1949). Aristotle's Prior and Posterior Analytics, A revised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xford, 1957).

White N.P. (1976). Plato on Knowledge and Reality (Indianapolis ·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Crombie, I.M. (1979). An Examination of Plato's Doctrines II. Plato on Knowledge and Reality Fourth impression with corrections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Crombie, I.M. (1994). Socratic Definition. In Plato's Meno, ed. by Jane M. Da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172-207.

Robinson, R. (1953). Plato's earlier Dialectic (Oxford: The Clarendon Press) pp.49-60 (Socratic Definition).

Robinson, R. (1954). Definition (Oxford: The Clarendon Press).

Chakrabarti, K.K. (1995). Definition and Induc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Essler*, W.K. (1970). Wissenschaftstheorie 1: Definition und Reduktion.

Stenzel J. (1931). Studien zur Entwicklung der Platonischen Dialektik von Sokrates zu Aristoteles, zweite erweiterte auflage (Leipzig und Berlin: Verlag und Druck von B.G.Teubner).

Cherniss H. (1962). Aristotle's Criticism of Plato and The Academy (New York: Russel & Russell · INC) pp.1-82 (Diaeresis, Definition, and Demonstration).

Gorski*, D.P. (1967). Über die Arten der Definition und ihre Bedeutung in der Wiss. Stud. zur Logik der wiss. Erkenntnis (Moskau 1964, dtsh. 1967) 361-433.

Matthews, G. (1972). Plato's Epistemology and related logical Problems (London: Faber & Faber).

Gentzler J. (1998). Method in Ancient Philosophy (Oxford: Clarendon Press).

Sayer K.M. (1969). Plato's Analytic Methode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uclid. The Thirteen Books of The Elements Vol. I, trans. by Thomas L. Heath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56) pp.143-151 (The Definitions).

3-3-2-2) 논문

김완수(1984). 플라톤 초기 대화편에 있어서의 Idea論. “哲學研究”, 19, 81-103.

Gosling, J.C.B. (1973). Being and definition In Plato (London and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pp. 176-197.

Trenaskis J.R. (1967). Division and its relation to dialectic and ontology in plato, Phronesis vol. XII, pp.118-129. [논문집 XXIX, 226].

Moravcsik J. (1992). The ontology of order reconsidered: the divisions and the philebus, In Plato and Platonism ed. Barnes J., Oxford UK & Cambridge: Blackwell, pp.213-249.

Heinaman R. (1997). Frede and patzig on definition in metaphysics Z.10 and 11, Phronesis Vol. XVII, No.3 pp.283-298. [논문집 XXIX 298]

Ferejohn M.T. (1982). Definition and the two stages of aristotlian demonstration,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VI, No.2, pp.375-395. [논문집 XXVI]

Demoss D. and Devereux D. (1988). Essence, existence and nominal definition in Aristotle's Posterior Analytics II 8-10, Phronesis VOL. 33, 133-154. [IV, 200a-211a].

Bayer G. (1997). The what-is-x? question in the posterior analysis, Ancient Philosophy 17, : Mathesis Publications. pp.317-334.

Bayer G. (1995). Definition through demonstration: the two types of syllogismus in posterior analytics II. 8, Phronesis Vol. XL, No. 3, pp. 241-264. [논문집 XXIX, 239]

Falcon A., (1966). Aristotle's rules of division in the topics : The relationship between of genus and differentia in a division, In Ancient Philosophy, Vol. 16, 377-387. [논문 XIV, 59b-64b].

Granger H. (1984). Aristotle on genus and differentia, In Aristotle Critical Assessments II, ed. Gerson L.P.,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pp.254-277.

Hamlyn D.W. (1976). Aristotelian epagoge, Phronesis Vol. XXI, Assen: VanGorcum, pp.167-184.

Weindemann H. (1989). Aristotle on inferences from signs: Rhetoric I 2, 1357b1-25. *Phronesis* XXXIV, No. 3, pp.343-351. [논문집 XXIX, 191].

Gómez-Lobo A., 1977, Aristotle's hypotheses and the euclidean postulate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 No. 3, 430-439. [논문 XXVII, 208a-212~1b]

Upton T. V., 1985, Aristotle on hypothesis and the unhypothesized first princip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X, No. 2, 283-301. [논문 XXVII, 240b-249b]

3-4) 존재와 실체

3-4-1) Text

Diels H. und Kranz W. (hrsg.) (1974). Parmenides: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Erster Band, der 19. (Berlin: Weidmann). ss. 217-246.

Burnet, I. (ed.) (1922). Σωφιστής: Platonis Opera Vol.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16a-268d(pp.357-442).

Bekkeri, Immanuel (1831). Κατηγοριαί: Aristoteles Graece, Volumen Prius.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1a-15b.

Bekkeri, Immanuel (ed.)(1831). Τὰ Μετὰ τὰ Φυσικά: Aristoteles Graece, Volumen Alterum the Prussian Academy edition (Berolini Apud Georgium Reimerum). 980a-1903b.

3-4-1-1) 번역

Hölscher, (hrsg. u. übers.) (1969). Parmenides: Vom Wesen des Seienden (Frankfurt: Suhrkamp Verlag).

Eigler, Gunther. (hrsg.) (1990). Platon Bd. 6 : Theaitetos, Der Sophist, Der Staatsmann. (bearb. von Peter Staudacher. Griech. Text von Auguste Diès., Dt. Übers. von Friedrich Schleiermacher,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Fowler, H.N. (trans.) (1952). Plato Vol. II: Theaetetus Sophis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pp.261-458.

Cornford, F. M., (trans.) (1979). Plato's Theory of Knowledge,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Cooke, H.P. (trans.) (1949). Aristotle the Organon I: The Categories On Interpretation (Cambridge).

Ackrill, J.L. (trans.) (1963). Aristotle's Categories and De Interpretatione (Oxford: Clarendon Press).

Ross, W.D. (trans.) (1928).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Vol. VIII: Metaphysica

(Oxford).

Tredennick, H. (trans.) (1947). Aristotle. The metaphysics 2vol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ooks I-XIV.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Frede M. und Patzig G. (trans.) (1988). Arstotels 'Metaphysica Z': Einleitung, Text und Übersetzung Erster Band (München: Verlag C.H.Beck).

3-4-2) Context

3-4-2-1) 파르메니데스 단편

3-4-2-1-1) 단행본

Bormann, K. (1971). Parmenides: Untersuchungen zu den Fragmenten (Hamburg: Felic Meiner Verlag).

Mansfeld, J. (1964). Die Offenbarung des Parmenides und die menschliche Welt (Assen: Van Gorcum & Comp. N.V.).

Kirk G.S. & Raven J.E. (1966).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pp. 263-287.

3-4-2-1-2) 논문

김남두(2002). 파르메니데스 편에 탐구의 길과 그 논의 구조, “서양 고·중세 철학과 그 유구한 문제들”, 김완수 외. 서울: 철학과 현실사. 35-63쪽.

3-4-2-2) 소피스트 편

3-4-2-2-1) 단행본

Ficino, M. (1989). Icastes : Marsilio Ficino's Interpretation of Plato's Sophist, trans. by Michael J. B. All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auss, H. (1961). Philosophischer Handkommentar Zu Den Dialogen Plato III/I, (Berlin: Verlag Herbert Lang & Cie). ss.183-232.

Apelt, O. (1891).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Griechischen Philosophie (Leipzig: Druck und Verlag von B.G.Teubner).

Friedländer, P. (1964). Platon I · II · III, Dritte verbesserte Auflage (Berlin: Waler de Gruyter).

Bonitz, H. (1886). Platonische Studien (Berlin).

Zeller, E. (1839). Platonische Studien (Tübingen: bei C.F.Osiander).

Ritter, C. (1910). Neue Untersuchungen über Platon (München: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Campbell R.L. (1973). Sophistes and Politicus of Plato, with a revised text and english notes

(Oxford: the Clarendon Press).

Diès, A. (1963). Définition de l'Être et Nature des Idées dans le sophiste de platon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O'brien D. (1995). Le Non-Être: Deux Études sur le Sophiste de Platon (Sankt Augustin: Academia-Verlag).

Pelletier, F.J. (1990). Parmenides, Plato, and the Semantics of Not-being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idegger, M. (1992). Gesamtausgabe band 19 Platon: Sophistes Vorlesungen 1919-1944 (Göttingen: Vittorio Klostermann).

Frede, M. (1967). Prädikation und Existenzaussag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Cornford, F. M. (1979). Plato's Theor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Dorter, K. (1994). Form and Good in Plato's Eleatics Dialogues : The Parmenides, Theaetetus, Sophist, and States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oravcsik, J.M.E. (ed.) (1973). Patterns in Plato's Thought (Boston: D.Reidel Publishing Company).

Klein, J. (1977). Plato's Trilogy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luck, R. S. (1975). Plato's Sophist ed. by Neal G. C. (Oxfor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Sallis, J. (1996). Being and Logos : Reading the Platonic Dialogues, third edi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Rosen, S. (1983). Plato's Sophist : The Drama of Original and Imag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Seligman, P. (1974). Being and Not-Being: An introduction to plato's sophist, (The Hague: Martinus nijhoff).

3-4-2-2)논문

박홍규 (1977). 소피스트 편에 대한 분석. “박홍규전집1: 희랍철학논고”, <박홍규전집> 간행 위원회. 서울: 민음사. 1996. 127-157쪽.

박홍규 (1986) (강의). 인식과 존재 : 테아이테토스 편과 소피스트 편. “박홍규전집2: 형이상학 강의 1”, 서울: 민음사. 1995. 176-247쪽.

Van Fraassen B. C. (1969). Logical structur in the plato's sophist,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II, No. 3, pp. 482-498. [논문 XIV. 3b-21a].

Owen G. E. L. (lecture) (1967). Plato on Not-Being, In Plato I: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ed. G. Vlastos (Garden City, N.Y. : Doubleday, 1970, repr.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8), pp.223-67; In Logic, Science, and Dialectic ed. by Nussbaum M.,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p.104-137.

Moravcsik J. (1992). The eleatic-proof theory of forms of the sophist, In Plato and Platonism. Oxford UK & Cambridge: Blackwell, pp.168-212.

Vlastos G. (1973). An Ambiguity in the Sophist,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70-322.

Ketchum R. J. (1978). Participation and predication in the sophist 251-260, Phronesis Vol. XXIII-NO. 1, pp.42-61. [I, 237-255].

Roberts J. (1986). The problem about being in the sophist,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3, pp. 229-43; In Plato : Critical Assessments, Vol.4, ed. N. D. Smit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pp.142-157.

Schipper E. W. (1964). The meaning of existence in Plato's Sophist, Phronesis Vol. 9, NO. 1, 38-44. [I, 323-329].

Malcolm J. (1967). Plato's analysis of τὸ ὄν and τὸ μὴ ὄν in the Sophist, Phronesis Vol. 12, 130-146. [I, 332-348].

Mcdowell J. (1982). Falsehood and Not-Being in Plato's Sophist, Language and Logo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15-34; In Classical Philosophy ed. by T. Irwin, Vol. IV, 1995, 283-302.

Kostman J. R. (1973). False Logos and Not-Being in Plato's Sophist, In Patterns in Plato's Thought, ed. J. Moravcsik, Dordrecht-Holland/Boston: M. E., D. Reidel Publishing Company[I, 163-183].

Lenz W. (1998). The Problem of Motion in the Sophist, Apeiron, Vol. XXXI, No. 4, 89-108.

Berger F. R. (1965). Rest and Motion in the Sophist, Phronesis VOL. X-NO. 1, 70-77. [I, 449-456].

Johnson P. A. (1978). Keyt on ἕτερον in the Sophist, Phronesis VOL. XXIII-NO. 2, 151-157. [I, 302-308].

Trevaskis J. R. (1966). The μέγιστα γένη and the vowel analogy of Plato, Phronesis Vol. XI-No.2, 99-116. [I, 185-202].

Peck A. L., 1962. Plato's Sophist : the συμπλοκή τῶν εἰδῶν, Phronesis Vol. 7, 46-66. [I, 257-276].

Gómez-Lobo A. (1977). Plato's description of dialectic in the Sophist 253d1-e2, *Phronesis* Vol. XXII-No. 1, 29-47. [I, 204-222].

Waletzki W., 1979. "Plato's ideenlehre und dialektik im sophistes 253d.", *Phronesis* Vol. XXIV - No. 3, 241-252. [224-235].

Nehamas A. (1989). *Epostēmē and logos in plato's later thought*, In *Essay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III : Plato* ed. Anton J. and Preus 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67-292.

Gerson L. P. (1986). A distinction in plato's sophist, *The Modern Schoolman* 63, 251-66; In *Plato : Critical Assessments*, Vol.4, ed. Smith N. 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125-141.

3-4-2-3) 범주론 및 형이상학

3-4-2-3-1) 단행본

Verdenius W.J. and Van Winden J.C.M. (eds.) (1990). Simplicius Commentare sur les Catégories (Leiden: Tuta sub Aegide Pallas).

Ohler, K. (1986). Aristoteles Kategorien (Berlin: Akademie-Verlag).

Thomae Aquinatis (1950). Metaphysicorum Aristotelis Expositio, Editio M.-R. Cathala (Romae: Marietti).

Bonitz, H. (1960). Aristotelis Metaphysica Commentarius, Unveränderter Nachdruck der Ausgabe Aristotelis Metaphysica Volumen II, Bonn 1849 (Hildesheim: Gerog Olms Verlagsbuchhandlung).

Bonitz, H. (übers.) (1994). Aristoteles Metaphysik, hrsg. von Wellmann (rowohlts enzyklopädie).

Ross, W.D. (1924). Aristotle's Metaphysics vols 2: A Revised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81).

Owens, J. (1963). The Doctrine of Being in the Aristotelia Metaphysics Second edition revised (Toronto: Pontifical Institute of Mediaeval Studies).

Witt, C. (1989). Substance and Essence in Aristotle: An Interpretation of Metaphysics VII-IX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Aubenque P. (1962). Le Problème de L'Être chez Aristote (Paris: Presse Universitaires de France).
Karl-Heinz Volkman-Schluck. (1979). Die Metaphysik des Aristoteles (Frankfurt: Vittorio Klostermann).

Gill, M.L. (1989). Aristotle on Substance: The Paradox of Un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edin, M.V. (2000). Aristotle's Theory of Substance: the Categories and Metaphysics Zeta (Oxford

University Press).

Tugendhat, E. (1988). ΤΙ ΚΑΤΑ ΤΙΝΟΣ (München/Freiburg: Verlag Karl Alber)

Brinkmann, K. (1979). Aristoteles' Allgemeine und Spezielle Metaphysik (Berlin: Walter de Gruyter).

Leo Elders S.V.D. (1960). Aristotle's Theory of The One (Assen: Van Gorcum & Comp. N.V.).

Décarie V. (1961). L'Objet de la Métaphysique selon Aristote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Vrin).

Dumoulin, B. (1986). Analyse Génétique de la métaphysique D'Aristote (Paris: Les Belles Lettres)

Jaeger, W. (1961). Aristotle: Fundamentals of the History of His Development second edition trans. by Richard Robinson (Oxford University Press).

Bostock, D. (1995). Aristotle Metaphysics books Z and H (Oxford: Clarendon Press).

Loux, M.J. (1991). Primary Ousia: An Essay and Aristotle's Metaphysics Z and H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Rapp, C. (hrsg.) (1996).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Z, H, Θ) (Berlin: Akademie Verlag).

Heidegger M. (1981). Aristoteles, Metaphysik Θ 1-3, Gesamtausgabe band 33, (Frankfurt: Vittorio Klostermann).

Leszl, W. (1970). Logic and Metaphysics in Aristotle (Padova: Editrice Antenore).

Reale, G. (1980). The concept of First Philosophy and the Unity of the Metaphysics of Aristotle Edited and translated by John R. Cata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De Rijk, L.M. (2002). Aristotle: Semantics and Ontology vols 2 (Brill: Tuta sub Aegide Pallas).

Frede M. und Patzig G. (1988). Aristoteles 'Metaphysik Z' I·II text, übersetzung und kommentar (München: Verlag C.H.Beck).

Burnyct, M. (2001). A Map of Metaphysic Zeta (Pittsburgh: Mathesis Publications).

Kirwan, C. (1993). Aristotle Metaphysics books Γ, Δ, and E (Oxford: Clarendon Press).

Halper E.C. (1989). One and Many in Aristotle's Metaphysics the Central Book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Columbus).

Leo Elders, S.V.D. (1960). Aristotle's Theory of The One a Commentary on Book X of the Metaphysics (Assen: Van Gorcum & Comp. N.V.).

Furth, M. (1988). Substance, Form and Psyche: an Aristotelean metaphys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ede M. and Chales D. (ed.) (2000), Aristotle's Metaphysics Lambda (Oxford: Clarendon Press).

3-4-2-3-2)논문

Owens J., 1960, Aristotle on categorie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IV, No. 1, 73-90. [논문 XIV, 105b-114a]

Frede M., 1987. Categories in aristotle., In Essays in Ancient Philosophy, ed. Frede M., Oxford: Clarendon Press, 29-48.

Thorp J. W., 1974. Aristotle's use of categories : An easing of the oddness in metaphysics D7, Phronesis VOL. XIX, 238-256. [IV, 52a-61a].

Irwin T. H., 1981, Homonymy in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V, No. 3, 523-544. [논문 XXVII, 166b-177a]

Smith J.A., 1921. Τόδε τι in Aristotle, In Classical Philosophy, Vol.VI (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51.

Dancy R., 1975, On some of aristotle's first thoughts about substance, The Philosophical Review, 19757, 338-373. [논문 XXVI, 50a-67b]

Frede M., 1987. The unity of general and special metaphysics: Aristotle's Conception of Metaphysics.", In Essays in Ancient Philosophy, ed. Frede M., Caedndon Press, Oxford, 81-95.

Frede M., 1987. Substance in aristotle's metaphysics, In Essays in Ancient Philosophy, ed. Frede M., Oxford: Clarendon Press, 72-80.

Mackinnen D. M., 1965. Aristotle's conception of substance, In New Essays on Plato and Aristotle., ed. Bambrough 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97-119. [IV, 185a-196b].

Lacey A. R., 1965. οὐσία and form in aristotle, Phronesis VOL. X-NO. 1, 54-69. [I, 433-448].

Furth M., 1978. Transtemporal Stability in Aristotelean Substance, In Classical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28-50.

Dancy R., 1978. On some of aristotle's second thoughts about substaces: matter, The Philosophical Review, LXXXVII-NO. 3, In Classical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52-93.

Cohen S., 1984. Aristotle's doctrine of the material substrate, The Philosophical Review, XCIII-NO. 2, In ClassicalPhilosophy, VOL. VI(Aristotle: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95-118.

Sellars W., 1957. Substance and form in aristotle, In Classical Philosophy,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140-151.

Albritten R., 1957. Forms of particular substance in aristotle's Metaphysics, In Classical 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153-162.

Driscoll J. A., 1981. EIDH in aristotle's earlier and later thories of substance, In Classical 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273-303.

Woods M. J., 1975. Substance and essence in aristotle, In Classical 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209-222..

Ferejohn M. T., 1980. Aristotle on focal meaning and the unity of science, Phronesis Vol. 25, NO. 1-2, 117-129. [IX, 117b-182a].

Chen Chung-Hwan, 1957. Aristotle's concept of primary substance in books Z and H of the metaphysics, Phronesis Vol. 2-NO. 1, 46-59. [I, 360-373].

Haring E. S., 1956, Substantial form in aristotle's metaphysics Z (I),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2, 308-332 [논문 XXVI, 70a-81a]

Haring E. S., 1956, Substantial form in aristotle's metaphysics Z (II),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3, 483-501 [논문 XXVI, 84a-93b]

Haring E. S., 1956, Substantial form in aristotle's metaphysics Z (III),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4, 698-713 [논문 XXVI, 94a-101b]

Rapp C., 1996, Substanz als vorrangig seindes (Z 1),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27-40. [책 44-1]

Wedin M. V., 1996, Subjects and substance in metaphysics Z 3,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41-74. [책 44-1]

Wehrle W. E., 1994, Metaphysics Z 3 : An announcement of 'metaphysical' inquiry, Mind, Vol. XXVII, No. 3, 191-224. [논문 XVI, 127b-224a]

Weidemann H., 1996, Zum begriff des $\tau\iota\ \eta\nu\ \epsilon\iota\psi\alpha\iota$ und zum verständnis von Met. Z 4, 1029b22-1030a6,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75-104.

Sonderegger E. (1983). Die bildung des ausdrucks $\tau\omicron\ \tau\acute{\iota}\ \eta\nu\ \epsilon\iota\psi\alpha\iota$ durch aristoteles, In Das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hrsg.) von Karl-Heinz Ilting, Berlin: Walter de Gruyter, ss.18-39.

Buchheim T., 1996, Genesis und substantielles Sein. Die analytik des werdens in Z 7-9,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105-132.

Mesch W., 1996, Die teile der definition (Z 10-11),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135-256.

Burger R., 1987, Is each thing the same as its essence?: On metaphysics Z. 6-11,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LI, No. 1, 53-76. [논문 XXVII, 179b-191a]

Rapp C., 1996, 'Kein allgemeines ist substanz' (Z 13, 14-16),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157-192.

Morrison D., 1996, Substance as cause (Z 17),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193-208.

Gill M. L., 1996, "Metaphysics H 1-5 on perceptible substances.",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209-228.

Steinfath H., 1996, Die Einheit der definition und die einheit der substanz: Zum Verhältniss von Z 12 und H 6,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229-252.

Berti E., 1996, "Der Begriff der Wirklichkeit in der Metaphysik (Q 6-9 u. a.).", In Metaphysik Die Substanzbücher (Z, H, Q), herausgegeben von Rapp C., Berlin: Akademie Verlag, 289-311.

Loux M. J., 1979, Form, species and predication in metaphysics Z, H, and Q, Mind, Vol, 1-23. [논문 XXVI, 145b-156b]

Moutafakis N. J., 1982, Aristotle's metaphysics (book lambda) and the logic of events., The Monist, Vol. 65, No. 4, 420-536. [논문 XXVI, 172a-179a]

Cousin D. R., 1933, Aristotle's doctrine of substance (I), Mind, Vol. XLII, 317-337, [논문 XXVI, 115b-124b]

Cousin D. R., 1935, Aristotle's doctrine of substance (II), Mind, Vol. XLIV, 167-185, [논문 XXVI, 104a-112b]

Annas J., 1974. Forms and first principle, Phronesis VOL. XIX, 257-283. [IV, 61b-74b].

Walton W., 1952, FR. Owens and the metaphysics of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VI, No. 2, 257-264. [논문 XXVII, 181b-185a]

Hartman E., 1976, Aristotle on the identity of substance and essence, The Philosophical Review, LXXXV, 545-561. [논문 XVII, 202b-210b]

Jones B., 1974, Aristotle's introduction of matter, *The Philosophical Review*, 1974년, 474-500. [논문 XXVII, 212a-224b]

Page C., 1985, Predicating forms of matter in aristotle's metaphysic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X, No. 1, 57-82. [논문 XXVII, 193b-206a]

Cohen S., 1984, Aristotle's doctrine of the material substance,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XCIII, No. 2, 171-194. [논문 XXVI 226b-238a]

Lukasiewicz J., 1971, On the principle of contradiction in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IV, No. 3, 485-509. [논문 XXVI, 240b-252b]

Upton T. V., 1983, Psychological and metaphysical dimemnsions of non-contradiction in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VI, No. 3, 591-606. [논문 XXVII, 230b-238a]

Manley T., 1953, On aristotle's square of oppos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LXII, 251-265. [논문 XXVI, 380b-387b]

Alan Code, 1984. The aporematic approach to primary being in metaphysics Z,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Supplemetary Vol. X; In *Classical Philosophy, VOL. VI(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305-324.

O'Brien D., 1995. Aristotle's theory of movement,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ed. Cleary J. J. and Wians, Vol. XI, Lanham/Newyork/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47-100.

Beaver A. F., 1988, Motion, mobility, and method in Aristotle's Physics : Comments on Physics 2. 1. 192b20-24,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LII, No. 2, 357-374. [논문 XXVII, 271b-280a]

Lang H. S., 1981, Aristotle's immaterial mover and the problem of location in physics VIII,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V, 198112, 321-335. [논문 XXVII, 310b-317b]

Irwin T. H., 1977. Aristotle's discovery of metaphysic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 No. 2, 114-133 [II, 114-133].

Chen Chung-Hwan, 1957. Aristotle's concept of primary substance in Books Z and H of the metaphysics, *Phronesis* VOL. 2-NO. 1, 46-59. [I, 360-373].

Lacey A. R., 1965. *οὐσία* and form in aristotle, *Phronesis* VOL. X-NO. 1, 54-69. [I, 433-448].

Morrison D., The place of unity in aristotle's metaphysical project,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ed. by Cleary J. J. and Wians W., Vol. IX, Lanham, Newyork, and London: Press of America, 1933, 131-156.

Owen G. E. L., 1960. Logic and metaphysics in some earlier work of aristotle,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rth Century, ed. Düring I. and Owen G. E. L., Göter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163-190.

McKirahan R., 1995. Aristotle's metaphysic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sterior analytics, In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ed. Cleary J. J. and Wians, Vol. XI, Lanham/Newyork/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75-306..

3-4-2-4) 존재(은)과 우시아(실체)

3-4-2-4-1) 단행본

박홍규(1995). 박홍규전집1: 희랍 철학 논고. <박홍규전집> 간행위원회(편). 서울: 민음사.

박홍규(1995). 박홍규전집2: 형이상학 강의1. <박홍규전집> 간행위원회(편). 서울: 민음사.

박홍규(2004). 박홍규전집3: 형이상학 강의2. <박홍규전집> 간행위원회(편). 서울: 민음사.

박홍규(2004). 박홍규전집4: 플라톤 후기 철학 강의. <박홍규전집> 간행위원회(편). 서울: 민음사.

조요한(1995). 아리스토텔레스의 哲學. 서울: 경문사.

조요한 외(1988). 希臘哲學研究. 서울: 종로서적.

김완수(1999). 플라톤 철학의 재음미.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김완수 외(2002). 서양 고·중세 철학과 그 유구한 문제들. 서울: 철학과 현실사.

박종현(1982). 희랍 사상의 이해. 서울: 종로서적

박종현(2001). 헬레스 사상의 심층. 서울: 서광사.

소광희 외(1955). 고전 형이상학의 전개. 서울: 철학과 현실사.

이재훈(1985). 플라톤 哲學研究. 서울: 탑 출판사.

Hartmann N. (1965). Platos Logik des Seins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Ricoeur, P. (1968). Platon et Aristote: Etre, Essence et Substance chez Platon et Aristote, Cours profeesé à l'Université de Strasbourg en 1953-1954 (Paris: Centre de Documnetation Universitaire).

Montet D. (1990). Les traits de l'être: Essai sur l'ontologie platonicienne (Grenoble: Jérôme Millon)

Theodorakopulos J. (1927). Platons Dialektik des Seins (Tübingen: Verlag von K.C.B. Mohr).

Vanhouette M. (1956). La Méthode Ontologique de Platon (Paris: Béatrice-Nauwelaerts).

Sayre K.M. (1983). Plato's late Ontology A riddle resolved (Princeton a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almer J.A. (1999). Plato's Reception of Parmenides (Oxford: Clarendon Press).

Krämer H.J. (1959). Arete bei Platon und Aristoteles: Zum Wesen und zur Geschichte der platonischen Ontologie (Heidelberg: Carl Winter · Universitätsverlag).

Vlastos G. (1963). On plato's Oral Doctrine: Review of Hans Joachim Krämer, Arete bei Platon und Aristoteles, Zum Wesen und zur Geschichte der platonischen Ontologie[Heidelberg, 1959], 600pp. In Platonic Stud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p.379-398.

Beierwaltes W. (1980). Identität und Differenz (Frankfurt: Vittorio Klostermann).

Marx, W. (1972). Einführung in Aristotelesä Theorie vom Seinden (Freiburg: Verlag Rombach).

Owen G.E.L. and Düring I. (ed.) (1960).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urth Century (Göte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Vlastos G. (1973). Platonic Stud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unitz M.K. (ed.) (1973). Logic and Ontolog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Sprung M. (ed.) (1995). The Question of Being: East-West Perspectives (Delphi: Sri Satguru Publications).

3-4-2-4-2)논문

박홍규 (1986) (강의). 인식과 존재 : 테아이테토스 편과 소피스트 편. “박홍규전집2: 형이상학 강의 1”, 서울: 민음사. 1995. 176-247쪽.

박홍규 (1987) (강의). 앎의 개념, “박홍규전집1: 형이상학 강의1”, <박홍규전집>간행위원회. 서울: 민음사, 1995, 300-348.

박홍규 · 이태수(1988).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목적인과 운동인. “希臘哲學研究”, 조요환 외. 서울: 종로서적.

김완수 (1988).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나타난 실체개념을 중심으로 본 형이상학의 제 문제. “希臘哲學研究”, 조요환 외. 서울: 종로서적.

조요환(1969). Aristoteles와 形而上學의 문제. “哲學研究”, 4, 59-77.

남경희(1984). 플라톤의 후기 존재론 연구. “哲學研究”, 19, 105-145.

양문흠(1984). 플라톤의 後期 存在論 研究. “哲學研究”, 19, 105-145.

양문흠(1995). 실재하는 것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음. “고전 형이상학의 전개”, 김효명(편). 서울: 철학과현실사.

양호영(2000).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실체와 하나.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창대(1976). 플라톤의 존재에 관한 分析的 考察. “哲學研究”, 11, 25-46.

최정식(1995). 플라톤의 기초존재론 抄. “고전 형이상학의 전개”, 김효명(편). 서울: 철학과현실사.

홍성대(1979). 플라톤의 소피스트 편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노회천(1994).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름과 존재. “汎韓哲學”, 9, 205-240.

최정식 (1995) 플라톤의 기초존재론 抄, “고전 형이상학의 전개”. 김효명 편집, 서울: 철학과현실사, 50-72. [VII, 115-135].

Kahn C. H., 1966, The greek verb 'to be' and the concept of being, in *Foundation of Language* 2, 1966, pp.245-265 : 책90 pp.157-177.

Kahn C. H., 1973. On the accent of ἐστί and its position in the sentence, In *The Verb 'Be' and its Synonym : (6) The Verb 'Be' in Ancient Greek*, Kahn C. H., D. Dordercht-Holland/Boston: Reidel Publishing Company, 420-434.

Kahn C. H., 1973. The nominalized forms of the verb : τό ὄν and οὐσία, In *The Verb 'Be' and its Synonym : (6) The Verb 'Be' in Ancient Greek*, Kahn C. H., D. Dordercht-Holland/Boston: Reidel Publishing Company, 453-462.

Kahn C. H., 1973. On the theory of the verb 'to be', In *Logic and Ontology*, ed. Munitz M. K.,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20.

Bach Emmon., 1967. Have and be in english syntax., *Language: Journal of the Linguistics society of America*, Vol. 43-NO. 1, 462-485. [V, 48-71].

Kahn C. H., 1981. Some philosophical uses of 'to be' in plato, *Phronesis* Vol. XXVI-NO. 2, 105-407. [I, 378-134]. [I, 458-460 : Review]

Beierwaltes W., 1978. Nicht-sein i s t: idintät und differenz als elemente platonischer dialektik, In *Identität und Differena*, hrsg. Beierwaltes W., Frnakfrut am Main: Vittorion Klostermann, 9-23.

Moravcsik J. (1992). Platonism in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and general ontology, In *Plato and Platonism* ed. Barnes J., Oxford & Cambridge: Blackwell, 253-290.

Vlastos G., 1965. Degree of reality in plato, *New Essays in Plato and Aristotle* ed. Baumbrough 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58-75.

Vlastos G., 1973. Plato on knowledge and reality,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74-378..

Vlastos G., 1966. A metaphysical paradox, Proceedings and Address of the Amer. Philos. Association 39, 5-19;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43-57.

Code A. D., 1993. Vlastos on a metaphysical paradox, In *Virtue, Love & Form* ed. Irwin T. Edmonton: Academic Printing & Publishing, 85-98.

Allen D. J., 1960. Aristotle and Parmenides,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rth Century*, ed. Düring I. and Owen G. E. L., Göte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133-144.

Owen G. E. L., (1986). Aristotle on the snares of ontology, In *Logic, Science, and Dialectic* ed. by Nussbaum 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59-278.

Grice P., 1988. Aristotle on the multiplicity of being,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69, 175-200; In *Classical Philosophy, VI (Aristotle : Substance, Form and Matter)*,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995, 1-26.

Hintikka J., 1986. The varieties of being in Aristotle, In *The Logic of Being: Historical Studies*, ed. D. Knuuttila S. and Hintikka J. Dordrecht/Boston/Lancaster/Tokyo: Reidel Publishing Company, , 81-114. [IX, 155b-114a].

Dancy R. M., 1983. Aristotle and existence, *Synthese* 54, 409-442; In *The Logic of Being: Historical Studies*, ed. D. Knuuttila S. and Hintikka J. Dordrecht/Boston/Lancaster/Tokyo: Reidel Publishing Company, 1986, 49-80. [IX, 139a-155a].

White N. P., 1971. Aristotle on sameness and oneness, *Philosophical Review* 89, In *Classical Philosophy, VII (Aristotle : Metaphysics, epistemology, natural Philosophy)*,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rand Publishing Inc, 135-155.

Barnes K. T., 1977. Aristotle on identity and its problems, *Phronesis* Vol. XXII-NO. 1, 48-62. [IV, 246a-253a].

Lewis F. K., 1982. Accidental Sameness in Aristotle, *Philosophica Studies* 42, In *Classical Philosophy, VII (Aristotle : Metaphysics, epistemology, natural Philosophy)*, ed. Irwin, T., Grand Publishing Inc., New York & London, 157-192..

Vlastos G., 1973. The 'two-level paradoxes' in Aristotle., In *Platonic Studies* ed. Vlastos G.,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323-334.

Gómez-Lobo A., 1980. The so called question of existence in Aristotle, *An. Post.* 2. 1-2,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V, No. 1, 71-99 [II, 93-111].

Aiken D. W., 1991. Essence and existence, transcendentalism and phenomenism : Aristotle's

answers to the questions of ontolog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LV, No. 1, 29-55 [II, 65-91].

White N. P., 1972, *Origins of aristotle's essentialism*,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VI, No. 1, 57-85. [논문 XXVII, 212~1b-217b]

Cohen S. M., 1978, *Essentialism in aristot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XXI, No. 3, 387-405. [논문 XXVII, 219b-228b]

Bolton R., 1976, *Essentialism and semantic theory in aristotle*, *The Philosophical Review*, LXXXV, 514-544. [논문 XVI, 187a-202a]

Owens J., 1973. *Being in early western tradition*, In *The Question of Being : East-West Perspective*, ed. sprung M., Delhi: Sri Satguru Publications, 17-30.

Kahn C. H., 1973. *Linguistics relativism and the greek project of ontology*, In *The Question of Being : East-West Perspective*, ed. sprung M., Delhi: Sri Satguru Publications, , 31-44.

Matthen M., 1983. *Greek ontology and the 'is' of truth*, *Phronesis* Vol. 28-NO. 2, 113-135. [I, 409-135].

Owens J., 1973. *The Content of existence*, In *Logic and Ontology*, ed. Munitz M. K.,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1-35.

Allaire E., *Existence, independence, and universals*, 485-496, [논문 XIV, 247b-253a]

Menne A., 1982, *Concerning the logical analysis of 'existence'*, *The Monist*, Vol. 65, No 4, 415-419. [논문 XXVI, 169a-171b]

Miller B., 1986, *Exist and existenc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L, No. 2, 237-270. [논문 XXVII, 341b-34ba]

Nakhnikian G. and Salmon W. C., 1957, *'Exist' as Predicate*, *The Philosophical Review*, 1957 10, 535-542. [논문 XXVI, 496b-500a]

Mei Tsu-Lin, 1961, *Subject and predicate, a grammatical preliminary*,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LXX, 153-175. [논문 XXVI, 398b-409b]

Lindbeck G., 1957, *Philosophy and existenz in early christianit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3, 428-440. [논문 XXVI, 410a-417]

Smart R. N., 1956, *Being and the bible*,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IX, No. 4, 589-608. [논문 XXVII, 330b-]

Feibleman J. K., 1953, *History of dyadic ontolog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VI, No. 3,

351-367. [논문 XXVI, 437b-446a]

Barber R. L., 1953, Being and possibility: A Repl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VI, No. 4, 605-616. [논문 XXVI, 449b-616a]

Klubert G. P., 1957, The problem of the analogy of being,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X, No. 4, 553-579. [논문 XXVI, 456b-469b]

Laycok H, 1972, Some question of ontology, The Philosophical Review, 3-42. [논문 XXVI, 502b-522a]

Nicholas R., 1959, On the logic of existence and denota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LXVIII, 157-180. [논리 XXVI, 525b-537a]

De Vogel C. J., 1960. The legend of the platonizing aristotle,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rth Century, ed. Düring I. and Owen G. E. L., Göter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248-25

Driscoll J., 1979. The platonic ancestry of primary substance, Phronesis Vol. XXIV-NO. 3, 253-269. [IV, 213a-221b].

Fine G. (1983). Plato and aristotle on form and substance,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logical Society 209, pp. 23-47; In Plato's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Vol 4, ed. Irwin T. New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5, pp.235-259.

Chen Chung-Hwan, 1975. Aristotle's analysis of change and plato's Theory of Transcendent Ideas.", Phronesis VOL. XX-NO. 2, 129-145. [IV, 291b-299b].

Solmsen F., 1960. Platonic influences in the formation of Aristotle's physical system,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rth Century, ed. Düring I. and Owen G. E. L., Göterborg: Elanders Boktryckeri Aktiebolag, 213-235.

De Vogel C. J., 1968. Aristotle's attitude to plato and the theory of Ides, According to the Topics.", In Aristotle on Dialectic : The Topics, ed. Owen G. E. L., Oxford: The Clarendon Press, , 91-102.

Elders L., 1968. The Topics and the Platonic Theory of Principles of Being, In Aristotle on Dialectic : The Topics, ed. Owen G. E. L., Oxford: The Clarendon Press, 126-137.

3-4-2-5)기타

3-4-2-5-1)단행본

Ross, W.D. (1953). Plato's Theory of Ideas (Oxford: The Clarendon Press).

- Ross, W.D. (1923). Aristotle (London: Methuen & CO. LTD.).
- Guthrie W.K.C. (1978). A History of Greek Philosophy vols 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ntano F. (1986). Über Aristoteles. Herausgegeben von Rolf George (Hamburg: Felix Meiner Verlag).
- Düring, I. (1966). Aristoteles (Heidelberg: Carl Winter · Universitätsverlag).
- Demetra Sfondoni-Mentzou. (2002). Aristotle and Contemporary Science (Newyork: Peter Lang Publishing, Inc.).
- Owen G.E.L. (1986). Logic, Science, and Dialectic (Ihtaca and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Larkin S.M.T. (1971). Language in The Philosophy of Aristotle (Paris · The Hague: Mouton).
- Sorabji R. (1980). Necessity, Cause, and Blame: Perspectives on Aristotle's Theory (Ithaca and 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Wittgenstein L. (1958). The Blue and Brown Books (New York: Basil Blackwell).

3-4-2-5-2)논문

(3-5)우시아로 존재 환원

3-5-1)단행본

- Essler*, W.K. (1970). Wissenschaftstheorie 1: Definition und Reduktion.
- Kneale W. and Kneale M. (1978). The Development of Logic, with corrections (Oxford: Clarendon Press). pp.77-81.
- Lukasiewicz, J. (1998). Aristotle's Syllogistic: From the Standpoint of Modern Formal Logic second edition enlarged (Oxford: The Clarendon Press). pp.111-120.
- Byrne P.H. (1997). Analysis and Science in Aristotl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onevac D.A. (1982). Reduction in the Abstract Sciences. (Indianapolis: Regeview Publishing Company).
- Charles D. and Lennon K. (ed.) (1998). Reduction, Explanation, and Realism. (Oxford: Clarendon Press).
- Brenner W.H. (1993). Logic and Philosophy. (Notredame and London: University of Notredam

Press).

Ritter J. und Gründer K. (hrsg.) (1992).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and 8 (Basel: Schwabe & Co Ag · Verlag). s.v. 'Reduction', ss.370-383.

Yoshida R.M. (1997). Reduction in the Physical Sciences. (Dalhousie University Press).

Hudlicky M. (1986). Reduction in Organic Chemistry. (Newyork: Ellis Horwood Limited).

Hoyningen-Huene P. (1989). Reductionism and Systems Theory un the life Sciences.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3-5-2) 논문 및 기타

박홍규 (1979) (강의). 파르메니데스 편 강의, “박홍규 전집 4: 플라톤 후기 철학 강의”, 서울: 민음사. 172-198쪽.

Meyer S.S. (1992). Aristotle, teleology, and reduction, In Classical Philosophy ed. Irwin T.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5. pp.81-115.

3-6) 인덱스와 사전

Brandwood L. (1976). A world Index to Plato (Leeds: W.S.Maney & son Limited).

Édouard des Places (1989). Lexique, Platon Oeuvers Complètes tome xiv (Paris: Les Belles Lettres).

Bonitz H. (1961). Index Aristotelicus, Aristotelis Opera Volumen Quintum (ed.) Academia Regia Borussica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Ritter J. (hrsg.) (1961-2001).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ände 1-11 (Basel: Schwabe & Co Ag · Verlag).

Friedrich G. (ed.) (1971).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s 9 (Michigan: WM. G. Eerdmans Publishing Company).

Peters F.E. (1967). Greek Philosophical Terms: A Historical Lexic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